책을 내면서

외국중편소설집 《류호란》에는 중국중편소설들인 《꼬마병사의 발자욱》과 《류호란》이 들어있다.

중편소설 《꼬마병사의 발자욱》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항일혁명에 참가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고향을 해방하고 부모의 원쑤를 갚기 위해 용감히 싸워나가는 신사군 꼬마병사의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을 형상하고있다.

나이상 제한성으로 하여 군대의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투정으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 엉뚱한 행동으로 대오앞에 뜻밖의 정황을 조성하기도 하는 주인공이지만 원쑤에 대한 높은 적개심과 발랄한 성격, 남다른 총명과 기지로 하여 중대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전장의 포연탄우를 헤치고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날을 따라 용감하고 슬기로운 병사로 성장해간다.

하여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당당한 혁명대오의 한 성원으로 원쑤를 격멸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길에 성스러운 자욱을 찍어나간다.

중편소설 《류호란》은 중국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도 널리 알려진 중국의 소녀애국렬사 류호란의 투쟁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극빈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난 류호란은 유년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사물현상에 대한 감수와 판단이 빠르고 특히는 원쑤들의 착취와 압박, 전횡을 직접 목격하고 당하면서 계급적눈이 빨리 터간다.

하여 10살을 갓 넘어서자 벌써 혁명운동에 참가한다. 당시는 항일의 거세찬 불길이 전국을 휩쓸던 때여서 이에 대한 일제와 장개석군벌의 탄압이 혹심하였다.

이런 속에서 류호란의 정치사상적성장은 더욱 빨라져 그는 아직 어린 소녀의 몸이지만 지구부녀회 회장의 중임을 맡게 되며 부녀회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 모주석이 이끄는 혁명대오에 대한 원호사업 등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간다. 그리하여 10대 중엽나이에 중국공산당 당원의 영예를 지닌다.

불의에 달려든 원쑤들에게 체포된 그는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으며 끝내 놈들의 악착한 살인만행에 의하여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다.

작품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항일혁명과 국내전쟁시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중국의 나어린 용사들과 렬사들의 투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편 집 부

차 례

중편소설

꼬마병사의 발자욱

1. 영창처벌

우리 중대에서는 나를 《차돌》이라고 불렀고 다른 중대사람들은 《꼬마》라고 불렀다. 처음에 나는 기분이 없었다. 나에게도 이름석자가 있는데 왜 한사코 별명을 부른담? 이름을 똑똑히 모르면 《꼬마동무》라고도 찾을수 있지 않는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수이 여기는것 같아 나는 《꼬마》라고 부르면 대답은커녕 얼굴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서 점차 이 부름에 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있음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이 별명들이 싫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여, 꼬마》 또는 《차돌이》라고 찾으면 《예!》하고 쾌히 대답하고 달려가군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정다운 부름소리들을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되였다.

내가 갇혀있는 창고문앞으로 자주 중대군인들이 발자욱소리를 다급히 울리며 지나갔고 그들의 뒤를 따라 달음박질하는 아이들의 발자욱소리들도 들리군 하였다. 요즈음 정세가 몹시 긴장해지고있음을 나도 잘 알고있었다.

양주에 둥지를 튼 왜놈들과 국민당군벌두목 한덕근놈은 서로 결탁하여 우리 신사군을 소탕하려 덤벼들었다가 호되게 얻어맞고는 이를 북북 갈며 다시금 쳐들어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있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창고에서 뛰쳐나가 지나가는 병사를 붙잡고 근거지에 어떤 정황이 발생했으며 또 무슨 명령이 내려왔는가 자세히 묻고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는 처지였다. 길이는 스무발자욱도 안되고 너비는 여섯발자욱도 되나마나한 이 어둑시근한 창고에 갇혀서 나는 그 누구와도 말해서는 안되였고 사흘동안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였다. 바로 남도 아닌 친형님이 이 동생을 가차없이 여기에 가두어놓았다. 그리고 자기앞에서는 무조건 《형님》이 아니라 《중대장동지!》라고 부르라고 엄포를 쾅 놓았다. 눈을 뚝 부릅뜨고 당장 나를 가두어넣으라고 매몰차게 명령할 때 도무지 피를 함께 나눈 혈육이 아니라 생판 남남인것처럼 느껴져 나는 몹시 서운하고 분했다. 더우기 우리 형님은 중대장으로 임명되여서부터 지금까지 한명도 감금처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내가 처음으로, 그것도 입대하여 넉달도 못되는 신입병사가 이런 중벌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분한 일인가.

더우기 머리를 들수 없는것은 여기 마을사람들 거의 모두가 나를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중대가 온 마을의 환대를 뜨겁게 받고있는 시기에 나만은 외롭게 허청간안에 누워서 천정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어야 했다. 나를 찾아오는것은 다만 문짬과 흙벽틈사이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오는 해빛뿐이였다. 원래는 우리 소대 왕소대장이 《소강이를 3분대가 류숙하고있는 진아바이집에 3일동안 감금하겠습니다.》라고 제기한것을 《아니, 그런 식으로 어루만져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몇달동안 모두가 소강이의 어리광을 받아주며 무원칙하게 대해주어 저렇게 교만하고 밸통이 사나와졌단 말입니다. 이제 혼을 내주지 않으면 더 큰 과오를 범할수 있습니다.》라고 형님이 단마디로 뚝 잘라버렸다.

어리광을 받아주었다구? 나에게 롱을 걸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엉치를 발로 툭 차는것이 그래 어리광을 받아준것이란 말인가?

《그럼 어디에 가두잡니까?》

《중대부엽에 땔나무 쌓아두는 창고가 있지요? 거기에 가두어넣읍시다.》

지금도 그때 형님의 입에서 총알처럼 튀여나오던 말들이 금방 들은듯이 귀에 쟁쟁하다.

(흥, 차라리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여기에 혼자 있는게 더 잘됐어. 사흘이 아니라 닷새, 열흘이래도 있으라면

있을테다. 혼자 있으니 자고싶으면 자고 불평도 부릴수 있고… 반성을 하든 안하든 그건 내 마음대로이거든. 어쨌든 날 여기에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겠지.)

심사가 뒤틀린 나는 보리짚더미우에 벌렁 드러누웠다.

사실 감금이란게 문은 걸지도 않았고 문밖에는 보초도 없었다.

나를 꽁꽁 묶어놓거나 들보에 둥둥 매달아놓지도 않았다. 그러나 신사군에서는 이 감금처벌이 총살다음가는 엄중한 형벌로서 대렬앞에서 비판 몇마디 듣고 경고를 받는것과는 비길바가 못되였다.

받은 비판은 고치면 며칠이 지나서 자연히 잊어버리여 다른 중대사람들은 알지 못하거니와 설사 알았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상이였으나 이 감금처벌만은 사람들이 말밥에 올려 두고두고 외울것이다.

속담에 《좋은 소문은 집앞에서 맴돌고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이제 며칠 안있어 《허 참, 소강이가 영창처벌을 받았다는구만!》하고 온 련대가 다들 알게 될것이다.

《소강이가 벌을 받았다누만. 무기를 회수당하고 감방에 며칠이나 갇혀있다더군.》

(아! 난 이제 어떻게 사람들앞에 나선담!)

나는 구석에 쌓여진 보리짚더미에 얼굴을 박고 실컷 울고싶었다. 차라리 이 창고에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싶은 심정이였다.

사실 중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자고 했던것이 이렇게까지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억울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이다지 지독한 벌은 아버지에게서도 어머니에게서도 또 엄한 삼촌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다.

저절로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쑥 나왔다.

그러나 외벽을 사이에 두고 옆에 있는 중대부에서 울음소리를 들을가봐 나는 두팔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매자락은 인차 눈물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이때 문밖에서 발자욱소리가 투덕거리더니 뒤이어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들어온 사람의 거쿨진 체구만 어슴푸레 느껴질뿐 얼굴이 보이지 않아 눈길을 가다듬고 뚫어지게 바라보니 림시분대장 장일광동지였다. 오분대장이 희생된 후 그가 림시로 분대를 맡아보고있었다.

나는 발끈하여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 아예 몸까지도 벽으로 돌리고말았다. 내 손에서 수류탄과 손때묻은 기병총을 회수한 사람이 바로 그였던것이다.

장동지는 내가 성이 난것을 보지 못했는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차돌아, 네 짐과 이불을 가져왔어!》

나는 여전히 잔등을 돌려댔다.

오분대장과 달리 개방적이고 활달한 장동지는 히죽히죽 웃으며 나를 위안하려 들었다.

《일없다니까. 3일이 오래지는 않아! 아 눈깜박할사이에 지나간다니까. 자기반성만 잘한다면야 이틀만에 나올수도 있지. 암, 그렇지 않구. 자, 무어가 더 요구되는지 어서 말해봐라. 그럼 내 당장 가서 가져오지!》

그는 이렇게 웃음절반 섞으며 말하고나서 팔소매를 걷

어붙이고 창고에 있는 강냉이대들을 가져다가 잠간사이에 장방형의 침대를 만들어놓았다.

그우에 보리짚을 두툼하게 깔아놓고 분대에서 가지고 온 벼짚도 덧깔아놓고는 자기가 직접 올라가 시험삼아 누워보기까지 했다.

《차돌이, 화가 복이 된 셈이야. 지주놈의 침대도 이것보다는 못할걸. 눕기만 하면 아침까지 내처 뜨스하게 잘수 있을게다. 이렇게 3일밤만 자면 적어도 세근은 더 몸나겠는데!》

나를 웃기려고 그는 별의별 말을 다했으나 나는 여전히 입을 비쭉 내밀고있었다. 나중에 장동지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혼자 있기가 답답하며는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좀 나을게다. 이제 짬이 있으면 널 보러 또 오겠다!》

노래? 노래라면 남에게 뒤지고싶지 않은 나였다.

《신사군군가》, 《공산당을 따르자》 그리고 또 《하늘에는 별찌가 있구요, 땅우에는 한덕근이 있다네》, 《장검으로 원쑤의 대갈통을 찍어버리자》 등 아는 노래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부르고싶은 마음이 없었다.

만일 중대장이 들으며는 《교만》하다느니, 《밸이 아직 살았다.》느니 하면서 된꾸중을 할것이 아닌가.

장분대장이 가버리자 나는 새로 생긴 푹신푹신한 침대에 올라가 덜렁 누웠다. 그리고 낮잠을 청하는데 우리 분대사람들이 한명씩 나를 보러 찾아왔다. 어떤 동지는 나를 향해 얼굴을 우습강스럽게 찡그려보였고 어떤 동지는 나와 어깨나란히 침대우에 걸터앉아 여러가지 새 소식들을 알려주었다. 또 어떤 동지는 삶은 닭알이

며 짜배기같은 간식들을 가지고와서 내곁에 놓고 갔다.
나는 이것이 분대장동지가 조직한 일임을 눈치챘다. 내가 홀로 적적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듯 속깊이 왼심을 써주는 고마운 분대장동지에게 버릇없이 굴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 분대뿐아니라 다른 분대에서도 나를 찾아왔다. 소대는 물론이고 온 중대가 나를 알고있었고 나와 친하지 않은 병사들이 없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러나 약속이나 한듯이 그들은 문앞에 서서 나에게 몇마디 위안의 말을 늘어놓을뿐 감히 들어올념을 안했다. 듣자니까 형님이 《3분대 대원들외에 다른 사람들은 일체 들어가지 말것!》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찌 명령을 어길수 있으랴!
《여, 꼬마, 배고프지 않아?》
나를 찾아오는 면회자들중 대부분이 먼저 이것부터 물어보았다.
어찌 배고플리 있으랴! 세끼 식사를 꼭꼭 날라다주고 매끼 밥량도 전에보다 더 많았다. 또 간식까지 가져다주는데 하루종일 구석에 붙박혀있는 내가 배고플리 만무하다.
모두가 이렇게 나를 념려해주는데 오직 고충동지만이 나를 쌀쌀하게 대하고있었다. 그래 나 역시 그를 따르지 않았다. 내 잘못으로 우리들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였다는것을 나도 잘 알고있었다. 시작은 오분대장의 보물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고충동지는 희생된 오분대장과 막역한 사이였다.
오분대장은 배낭속에 항상 안해가 만들어준 신발을 보물처럼 가지고다니며 쉴참이면 즐겨 꺼내보군 하였다.

신고있는 신발바닥이 해져서 발바닥이 드러났어도 그 신발만은 아까와서 그냥 등에 지고다녔다.

어느날 나는 강행군길에서 그만 부주의로 신발 한짝을 잃어버리게 되였다.

돌부리에 걸채여서 피가 줄줄 흐르는 내 발가락을 보게 된 분대장동지는 배낭아구리를 열고 《보물》을 꺼내여 내 손에 쥐여주었다.

《소강이, 어서 신어라!》

그 멋진 신발을 받아든 나는 코끝이 찡해져와 선뜻 신을 엄두를 못냈다. 그러자 분대장동지는 강다짐으로 내 발에 신겨주고 신발앞코숭이를 꾹꾹 눌러보았다. 그리고는 신발이 큰것을 보고 걸을 때 발에서 벗겨지지 않게 끈을 달아주었다. 그후부터는 매일이다싶이 내 발을 보며 묻군 하였다.

《소강이, 걷기 불편하지 않아?》

그때 그 물음속에 슴배인 깊은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는 그저 일없다고만 쉽게 대답하군 하였다.

어느날 내가 5중대의 전사들과 어울려 휴식을 할 때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구대원이 탐내는 눈길로 내 신발을 보며 물었다.

《여, 꼬마, 그 발을 보니 마치 매생이를 신은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행군할수 있겠어? 어때? 나와 바꾸지 않겠어?》

말을 마치기 바쁘게 자그마한 신발을 꺼내 무작정 내 가슴에 안겨주었다. 나 역시 발을 꽉 동여맸던 신발끈을 풀어버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훌 맞바꾸었다. 그리고는 분대에 돌아오자바람으로 어서 보란듯이 분대장동지에게 발

을 높이 들어보이며 자랑했다.

《분대장동지! 어떻습니까? 발에 꼭 맞지요?》

분대장동지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입가에 어설픈 웃음을 지었다.

《응, 괜찮구나!》

그런데 이때 내결에 있던 고충동지가 내 팔을 꽉 잡고 다짜고짜로 풀더미곁으로 끌고갔다.

《차돌아, 정말 네 머리도 별명처럼 딴딴하구나. 어쩌면 그렇게도 철이 없니?》

무턱대고 욕하니 나도 지고싶지 않았다.

《왜 남의 일에 삐치는거예요. 그까짓 신발 한컬레가 뭘 그다지 큰거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더러 신발 두컬레를 만들어달래서 한컬레는 분대장동지께 드리고 다른 컬레는 고충동지께 드릴테니 걱정마십시오.》

사실 그때 나는 지난번 수염사건때문에 노발대발했던 고충아저씨가 이번에 신발을 가지고 트집잡아서 나를 단단히 혼쌀내려 한다고 잘못 생각했었다. 수염사건이라는것은 온 중대에 털보로 소문이 난 고충아저씨의 구레나룻을 잡아당겨 그를 깊은 잠에서 깨웠던 일을 두고 말하는것이다.

그날 죽은듯이 굳잠에 들어 도무지 깨여나지 못하기에 내가 반짝수를 써서 그의 턱수염을 힘껏 잡아당겼었는데 와뜰 놀라 비명을 지르며 벌떡 뛰여일어나서는 두눈을 뚜부럭거리는 모양을 보고 온 소대가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그때도 그는 나에게 철이 없다고 욕을 퍼부었다. 어떤 꾸중도 다 참고들을수 있었지만 오직 철없다는 이 말만은 죽어도 듣기 싫었다.

이렇게 중대적으로 다만 고충동지만이 나를 흘겨보고있었으니 나 역시 그를 보면 머리를 돌리고 대상하려고 안했다.

그런데 밉살쟁이 고충동지가 처벌받은 나를 찾아온것은 전혀 뜻밖이였다.

그는 문밖에 서서 머리를 기웃이 안으로 들이밀고는 나와 눈길을 맞추었다.

《여, 차돌이.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는 후회해야 소용이 없어. 중요한건 자기를 깊이 돌이켜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거야.》

이 말을 듣자 나는 철부지애숭이로 취급당하던 그 신발사건이며 수염사건이 떠올라 픽 앵돌아졌다.

오늘도 나를 두고 철이 없다고 꾸짖으려 온것이 아닌가!

그는 대답 한마디 안하는 나를 보고는 더 다른 말이 없이 한숨을 남기고 돌아가버렸다. 뒤이어 마을의 늙은이들이 두세명씩 찾아와 문밖에서 웅성웅성거리였다.

《이렇게 어린 소강이를 큰 죄인처럼 가두어놓는담!》

《소강이를 가둔 중대장이 바로 소강이의 친형님이래요. 정말 동생에 대한 정이 꼬물만큼도 없는가부지.》

이들이 나를 동정할수록 오히려 나는 반발심이 생겼다. 신사군군인으로서 나는 중대규률을 놓고 백성들이 제나름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더우기 우리 형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도리여 형님을 심장이 뜨겁지 않은 목석같은 인간이라고 눈먼 욕을 하는것이 내가 벌을 받는것보다 죽기내기로 싫었다. 그래서 나는 침대우에 벌떡 올라서서 그들을 향해 또박또박 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들, 나는 응당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해요. 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제일 창피스러운것은 마을아이들이 창고에 갇힌 나를 구경하겠다고 패를 지어 밀려오는 것이였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학생 진지고가 오는것이 제일 보기 싫었다.

내가 창고에 갇히운 첫날에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코흘리개들이 연줄연줄 찾아와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소리쳤다.

《얘 차돌아, 나 좀 보자!》

나는 짐짓 자는척 하면서 실컷 저희들끼리 떠들라고 내버려두었다.

문밖에서 두명의 계집애들이 해해거리며 속살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돌오빤 여기에 있는게 오히려 더 좋은것 같애. 밥도 배불리 먹고 잠도 실컷 자니까 얼마나 편안할가? 나도 이런데 갇히면 좋겠다얘.》

《그럼 들어가려무나. 들어가서 차돌이오빠 말동무가 되여주렴.》

둘이서 키득키득거리며 서로 밀고당기는 싱갱이질이 벌어지는지 밖이 별스레 소란스러워지는가싶더니 문이 벌커덕 열리며 두 처녀애가 모두 문턱에 걸려 안으로 엎어졌다. 그러자 곁에서 구경하던 사내애들이 일시에 와―하고 웃음을 터치였다.

《그럼 너희 둘 같이 차돌이 시중을 들려무나.》

그러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나는 괄랭

이처녀애들을 보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벌컥 화를 내였다.
《나가라, 나가. 당장 썩 나가!》
이때 어디로 새여들어왔는지 진지고가 내 눈앞에 솟아나듯이 나타났다. 나는 그와의 첫 대면에서부터 단정히 탄 가리마며 살색이 하얀 얼굴이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처녀애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치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쭐거리듯이 내앞에 다가와서 낯선 사람이나 만난듯 빤히 마주보는것이였다.
내가 그를 알게 된것은 우리 부대가 이 마을에 들어선 첫날부터였다.
지고는 다른 전사들은 몹시 존경하고 어렵게 대하였지만 나에게만은 웬걸, 별명을 탕탕 부르며 접어들었다. 더우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르듯이 그는 별명뒤에 《아—》까지 붙여 길게 끌면서 나의 신경을 톡톡 건드리군 하였다. 귀에 여간만 거슬리지 않았던 나는 벼르고벼르다가 어느날 그자리에서 면박을 주었다.
《여,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불러라. 이름을 모르면 그냥 동지라고 해도 돼.》
그러자 지고는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까부는 태도로 물었다.
《동지, 성함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는 제법 지식인냄새를 피우려는 글방샌님이 가소롭게 여겨져 우정 목소리를 굵게 내며 말했다.
《석소강이라고 부르신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소강동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나는 랭랭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가 두눈을 잔조롬하게 뜨고서 물어보는것이였다.

《그래 동지는 내 이름을 알고싶지 않습니까?》

《대주려고도 안하는 이름 알고싶지 않아.》

《예—에, 그럼 알려드리지요. 난 진지고라고 부릅니다. 뜻 지에 높을 고.》

그는 나를 문맹자로 보았던지 자기 이름을 글자마다 설명하려고 들었다.

기분이 싹 잡쳐진 나는 툭 내쏘았다.

《헹, 뜻이 높은게 아니라 코대가 높구나.》

그때 일이 생각나 나는 저도모르게 이마살을 찌프렸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지고의 눈빛을 보니 분명히 나를 놀리려드는 장난기가 가득 찼다.

지고의 뒤를 따라서 동네애들이 한명한명 조심스레 들어오기 시작했다.

《진지고, 당장 나가. 중대장동지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돼!》

진지고는 나보다 키가 반뼘정도 더 컸고 몸집도 더 실했으며 얼굴혈색도 더 불깃불깃했다.

그래서 몰래 알아보니 나보다 한살 더 우였다. 지고도 이것을 알았기때문에 나를 깔보는것인지도 모른다.

지고는 내 말쯤은 귀등으로 듣는다는듯이 씩 웃으며 서당선생님처럼 뒤짐을 지고 내앞으로 스적스적 다가왔다.

《이건 우리 집 땔나무창고야. 그런데 누가 누굴보고 나

가라 들어오라 호통치는거야.》
말문이 막히는 바람에 나는 약이 바짝 올랐다.
《그럼 빨리 땔나무를 가지고 나가라.》
나는 퉁명스레 말하며 깔아놓았던 이부자리들을 걷어모았다.
그러자 지고는 내 팔을 덥석 붙잡고 사정하듯 말하는것이였다.
《소강아, 난 빨리 오분대장아저씨를 만나야 하겠는데 왜 보이지 않니?》
지고는 내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으니 우리 분대장동지에게 도꼬마리처럼 매달려 묻어다녔었다.
아는것이 많았고 학식도 깊었던 오분대장동지는 평시에 입이 무겁고 사람됨이 친절하여 누구에게서나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 지고가 나보다도 분대장동지를 더욱 따르는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였다.
그의 입에서 튀여나온 《분대장》이라는 한마디말이 예리한 날창끝이 되여 나의 가슴을 들이찔렀다.
《분대장동진 희…희생되였어.》
《뭐라구? 그게 정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희생되였어?》
그의 마지막말은 이미 슬픔에 젖어있었다.
사실상 이것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물음이였다. 바로 나때문에 우리 분대장동지가 목숨을 잃었기때문이였다. 나 역시 가슴을 에이는듯한 슬픔에 눈물이 진하게 흘러나왔다.
《그날은 우리가 백룡사를 습격한 날이였어.…》

2. 백룡사습격전

양주성부근에 있는 백룡사에는 왜놈들이 틀고앉아 우리 부대를 해칠 기회만 집요하게 노리고있었다. 따라서 우리 부대에서는 먼저 선손을 써서 놈들에게 된매를 안기기로 결정하였다.

백룡사의 뒤에는 놈들의 아성인 양주성이 있었고 남쪽과 북쪽에도 수백의 왜놈들과 국민당놈들이 둥지틀고있었으니 그 모양을 보면 마치 활처럼 생기였다. 기세등등한 놈들은 낮이면 마을들에 나가 눈에 달이 떠서 쏘다니며 깡그리 로략질하였고 저녁이면 백룡사에 돌아와 방탕하게 놀아댔다.

놈들에게는 백룡사가 제놈들을 철통같이 보호해주는 안식처로 여겨진것 같았다.

련대지휘부에서는 심중한 토의끝에 백룡사습격임무를 우리 4중대와 6중대에 주기로 결정했다.

이 소문이 들려오자 나는 흥분되여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세차게 높뛰는 심장은 금시라도 가슴밖으로 툭 튀여나올것만 같았다.

신사군에 입대하여 이때까지 진짜 싸움 한번 못해본 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습격전에 꼭 참가하고싶었다. 더우기 나는 이전날의 중대통신원이 아니라 정식 1소대 3분대의 당당한 전투원으로 되였으니 응당 참가할 자격이 있는것이다. 오분대장동지의 방조밑에 이제는 나도 수

류탄을 25메터나마 던질수 있게 되였고 기병총도 괜찮게 다룰수 있었다.

다만 힘이 아직은 약하다나니 육박전에서는 자신이 없었으나 그까짓 번개같이 뛰여들어 총을 빼앗고 포로를 잡는것쯤이야 글방샌님인 진지고도 할수 있는건데 하물며 군대라는 내가 못할가?

그러나 3분대장동지는 형님과 뒤에서 짜고 이번 전투에서 나를 빼놓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꾸미였다. 정치지도원동지도 역시 그들의 편이였다.

그날 저녁 중대의 출발을 앞두고 분대장동지가 급히 달려와 나에게 말했다.

《소강이, 한가지 중요한 임무를 동무에게 주겠소.》

나는 너무 기뻐 껑충 뛰여일어났다.

《무슨 임무입니까?》

나는 틀림없이 내가 바라마지않던 정찰임무를 줄것이라고 짐작을 했던것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편지가 있소. 빨리 련대부에 가져다주고 거기서 다음 지시를 받으시오!》

나는 즉시 그 속심을 알아차리고 아래입술을 한발이나 쑥 내밀었다.

《싫습니다!》

《엉? 이건 중대장동지의 명령이야. 흥정하려고 드는거냐?》

《난 중대부의 통신원이 아닌데 어째서 제가 그 편지를 가져다주어야 합니까?》

내가 겨우 중대지휘부 울타리를 벗어나 여기 3분대로 내려올수 있게 된것은 예누나가 뒤에서 적극 도와주었고 또

형님과 한바탕 야무지게 언쟁을 벌린 끝에 쟁취한 승리였다. 중대통신원이라는것은 중대지휘부의 온갖 크고작은 심부름들을 도맡아서 안고 뛰여다니다가도 정작 싸움이 시작되면 남들이 앞으로 씽씽 돌격해나갈 때 보고문을 가지고 후방으로 달려가야 하니 이 얼마나 맹랑하기 그지없는 노릇인가!

평시에는 말이 적던 분대장동지가 지금은 난데없이 연설쟁이로 되여 내가 꼭 가야 할 리유를 연방 꺼내놓았다.

《소강이, 중대통신원이 너무 바빠서 어쩔줄 몰라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못쓰니?》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외고집을 부렸다.

《싫습니다. 안가겠습니다.》

이때 곁에서 우리들이 옥신각신하는것을 재미있게 지켜보고있던 왕소륙동지가 나에게 지원포를 쏴주었다.

《분대장동무, 제가 가겠습니다. 이 근방의 길들은 내가 손금보듯이 아는데다가 소강이보다도 제가 더 빨리 달리니까 얼마든지 제시간에 통신임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불청객을 돌아보는 분대장동지의 눈살은 잔뜩 찌프러져 있었다.

《소륙동무, 동무에게 날개가 달렸다고 해도 이 임무를 주지 않겠소. 누구나 다 자기의 임무가 따로있는 법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오.》

뜻밖에 면박을 당한 왕동지는 나를 향해 랑패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분대장동지의 고집스러운 어조에서 나는 통신임무의 내막을 더욱 명백히 간파할수 있었다.

《아하, 알만합니다. 저를 따돌리자는거지요. 당장 중

대장동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해나설줄 알았던 분대장동지가 오히려 쉽게 찬성하는것이였다.

《좋아, 나와 함께 가자.》

소륙동지도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에 발을 달았다.

《차돌이, 나도 함께 가자.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야…》

하지만 그는 분대장동지의 눈총앞에 말끝을 흐리며 목을 쑥 움츠리였다.

중대부에 문기척도 하지 않고 냅다 뛰여드니 무언가 진지하게 의논하고있던 형님과 정치지도원동지가 책상우에 펼쳐놓았던 군용지도를 급히 거두며 동시에 씩씩거리는 나를 바라보았다.

중대장은 나와 오분대장동지를 번갈아보고나서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형님의 딱딱한 말투에서 나는 버릇없는 행동에 대한 엄한 꾸중을 느꼈다.

나는 시뚝해서 입을 벌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앞에서 형님과 말다툼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던 나로서는 오분대장동지가 나를 도와서 먼저 말꼭지를 떼주었으면 하였다.

형님은 내 말은 듣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심중히 받아들였기때문이다. 아니나다를가 분대장동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내 뒤에서 형님과 정치지도원동지에게 부리부리한 두눈을 끔벅끔벅 하면서 손동작으로 신호를 보내고있는줄 나는 전혀 알수 없었다.

《중대장동지, 소강동무가 편지를 전하지 않겠답니다. 전투에 참가하겠답니다.》

나는 그만 입이 쓰거웠다. 이게 무슨 보고란 말인가.

내가 거절하는 리유는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듯이 말하니 오히려 오분대장동지가 속으로 미워났다.

《중대장동지, 저는 지금 중대전투원이지 통신원이 아닙니다. 내 임무는 앞에 나가 싸우는것인데 어째서 편지를 가지고 뒤로 가라는겁니까?》

그러자 형님보다도 정치지도원동지가 먼저 설복하려 들었다.

《소강동무, 중대부에서 날라가야 할 문건들이 많은데 통신원동무 혼자서는 손이 모자라서 그러오. 그래서 동무를 생각한거라니. 이것 역시 전투못지 않게 중요한 임무라니!》

지도원동지는 말끝마다 《라니》라고 자주 말하군 하였다.

형님의 얼굴은 나무로 깎아만든듯 아무런 표정변화도 없었고 오직 예리한 눈길로 나를 꿰뚫을듯 바라보고있었다.

마치 나에게서 사소한 흠집이라도 잡아내려는듯이.

분대장동지 역시 정치지도원동지와 맞장구를 쳤다.

《소강이, 이번만 다녀오렴, 다음번에는 내가 가면 갔지 절대로 소강이를 보내지 않을테니.》

나는 이리저리 얼리려고드는 분대장동지의 어조에서 이 어리석은 꾀가 바로 분대장동지의 머리에서 나온것이며 지금 정치지도원동지와 형님과 슬슬 손발을 맞추어가며 기어코 나를 떨구어놓으려고 애쓰고있음을 알았다.

나는 속이 팩하여 소리쳤다.

《분대장동진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분대장동지가 섭섭했다. 솔직히 말해서 오분대장동지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3분대에 있지 못했을것이다. 평시에는 《우리 꼬마》, 《우리 소강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끔찍이도 위해주던 분대장들은 정작 내가 분대에 배치받으려고 할 때 갑자기 벙어리가 되여버린듯 입을 꾹 다물고 먼산만 바라보는것이였다. 하기는 키가 기껏해서 152센치메터에 몸무게는 군복입은채로 겨우 38키로그람되나마나 한 나를 누가 선뜻 생사결전장에 뛰여들어야 할 전투원으로 받겠다고 하겠는가.

받을바에야 이왕이면 키도 크고 힘도 황소같은 사람을 받는 편이 훨씬 나았으니 분대장들은 언제 나를 보았던가싶이 얼굴들을 돌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있는것이다.

그러자 정치지도원동지가 목청을 높여 따져물었다.

《그래 누가 소강동무를 받겠소. 어서 말해보라니!》

서로가 곁의 사람 눈치만 볼뿐 먼저 말을 떼기 주저하던 긴장한 시각에 3분대장동지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여 나는 오분대장동지의 손탁아래서 군인의 첫걸음마를 떼였다. 사격과 창격, 수류탄던지기 등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그가 하나하나 묘리있게 배워주었으며 잠을 잘 때 이불을 걷어차면 이불귀를 꼭꼭 눌러 덮어주고 군복이 꿰지면 손수 기워주고 신발이 없으면 주저없이 자기의것을 꺼내서 신겨주었다. 남들과 달리 그는 나를 한번도 《꼬마》라고 부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에 대한 존경심을 더해주었다. 후날에 나는 우리 분대

장동지가 안고있는 가슴아픈 사연도 알게 되였다.
오분대장동지에게는 귀여운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3살나던 해 어느날 아이가 원인모르게 구토설사를 하게 되자 빚을 잔뜩 내여 겨우 약을 한첩 써보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만나는 빚값에 눌리워 견디다못해 안해마저 목을 매였다. 자식을 앗아가고 안해마저 땅에 파묻은 원한의 세상을 저주하며 피울음을 터치던 그는 결연히 고향을 떠나 신사군에 입대하였다. 그래서 나를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꼭 품어주는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분대장동지의 분대원이 된것이 얼마나 다행인가고 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이 눈앞에 닥쳐오자 오분대장동지도 다른 분대장들과 꼭같이 나를 부담으로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따돌리려고 《음모》를 꾸미는것이 아닌가.
담벽같이 막아서서 양보를 모르는 이들과 정면으로 충돌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나는 우회전술을 쓰기로 하였다.
《편지를 어디에 가져가야 합니까?》
그러자 지도원동지가 기다렸다는듯이 대답했다.
《한통은 대대부에, 다른 한통은 련대부에 가져다주시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올렸다.
《대대부와 련대부는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중대통신원이 대대부에 갔다가 그 길로 련대부에 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통신원 혼자서도 얼마든지 다 맡을수 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자기의 실수를 제꺽 알아차렸다.

(요 앙큼한 꾀돌이!)

《통신원은 대대부에 갔다와서 전투에 참가해야 하오.》

《예? 그럼 어째서 저는 못참가합니까? 난 왜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아버지와 외삼촌의 복수를 하려고 입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어코 전투에 참가하고야말겠습니다.》

전장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아버지와 촌장놈에게 매맞아 한을 품고 숨진 외삼촌을 생각하니 저도모르게 눈물이 쿡 솟구쳤다.

가슴에 쌓이고쌓여 응어리진 원한을 이제야말로 속시원히 풀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기뻐하고있었는데 한사코 못가게 하려드니 나는 울고싶도록 안타깝고 서운하였다.

이때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끝처럼 귀에 박혔다.

《눈물을 거두어. 신사군병사는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안흘려.》

나는 그 즉시 눈물을 지우고나서 간절한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았다.

얼마간 생각을 깊이하던 형님이 곁에 있는 정치지도원동지와 분대장동지에게 이렇게 제의했다.

《소강이를 참가시킵시다. 이제는 15살이 되였으니 어리다고 할수 없지요. 이번 싸움을 통하여 단련시킵시다.》

나는 금방까지 울던것 같지 않게 싱긋 웃었다.

그래도 내 심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친형님이였던것이다.

《울다가는 웃고 그게 무슨 군대냐? 똑똑히 들어둬. 우리가 받은 임무는 대단히 중요한거란다. 귀신도 모르게 놈들의 심장부에 뚫고들어가 속전속결로 소멸해치워야 하는

것만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규률이다. 지휘에 절대복종하며 함부로 행동하거나 대오에서 떨어지지 말것. 무기와 탄약외에는 절대로 다치지 말며 설사 금덩이, 은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해도 명령이 없이는 일체 손을 대지 말것. 똑똑히 들었니?》

나는 있는 힘껏 씩씩하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대답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걸상우에 드러누워 갸르릉갸르릉 낮잠자던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도망쳐버리였다.

전투시작전부터 기분이 바람찬 풍선처럼 둥둥 떠있는 내가 안심치 않았던지 분대장동지는 소대로 돌아오는 길에 몇번이나 주의를 주었다.

《소강이, 오직 명령에만 복종해야 해. 절대로 제멋대로 모험을 하려 해서는 안돼!》

나는 그때 분대장동지를 속으로 비웃었다. 싸움을 하겠다면서 모험을 하지 말라니 이게 어디 될말인가? 용감한 분대장동지가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겁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늘어났을가?

《알았습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나는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그날밤 우리는 행군길에서 밥을 먹으며 강행군을 하였다.

행렬을 맞추어 발바닥에 불꽃이 튕길듯이 걸음발을 다그치는 나는 사기가 특별히 높았다. 드디여 진짜 전투에 참가하게 된것이였다.

(잠자는 놈들의 대갈통들 한복판에 수류탄을 던져넣

어야지. 싸창이나 권총 같은것은 로획한댔자 나에게 차례질리 없으니 차라리 보총이 낫거든. 싸우는데는 권총보다 오히려 보총이 더 쓸모가 있지.)

내 머리속에는 이제 벌어지게 될 멋진 싸움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 눈앞에 보이는듯 했다. 그날밤따라 다른 중대병사와 바꿔신은 신발이 발에 딱 붙고 바닥이 편안한게 걷기가 얼마나 거뿐한지 몰랐다.

내앞에서 행군하는 분대장동지는 드문히 뒤돌아보며 조용히 묻군 하였다.

《소강이, 힘들지 않아?》

《걱정마십시오.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왕소륙동지가 말틈에 끼여들었다.

《차돌이야 동글동글하니 뛰여가지 못하면 굴러서라도 갈수 있지.》

분대장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왕동지를 돌아보았다.

《군소리는 하지 말것. 바싹 따르시오!》

바람처럼 내달으며 중대가 지나가는 오솔길에는 나무잎스치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야밤삼경에 우리는 백룡사에 돌입하였다.

그때 중대적으로 시계라고는 오직 형님이 가지고있는 회중시계뿐이여서 우리는 다만 달과 별의 위치를 보고 현재시간을 짐작하였다.

보초병을 감쪽같이 해제낀 우리 중대는 물이 새여들듯 놈들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날은 소대장놈의 생일이여서 놈들은 진탕치며 놀고는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여기저기 되는대로 어푸러져있었다. 병실의 천정복판에 걸려있는 남포등도 곤하여 꺼벅꺼벅 졸면서 벽에 기대여 졸

지어 세워놓은 보총들을 어서 가져가라고 비쳐주고있었다.
또 서쪽벽과 잇닿아있는 책상밑에는 경기관총 한자루가 하품하듯 입을 하 벌리고있었다.
우리는 문안에 들어서자마자 번개같이 손을 써서 그 무기들을 몽땅 손에 넣었다. 오분대장동지는 우정 제일 마지막으로 나를 방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러다보니 무기 한자루 로획하지 못하여 나는 속으로 툴툴거리였다.
방안을 빙 휘둘러보던 내 눈이 문득 책상우에서 멎었다. 손잡이와 두발달린 자명종시계가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있었던것이다. 나는 하마트면 환성을 지를번 하였다. 우리 중대는 시계가 없다나니 전투에서나 생활에서나 애먹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형님도 어느 한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운 표창으로 쌍안경과 시계, 만년필중 하나가 차례졌을 때 서슴없이 시계를 집어들어 가졌던것이다. 이제 저 시계를 가져가면 모두들 시계가 또하나 생겼다고 얼마나 기뻐할가! 뻗쳐오르는 충동에 자기를 잃고서 나는 더 생각할새없이 그 시계에 손을 뻗쳤다. 순간 시계가 《따르릉—따르릉—》하고 요란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시계소리가 아니라 우뢰소리처럼 들려왔다. 급해맞은 나는 시계를 품속에 찌르고 가슴으로 꽈악 눌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젖은 빨래들처럼 척 늘어져서 코를 드렁드렁 골던 놈들이 난데없는 종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뜨고 코앞에 서있는 우리들을 보자 대경실색하여 《신사군이다!》하며 아우성쳤던것이다.
정황은 눈깜짝할사이에 뒤집어졌다. 형세를 제때에 판단한 소대장동지가 맵짜게 소리쳤다.
《손들엇! 반항하면 쏜다!》

서슬찬 기상에 눌리워 놈들은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옆방에서 자다가 깨여난 소대장놈이 남포등을 향해 한방 갈기고는 삽시에 캄캄해진 틈을 타서 창유리를 깨고 줄행랑을 놓았다.

나는 기병총을 틀어잡고 옆방으로 달려갔다. 악질중의 상악질인 이놈을 잡는것 역시 우리 중대가 받은 임무중의 하나였으므로 바로 그 공을 내가 세우고싶었던것이다. 그놈이 뛰여넘어간 창문으로 몸을 날리려는 순간 분대장동지가 뒤에서 나를 덥석 잡더니 땅바닥에 엎어뜨렸다. 이와 동시에 어둠을 찢는 총소리가 울리더니 분대장동지의 가슴에서 붉은피가 솟구쳤다.

그 증오스러운 원쑤놈이 교활하게 어둠속에 숨어있다가 제놈의 뒤를 쫓던 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것이다.

3. 엄격한 형님

창고에 갇힌 다음날 점심무렵 중대가 아직 식사를 하기도 전에 중대의 취사분대장아저씨가 쟁반에 넘치도록 점심식사를 차려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큰 사발에 가득 담은 돼지고기찜에 큼직한 만두 1개, 밥사발에 무드기 쌓인 흰밥과 기름이 진하게 둥둥 뜬 두부국… 음식들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를 맡는 순간 정신이 아뜩해지기까지 하였다.

《먹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기름진 식사를 보니 어쩐지 기분이 상했다.
(처벌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우대를 해주는구나. 고기도 주고 국도 듬뿍 주고, 날 식충이로 보는게 아니야?)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제법 큰소리쳤다.
《가져가라요. 난 안먹을래요.》
그러자 아저씨는 뜻밖이라는듯 두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엉? 안먹겠다구? 여느때는 고기 둬사발쯤은 게눈감추듯 하고도 적다고 투덜거리더니 오늘은 웬일이냐? 무슨 놈의 변덕이 그리 심할가?》
《우리 집에서는 잘못을 저지르면 혼내주느라고 밥을 주지 않았어요.》
분대장아저씨는 온 얼굴에 주름이 지도록 웃음을 띠웠다.
《꼬마야, 여기는 너의 집과 달라. 여기는 혁명군대거든.》
그래도 나는 어쩐지 밥술을 드는것이 마음에 걸렸다.
《분대장동지, 잘못을 저지른 내가 뭘 곱다고 이렇게 밥도 많이 가져오고 고기도 우정 삶아오셨나요?》
《뭐? 뭐라구? 이녀석 이틀째 골방에 갇혀있더니 아예 멍청이가 되여버렸구나. 우리가 백룡사습격전에서 크게 이긴것을 축하해서 마을에서 돼지를 잡았단다. 그래서 오늘은 온 중대가 고기붙이를 먹는데 뭐 네녀석에게만 고기를 삶아왔다구? 규률을 위반한 소강이를 내가 고와할리가 있나.》
아저씨는 말끝을 맺으며 내 코를 잡아 얼얼해지도록 비틀었다.
아저씨의 말이 옳았다. 우리들의 습격전은 의도대로 멋

지게 승리했으며 백룡사의 적들은 모조리 소멸되였다. 만일 내가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분별없이 행동하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총 한방 쏘지 않고도 더 큰 승리를 거둘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중대는 훌륭한 지휘관을 잃었다.

오분대장동지가 생각나니 나는 목이 꺽 메여와 고기그릇을 멀리 밀어놓았다. 자기에게 차례진 고기국을 늘쌍 나에게 덧놓아주던 분대장동지의 모습이 더욱더 가슴아프게 안겨왔기때문이였다. 살아있다면 제일먼저 자기의 국그릇을 들고 나를 찾아와 《소강이, 같이 들자꾸나. 국이 참 맛있단다.》하며 정겹게 나를 바라볼 그 눈빛, 그 목소리가 영영 내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한모금은커녕 반모금도 삼킬수가 없었다.

《안먹을래요. 가져가세요.》

취사분대장아저씨는 내가 몹시 괴로와하는 모양을 묵묵히 지켜보더니 깊이 숙어진 내 머리우에 자기의 손을 가볍게 올려놓았다.

《됐다. 그만해라. 이걸 두고 가겠으니 좀 있다가 천천히 들어라.》

아저씨가 돌아간 후 나는 억지로 밥술을 드는둥마는둥하다가 아예 놓아버리고말았다.

쟁반을 멀찌감치 밀어놓고 다시 자리에 누우려는데 찌그러진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안으로 열리였다.

처음에는 까만 신발의 둥그스름한 앞코숭이가 보이더니 다음은 행전을 단정하게 친 튼튼한 다리, 이어서 단단한 체격이 해빛을 등지고 나를 향해 서있었다. 그의 이마밑에서 억실억실한 두눈이 어둠속에서도 빛을 뿜는듯싶

었다.

묻지 않고도 나는 형님이, 아니 중대장동지가 왔음을 알수 있었다.

형님을 보니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 깊숙이 눌리워져 있던 한가닥 원망이 다시금 머리를 쳐들었다. 영창처벌을 받은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온 중대앞에서 나를 불러세워놓고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톡톡히 망신시킬건 뭐람. 얼마든지 따로 만나서 조용조용 잘못을 일깨워줄수 있지 않는가.

다른 전사들과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째서 나에게만은 얼굴을 붉혀가며 욕을 퍼붓는가.

《석소강동무, 어째서 동무는 군률을 걸써하게 대하는가? 시계는 왜 다쳤는가? 그 결과 동지들이 부상당하고지어 희생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말해보시오. 무엇으로 이 큰 손실을 보상할수 있겠는가 엉?》

내가 미처 대답을 할새없이 그는 목힘줄이 꿈틀 살아나도록 언성을 높여 단호히 선포하였었다.

《장동무, 소강동무의 무기를 회수하고 3일간 영창에 가두시오. 소강동무는 자기를 심각히 돌이켜볼것!》

또 한가지 고까운것은 내가 여기에 갇힌 후 정치지도원동지랑 소대장동지랑 다들 왔었는데 오직 형님만이 오지 않은것이다.

그게 무슨 친형님이람!

언젠가 예누나가 나를 련대정치공작대에 데려가겠다고 제기해왔을 때에도 형님은 단마디로 잘라맸다.

《좀더 커서 철이 든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그때 나는 예누나를 따라다니며 공부도 하고 사랑도 흠

뻑 받고싶었던 마음이 사그라지고 대신 시뚝해져서 입술을 비쭉거리였다.

한마디로 형님의 눈에는 내가 자기만 아는 철부지로밖에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참 기가 막힌것은 애를 쓰며 철부지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일은 신통히도 내가 군중규률을 《위반》할 때에만 형님의 눈에 꼭꼭 띄우는것이였다.

한번은 통신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배가 몹시 출출하여 길옆의 고구마밭에 들어가 고구마를 한개 캤었다.

흙을 툭툭 털고 한입 큼직하게 베여먹는데 공교롭게도 형님이 정치지도원동지와 함께 오다가 이 모양을 보게되였다.

그자리에서 형님은 나를 호되게 닦아세웠다.

《인민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걸 몰라?》

《이거야 밭에서 수확하고 나머지가 아니예요? 내가 안먹으면 그냥 밭에 묻혀 썩어버릴텐데…》

《오— 이제는 교활하게 변명할줄도 아는구나. 언제면 철이 들겠는지.》

형님은 혀를 쯧쯧 차고 정치지도원동지는 시물시물 웃기만 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나를 끔찍이도 고와하는 할머니 한분이 닭알을 두알 삶아서 먹어보라고 준적이 있었다.

내가 이 구실, 저 구실 둘러대면서 받으려고 안하니 할머니는 안먹으면 두번다시 오지 못할줄 알라고 성까지 내는것이였다.

그래서 할수없이 손에 받아들고 입에 가져가는 찰나

에 형님에게 들키여 닭알보다 먼저 욕을 실컷 먹었다.

우리 형님은 련대적으로 군중관이 견결하고 철저하기로 소문났으며 군민관계를 지키는데서는 친동생과도 타협을 몰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의 바늘 하나 실 한오리 다치지 말라.》고 중대군인들에게 재삼 강조하고 또 실천적 모범으로 이끄는 형님이였다.

그런데 바늘과 실에 비하면 고구마나 닭알은 그 몇십, 몇백배였으니 형님이 그냥 지나칠리 만무한것이다.

이번의 시계사건 역시 형님은 덮어놓고 철딱서니없는것의 욕심이 빚어낸 후과이라고 여기는것이였다.

사실 나는 이것이 더 서운하였다.

형님이 코앞에까지 다가왔으나 나는 얼굴을 외로 틀고 모르는척 하였다.

형님은 한귀퉁이만 조금 허물다 그만둔 밥그릇을 얼마동안 바라보다가 나에게 물었다.

《왜 밥을 먹지 않았니? 입맛이 쓴게지? 조금밖에 먹지 않았구나!》

이틀만에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몇년만에 만난듯이 반가왔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잔등을 돌려대고 앉아있었다.

이전에 형님을 제일 안절부절하게 한것은 동생인 내가 자기에게 곁을 주지 않는것이였다.

이럴 때면 형님은 제가 먼저 수그러지면서 조용히 달래군 하였다.

언젠가 형님이 나더러 총을 바치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살점과 같은 총을 바치고난 나는 속이 편치 않아

서 형님앞을 지나다닐 때면 모르는척 하고 그냥 지나치군 하였다.

그랬더니 며칠후 형님은 남들이 없는 조용한 틈에 내 손을 꼭잡고 《소강아, 네 심정은 알만하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돼. 군인이라면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군률에 먼저 습관되여야 해. 우리는 형제간의 관계이기 전에 먼저 혁명동지관계이고 상급과 하급간의 관계라는걸 먼저 생각해야 해. 앞으로는 그렇게 옹졸하게 굴지 말아. 남들이 보며는 네가 아니라 날 보고 비웃는단다.》라고 사근사근 타일러 내 마음을 눅쳐주었다.

내가 중대부에서 분대로 내려올수 있은것도 이틀동안이나 쌀쌀한 얼굴로 다닌 덕에 형님이 먼저 항복을 하였기때문이였다.

이번에도 나는 역시 그 효과적인 수를 쓰고싶었다.

그런데 별안간 머리우에서 랭정하고 땅땅 여문 말마디들이 우박처럼 와드드 떨어졌다.

《소강아, 아직도 속이 살았어? 잘못을 범하고도 당당하단 말이지. 통신임무를 줄 때는 기어코 전투에 참가시켜달라고 생떼를 쓰더니 정작 참가시켜주니 도리여 혼란을 주어?

그 잘난체 하며 제멋대로 세우는 밸통머리를 고치지 못하겠으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

형님은 옛날처럼 내 어깨를 다정히 잡아주지도 내 손을 살뜰히 어루만져주지도 않았다.

도리여 비수같이 찌르는 눈길로 나를 지끗게 쏘아보아 가슴을 싸늘케 했다.

형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우뢰소리가 한바탕 창고안을 휩

쓴 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쥐죽은듯 조용했다.
나는 형님이 이번 일만은 절대로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직감했다.
《난 잘했다는게 아니예요. 3일이 아니라 5일이라도 벌을 받겠어요!》
《그게 잘못을 허심하게 뉘우치는 자세냐? 왜 이런 중벌을 받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았니?》
《형님의 명령을 귀등으로 들었기때문이지요.》
헛간에는 오직 우리 둘만이 있었기때문에 나는 맘놓고 말대답질을 했다.
《생각했다는게 고작 그거냐? 소강아, 넌 언제면 철이 들겠니?》
형님은 무겁게 한숨을 쉬고나서 옆에 끼고왔던 종이꾸레미를 헤치기 시작했다.
포장지가 헤쳐지자 그속에서 눈에 퍽 익은 신발 한켤레가 드러났다.
까만 신발등에 달린 회색끈, 왼쪽신발등에 묻어있는 돼지기름방울, 수천번의 바느질로 촘촘히 박은 신발바닥, 나는 기뻐서 그 신발을 와락 가슴에 껴안았다.
《이건 오분대장동지의 신발이예요. 내가 한달나마 신어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형님의 표정은 전에없이 무거워졌다.
《그래. 오동무가 너에게 주었던 신발이지. 소강아, 넌 이게 어떤 신발인지 아니? 이건 오동무의 안해가 남긴 하나밖에 없는 유물이다.
네가 이 신발을 다른 사람의것과 바꾸었다는것을 알고 몇십리길을 달려가서 자기 신발을 주고 다시 찾아왔단다.

그런데 이렇게 신발만 남았구나!》

그제서야 나는 분대장동지가 어째서 그토록 이 천신발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는지, 고충동지가 무엇때문에 나에게 철이 없다고 된욕을 퍼부었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철이 없었다.

그런 욕은 열번 아니 백번 들어도 응당하였다.

《울어야 소용없어. 울어서 희생된 동지들을 다시 되살릴수 있다면 난 한생을 울고싶다. 교훈을 찾아야 해. 뼈저리게 말이다. 비판서를 꺼내놓아라. 어디 한번 보자.》

형님의 말에 나는 부끄러워 한동안 머리를 수그리고 꾹꾹 흐느껴 울기만 하였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억울한 심정에 비판서를 쓰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아 이리저리 궁싯거리기만 하던 나였다.

《왜, 아직도 못썼니? 필기도구가 없었느냐? 아니면 종이가 없어서?》

《있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쓰질 않았어?》

또다시 우뢰소리가 천정을 드르릉 울렸다.

《… …》

나는 말문이 막히여 얼굴만 벌개졌다.

《일어서. 날 향해 돌아서서 내 눈을 똑똑히 봐라!》

이제는 내앞에 형님이 아니라 중대장이 서있다. 전사가 어찌 상급의 명령에 불복할수 있으랴.

싫든좋든 나는 일어서서 형님의 눈을 마주보았다.

형님의 부릅떠진 두눈에서는 나를 칠것처럼 분노의 불꽃이 튀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형님이 나를 때리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친형이여서기보다는 군률을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신사군의 모범지휘관이였던것만큼 자기 중대 병사를 때리는 것과 같은 엄중한 행위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것이였다.

내가 제일 두려워한것은 형님이 노발대발하며 매를 안기는것이 아니라 리치를 따져가며 나를 비판할 때였다.

《매는 매로, 리치에는 리치로 당당하게 맞서라!》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에게 물려준 인생의 좌우명이였던것이다.

형님은 나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쭈욱 훑어보더니 나의 종아리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어째서 행전을 치지 않았어? 이제야 겨우 하루 지났을뿐인데 이렇게 게을러졌으니 나중에 무슨 꼴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아차! 하고 혀끝을 깨물었다.

화는 절대로 혼자서 오지 않는다고 또 결함이 잡혔으니 나는 그만 김이 빠져 목이 쏙 움츠러들었다.

《행전을 규정대로 치고 목단추도 똑바로 채워!》

그까짓 행전쯤이야 문제될것 없지. 그러나 말이 쉽지 표준대로 치는것은 결코 헐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꽉 조이면 행군할 때 종다리가 팅팅 부어오르고 또 헐가분하게 매면 훌렁 벗겨져 구대원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느슨하지도 조이지도 않게 두르면서도 보기에 산뜻하고 맵시있게 되자면 품을 상당히 들여서 숙련을 해야 한다.

나는 형님에게 뻐기고싶어 간단한 계단식방법이 아니라

우정 복잡한 《ㅅ》형 방법으로 행전을 친 다음 목단추를 꼭 맞물려 채우고 모자를 단정히 쓴 다음 눈을 올롱하니 뜨고 형님을 올려다보았다. 한편으로는 또 어떤 흠집이 잡힐가봐 속으로 걱정되기도 하였다.

참빗질하듯이 다시한번 나를 뜯어본 형님은 약간 누그러진 소리로 《이제야 군인맛이 나는구나.》라고 말하고는 내가 누웠던 침대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 형님으로 말하면 1년 365일을 하루와 같이 행전을 맵시있게 치고 군복을 규정대로 입고 잠을 자도 목단추 한번 열어놓은적이 없었으니 우리 중대 병사들모두가 형님을 닮아 항상 옷차림에 관심을 돌리고 특히 목단추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대대와 련대지휘관들도 우리 중대에 왔다가는 《석중대장이 중대를 이끌줄 알거든!》라고 너나없이 칭찬했다.

나는 모범중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밑에 행전을 치는 방법을 열심히 체득했고 옷차림에 늘쌍 눈길을 돌리군 하였다.

형님은 침대에 벼짚이 무둑히 깔리고 침구류가 규모있게 정돈되여있는것을 보고는 머리를 끄덕이며 알릴듯말듯 미소를 지었다.

《소강아, 여기 오너라!》

그의 말투가 부드럽게 달라지자 나는 히쭉 웃었다.

내앞에는 중대장이 아니라 형님이 앉아있었던것이다. 형님은 내 손을 끌어당겨 자기 무릎에 놓고 따뜻이 어루만져주었다.

《소강아, 가슴속깊이 새겨라.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항일전쟁의 승리와 전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희생은 피

할수 없다만 우리는 가능한껏 피를 적게 흘리고 희생을 하지 말아야 해.

우리 중대는 모두 친형제이고 혁명의 보배들이란다. 난 단 한명의 전사도 잃고싶지 않아.

병사들이 희생될 때 우리 지휘관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넌 아직 모를게다.

희생된 그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돼!》

이렇게 절절하게 타이르는 형님의 눈굽은 점점 불깃해졌고 목소리는 꽉 잠겨있었다.

오분대장동지가 남기고간 신발을 손에 들고 뚫어지도록 바라보는 형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두볼을 타고 흐르더니 신발우에 방울방울 떨어져 적시기 시작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큰 죄를 졌어요. …》

나 역시 미여지는 심정으로 자신을 비판했다.

《무엇이 잘못되였다고 생각하니?》

《철저히 명령에 복종해야 했으나 난 명령을 어기고 그 망할놈의 시계를 탐냈댔어요!》

《…》

형님은 묵묵히 나의 다음말을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나로서는 더 할말이 없었다. 설사 비판서를 쓴다고 해도 종이우에 이 말밖에 더 써넣을것이 없었다.

인내성있게 기다리던 형님은 내가 입을 꾹 다물고 다시 열념을 안하는것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그게 다냐?》

《예.》

《안되겠어. 다시한번 깊이있게 돌이켜봐라. 소강아, 넌 규률이 무엇이고 명령이란 어떤것인지 모르지는 않아. 그

런데 왜 규률을 위반했는가? 시계는 무기가 아니라는걸 잘 알면서도 그것을 왜 가지려고 했는가? 그 욕심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솔직하게 대답해라!》

나는 기분이 상했다. 솔직히 말했는데 이이상 무엇을 더 솔직히 말하라는건가.

나는 그만 심드렁해져서 벽만 멍하니 쳐다보았다.

《당장 대답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다. 아직은 하루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생각해보고 깨달았으면 나를 찾아라.》

형님은 자리를 뜨려는듯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내 군복차림새를 깐깐히 훑어보았다.

내가 걸치고있는 솜저고리를 만져보며 두께도 가늠해보고 몸에 묻은 검부레기도 툭툭 털어주던 형님의 손이 문득 굳어졌다.

《소강이, 너 양말은 어쨌니?》

시뻘건 맨발을 큰 신발속에 깊숙이 감추느라고 했으나 형님의 매눈에서는 벗어날수 없었다.

나는 랭기에 얼음같이 차거워진 발을 내려다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말하였다.

《잃어버렸어요!》

《너도 참! 네 나이 몇이게 며칠전에 사다준 양말을 잃어버리고 다녀! 제 물건도 제대로 건사못하니 참…》

형님은 신고있던 양말을 그자리에서 벗어들었다.

《신어라!》

형님의 양말은 베천으로 만든것이였다.

나에게는 따스한 양말을 사다주고 자기는 낡은 베양말을 신고다녔구나 하고 생각하니 코마루가 찡했다.

내가 중대에 온 이후부터 형님에게 얼마나 마음고생을 시켰을가 하는 후회가 가슴을 쳤다.

원래 적동처럼 불깃불깃하던 형님의 얼굴에서 검붉은 혈색은 사라지고 대신 두드러진 광대뼈와 떼꾼하게 커진 눈만 남았다.

중대장으로서 전투도 지휘하고 한개 중대식솔의 생활을 일일이 돌보자니 오죽이나 속을 태울가.

그러니 나보다도 형님이 더 건강해야 하지 않는가. 옛날부터 일러오기를 엄동설한에도 얼어터지지 않는것은 장독과 아이들의 볼이라고 하였지.

《싫어요. 난 신지 않을래요. 이런 양말은 신기 싫어요.》

사실은 형님을 생각해서 얼른 꾸며낸 거짓말이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줄 몰랐다.

눈살을 찌프리고 형님은 거칠거칠한 양말을 다시 거두며 말했다.

《됐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인차 새 양말을 사다주지!》

형님이 내 마음을 오해한것 같아 나는 진담절반, 어리광절반 섞으며 옹고집을 썼다.

《싫어요, 싫어요. 필요하면 내가 사서 신을래요. 나한테도 돈이 있어요.》

《허허, 하루동안에 갑자기 컸는걸. 그럼 난 가겠다. 잊지 말어라. 왜 잘못을 고의적으로 저질렀는지 사상적으로 그 병집을 찾아내야 해. 심각하게 찾을수록 좋아!》

… … …

《왜 그랬을가?》

나는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았다. 이리하여 나는 날을 거슬러올라 한달전 장기만에서 밤보초를 설 때 있었던 일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

4. 달빛흐린 밤

내가 보초근무에 나갈무렵은 서쪽하늘가에 기울어진 외로운 그믐달이 흘러가는 검은 구름에 드문드문 가리워지군 하여 주변의 모든것이 온통 희미하고 분명치 않게 보일 때였다.

낮에 눈에 익혀두었던 풀더미들과 외양간들, 풍차며 초가집들이 몽롱한 달빛속에서는 갑자기 마술에 걸린듯 사나운 승냥이며 호랑이로 변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지어는 련못가의 수양버들도 때로는 머리칼을 산산이 풀어헤친 마녀가 되여 덤벼드는것 같았고 때로는 놈들의 군용차로 변하여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듯싶었다.

정찰보고에 의하면 우리 부대 주둔지에서 남쪽으로 30리 되는 지점에 왜놈들의 한개 분대가 진을 치고있었고 서쪽으로 50리되는 곳에 대부대가 주둔하고있어 우리를 노리고있었다.

동쪽과 북쪽에는 또 국민당군벌 한덕근놈의 부대가 길을 가로막고 쳐들어올 기회만 엿보고있었다.

그놈들은 입으로만 왜놈들을 치고 실지로는 우리 신사군을 오래전부터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한사코 우리와 해보자고 악을 썼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밤은 별스레 더욱 께름직하고 어둑컴컴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별로 무서움을 몰랐다.

이번까지면 9번째로 야간보초를 서는셈이니 담도 생겼고 경험도 어지간히 있었던것이다.

나는 왕소륙동지와 근무를 교대하였다.

그는 여느때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나에게 롱을 걸었다.

《차돌아, 내가 동무해서 서줄가? 그렇지 않으면 외양간에서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랑 강물에 빠져죽은 귀신들이 나와서 너를 닝큼 잡아갈걸!》

나는 소륙동지의 잔등을 주먹으로 쿡 찌르며 큰소리쳤다.

《땅귀신이든 물귀신이든 올테면 다 오라지요. 내가 오히려 그것들을 몽땅 묶어놓지 않나!》

왕동지와 근무를 교대한 나는 큼직한 풀더미곁의 지정된 위치에 잠복했다.

그 위치는 마을입구옆이여서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기에 유리했으며 행인들에게 들키울 념려도 없었다.

근무를 인계하기 전에 왕동지가 나를 데리고왔던 오분대장동지에게 새로 나타났던 정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좀전에 동쪽방향 300메터쯤 되는 지점에서 개들이 한참동안 짖었습니다.》

그러자 오분대장동지는 나에게 특별히 강조하였다.

《순간도 졸지 말고 동쪽방향을 잘 감시하오.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할것!》

나는 자연히 긴장해졌다.

《만일 보고할 겨를이 없으면 사격해도 됩니까?》

《안되오. 먼저 군호를 정확히 물어보시오. 제멋대로 총을 쏘지 마시오.》

《만일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면 큰소리로 서라고 명령하시오.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공중에 대고 공포를 쏘시오!》

《알았습니다. 마음놓으십시오.》

나는 총을 더욱 꽉 틀어쥐며 자신있게 대답했다.

홀로 남은 나는 온몸이 귀와 눈이 되여 개미기여가는 소리에도 신경을 도사리였다. 이 작은 어깨우에 온 부대의 운명이 실려있다는 중대한 책임감에 감히 곁눈질 한번 할수가 없었다.

하지만 눈이 아프도록 지켜보았어도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아 마음속에서는 슬며시 의심이 꿈틀거렸다.

(왕동지가 잘못 들은게 아니야? 남쪽이나 서쪽에서 개들이 짖은것을 동쪽이라고 잘못 판단했을지도 몰라!)

왕소륙동지는 부대적으로 소문난 익살군이였다.

하루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롱을 하며 웃음판을 펼쳤고 더우기 나만 보며는 놀려주지 못해 근질근질하였으니 이번에도 우정 나를 놀래우려고 꽝포를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했다.

갑자기 100메터앞에서 바스락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시커먼 형체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면서 길을 급히 가

로지르는것이였다.

나는 신경줄이 금시라도 끊어질듯 팽팽히 켕기였다. 분명히 놈들이 포복전진으로 코앞에까지 기여든것 같았다.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섯, 군호!》

《… … …》

상대방의 대답이 없자 나는 절커덕 격발기를 당기였다.

《섯, 대답하지 않으면 쏜다!》

이때 검은 그림자들이 움씰하였던 곳에서 두마리의 메고양이들이 서로 맞붙어 갈개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나는 맥이 탁 풀리였다.

그러나 이것이 놈들의 교활한 음모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흩어지는 정신을 다시금 수습하고 예리하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 곳을 주시했다.

아니나다를가 얼마 안있어 큼직한 물체가 나타나 흔들흔들거리며 내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틀림없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였다.

몸을 더욱 깊숙이 감춘 나는 이상한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사람 혼자라면 별일 없을테지만 만약 그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차츰차츰 더 커지던 형체가 거의 100메터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맵짜게 소리쳤다.

《섯, 군호!》

《난 이 마을 사람이요!》

들리는 목소리는 퍼그나 태연하였다.

《섯, 서지 않으면 쏜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발걸음을 뚝 멈추었다.

《누구예요?》

《아하, 누군가 했더니 꼬마병사동지로구만. 난 주보장이라는 장사군이요. 일보러 나갔다가 그만 좀 늦게…》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 맞는것 같았다.

중대의 식량과 마초가 부족되여 이 사람과 의논을 한적이 있어놔서 나 역시 풋낯이나 알고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야밤삼경에 마을에 들어설가? 혹시 내가 쪽잠에 든 틈을 타서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오려고 한게 아닐가?

왜서인지 나는 그를 단속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거의 20메터되는 곳에 다가왔을 때 나는 다시 소리쳤다.

《거기에 서세요!》

주아저씨가 나에게 별의별 리유를 다 들어 변명해도 나는 애당초 듣지 않고 분대장동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인차 분대장동지가 나타났다.

나의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난 분대장동지는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다.

《장하오, 소강동무. 훨씬 발전했소. 그런데 구령치는 소리가 지내 크더구만. 저쪽 반대켠 초소에서도 다 들리더라니까. 앞으로는 소리를 좀더 낮추고 무게있게 구령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강이가 〈햇병아리〉라는게 단방에 들짱날수 있거든.》

분대장동지는 주아저씨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갔다.

뜻밖에 분대장동지의 칭찬을 받고서 나는 사기가 났다. 어느 놈도 감히 내앞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흥 어디라고 감히!

문득 내 눈앞에 형님이 성을 와락 내던 모습이 삼삼

히 떠올랐다.

《갈대와 사람을 가려못보는 주제에 보초는 무슨 놈의 보초야. 당장 집에 돌아가!》

처음으로 뗴를 써서 야간보초를 섰던 날 나는 너무나도 긴장했던 나머지 강변에서 바람결에 와슬렁거리는 갈대들을 적이라고 오판하고 총을 쏘아 온 중대를 한잠도 못자게 들볶아놓았었다.

이런 햇내기병사를 이제는 구대원으로 보기 시작했으니 어찌 흐뭇하지 않으랴! 그때의 창피스러웠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지지벌개지고 빈웃음이 절로 나갔다. 오죽하면 예누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깔깔 웃으며 《겁쟁이 눈에는 초목도 귀신으로 보인단다.》라고 가볍게 놀려주었겠는가!

(이제는 로련한 구대원이 되였으니 다시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테다.)

어느새 나도 신대원티를 벗었다는 긍지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왜 그렇지 않으랴. 이제는 총소리를 듣고도 어느 총인가 알아맞힐수 있었고 총알 스치는 소리를 듣고서도 위험한 총알인가 아닌가를 제꺼덕 알아맞힐수 있었다. 이렇게 희미몽롱한 속에서도 나는 손오공도 부러워할 밝은 눈을 가지고 300메터나마 떨어진 곳에 있는 돌더미와 외양간, 풍차며 민가들을 대낮처럼 환히 가려볼수 있다.

칭찬을 받을수록 해이되지 말고 더욱더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다는 자각에 나는 기병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전방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따뜻하던 손과 발이 차지다못

해 얼음덩이로 변한듯싶었다. 장갑이 없었던 나는 량손을 팔소매에 찌르고 조금이라도 녹이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순간도 감시자세를 흐트려서는 안된다는 병사의 임무를 지켜 나는 이를 악물고 추위와 싸우기 시작했다. 손을 총가목에 대며는 조금 나을상싶었으나 총신이나 격발기를 다치게 되면 그 쇠붙이의 선뜩한 랭기가 팔을 꿰질러 심장까지 쿡 찌르는듯싶었다.

눈이 오려는지 날씨는 조금 맵짜졌다. 낮에는 돌돌돌 마을을 에돌아 흐르는 시내도 지금은 통채로 얼어붙었다.

발이 얼어들어와 견디기가 죽을맛이였다. 얼지 않으려면 발을 덥혀야 한다던 구대원들의 충고가 떠올라 나는 껑충껑충 뜀뛰기를 하여 마비되여버린 발가락을 녹이고싶었다. 그러나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만큼 고요한 이 밤에 발을 구르면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수 있었기에 그렇게도 할수 없었다. 견디다못해 나는 총을 어깨에 멘채 신발을 벗어들고 힘껏 발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발에 약간 온기가 생기니 몸도 훈훈해지는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발을 주무르고만 있을수 없었다. 만일 긴급한 정황이 발생한다면 손쓸새가 없을터이니 그로 하여 빚어질 후과는 상상하기 어려운것이다.

나는 의지를 발휘하여 다시 총을 손에 잡았다.

그러자 아까보다 더욱 싸늘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여 닭살이 돋았다. 오늘따라 근무시간이 별로 더디게 흘러가는것 같았다. 개짖는 소리, 닭이 홰치는 소리는커녕 벌레 기여가는 소리조차 없었다. 봄이면 시내물소리가 들려오고 여름이면 청개구리가 소란스레 우는 소리, 가을에는 베짱이와 귀뚜라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나를 동무하여 적

적한감을 덜어주련만 지금은 겨울날 깊은 밤, 이 땅의 모든것이 굳잠에 푹 곯아떨어진 시간이다. 온몸을 괴롭히는 추위를 다소나마 가리워보려고 나는 옆에 있는 벼짚더미에 몸을 바싹 기대였다. 어머니마냥 포근히 감싸안아주는 벼짚더미에서 물씬 풍겨오는 냄새는 마치 햇쌀죽이 보글보글 끓는 가마뚜껑짬으로 풍겨나오던 구수한 냄새인듯싶어 배에서는 꾸르륵꾸르륵 쉴새없이 소리가 났다.

햇쌀죽을 먹어본지도 이제는 까마득하였다. 외삼촌어머니가 광주리를 엮어 팔아 번 돈으로 쌀을 사와 우리 형제에게 쑤어주었던 죽맛을 영영 잊을수가 없었다. 향긋하고 쫀득쫀득한 하얀 죽은 색갈이 기름을 친것처럼 번들거리고 그 맛 역시 고소하고 감칠맛 있어 나는 단숨에 세그릇이나 게눈감추듯 하였다. 벼짚속에 푹 파묻히니 온몸이 따스해져왔고 얼어드는 손을 짚속에 들이미니 어머니의 거칠거칠한 손이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서 마음후하게 웃으신다.

《소강아, 네가 왔구나.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구나. 우리 소강이가 얼마나 보고싶던지.》

나를 꼭 껴안고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고 삼촌어머니도 곁에서 내 손을 잡고서 기쁜듯이 말하였다.

《우리 소강이가 얼마나 컸는지 다들 좀 보라니까!》

외사촌동생 창희도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무작정 내 주머니부터 뒤진다.

《형, 탄피 몇개 가져왔나?》

몰라보게 자란 외사촌녀동생 옥분이도 몰래 나를 훔쳐보며 곱게 웃기만 한다.

나도 반가와 어쩔줄 몰라 오래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의 얼굴들을 자세히 눈여겨보았다. 제일 눈에 띄우게 변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수세미오이를 보는듯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굵고 깊어진 주름들이 얼기설기 지나가고 돌기돌기 얽어져있었다. 거치른 손등에 지렁이처럼 두드러진 피줄과 힘줄들, 피기없는 얼굴이며 여윈 목, 나는 가슴이 아파서 울먹거리며 물었다.

《어머니, 상처자리는 다 나았나요? 아직도 아프시나요?》

양주에서 어머니와 외삼촌어머니는 왜놈주구들에게 끌리여가서 혹독하게 고문을 받았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이따금씩 독을 쓰면서 어머니를 괴롭히군 하였다.

《아니다. 이젠 다 나았다. 마음놓고 싸우거라. 요즈음 밤마다 꿈에 네가 보이더구나.》

나는 어리광부리며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요?》

《그래, 그래. 그런데 네 형은 어째서 같이 오지 않았니?》

《… …》

이 물음에 그만 대답이 궁해져 끙끙 갑자를 때 문득 누군가가 고함을 지른다.

《소강이!》

와뜰 놀라서 꿈에서 깨여난 나는 성이 독같이 오른 형님, 아니 중대장동지를 아직도 잠에 취한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내 총이 들려져있었다. 순간 나는 잠기

가 씻은듯이 가셔졌다.

《중대장동지, 근무중 이상없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면서 어떻게 안다고 그래.》

《저도모르게 그만…》

날씨가 어떻다느니, 시간이 어떻다느니 하고 구구하게 변명하고싶지 않았다.

《총은 어디에 있소?》

나는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푹 수그리였다.

《만일 놈들이 동무가 잠든 시각에 달려들었다면 어쩔번 했는가?》

급소를 찌르는 비판에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수가 없었다. 다만 호된 비판과 처벌만을 각오하였다.

이때 오분대장동지가 한걸음 나섰다.

《중대장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밤 제가 근무준비를 깐깐히 검열못하다보니 보초교대시간을 어겼습니다. 여섯번째 향불이 저절로 죽은줄 모르고…》

그때 우리 분대에는 시계가 없다나니 향대를 태우며 근무교대시간을 계산하고있었다.

아! 우리 분대에, 우리 소대에, 아니 우리 중대에 시계가 하나만 있었어도 이런 억울한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터인데.

아마도 시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했기에 형님은 후날 전투공로로 표창되는 물건들중 서슴없이 시계부터 가졌을것이다.

시계만 있으면 공격시간이 되였을 때 바람방향으로 하여 돌격신호나팔소리를 듣지 못할수는 있어도 제때에 돌격명령을 내릴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 시각 형님은 나

를 조금도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분대장동문 왜 대원을 두둔합니까? 초소에 선 병사라면 설사 온밤을 새운다 해도 절대로 자지 말아야 할게 아닙니까.》

형님의 비판은 마디마디가 줄채찍이 되여 나를 연방 갈기였다.

그 다음날 나는 대렬앞에서 경고처벌을 받았다. 사실 이것은 관대한 처벌이였다. 왜냐면 내가 단속했던 주보장이 심문받는 과정에 놈들의 주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던것이였다. 그날 놈은 마을밖에서 특무놈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가진 후 내가 잠들었음직한 시간을 노리여 기여들다가 뜻밖의 졸경을 치르었던것이다. 잘못을 범했지마는 또 공로도 없지 않아 나는 경고처벌만 받게 되였다.

그날부터 내 머리속에는 온통 시계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시계를 로획하여 분대장동지나 소대장동지에게 드리면 앞으로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시간에 조는 현상을 없앨수 있을게 아닌가!

5. 살뜰한 예누나

누군가 내 머리를 쿡 찌르는 바람에 나는 잠에서 깨여났다. 한달전이라면 겁을 먹고 왁작 비명을 지르며 소동을 피웠을테지만 지금은 이전의 소강이가 아니였다. 형님의 말대로 나는 아이가 아니며 게다가 이 쓸쓸한 창고안에서 고함을 쳐야 들어줄 사람도 없었던것이다.

나는 눈을 뜨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했다.

(닭이 와서 쫒는걸가?)

그런데 이번에는 말큰말큰한 손가락들이 나의 흩어진 머리칼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부드럽게 손빗질해주는것이였다. 벌떡 일어난 나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예누나!》

누나 역시 내 손을 다정히 잡으며 반겨맞아주었다.

《소강아, 이제는 몸을 깨끗이 거두는구나.》

순간 얼굴이 뜨끈하게 달아올랐다. 언제인가 머리에 온통 서캐투성이여서 형님에게서 된욕을 먹고 길게 자라 북데기같던 머리칼을 모조리 베여버렸던적이 있었다. 나는 급히 변명을 했다.

《전번의 그 서캐는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옮겨온거예요.》

《아하, 그러니 지금은 여기에 혼자 갇혀있으니 서캐가 옮을가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웃으며 하는 이 말에서 나는 예누나가 모든것을 다 알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얼굴이 숯불처럼 달아올랐으나 다행히도 창고안이 어두워 누나의 눈에 띄우지 않았다.

《누나, 언제 왔어요?》

《어제저녁에 왔단다. 오자마자 너를 찾아왔었는데 날도 저물고 또 너도 잠든것 같아 그냥 돌아가고말았단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로 왔나요?》

한쌍의 이쁜 눈이 나를 마주보며 밝게 웃고있는것이 어둠속에서도 느껴졌다.

《이번에 4중대가 백룡사습격전투를 정말 잘했더라. 그래서 우리 정치공작대에서는 이번에 이 내용으로 노래

와 연극을 만들어 널리 선전하려고 한단다. 가장 적은 손실로 가장 큰 승리를 이룩한 대표적인 모범전투라고 말이야.》

(제일 적은 손실로 제일 큰 승리를 이룩했다구?)

이 말이 나의 가슴을 허비여놓았다. 련대적으로 제일 훌륭한 분대장동지를 잃었는데 이게 어찌 적은 손실이란 말인가.

손실이여도 이보다 더 큰 손실이 또 어디에 있는가.

예누나도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을것이다.

《소강아, 중대지휘부에서는 너에게 3일간의 영창처벌을 주었는데 의견이 없니?》

확실히 지하공작경험이 있는 누나의 눈은 속일수가 없었다.

《중대부에는 의견이 없지만 형님에게는 의견이 있어요. 형님은 언제 한번 날 차근차근 타이른적이 없이 중대앞에서 욕만 해요. 이번에 영창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앞장에서 제기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님이예요. 다들 나를 만나러 왔지만 형님은 다음날에야 날 찾아왔댔어요. 남들한테는 살뜰하게 대해줘도 나한테만은 무섭게 굴거든요.》

볼이 잔뜩 부어서 내리엮는 불평에 누나는 까르르 웃음을 터치였다.

《속담에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는 말이 있어. 곱다고 쓸어주는 사람보다 엄하게 꾸짖는 사람이 더 고마운 사람이란다. 형님이니까 더욱 뜨겁게 사랑해주는거지. 이번에 보니까 나보다도 소강이를 더 고와하더구나.》

나는 머리가 뗑해졌다. 이때까지 나는 예누나가 형님보다도 나를 더욱 끔찍이 생각해준다고 믿어오고있었던것이다.

《체, 날 고와한다구요? 형님의 눈엔 내가 방해군, 말썽군으로만 보이는걸요 뭐.》

나는 예누나앞에 서며는 어쩐지 응석을 실컷 부리고싶었다.

누나는 나를 자기의 친동생처럼 돌봐주고 멀리 떨어졌어도 잊지 않고 나의 안부를 묻거나 좋은 충고들을 해주군 하였다. 우리 부대가 양주를 차지한 이후 석달동안 나는 누나를 한번도 보지 못했으나 누나는 두번이나 인편을 통해 편지를 보내왔다. 첫번째는 반장짜리 백지에 깨알같은 글자들을 가득히 박아쓴 편지를 보내여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것, 정치와 군사, 문화를 성실히 배우며 날씨에 주의를 하라는것, 날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지 말고 자기 전에는 꼭 발을 씻고 자라는것과 같은 다심한 사랑이 글줄마다 찰랑찰랑 차넘치였다. 그리고 붉은 천으로 뚜껑까지 만들어씌운 새 일기장을 보내주었다.

두번째 편지를 보내올 때는 내가 새로 수여받은 기병총에 어울릴 붉은 비단댕기까지 정성껏 만들어 보내주어 눈굽을 뜨겁게 만들었다. 행군할 때마다 총신끝에서 펄펄 날리는 붉은 댕기는 보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자아냈다.

누나는 내가 형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바탕 늘어놓는것을 들으며 새물새물 웃기만 하였다. 예누나도 아마 형제간의 문제에는 서뿔리 간섭하고싶지 않은 모양이였다.

내 말이 끝나자 누나는 들고왔던것을 발밑에서 집어들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소강아, 이걸 주자고 만들어왔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구나.》

첫눈에 모포고정틀이라는것을 알아본 나는 자세히 보지 않았어도 자신있게 소리쳤다.

《좋아요! 좋구말구요.》

아닌게아니라 누이의 꼼꼼한 솜씨가 어디라없이 느껴지는 모포고정틀은 척 보기에도 마음에 흠뻑 들었다.

모포고정틀이라는것은 버드나무가지를 가지고 《D》형으로 만든 행군용도구로서 행군시 모포를 배낭에 든든히 고정시키기 위해 창안된것이였다.

행군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구대원들의 배낭에 달려있는 고정틀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랐다.

특히 련대장동지의것은 내가 보던중 제일 멋지고 간편한것이였는데 바로 그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새 고정틀이 내게도 생긴것이였다. 아마 이것으로 모포를 싸며는 남들은 2분가량 걸리는것을 나는 1분도 못되여서 남먼저 끝낼수 있을것 같았다.

《그런데 누나, 나에게 모포고정틀이 필요하다는걸 어떻게 알았어요?》

《원 참, 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우리 정치공작대에 네또래의 처녀애가 새로 왔는데 입대한 후부터 줄곧 이걸 탐내더구나. 그걸 보고 네 심정도 같을것이라고 생각해서 한개 더 만들어 가져왔지.》

누나의 웅심깊은 생각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애도 참, 새삼스럽게 왜 이러니. 누나도 소강이한테 부탁할것이 하나 있단다.》

《예? 부탁이요? 나한테?》
나는 잘못듣지 않았나싶어 귀를 의심했다.
그렇다. 분명히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라고 말했다.
《너희 중대가 백룡사를 습격할 때 있었던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렴.》
《예?! 그까짓거야 뭐.》
누나에게라면 아무것도 숨길것도 없는 나였기에 그날밤에 벌어졌던 전투과정을 죄다 빠짐없이 이야기하였다. 뒤끝에 나는 자신을 두고 진심으로 뉘우쳤다.
《난 정말 바보였어요. 벌을 받아 싸지요 뭐. 그때 그 죽일 놈의 시계를 다치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꺽꺽 막히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누나는 심중한 어조로 물었다.
《그럼 소강인 왜 중대장동지의 명령을 어기였니?》
이 물음앞에 나는 간밤에 밤새껏 생각했던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누나는 보조개를 지으며 손벽을 가볍게 쳤다.
《소강아,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연극을 만들수 있겠구나. 제목은 〈자명종시계이야기〉어때?》
나는 얼떠름해졌다. 자랑도 아니고 잘못을 가지고 연극을 만들겠다니 도대체 여기에 무슨 재미난것이 있겠다구?
《왜 그렇게만 생각하니! 이 연극을 가지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우리 신사군이 얼마나 간고한 속에서 항일을 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줄수 있지 않겠니. 또 우리 부대군인들에게도 명령과 군률의 귀중함을 직관적으로 깨우

쳐주어 그들에게 사소한 실수나 무책임성도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게 하도록 할수 있지 않을가?》

《그럼 내가 3일동안 처벌받았던거랑 다 연극에 나오나요?》

그러나 누나는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내 어깨를 살며시 그러안았다.

《소강아, 이자 그 사연을 중대장동지랑 알고있니? 정치지도원동지에게랑 말했니?》

《아니, 영창처벌기간이 끝난 다음에 말하려고 했지요 뭐.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러자 누나는 한심하다는듯이 잡고있던 내 어깨를 탁 쳤다.

《너도 참, 왜 말하지 않았니. 그래야 중대부에서도 네 잘못의 근본원인을 똑바로 알것이고 영창처벌을 고려해볼수 있지 않았겠니.》

《체, 누난 우리 형님을 잘 몰라요. 형님은 늘쌍 나를 철부지로 보니까 말을 했든 안했든 영창처벌을 주기는 마찬가질거예요.》

나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지 않느냐고 묻듯이 누나의 표정을 살피였다.

《소강아, 난 너를 알것 같다가도 잘 모르겠어. 어떤 때는 어른스레 보이다가도 또 이번처럼 진짜 철부지로 보이니 말이다. 네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위해서 시계를 욕심낸것은 옳은것이지만 제멋대로 시계에 손을 댄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거든.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라고 할가.》

누나의 비판은 장분대장동지와 형님의 꾸중보다도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왔다. 그 말이 백번 옳았다. 그래서 나는 형님앞에서 자기비판을 할 때 꼭 그렇게 말하리라 속다짐했다.

누나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소강아, 이 누나의 비판이 다 접수되니?》

《누나처럼 깨우쳐주면야 누군들 싫다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한마디 더 하겠다. 내 보기에는 네가 사상적으로 병든것 같애.》

《예—에? 사상적으로 병들었다구요?》

나는 여러번 분대생활총화에 참가해서 구대원들이 이런 말들로 자기를 심각하게 비판하는것을 들어봤어도 나에게도 사상적병집이 있다고는 누가 비판해준 사람도 없거니와 나자신도 전혀 생각지 않았다. 내 가슴에 꽉 차있는것은 오로지 왜놈들을 하루빨리 쳐부시고 전중국을 해방하자는 한생각뿐이였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집생각도 하지 않고 고생도 달게 여기려고 애쓰는데 사상이 병들었다니?

나는 멍해진 눈길로 누나를 바라보았다.

《소강아, 넌 의지가 굳세고 승벽심이 여간 아니지. 앞으로 식견도 높고 싸움도 잘하는 훌륭한 병사가 될수 있어. 그러나 때로는 승벽이 지나쳐서 자기도모르게 조직과 규률을 모르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지. …》

누나의 입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말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고 귀담아듣는 과정에 나는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려고 이토록 애를 쓰는 누나의 모습앞에 무척 감동되였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예누나는 그러잡았던 내 어깨를 살그머니 놓아주면서 생긋 웃었다.
《소강아, 네가 내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이니 정말 기쁘구나. 이제 멀지 않아 넌 꼭 훌륭한 모범군인으로 될게다. 자, 이제는 짐들을 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예? 간다구요? 어디에…》
나는 다시금 내 귀를 의심했다. 누나가 말을 잘못했을지도 몰랐다.
《이번에 내가 여기에 온것은 소강이 형님이 우리 정치공작대에 주동적으로 제기했기때문이란다. 소강이를 데려가서 잘 교양해달라고 말이다.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네가 이렇게 연극의 주역으로 직접 출연하면 연극이 더욱더 의의있고 재미있을게 아니니.》
(형님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철부지를 보내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끝끝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어서 데려가라고 스스로 제기했다구? 알만해. 날 따돌리려고 그러지.)
나는 누나의 손에서 신발이며 배낭을 덥석 빼앗아서는 벼짚단우에 내려놓았다.
《싫어요. 안갈래요.》
《싫다고? 전번에는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더니 오늘은 웬일이지?》
누나는 뜻밖이라는듯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난 왜놈들과 싸울래요. 싸움을 하겠단 말이예요. 연극같은데는 나서고싶지 않아요.》
《소강이, 연극도 혁명을 위해서 하는거란다. 모두가 왜

놈들을 더 본때있게 족치기 위해 하는 정치사업이란 말이야. 전투만이 왜놈들과 싸우는것인줄 아니?》

나는 순간 말문이 꺽 막히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나의 팔소매를 붙잡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연극을 한다고 그래요. 난 그런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웃을게 아니예요. 〈음― 석소강이가 그래서 3일동안 갇혀있었구나!〉하고 말이예요. 차라리 연극을 하겠으면 남경에서 했던 연극을 하는게 어때요? 그게 더 재미날거예요.》

누나는 아무말없이 굳어진듯이 앉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문득 나는 아차! 하고 혀를 깨물었다. 이것저것 급히 주어대던 나머지 남경의 이야기를 꺼내들어 누나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다시금 찔러놓은것이다. 누나의 고운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다. 누나가 몹시 존경하고 친오빠처럼 따르던 평첩형님이 남경에서 지하공작을 하던중 불행하게도 국민당놈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당하였었다.

혁명의 길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예누나의 부모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되여주고 어머니가 되여주었던 평첩오빠마저 놈들의 마수에 걸려 피를 흘리고 쓰러진 다음날 누나는 결연히 신사군을 찾아와 입대하였던것이다.

4년전 남경에서 누나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일을 끄집어내여 다시 못을 박았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담!

나는 괴로와하는 누나를 보면서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을지 몰라 허둥거리였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요. 누나 말을 잘 들을래요. 가자요. 누날 따라갈래요.》

금방 굴러떨어질듯이 속눈섭끝에 가랑가랑 맺힌 눈물방울을 애써 감추며 누나는 싸늘해진 내 손에 더운 입김을 호— 불어주었다.

《소강아, 날 위안해줄 생각은 말아라. 솔직히 말해봐라. 넌 연극보다 싸움을 더 하고싶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중대에 그냥 있거라. 너도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니 아마 형님도 기뻐할게다.》

누나는 고맙게도 나의 심정을 널리 리해하여주었다.

나는 속으로 누나에게 이렇게 맹세다졌다.

(누나! 형님은 날 깔보지마는 내 꼭 누나의 당부대로 훌륭한 신사군이 되겠어요!)

6. 겁쟁이인가, 영웅인가

한사람의 그림자가 창고벽에 길게 비끼자 나는 무릎우에 올려놓았던 일기장과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머리를 들었다. 책상이 없었기에 나는 쭈그리고앉아서 무릎을 책상삼아 일기장을 밑에 받쳐놓고 비판서를 쓰고있었던것이다. 들어온 사람은 중대정치지도원동지였다. 나는 침대에서 닁큼 뛰여내려와서 두무릎을 딱 붙이고 규정대로 경례를 하였다. 형님에게서 비판을 받은 후부터 나는 자기의 옷차림에 항상 각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정치지도원동지는 목단추와 단추들을 꼭꼭 채우고 군모도 머리에 맞게 단정히 쓴 나를 보고는 흡족하게 웃으

며 시원시원하게 물었다.

《소강동무, 비판서를 다 썼소?》

정치지도원동지는 나를 한번도 《꼬마》, 《소강이》라고 부른적이 없었고 반드시 성과 이름뒤에 《동무》라고 부르군 하였다. 특히 《동무》라는 발음을 강조함으로써 그 의미를 깊이 새겨주려는듯 하였다.

《아직 다 쓰지 못했습니다. 저녁식사시간후에 바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로서도 그럴 자신이 없었다. 내용은 몇글자 되지 않았어도 글자를 잘 모르다나니 한글자 한글자 쓸 때마다 퍼그나 애를 먹었던것이다. 실례로 누나가 말해준 결함의 《동기》라는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봐야 어떻게 써야 할지 아리숭하여 《동쪽닭》이라고 써놓고말았다.(중국어에서는 이 두 단어의 발음이 같다.—역주) 막상 써놓고보니 내 보기에도 맞는것 같지 않았다. 글쎄 《동쪽닭》이라는게 무슨 말이람? 또 《효과》라는 말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작은 열매》라고 써놓았다.(중국어에서 이 두 단어의 발음이 같다.—역주) 그러다보니 온통 쓰고 지우고 덧쓰고 하여 비판서는 영 볼품이 없이 되여버리여 할수없이 다시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됐소, 쓴것만큼 봅시다. 가져오라니.》

정치지도원동지는 나보다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얼굴은 몹시 수척하여 광대뼈가 툭 두드러져나와있었다. 여느때는 롱담을 하지 않다가도 일단 웃음주머니를 풀기만 하면 그앞에서 모두가 배를 그러쥐고 데굴데굴 굴면서도 다 웃지 못했다. 그러나 본인만은 시치미를 뚝 떼고 전

혀 웃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나는 정치지도원동지는 남들을 웃길줄 알아도 자신은 웃을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한적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보며 오히려 제먼저 웃었다.

해가 서쪽에서 떴다 해도 이것보다는 나를 놀래우지 못할것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정치지도원동지에게 덧이가 있는것을 발견했다.

아마 이것을 보이기 싫어서 평시에 웃지 않는지도 모른다.

구대원들의 말을 들으니 정치지도원동지는 원래 련대부에 있다가 스스로 제기해서 우리 중대에 내려왔다고 한다.

나는 두근거리는 심정을 애써 누르며 미완성비판서를 그에게 바쳤다. 그는 재빨리 훑어보더니 도간도간 틀린 글자밑에 표시를 해두었다.

《〈동쪽닭〉이 아니라 〈동기〉이겠지? 움직인다는 〈동〉자에 기회라는 〈기〉자이라니. 〈효과〉라는건 먹는 과실이 아니라니. 앞으로 알아두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옳지 못하면 효과도 거둘수 없다는걸 말이요. 자기에게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동지들과 의논을 하고 지휘관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해야 하오!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니.》

정치지도원동지의 말을 듣노라니 의문들이 잇달아 떠올랐다.

나에게 미소짓는 그를 보자 나는 담이 커져 속시원히 물어보았다.

《정치지도원동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원동지는 늘쌍 우리들에게 〈생각을 숨기지 말고 다 터놓으며

터놓을바에는 깡그리 다 말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따지지 말고 듣는 사람들은 잘 가려서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군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렇지. 그래 어디 한번 툭 털어놓고 말해보기요.》

정치지도원동지의 눈에 웃음이 찰랑이였다.

《가령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으나 상급에게 보고할 경황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 결심대로 행동하면 안됩니까?》

정치지도원동지는 인차 대답을 하지 않고 나에게로 다가와 약간 우그러들었던 목깃을 바로잡아주었다.

《동무에게는 기발한것으로 생각되여도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주관에 빠지면 오직 자기 생각만이 제일 훌륭한것으로 자처하기마련이라니. 가령 이번 싸움에서 시계를 로획하려던 생각은 훌륭한것이였으나 그 결과를 보라니. 어떻게 되였는가. 그때 당시 상급에게 보고할 경황이 없는 경우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가? 가지지 말았어야 하는가? 응당 가지지 말았어야지. 설사 종소리가 나지 않는 일반시계였다고 해도 말이요!》

《알았습니다!》

나는 밝게 웃으며 힘차게 대답했다. 그자리에서 문득 예 누나가 들려준적이 있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 배우가 무대우에서 공연을 하던중에 갑자기 본래 하게 되였던 대사보다 더 적중한 말이 생각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연출가에게 새로 찾아낸 대사를 의논하고 그의 동의를 받고서야 다음날 대본의 말을 바꾸어 공연했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강철같은 규률이 없이 제 내키는대로 대사를 더하거나 던다면 아무리 좋은 작품들도 순간에 졸작이 되여버리는것이다.

정치지도원동지의 타이름은 나에게 하나의 교훈을 새겨주었다.

군인은 일반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들이 잡은 총은 장난감이 아니다.

남경에서 살 때 나는 짝패들을 휘동하여 주구놈들을 골탕먹이는 장난을 많이 하였었다. 길에다 수박껍질들을 깔아놓아 그놈들이 엉치가 깨지도록 나자빠지는 꼴을 깨고소하게 지켜보며 통쾌하게 웃던 장난꾸러기대장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군인이다. 준엄한 전장이 엄숙하게 부르는 병사이다.

열을 하고싶어도 하나를 하라면 오직 하나를 해야 하는 강철같은 규률을 자기의 생명으로 간직해야 할 총잡은 대장부이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의문되는것이 있었다.

오직 명령에만 복종한다면 병사들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래, 이걸 좀 물어봐야지.

일단 알고싶은것이 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미가 되살아나 입을 또 열려는데 정치지도원동지가 먼저 일어서면서 엉치에 묻은 검부레기들을 툭툭 털었다.

《소강동무, 배낭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구.》

(가다니? 아직 비판서를 다 못썼는데? 그리고 처벌이 끝날려면 아직 반나절이 남아있는데.)

처벌이 이렇게 빨리 해제될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의심까지 들었다. 혹시 예누나가 뒤에서 적극 힘

써준 덕일가?

내 보기에는 형님이 예누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류달랐다. 언젠가는 누나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았고 또 누나가 중대에 오며는 바쁜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누나를 안내하군 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누나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오면 형님도 가져다가 읽어보았고 후날 누나에게 동생을 도와주어 고맙다고 거듭 감사의 정을 표하군 했다.

한번은 형님이 누나를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것을 보았는데 멀리에서 보느라니 형님은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쫏듯이 연방 머리를 끄덕이는것이였다. 그때 보니 누나가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하면 형님은 당장이라도 날아오를듯한 태도였다.

이 모든것을 보아 누나의 의견이 형님의 생각을 바꿔놓은것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누나가 형님을 설복시켰구나!)

이렇게 단정한 나는 기쁨을 터치며 배낭을 휘둘러메고서 창고문을 나섰다.

눈부신 해빛이 무수한 바늘이 되여 나의 눈잔등을 사정없이 찔러 나는 눈이 시그러웠다.

문밖의 상쾌한 공기가 한가슴에 가득히 밀려들어 폐부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탁하고 묵은 공기들을 말짱 밀어냈다. 나는 가슴이 터지도록 호흡을 한껏 하고나서 씨엉씨엉 나의 분대를 향해 발걸음을 놓았다.

뒤에서는 정치지도원동지가 껄껄 웃으며 손저어 바래주었다. 후날에야 나는 형님을 설복시킨 사람은 다름아닌 정치지도원동지였고 정치지도원동지는 예누나에게서 전후

사연을 다 듣고 함께 형님을 찾아갔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오직 예누나에 대한 고마운 감정만이 가슴에 꽉 차있었다.

중대에 도착하니 모두가 출발명령을 받고 긴장하게 행군준비를 서두르고있었다.

내가 돌아온것을 본 소대원들은 못내 반기며 악수를 하기도 하였고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하였다. 허나 누구도 롱을 걸려 하지 않았다.

마치 나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고 다만 며칠 다른 곳에 다녀온듯이 나를 친절히 대해주는 바람에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수치감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대신 반가움과 흥분이 나를 붕 뜨게 만들었다.

《오늘밤 전투가 있나요?》

곁에 있던 왕소륙동지가 대뜸 말을 받았다.

《차돌이도 모른단 말이지. 우린 그래도 너만은 알줄 알고 오히려 물어보려던 참이였는데…》

《전투임무를 받은것 같기도 해. 아마 백룡사습격전과 같은걸 계획하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중대에서 제일 힘이 황소같은 리대우동지였다. 씨름이건 팔씨름이건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대우동지는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의 보호자로 되여주군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놀려주려고 하면 성이 나서 《왜 소강이하고 해보지 못해서 그러나. 그애가 뭘 안다고.》하고 두둔해나서군 하였다.

이럴 때면 두가지 감정이 동시에 치밀었는데 하나는 나를 무척 위해주는데서 오는 고마움이였고 다른 하나는 나

를 철부지로 치부하는데서 느껴지는 불쾌감이였다.

리대우동지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저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반박하였다.

《생각이 없이 말한다니까. 이게 어디 습격전투할 준비인가?》

퉁을 준 사람은 중대의 《제갈량》이라고 불리우는 밉살쟁이 고충동지였다.

나는 별로 고충동지가 달갑지 않았다. 부분대장인 그는 분대장동지보다도 더욱 잔소리가 많았다.

리대우동지가 자기의 생각을 말했을뿐인데 그 즉시 면박을 주는것만 봐도 역시 그는 속이 좁은 사람이였다.

《그럼 고충동지가 알아맞춰보세요. 동지야 우리 중대의 〈제갈량〉이 아니나요. 우린 오늘밤 어딜 가는가요?》

내 물음에 분대원들이 함께 맞장구를 치며 어서 대답하라고 재촉했다.

《그럼 말하지. 우리가 싸우러 간다면 구태여 이 쌀주머니와 배낭이 왜 필요하겠니? 부담스럽기만 하지. 그러니 이 모든것을 든든히 준비해놓으라고 지시했을 때야 틀림없이 먼곳으로 이동을 한다는것쯤은 짐작해야지.》

나는 짚검부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바닥이며 물을 찰랑찰랑 가득 채운 독들을 둘러보며 고충동지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럼 행군방향까지 알아맞힐수 있어요?》

고충동지는 진짜 《제갈량》이 된듯 틀을 차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도리여 싱긋이 웃는것이였다.

《넌 우리가 어디에 갔으면 좋겠니?》

그야 더 말할것없이 남쪽으로 진군하는것이였다.

남경을 들이치고 거기서 옛 소꼽동무들과 만나는것을 내가 얼마나 꿈꾸어왔던가. 총을 메고 군복을 입은 내 모습은 부러움이 가득찬 눈길들을 끌게 될것이며 《꼬마영웅》으로 받들리게 될것이다.

서쪽으로 가도 괜찮았다. 외삼촌어머니를 만나뵙고 옥분이와 창희를 신사군에 받아들인다면 이것 역시 바라고 또 바라던 일이였다.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을 고충동지에게 터놓고싶지 않았다.

《왜놈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요 뭐.》

《아하, 3일동안 골방에서 공부를 하더니 말재간이 늘었는걸.

다들 이것 좀 보라구. 소강이가 얼마나 멋진걸 가져왔는가.》

고충동지는 땅에 놓여있던 나의 모포고정틀을 집어들고 기발처럼 쳐들었다.

나는 우쭐해졌다. 어쨌든 우리 분대는 물론이고 전중대적으로도 이것과 비길만 한것은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여, 차돌이! 이걸 나에게 달라구.》

《아니, 내것과 바꾸자.》

《이 끈은 누가 꼬은걸가?》

《늘 겨울인데 이 버들가지는 어디서 났을가?》

내 주변은 삽시에 소낙비 오듯 소란스러워졌다.

누구의 손인지 모를 무수한 손들이 저마다 만져보겠다고 장대처럼 뻗쳐왔다.

이때에도 리대우동지가 떼질군들앞에 척 나서서 담장이 되여주었다.

《어른들이란게 부끄럽지도 않아? 꼬마한테 구걸하다니!》

이렇게 우리가 한바탕 웃고 떠들며 흥성이는 속에 분대장동지가 중대부에서 돌아왔다. 그러자 내 주위에 둘러쳤던 담벽이 저절로 허물어지고 분대장동지의 주위에 새 담벽이 생겨났다.

《분대장동지, 오늘밤 어디에 갑니까?》

《전투임무입니까?》

장분대장동지는 대원들을 두줄로 정렬시켜 배낭우에 앉히고는 중대부에서 토론된 내용을 전달하였다.

신사군이 강북으로 진격해온 후 강서인민들의 항일열의는 전에없이 높아졌다. 모두가 공산당을 따르고 신사군을 물심량면 지원하자고 기세들이 하늘을 찌를듯 높아진데 겁을 먹고 강소성주석 한덕근놈은 신사군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한곳에 꾹 들어박힌 놈은 일제와 싸울 생각은커녕 백성들을 착취하여 짜낸 고혈로 부화방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뿐아니라 놈은 신사군이 왜놈들과 싸우는것마저도 달가와 안하고 지어 왜놈들과 결탁하여 신사군을 전멸시키려고까지 꾀하였다.

정세는 신사군이 한덕근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시급히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여 대오를 보존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

장분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집합나

팔소리가 울리였다.

불과 2분도 못되는 사이에 행군준비를 철저히 갖춘 중대가 탈곡장에 정연하게 섰다.

형님이 대렬앞에 나섰다.

그의 엄격한 눈길이 매 대원들의 행군차림을 깐깐히 훑어보다가 내 몸에 닿는 순간 나는 속이 덜컥하여 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대렬앞에서 지난날의 잘못이 다시 거들리여 비판받는것이 겁났던것이다.

형님이 손을 쳐들며 소리쳤다.

《동무들, 모두 노래를 부릅시다. 지휘는 내가 하겠습니다.》

형님은 박자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저도모르게 픽 웃음이 나갔다.

노래를 지휘하는 모양이 꼭 망돌을 돌리는것 같았기때문이였다.

예누나는 두팔을 아래우로 휘두르며 두마리의 제비가 날아예듯 고운 두손으로 가볍게 또는 힘있게 강박과 약박을 주며 지휘하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할 정도였다. 그런데 형님은 노래를 지휘하는것이 아니라 《삼촌네 집에서 망돌로 밀쌀을 갈고있었다.》

합창이 끝나고 형님이 연설을 시작하자 나는 입귀에 남겼던 웃음기를 싹 거두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제발 내 이름이 불리우지 않기를 빌었다. 이 심정을 알았는지 형님은 최근의 정치군사정세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개괄하였다.

마감무렵에 형님은 나를 보며 물었다.

《소강동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는 뭐요?》

나는 모두가 들으란듯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옛,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것입니다.》

《동무들, 소강동무의 대답이 옳습니까?》

《예!》

일제사격같은 대답소리가 온 탈곡장이 떠나갈듯 울렸다. 마을사람들이 모두 떨쳐나와 우리들을 구경하고있었다. 동네아이들도 어른들 틈바구니에 끼여서 부러운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진지고가 보이지 않았다.

《옳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4중대는 싸움에서 용감했고 규률집행에서도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규률을 생명처럼 여기고 명령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면 우리는 불패의 대오로 성장할것이며 한덕근이든 누구든 왜놈들과 함께 밀려온대도 우리는 조금도 무섭지 않을것입니다. 동무들, 내 말이 틀립니까?》

《옳습니다!》

전번보다 더욱더 우렁찬 대답소리가 탈곡장을 들었다놓았다.

이렇게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병사대중을 계발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것은 신사군당위원회가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사업방법이였다.

나는 대중의 심금을 드세게 울리는 형님을 보며 어깨가 으쓱해졌다. 나에게 이런 형님이 있다는 긍지가 가슴뿌듯하게 안겨왔던것이다.

《정치지도원동지가 발언하겠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도 중대장처럼 간단하면서도 기백있게 연설을 하였다. 그는 연설도중 자주 공산당원들이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군 하였다.

《공산당원?》

사실 나는 내가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하였었다.

남경에서 공산당을 도와서 련락임무를 수행했고 또 지금은 공산당의 군대인 신사군에 입대했으니 나 역시 공산당원이라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입대한 후 3~4개월이 지나서야 나는 공산당원은 누구나 되는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물론이고 리대우, 왕소륙동지들도 당원이 아니였다.

우리 분대에서 오분대장과 장부분대장 그리고 고충동지들만이 당원이였다.

휴식할 때면 세명이 서로 눈길을 맞추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기였었다.

그러나 왕동지가 《저기서는 생활총화를 하고있어.》라고 알려주어서야 나는 《생활총화》라는 새 말의 의미를 알았다. 또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들이 몹시 부러웠다.

정치지도원동지가 연설을 마치자 형님은 《일어섯, 어깨 총!》하고 구령을 쳤다. 인차 대오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는 곳으로 출발하였다.

대오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행군길에 오른 이 시각 나는 단단히 결심다졌다.

(앞으로 이 소강이가 영웅인가 겁쟁이인가를 똑똑히 보여줄테다!)

7. 밀정을 잡은 두 꼬마병사

우리 중대는 온밤 강행군을 하여 곽촌의 동쪽 소한장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곽촌에서 동쪽으로 약 6리가량 떨어진 이곳 지형은 마치 단도같이 생기였고 곽촌은 꽉 틀어쥔 주먹같았다. 사령부와 련대지휘부에서는 토론을 거듭한 끝에 소한장을 사수할 임무를 우리 중대에 주기로 정식 결정했다.

요 며칠새에 정세는 몹시 팽팽해졌다. 통보에 의하면 한덕근과 이미 협정을 맺은 왜놈들은 신사군을 소멸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춘다고 한다.

한덕근이가 먼저 우리를 공격하면 뒤따라 양주성에 있던 왜놈들도 이에 협공하여 우리를 몰살시키던가 아니면 장강속에 처넣어 물을 실컷 먹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던지……

또 한가지 나쁜 소식은 이때까지 중립을 지키던 태주성의 군벌두목 리장강놈이 돌연히 태도를 바꾸어 우리측 담판대표를 구금하고 당장 곽촌에서 떠나가라고 으름장을 놓는것이였다. 한덕근이와 짝자꿍이를 하는 꼴이 분명하였다. 이 소식들이 사실인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불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리 없는 법이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 나는 오히려 사기가 났다.

왜놈들을 통쾌하게 답새길 기회가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우리 중대는 소한장에 도착하는 그날로 전호를

파기 시작했다. 아마도 진지전을 하려는것 같았다. 왕동지도 기분이 흥겨운지 흙을 파올리면서 줄곧 《수수께끼노래》를 흥얼흥얼거렸다.

무엇이 둥글둥글 하늘에 떠오를가?
무엇이 둥글둥글 물우에 떠있을가?
무엇이 둥글둥글 거리에서 팔리울가?
무엇이 둥글둥글 누나앞에 있을가?

그리고는 《여, 차돌이, 한번 알아맞혀봐.》라고 말을 걸어왔다.

내가 세번째와 네번째 답을 틀리게 대자 그는 《이런 바보군대라구야!》 하고 놀려주고는 또 같은 곡조에 담아 답들을 흥얼거리였다.

달님이 둥글둥글 하늘에 떠오르지
련꽃잎이 둥글둥글 물우에 떠있지
구운 빵이 둥글둥글 거리에서 팔리우지
거울이 둥글둥글 누나앞에 있지

그가 부른 이 해학적인 노래는 전호를 파는 분대원들의 피로를 가셔주고 더욱 성수가 나게 하였다.

나는 여직껏 한번도 전호를 파본적은 없었으나 구대원들의 작업모양을 보니 별로 어려울것도 없을것 같았다. 무슨 일이든지 배우면 해낼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가 맡은 구간을 기어이 나의 힘으로 완성하리라 단단히 잡도리를 하였다. 리대우동지가 내옆에서 일하겠다고 분대장

동지에게 제기하였다.

힘이 장사인 대우동지에게 있어서 전호파기는 식은죽먹기였다. 그는 나에게 한쪽눈을 찌긋해보이면서 말하였다.

《꼬마, 우리 서로 돕자구.》

그의 심정이 고마왔으나 나는 우정 픽 내쏘았다.

《서로 돕자구요? 그건 무슨 뜻이예요?》

《허허. 서로 돕는게 싫어서 그래? 내가 꼬마의 구간을 책임적으로 파주겠으니 넌 이 목구멍이 마르지 않도록 차를 책임적으로 끓여오면 돼!》

《체!》 나는 곡괭이를 집어들고 휙 달려나갔다.

《여, 꼬마, 곡괭이를 놓고 차나 끓여오라는데…》

뒤에서 대우동지가 왝왝 소리칠수록 나는 더욱더 들고 뛰였다.

《대우동지, 목이 마르면 내가 취사분대동지들에게 알려줘서 물을 떠오게 하겠어요.》

《섯!》

난데없이 날아든 명령에 나는 우뚝 서서 소리난쪽을 돌아보았다.

분대장동지가 나를 손짓으로 부르고있었다.

《소강동무, 오늘 우리 분대가 취사분대를 돕는 날이요. 그러니 동문 식당일을 도와야겠소.》

분대장의 명령이니 나는 싫었지만 어쩔수 없었다.

식당에 가니 취사분대 분대장동지는 마침이라는듯이 모가지가 긴 배불뚝이병을 돈과 함께 내 손에 쥐여주며 명령했다.

《불은 때지 않아도 좋고 남새는 다듬지 않아도 되니 곽촌장마당에 가서 식초 한근 사올것!》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나에게 쉬운 일만 골라서 시키려들었다.

만일 형님이 이것을 알면 엉석받이로 키운다고 언짢아할것이다.

하지만 식초를 사오는것 역시 명령이니 들어야 하였다.

내가 기병총을 추스르며 일어서자 분대장동지는 손을 홰홰 내저었다.

《장보러 가는데 총은 왜 메는거냐? 총은 여기에 두어라. 내가 책임적으로 보관해줄테니.》

그 말이 옳다고 여겨져 나는 수류탄만 혁띠에 차고 문을 나섰다.

《분대장동지! 배추를 삶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아니, 조급해할건 없다. 점심식사전까지 오면 되니까. 오늘은 열흘만에 열리는 장날이니 갔던바에 구경도 실컷 하고 오너라.》

이것이야말로 반나절동안 휴식을 주는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아마도 우리 분대장동지와 취사분대장동지가 나를 쉬게 하자고 서로 짜고든것 같았다. 그러자 빨리 식초를 사다놓고 분대로 돌아가고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6리길을 나는 단숨에 달려서 장마당에 들어섰다. 마을이 크다보니 장마당도 규모가 작지 않았다.

유럽잡화들을 파는 상점이 있는가 하면 요란하게 지은 술집들도 여러채나 있었고 그앞에 작은 매대들이 총총히 펼쳐져있어 한눈에 번잡한 곳이라는것이 대뜸 안겨왔다. 마을의 변두리까지 장사군들이 줄느런히 자리펴고있어 한바퀴 다 돌아보는데 시간이 실히 걸릴것 같았다.

게다가 신사군은 백성들의 재산을 털끝만큼도 해치지 않고 물건값도 푼푼히 주는 좋은 군대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여 주변마을의 장사군들도 모두 여기 곽촌으로 밀려들어 말그대로 인산인해를 펼쳐놓았다. 어찌나도 붐비는지 한걸음 지나가기도 헐치 않았다.

길량옆에 차려놓은 울긋불긋한 상품들에 혹하여 여기저기에 눈길을 홀홀 던지는 내 머리속에서는 벌써 식초생각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사람과 물건은 더 말할것도 없고 가축들도 득실득실거렸다.

나는 한마리의 송아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금방 태여난듯 보들보들한 털들이 아직 있는데도 벌써 굴레를 쓰고 시장에 팔리우러 나온 송아지를 보니 어쩐지 애처로와져 송아지대가리를 쓸어주고싶었다. 송아지도 역시 크고 까만 두눈을 들어 나를 순하게 바라보더니 채 여물지 못한 영각소리를 울렸다. 내가 쓰다듬으려고 손을 올리자 송아지는 무서운듯 슬슬 피하려들다가 내가 자기를 해치려 하지 않음을 알았는지 온순히 자기 몸을 맡기며 음매음매 울었다. 마치 나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듯싶었다. 이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있던 소장사군이 뻔히 내가 소를 사지 않으리라는것을 알면서도 물었다.

《신사군동무, 소를 사려고 그러우?》

나는 히죽 웃으며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고는 그냥 앞으로 나갔다.

앞에는 양과 토끼, 돼지들을 파는 사람들이였다.

흰구름송이같이 뭉실뭉실한 새끼양들이며 까만 석탄

덩이같이 반질반질한 새끼돼지들, 하얀 눈덩이같은 새끼토끼들이 모두 나의 눈길을 붙잡고 좀처럼 놓아주질 않았다. 장사군들은 내가 짐승들을 무척 귀여워하는 모양을 보고는 싱긋이 웃으며 말들을 걸어왔다.

《신사군동무, 고향이 어디요? 집에서도 짐승들을 기르겠지?》

《어린 나이에 군대가 되였구만.》

《꼬마군댄 싸움을 해보았나?》

내가 선선히 대답을 하니 더 많은 물음들이 날아들었다. 그 하나하나의 물음에 친절히 대답해주던 나는 피뜩 정신을 차리고 경각성을 높였다.

부대위치라든가 인원수, 싸운 지명들은 다 군사비밀에 속한다. 지금 놈들이 수많은 밀정들을 마을에 들이밀어 우리 부대의 형편을 내탐하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는데 혹시 이 장사군들속에도 간첩놈들이 끼여있을지 누가 알랴. 나는 대충 대답을 얼버무리며 급히 가축시장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몇걸음 못가서 옆에서 들려오는 싸구려소리에 발목이 붙잡혔다.

《여보게, 꼬마군대, 여기에 와서 순두부를 한그릇 들고가라구. 값도 비싸지 않아.》

순두부라는 말에 나는 닭알침을 꿀꺽 삼켰다.

하얗고 말랑말랑한 순두부를 어찌 그냥 지나치랴. 사람들의 말을 듣자니 순두부는 많이 먹을수록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다. 내가 남경에서 삼촌을 도와서 련락임무를 수행하자 수고했다고 삼촌이 순두부를 한턱 낸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맛은 하나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정도였었다.

벌써 코끝에 풍겨오는 냄새에 끌리여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순두부집의 빈자리들을 찾기 시작했다. 새파란 파를 한가득 썰어놓은 접시들과 보기만 해도 입안이 얼벌벌해지게 하는 시뻘건 고추기름단지가 식탁우에서 어서 오라 부르고있었다.

내가 망설이는것을 눈치챈 주인장은 더욱더 말에 양념을 쳐가며 구미를 돋구었다.

《꼬마군대동무, 어서 오라구요. 앉아서 들고가라구. 돈이 없어도 일없소다. 까짓거 삼촌이 한턱 낸셈치지요!》

이 말이 나의 기분을 건드려놓았다. 이 소강이를 그까짓 순두부 한그릇 사먹을 푼돈마저 없는 불쌍한 아이로 여기고 동정하는것 같아 비위가 상했던것이다. 왼쪽 웃주머니에는 달마다 받은 생활비에서 절약한 돈이 몇십전 잘되였고 오른쪽 웃주머니에도 역시 식초 한근을 사고도 남을 돈이 불룩하게 들어있었다. 내가 그냥 가버리면 주인이 뒤에서 《저 꼬마군대는 돈이 한푼도 없으니 먹고싶어도 먹지 못하는구만.》 하고 비웃을것 같았다. 이것은 나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신사군의 명예와 이어진 문제이다.

나는 성큼성큼 빈 식탁으로 다가가 들고있던 식초병을 탁우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기세있게 소리쳤다.

《한그릇 가져오세요!》

주인은 웃음지으며 은근히 물었다.

《고추기름도 칠가?》

《듬뿍이 치라요.》

나는 행동도 목소리도 어른들의 흉내를 내느라 애썼다. 음식점안에 있던 사람들모두가 나를 돌아보며 의미있는 미소들을 지었다.

그들이 나에게 보낸 선량한 눈빛들은 《꼬마동무, 어른흉내를 내느라고 하지 말고 어서 많이 드시오. 마음놓고 배불리 들라구.》라고 말하는듯싶었다.

인심후더분한 주인이 어느새 김이 물물 나는 순두부국에 파와 고추기름을 듬뿍이 쳐가지고 내 식탁우에 올려놓았다.

《꼬마군대동무, 더울 때 어서 들라구요. 만일 맛이 없으면 돈을 안받겠수다!》

하얗고 빨갛고 푸르게 울긋불긋한 국을 받아놓은 나는 곁눈질로 슬며시 주위를 살펴보았다. 호기심에 찬 눈길로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들의 이야기와 식사에 열중하였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우리 분대 분대원들은 생활비를 타며는 약속이나 한듯이 차례로 돌아가며 나에게 맛있는것을 사주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한턱 쓰려고 하면 오히려 나를 꾸짖으면서 억지로 돈을 다시 내 주머니에 밀어넣어주었다.

《돈을 아꼈다가 후날에 양말이나 비누를 사거라.》

《다음번에 양주를 해방하겠는데 빈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니?》

이렇게 되여 내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남게 되군 하였다.

분대동지들을 위해서는 한푼도 쓰지 못한 돈으로 혼자 순두부국을 사먹자니 무척 죄송스럽기까지 하였다.

부지런히 숟가락을 놀려 그릇을 말짱하니 비우고나서 나는 입술을 훔치며 일어서다가 그자리에 뚝 굳어져버렸다. 길 건너편 군고구마를 파는 할아버지앞에 나어린 신사

군전사가 앉아서 고구마를 맛있게 먹고있었던것이다. 그의 손에 들려진 사발만한 군고구마에서는 단즙이 줄줄 흘러내려 구수하고도 달콤한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있었다.

누구일가? 나는 두눈에 힘을 주어 살펴보았다. 나이는 나와 엇비슷해보였는데 아무리 봐야 누군지 알수 없었다. 여기 마을과 부근의 아이들은 대체로 알고있었는데 이애만은 눈에 설었다.

더우기 나말고도 우리 부대에 또 다른 꼬마전사가 있다는 말은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 호기심이 더욱 동했다. 머리를 돌리는 순간을 기다려 나는 그애의 뒤머리에 눈길을 박고 떼지 않았다.

값을 다 치른 그애가 두손에 각각 고구마를 쥐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남자가 아니라 처녀애였던것이다. 단발한 머리우에 군모를 한옆으로 기우뚱하게 쓴것이 어딘가 얄망스러워보였다.

만일 우리 형님이 나의 그런 차림을 본다면 가만 두지 않았을것이다.

단추알처럼 동그란 두눈이 되똑한 이마밑에서 반짝이고있었고 눈섭은 깎아버렸는지 거의나 알아볼수 없었지만 대신 속눈섭이 류달리 길어 그 결함을 가리워주는듯싶었다. 귀여운 얼굴이였다.

게다가 군복허리춤은 조금 잘룩하게 조여 허리에 꼭 맞게 입은것이 더욱 날씬하게 보였다.

간부동지들의 군복을 본따서 웃옷의 웃주머니에서부터 아래주머니까지 두줄기 재봉침을 박은것이 제법이였다.

처녀애는 나를 보자 얼굴을 찡그려보였다.

《그렇게 게걸든것처럼 순두부를 먹으니 신사군망신을 네가 시키는구나!》 하고 놀려주는것 같았다.

나 역시 처음 보는 애였으나 맞받아 눈살을 찌프려보였다.

《그렇게 고구마요, 락화생이요, 해바라기씨요 하면서 간식만 찾는게 네가 무슨 신사군이란 말이야.》 하고 조롱하고싶어서 말이다.

그애는 아무말없이 내앞을 지나 휙 가버렸다.

내가 또 한그릇 청하려는데 멀리서 삐걱거리는 달구지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나는쪽을 바라보니 캡을 푹 눌러쓰고 푸른색 솜저고리를 걸친 사람이 달구지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그 사람은 얼굴을 보이기 싫은듯 머리를 푹 수그리고있었지만 키가 껑충하고 빼빼마른 모습, 타고있는 달구지와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어딘가 눈에 익었다.

달구지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나는 모르쇠를 하고 길바닥에 다리를 쭉 뻗치고 앉았다. 그러자 달구지가 길을 멈추고 달구지군이 숙이였던 머리를 쳐들었는데 나는 길숨한 얼굴을 가득히 뒤덮은 주근깨들을 보자 제꺽 알아보았다.

(아니? 곰보 정이놈이 아닌가?!)

이놈은 원래 우리 외삼촌이 사는 마을의 촌장이였는데 부화방탕하고 게으르다보니 물려받았던 재산과 땅을 다 불어먹고는 장사를 해보겠다고 간상배들과 작당질하며 돌아치다가 결국은 양주에서 왜놈의 주구로 전락되였다.

이놈은 내가 두고두고 결산을 해야 할 피맺힌 원쑤였다. 곰보놈의 강박에 못이겨 외삼촌은 그놈의 쌀을 배에 싣고 상해에 가서 시계며 레코드, 주단 같은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불행하게도 왜놈들의 군함에 들이받기워 통채로 강밑에 가라앉았다. 다행히도 외삼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와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놈은 우리 외삼촌이 그 많은 쌀을 공산당에게 가져다바쳤다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외삼촌의 목에 돌을 매달아 강물에 던졌다.

후날에 이놈이 신사군을 위해 길잡이로 나섰던 공로가 있어 관대히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내 가슴에 맺힌 원한은 도저히 삭일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가?

나는 성큼 길을 가로막고 허리에 량손을 얹고서 소리쳤다.

《서라!》

오가던 행인들이 모두 나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곰보놈은 제꺽 달구지에서 내려서서 태연한 표정을 짓느라 애썼다.

《신사군동무, 왜 그러는거요?》

그놈은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한것 같았다.

나는 쓰겁게 웃으며 말했다.

《정이, 어디 갔다오는 길이지?》

그놈은 어리숙한체 하려들었다.

《혹시 나를 잘못보지 않았소? 난 정이가 아니요.》

(잘못보았다구? 흥! 네놈이 날 오히려 잘못보는구나.)

교활하게 발뺌하려드는 그자를 보자 나는 더욱 의심이 부쩍 들었다.

설사 식초를 사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놈이 여기에 나

타난 내막을 꼭 까밝히고싶었다. 아마 이것을 알면 취사분대장동지도 나를 나무람하지 않을것이다.

부대가 멀리 떨어져있으니 언제 알릴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했다. 나는 이놈이 꼭 우리 부대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도망치던 밀정놈이라고 단정했다. 속담에 《똥개는 죽어도 똥먹는 버릇은 못고친다.》고 했다.

또다시 영창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놈을 곱게 놓아보내서는 안되였다.

《정이, 날 똑똑히 봐라! 네가 열백번 둔갑해도 그 곰보낯짝이야 못감추지!》

그러자 곰보는 눈망울을 희뜩이며 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그제서야 알아본듯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놓았다.

《아하, 소강이였구나. 오늘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나는 음흉한 이놈이 틀림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왜놈의 개》라고 딱 찍어말할수 없어 속이 바질바질 끓었다.

《나와 함께 우리 부대에 가자. 거기서 알아본 다음에 너를 다시 놔줄테다.》

곰보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정신병자처럼 냅다 고함질렀다.

《신사군은 례절이 있고 사리에 밝다더니 이 신사군은 생억지를 부리는구만. 비켜, 난 가야겠어.》

밸이 틀린 나는 몸을 더듬어 총을 찾았다.

그런데 총이 없었다. 그래서 이놈이 날 업신여기였구나.

그러나 취사분대장을 탓해서 무엇하랴.
전적으로 내 잘못이였다. 병사가 총을 벗어놓고 다니다니. 가슴치며 후회해도 이제는 늦었다.
나는 급히 수류탄을 뽑아들고 호령했다.
《이놈, 네놈은 왜놈의 주구였댔으니 꼭 알아봐야겠다. 달구지를 돌려라.》
요진통을 찔리워 낯색이 달라진 놈은 위험을 느꼈는지 달구지를 내버리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날래게 따라섰으나 달구지에 가로막혀 인차 뒤따를수 없었다.
《서라! 이놈, 어딜 뛰는거야!》
이때 그놈이 달아빼는 길복판을 가로막으며 한 나어린 녀병사가 되받아 소리쳤다.
《이놈아, 서라!》
그리고는 달려오는 놈을 향해 손에 들었던 고구마를 힘껏 던졌다.
고구마는 빗나갔고 곰보는 소녀를 옆으로 떠박지르고 그냥 꽁무니를 내뺐다. 소녀는 넘어지는 순간에 놈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힘껏 웨쳤다.
《여러분, 이놈을 잡아주세요. 왜놈의 개가 도망쳐요.》
이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던 신사군전사들이 달려와 곰보를 붙잡았다.
놈은 울며불며 애걸했다.
《억울하오. 억울해. 난 친척을 만나러 왔댔단 말이요. 난 특무가 아니라 일반백성이요.》
주먹을 부르쥐고 단숨에 뒤쫓아온 나는 담장을 둘러친 사람들의 짬새를 비집고 들어가 곰보의 상통을 한바탕 후려갈기고싶었다. 그러나 조직규률을 어겨서는 안되겠기

에 씩씩거리며 솟구치는 분노를 애써 참았다.
《죄진게 없다면 왜 도망치려고 했어?》
놈은 벙어리같이 말을 못하였다.
《가자! 우리 중대에 가서 심문해봐야겠다.》
그러자 곁에 있던 소녀병사가 물었다.
《동무네 중대가 어디에 있니?》
《소한장에 있어.》
《그렇게 먼곳까지 갈 필요는 없어. 도중에 이놈이 도망치면 어찌겠니. 가까운데 사령부보위처가 있으니 거기에 끌고가자.》
나보다 키도 작고 나이도 한살쯤은 어려보이건만 머리는 나보다도 더 뱅글뱅글 잘 돌았다.
본래 나는 내또래 아이들에게는 죽어도 지려 하지 않는 성미였지만 이번에는 부득불 그의 말대로 하지 않을수 없었다.
《좋아, 사령부보위처에 가자.》

8. 소녀병사 조여

《조여동무, 참 용감하던데!》
이것은 사령부보위처에서 나온 우리들이 어깨나란히 걸을 때 내가 그에게 진정으로 터친 감탄이였다.
나는 사령부안에서 소녀애의 이름을 알았다. 나와 조여 그리고 이름모를 한 전사가 곰보놈을 끌고 사령부보위처에 들어섰을 때 안에 있던 사람들중 누군가가 《조여야, 끌고

온건 누구냐?》라고 묻는것을 듣고 이애의 이름을 알았다.
조여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애가 저놈의 정체를 발가놓으니 글쎄 후닥닥 도망치는게 아니겠어요.》
보위처의 아저씨 한분이 나에게 이것저것 자세히 묻고나서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가봐라. 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좋아보이질 않는구나. 우리가 한번 심문해보겠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함께 보위처문을 나서게 되였다.
나는 슬며시 조여를 곁눈질했다. 닭알처럼 하얗고 매끈매끈한 살결, 파란 정맥이 다 들여다보이는 맑은 얼굴색, 마치도 해빛 한번 쪼이지 않고 그늘에서 자란것 같았다.
나보다 키도 좀 작고 나이도 어려보이는데 오히려 내가 《이애》라고 불리웠던게 어처구니없었다.
하지만 곰보놈을 이악하게 붙잡은 그 용감성과 지혜앞에서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처녀애는 내 칭찬쯤은 시답지 않게 여기는듯 입술을 비죽거렸다.
《그게 무슨 큰것이라고 그러니? 그저 왜놈의 개를 잡아달라고 고함을 질렀을뿐인데. 그놈이 날 밀쳐서 넘어뜨린걸 생각하면 에익!》
《넘어질 때 상하지 않았니?》
《흥, 누굴 순두부로 빚은줄 아니. 내가 그렇게 만문해보이던?》
조여의 대답은 여문 고추같이 맵짰다.
(하, 이것 봐라, 괴짜인데!)
나는 당돌한 그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넌 머리가 뱅뱅 돌더구나. 난 혼자서 잡을 생각만 했거든. 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붙잡지 못할번 했어.》

《그놈은 뛰여야 벼룩이지. 감히 우리한테서 빠져나가?》

이렇게 말들이 오고가느라니 우리는 어느덧 마을중심에 나진 십자길에 이르렀다.

나는 순두부집으로 되돌아갈려고 길을 잡았다. 거기에는 식초병이 있었던것이다.

문득 조여가 나에게 물었다.

《얘, 이름이 뭐지? 어느 중대냐?》

《얘》라고 불리우는 바람에 좋던 기분이 싹 잡쳐지고 조여에 대한 인상이 바뀌여졌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게 《얘, 얘.》하면서 제법 어른흉내를 내려든다? 나는 조여의 건방진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며 대답해주었다.

《얘, 이 오빠는 석소강이라고 2대대 4중대 전사이시란다.》

그러자 조여가 기쁨의 탄성을 올리는것이였다.

《아하, 알고보니 동무가 석소강이였구나!》

나는 그만 얼떠름해졌다. 한번도 본적이 없는 이 처녀애가 나를 어떻게 알가? 게다가 《얘》로부터 대번에 《동무》로 승급되였다.

나의 어리벙벙해진 표정을 본 조여는 방긋 웃으며 뒤따라 설명을 해주었다.

《예언니가 동무에 대한 소리를 자주 해서 알고있었지 뭐.》

(아하, 그래서였구나!)

나는 즉시에 깨달았다. 그러니 이애가 바로 예누나가 언젠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그 소녀병사로구나.

조여가 《예언니》라고 부르니 나는 조여에 대해서도 어쩐지 친근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비꼬던 말투를 제꺽 버리였다.

《그러니까 동무가 정치공작대에 있다는…》

《그래 맞았어. 우리 부대는 마을뒤쪽에 있는데 같이 가자. 가서 예언니를 만나보지 않겠니? 언니도 기뻐할게야.》

나는 한달음에 가고싶었다. 그러나 지금이 몇시인지 알수 없어 망설이였다. 식초를 사가지고 점심식사시간전에 돌아가야 하였으니 만일 늦어지면 중대의 점심식사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나는 하늘에 떠있는 해의 높이를 가늠해보며 결심을 못내렸다.

이때 조여가 내 마음을 알아보고 옆에서 한마디 더 부추기였다.

《가자, 인차 다녀오면 되지 않니?》

《좋아, 가자.》

나는 드디여 결심을 내렸다.

속으로 예누나를 만나보고 인차 돌아서서 냅다 달려가며는 점심식사시간전에 얼마든지 중대에 들어설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던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길을 걸으면서 조여는 자기가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종다리같이 지저귀였다. 그는 나의 외사촌누이동생 옥분이와 판판 달랐다.

옥분이가 얌전하고 수집음 잘 타는 농촌처녀애의 전형이라면 조여는 활달하고 씨원씨원한 직통배기였다. 자기 이야기를 끝내자 이번에는 나에게 말을 시키였는데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우정 발걸음을 늦추며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마치 내 이야기를 길우에서 마저 다 듣고서야 자기의 부대에 데리고가려는 심산인것 같았다.

조여가 내 말을 주의깊게 들어주니 나 역시 이야기에 점점 열을 올리였는데 어찌보면 구대원이 신대원을 한바탕 훈시하는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창 조여앞에서 위신을 세워가고있는데 문득 뒤에서 《여, 차돌이 네가 왔구나!》라고 반기는 소리가 날아왔다. 나는 이마살을 찡그렸다. 여기에도 나를 아는 사람이 또 있었는가? 소리를 좇아서 뒤돌아보니 갈대무지옆에 한 젊은 전사가 앉아서 책을 읽고있는것이 보일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저 사람이 날 찾았을가? 내 짐작대로 과연 그 전사가 나에게 또다시 손짓하는것이였다. 나는 그에게로 발걸음을 돌렸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나는 몰라보게 변한 진지고를 알아볼수 있었다. 신사군군복을 입으니 이전의 글뒤주티는 가뭇없고 겁에 질린듯 하던 눈빛도 지금은 대담하고 떳떳하게 나를 마주보고있었다. 여기서 지고를 만나게 되니 이전의 옹쳤던 감정보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 앞섰다.

《진지고, 너였구나!》

옆에서 우리의 상봉을 지켜보던 조여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무네는 이미 알고있었니?》

나는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언제 입대했어? 누가 소개해주던?》

《석중대장동지가 소개해주었지 뭐. 입대는 말이야, 네가 처벌…》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슬그머니 조여쪽을 눈짓했다. 이 행동에서 나는 그가 말하기 멋적어하는 원인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내가 처벌받는 기간에 입대했구나.)

처녀애의 앞에서 내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의 깊은 생각이 참 고마왔다.

《그런데 무슨 책을 보고있니?》

그러자 그는 물어보기를 기다렸다는듯이 둘둘 말았던 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자! 한번 봐!》

나는 책을 펼치고 그 뚜껑에 씌여진 제목을 보았다.

등사기로 찍은 까만 글자들이 나를 빤히 마주보았다.

《자명종시계이야기.》

나는 하마트면 책을 떨굴번 하였다. 그러니 끝내 연극을 만들었구나. 나는 조여가 없는 곳에서 연극에 대해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싶었으나 조여는 눈치없이 우리들사이에 끼여들었다.

《이건 예언니가 직접 쓴 연극대본이야. 지고동무가 주인공 왕소산역을 맡았어!》

《왕—소—산?》

나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우리 중대에는 왕소륙은 있어도 왕소산이라는 병사가 없었던것이다.

그럼 이 연극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가? 왕소산은 누구인가? 진지고는 왜 이렇게 몸둘바를 몰라

할가?

옆에서는 조여가 그냥 참새같이 재재거리였다.

《왕소산이란건 이 연극에 나오는 어린 병사야.

어느날 야간습격전에서 명령을 듣지 않고 자명종시계를 가지려고 했지 뭐. 그래서 잠을 자던 놈들이 종소리에 놀라서 깨여나 발악하는 바람에 분대장동지가 희생되였어. 중대부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한 왕소산에게 3일간의 영창처벌을 주었고 잘못을 저지른 본인은…》

아이쿠! 그러니 왕소산은 결국 나였구나. 진지고의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던 붉은색이 내 얼굴에도 스며들었다. 진지고는 내앞에 서있기 참으로 따분했던지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하며 두손을 바지주머니에 쿡 찌르고는 하늘만 우두커니 올려다보았다.

조여도 우리들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던지 술술 흐르던 말을 뚝 멈추었다.

《왜들 그러니? 모두가 벙어리가 되였니?》

나는 집요하게 따져묻는듯한 조여의 눈길을 피하느라고 나무우에 있는 까치를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조여는 진지고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기어이 그 비밀을 알아낼 잡도리였다.

진지고는 본래 마음이 여린데다가 또 조여와 한가마밥을 먹으며 함께 지내는 사이다보니 입을 계속 다물고있기가 난처했다.

그렇다고 나를 노엽히는것도 바라지 않았던지라 그는 조심조심히 나에게 물었다.

《소강동무, 내가 말해줄가?》

이 어정쩡한 태도가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차

라리 《차돌이.》하고 별명을 불렀으면 트집걸고 한바탕 해볼수도 있으련만 약삭바르게 《동무》라고 불러주니 그럴수도 없어서 더욱 기분만 좋지 않았다.

조여는 조여대로 빈정거리듯 두눈을 쪼프렸다.

《알고보니 진동무의 입은 석동무의것이였구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니 오히려 담이 커지였다. 까짓거 말하겠으면 말하라지. 어차피 래일은 다 알게 될 테니까. 말했다고 이 석소강이가 부끄러워할줄 알아? 진지고의 입을 빌어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직접 사실을 알려주는게 더 떳떳하지.

《조여, 내가 말하지. 이 연극의 왕소산이가 바로 나야!》

《으—응?》

조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듯이 두눈을 단추알처럼 둥그렇게 한껏 떴다.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진짜야. 사실 그 대본은 내 이야기를 듣고 쓴것이거든.》

일단 용기를 내서 입을 열고보니 그다음은 거칠것이 없었다.

그런데 나를 두고 비꼬리라고 생각했던 조여는 깔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탄을 터치는것이였다.

《소강동무, 야밤에 보초서기 무섭지 않던?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을 때 무섭지 않던?》

이 말에서 나는 조여가 한번도 보초근무를 서본적도 전투에 참가해본적도 없으며 그로 하여 《왕소산》을 몹시 부러워하고있다는것을 제꺽 알아차렸다. 그러니 나

는 과오는 있었어도 조여나 진지고보다는 한참 나은셈이다. 멋적던 심정이 돌연 긍지로 바뀌였다.

《전투에 처음으로 참가할 때는 무섭지 않았는데 야밤에 보초를 서는게 좀 두렵더라.》

《그건 왜?》

《싸울 때는 다같이 싸우니 무서운줄 모르겠는데 밤에는 혼자서 있어야 하거든.》

내가 사기가 나서 떠들기 시작하니 움츠렸던 지고도 덩달아 활기를 찾고 내 말을 가로챘다.

《여 소강이, 한번 남경말씨로 말해봐, 듣자니 남경사람들은 혀를 좀 꼬부리고 말한다던데…》

《그건 왜?》

《소강동무》로부터 다시《소강이》로 낮추 불리우는게 맞갖지 않아 나는 지고를 곱지 않게 흘겨보았다.

이때 곁에서 조여가 대신 말해주었다.

《진동무가 동무의 역을 맡았거든. 남경말을 할줄 알아야 역형상을 더 잘할수 있지 않겠니. 좀 배워주렴.》

남경말씨의 특징은 《근》발음이 특별히 많은것이다.

지고에게 얼핏 눈길을 던졌던 나는 한번 톡톡히 그를 골려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지고, 나와 팔씨름해보겠니? 나를 한번 이기면 한마디, 두번 이기면 두마디 배워주지. 어때?》

사실말이지 지고는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손발도 나보다 훨씬 더 컸다. 게다가 먹기도 잘 먹어서 힘도 여간 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걱정되지 않았다. 이미 반년동안의 군대생활에 단련된 내가 아닌가!

나를 우아래로 한번 쭉 훑어보고난 지고는 자기에게도 승산이 있었던지 오히려 제편에서 더 큰소리쳤다.

《그까짓 팔씨름 한번에 한마디씩이라면 쬐쬐하구나. 아예 씨름을 하자. 씨름을 해서 네가 지면 나에게 남경말을 실컷 배워주어야 해. 어때?》

이렇게 고맙다구야! 씨름이라면 더욱 자신이 있었다. 남경에 있을 때 씨름수법들을 몇개 배워두었던 나는 닝큼 받아들였다.

《좋아. 씨름이다!》

조여도 손벽치며 기세를 돋구었다.

《심판은 내가 설래.》

처녀애가 남자애들보다 더 극성이였다. 우리 둘은 제각기 배를 내밀고 소리쳤다.

《좋아!》

나는 탄띠와 수류탄을 재빨리 벗어놓았다. 조여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고를 납작하게 눌러놓고싶은 심정이 부글부글 끓었다.

식초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가짜 석소강과의 씨름에서 이겨야 한다는 결심만이 가슴에 꽉 찼다. 진지고 역시 같았다. 우리는 서로 덮쳐잡을 자세를 취하였다.

《시작!》

조여의 구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나는 고양이같이 덤벼들어 지고의 허리를 꽉 조여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보다도 몸집이 크고 힘도 센 지고는 오히려 나를 옆으로 그러안고 힘껏 들어올렸다. 허궁에 들리운 나는 당장이라도 멧다꽂히울 신세가 되였다.

《이겨라! 이겨라!》

조여의 응원소리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비록 그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마는 나는 조여가 분명히 나의 승리를 바라고있다고 믿었다. 나는 침착하게 생각을 굴리며 지고의 몸에 거마리같이 찰싹 달라붙었다. 아무리 해도 넘어뜨릴수 없게 되자 기운이 진한 지고는 다른 수를 쓰려는듯 나를 그러잡은 손아귀힘을 늦추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있던 나는 발뒤축을 세워서 몰래 지고의 다리 안쪽을 감아 멋지게 넘어뜨렸다.

《쿵!》하고 자빠진 지고의 몸을 내리누르며 나는 지고의 허리춤을 잡은 손아귀에 힘을 더욱 바싹 주었다.

《하나－둘－셋!》

조여가 셈을 세기 시작했다. 내 듣기에도 조여가 우정 셈세기를 빨리 하는것 같았다. 밑에 깔리운 지고가 나를 튕겨내려고 용을 쓰는 순간 《셋!》하고 마지막수자를 부르며 조여는 나의 승리를 날래게 선포했다.

《소강동무가 이겼어!》

얼굴이 시뻘개진 지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조여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향해 다짜고짜로 소리쳤다.

《세번 겨루자. 3판 2승으로 결정짓자!》

나도 질세라 맞받아 소리쳤다

《좋아! 할테면 하자.》

두번째 판에서 지고는 첫번째 판에서 교훈을 찾고 나의 안다리걸기를 피하느라고 요리조리 몸을 틀었다. 서뿔리 공격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며 내 힘을 뽑으려는 꾀였다. 하여 나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시간을 끌면끌수록 나에게는 불리했던것이다.

급한 속에서 문득 그럴듯한 궁리가 떠올라 나는 손가락들을 살며시 들이밀어 지고의 허리를 살살 간지럽혔다. 그러자 지고는 키드득 웃으며 내 손을 탁 치웠다. 이때를 틈타서 나는 웃는 바람에 힘이 빠진 지고를 보기 좋게 넘어뜨렸다.

《잘한다!》

난데없이 왁작 터진 환성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어느새 모여들었는지 많은 마을사람들과 군인들이 어깨성을 쌓고서 우리들의 씨름장면을 지켜보고있었다. 조용하던 마을에 두마리의 《새끼곰》이 나타나 대낮에 맞붙어 씨름하는 장면이야말로 보기 드문 구경거리였던지라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것이다.

진지고는 씩씩거리며 심판에게 항의를 하였다.

《아니야, 이건 개판이야. 간지럼을 피우고 넘어뜨리는 법이 어디에 있어? 이건 반칙이다.》

나라고 가만있을리 없었다.

《왜 개판이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반칙이라면 반칙이야? 난 육박전에서도 이 수를 쓸테다.》

《아니야. 이건 씨름이 아니야!》

우리는 성이 난 두마리의 싸움닭같이 단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뿐아니라 구경군들모두의 눈길이 약속이나 한듯 조여에게로 날아갔다.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판결하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장난치듯 두눈을 가늘게 뜨고 웃음짓던 조여는 잘라매듯 말했다.

《이번엔 무효야. 다시 하자!》

이 판결에 나는 속으로 옹알거렸다.

(요 계집애! 전번은 내편을 들더니 이번에는 지고의 편을 드는구나.)

하지만 나는 심판의 선언에 군말없이 복종을 하였다. 흘어진 옷깃을 바로잡고 이마에 내돋은 땀을 씻으며 다시 앞에 나서니 저쪽에서도 이를 악물고 나섰다. 지고는 이번에 기어이 이겨서 잃어버렸던 체면을 되찾으려고 벼르었고 나 역시 이번에까지 이겨야 완전히 승리한것으로 되니 눈을 뚝 부릅뜨고 지고를 노려보았다.

우리 둘이 서로 씨익씨익 단김을 뿜으며 밀리우고당기고 하는 모습이 마치나 두마리의 염소가 서로 뿔받이 하는것 같았다.

우리 주위에서는 구경군들이 자연히 두편으로 갈라져서 응원에 열을 올리고 그 열띤 응원기세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씨름판은 더욱 커졌다.

내가 힘에 부치여 거의나 지탱하기 바쁜 고비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나의 엉치를 툭 찼고 동시에 지고도 엉치를 얼벌벌하게 얻어맞았다.

《두 꼬마들이 여기서 맞붙었구나. 왜들 싸우지?》

우리는 동시에 손을 놓고 몸을 일으키며 불청객을 흘겨보았다.

그다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 련대 부련대장동지였던것이다. 늘쌍 두뺨을 덮고있던 구레나룻이 오늘은 깨끗이 면도질당하여 푸릿푸릿하게 자리만 남아있었고 자를 대고 그은듯한 부리부리한 눈섭밑에서는 서글서글하게 생긴 눈이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부련대장을 알아본 진지고는 전기에 감전된것처럼 허리가 꿋꿋해지며 입도 감히 벌리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고가 보란듯이 부련대장동지에게 항의했다.

《부련대장동지, 우린 싸우는것이 아니라 씨름경기를 합니다.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그는 계속 능청스럽게 웃었다.

《아하, 난 잘 모르겠는데. 간지럼타게 하는 씨름도 있던가?》

《여기에 뭘 이상한게 있습니까. 우린 사전에 그것을 반칙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수가 아니여도 난 진지고쯤은 얼마든지 이길수 있습니다.》

부련대장동지는 사뭇 놀랍다는듯 나를 살펴보더니 그제서야 나를 알아본듯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아하, 네가 바로 그 차돌이라는 전사로구나!》

나는 급히 차렷자세로 보고했다.

《부련대장동지, 전사 석소강.》

부련대장동지는 곁의 지휘관을 돌아보며 크게 웃고나서 내 손을 꽉 잡아 힘있게 흔들었다.

《역시 소강이답거든. 씨름하는걸 보니까 말이야. 오늘은 내가 바빠서 그러니 이번 싸움이나 끝내놓고 어디 나와 한번 겨루어보자꾸나. 어때?》

《알았습니다.》

나는 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이때 부련대장동지의 뒤에 서서 줄곧 나를 보며 웃는 예누나를 발견하고 나는 부련대장에게 잡힌 손을 쑥 뽑고 그에게로 와락 달려갔다.

《누나!》

《아하, 예동무에게 이런 남동생이 있었소? 그럼 녀동생은 없소?》

부련대장동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유쾌하게 롱을 던졌다.

나에게는 누나와 둘이서 하고싶은 소리가 참으로 많았다. 조여를 알게 된 사연이랑 부대에서 진지고를 만난 일이랑 그리고 《자명종시계이야기》연극에 대해서랑 하고싶은 말들이 가슴에 꽉 차있었다. 그러나 부련대장동지가 내린 명령이 나의 모든 생각을 씻은듯이 지워버렸다.

《석소강동무, 곧 중대로 돌아가서 중대장동무에게 시급히 련대지휘부로 오라고 전하시오. 긴급임무가 제기되였소.》

나는 발뒤축을 딱 소리나게 모으며 힘차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우리 중대가 중요한 전투임무를 받아안게 된다는 흥분이 온몸에 짜릿짜릿하게 퍼져가 나는 누나와 조여 그리고 볼이 잔뜩 부어있는 지고에게 작별인사 하는것마저 잊어버리고 휙 돌아서서 달음박질쳤다. 늦으면 그 전투임무가 다른 중대에 차례질가봐 조바심이 솟구친것이였다. 한참동안 달려가던 나는 그만 주춤거리였다.

누나에게서 연극대본을 빌려가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힘차게 발을 구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엉석꾸러기꼬마가 아니라 명령받은 병사였던것이다.

9. 특수임무

우리 중대는 말그대로 특이한 임무를 받았다. 급히 강행군을 하여 장강기슭에 이를것, 거기서 강남에서 오는 중요인물을 맞이하고 그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담보할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임무였다.

한개 중대가 가서 마중해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직 중대장동지와 정치지도원동지만이 알고있었다.

이 임무를 받은 날 중대전사들은 저마다 자기나름대로의 견해들을 펼쳐놓으며 론의들이 많았다.

《참호를 다 파고 이제는 본때있게 싸우자고 벼르댔는데 또 다른데로 보내니 마음이 좋지 않구만. 련락원이나 몇명 보내면 될걸 가지고 옹근 한개 주력중대를 보내다니. 대관절 어떤 인물일가?》

장분대장의 언짢아하는 말에 왕동지가 웃으며 말에 발을 달았다.

《내 보기엔 틀림없이 꼬마가 자청해서 맡은것 같애. 아마 부련대장동지가 꼬마에게 한턱 잘 낸 모양이지.》

그바람에 나는 성이 발끈 나서 가만있지 않았다.

《모르면서 말을 막 하지 마세요. 저리 가요.》

리대우동지도 두손바닥에 물집이 튕기도록 공들여 파놓은 전호를 다른 중대에 고스란히 인계하고 행군준비를 하라고 하니 평시의 그답지 않게 불평을 부리였다.

《내 원참, 긴급임무라기에 무언가 했더니 사람을 한명

데려오라구? 그게 전투보다 더 중요한가? 하기는 그 사람 덕에 우리 중대가 행운을 만날지도 모르지.》

《제갈량과 같은 인물인것 같아. 혼자서도 능히 백만대군을 쳐물리칠수 있는 인재이니까. 머리카락 한오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중대를 보내는게 아니겠나.》

나는 등이 달아 말참견을 하였다.

《중대부에 제기하자요. 우리 소대는 남아서 싸우고 다른 두개 소대만 보내자고 말이예요.》

이 말에 고충동지가 대뜸 퉁을 놓았다.

《차돌이, 되지도 않을 소리는 하지도 말아. 그러면 어느 소대가 가겠다고 하겠니. 남아서 싸우고싶어하는 심정은 다 너나없이 똑같은데.》

내 말이라면 한사코 트집을 잡으려드는 고충동지가 미워서 나는 곱지 않게 말대꾸를 하였다.

《그럼 고충동지에게 뾰족한 수가 있어요?》

《있기야 있지. 소강아, 너야 부련대장동지하고도 잘 알고 또 그곁에서 일하는 예누나와도 친하니 한번 직접 부련대장동지를 찾아가서 제기해보지 않겠니? 우리 중대를 여기 남아있게 해달라고 말이다.》

이 의견에 리대우동지가 제일먼저 찬성해나섰고 뒤이어 분대전원이 한결같이 좋다고 지지해나섰다. 그러나 오직 분대장동지만이 단마디로 부정하였다.

《무슨 소리들 하는거요. 언제부터 명령을 놓고 흥정하게 되였소? 군인이라면 명령앞에서 오직 알았습니다밖에 몰라야지. 됐소.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 하나 명령인것만큼 준비를 잘합시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된 임무라는걸 명심합시다.》

이렇게 대원들이 더 말못하게 꾹 눌러놓은 분대장동지는 안심치 않은지 뒤를 이어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겠다고 단단히 오금을 박았다.

형님이 우리 분대의 행군준비상태를 검열하러 왔을 때 나는 형님과 단둘이 있게 될 기회만을 찾았다. 마침 검열을 다 끝낸 형님이 문밖을 나설 때 나는 총총히 뒤쫓아가며 《형님!》하고 찾았다.

사람들앞에서는 《중대장동지!》라고 찾았으나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는 《형님》이라고 무랍없이 불렀다.

형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 어깨를 다정히 그러안고 어느 농가집 담장밑에 가셨다.

《소강아, 왜 그러니?》

나는 원래의 생각을 바꾸고 슬쩍 말머리를 돌려 집소식을 물어보았다.

《어머니에게서라든가 외삼촌어머니에게서 편지온게 없나요? 다들 어떻게 지낼가요? 창희와 옥분이도 막 보고프네.》

집소식이 오면 형님이 꼭 나에게 알려주었을것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괜히 이렇게 에둘러 말꼭지를 뗐다.

《이번 임무를 수행한 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집에 다녀오거라!》

형님이 먼저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올리며 재빨리 말끄리를 물었다.

《형님, 이번에 우리가 받은 임무는 도대체 뭐예요?》

《중요한 간부동지를 한분 마중해야 한단다.》

《그 동지는 누구예요?》

《엉? 너의 분대장이 알아오라고 그러던?》

바빠맞은 나는 황급히 얼버무렸다.

《아니예요, 그저 알고싶어서 물어본거예요.》

《네가 알아서 뭘 하겠니? 쪼끄만게 삐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삐치거든.》

형님의 얼굴에 한바탕 훈계할 기미가 엿보이자 나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됐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그만 아니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중대도 아니고 우리 중대를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형님은 눈알이 꽂꽂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묻지 않겠다고 하고 또 물어봐. 지난번 비판을 잊었어?》

형님의 낯색이 달라지니 전혀 딴사람같았다. 빙빙 에두를것없이 나는 속심을 꺼내놓았다.

《나만이라도 여기 남게 해주어요. 예누나가 나를 새 연극에 참가시키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사실이였다. 그날 예누나가 다급히 내뒤를 쫓아와서 왕소산의 역에는 진지고보다 내가 더 적중하니 만일 내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다짐을 두었던것이다. 하지만 내 속심은 연극에 출연하는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아서 전투를 멋지게 하고싶은데 있었다.

예누나의 소리가 나오자 형님은 더욱 엄숙해져서 나를 꾸짖었다.

《강행군이 끔찍해서 그러니? 예누나한테 가서 편안하게 지내고싶어서 그래?》

너무나도 매정한 이 말에 나는 분이 나서 획 돌아섰다.

《난 행군이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난 왜놈들을 족

치고싶단 말이예요.》

《싸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이번 행군길에서도 전투가 예견된단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건 네가 이번 행군에서 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거다.》

나를 자극시키는 형님의 말에 막무가내로 떼를 쓰려던 생각이 훌 뒤집어지고 대신 나도모르게 다른 말이 총알처럼 튀여나갔다.

《이제 봐요. 내가 행군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형님은 빙긋이 웃었다.

《이제야 신사군군인답구나. 네가 이번 행군에서 중대의 모범이 된다면 예누나에게 내가 직접 제기해서 너를 표창하는 새 연극을 만들도록 할테다.》

형님의 호언장담앞에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형님이 누나를 만나서 제기하겠다구? 누나를 보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눈길을 허둥거리면서두.)

형님은 누나에 대해서 알고싶은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나를 시켜서 몰래 알아보도록 하군 하였다.

때로는 속이 타는듯 혼자말로 《그야 안되지. 안되구말구.》하고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 내가 영문을 알수 없어 《형님, 무어가 안된다는거예요.》라고 물으면 나쁜 장난을 하다가 들킨 소년처럼 얼굴은 더욱더 불타서 아예 타버릴것 같았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느라니 저도모르게 웃음이 나와 나는 형님을 마주보며 큰소리쳤다.

《됐어요. 그래도 형님보다 내가 말하는게 더 낫지요. 예누나에게 부탁해서 연극에 형님이름도 나오게 하겠어요.》

《요 쪼꼬만게 점점 더 까분다니까!》
예누나소리만 꺼내면 당황해하며 그 감정을 서툴게 감추려드는 형님을 보는것이 재미있기도 했다.
이때 1소대장동지가 우리에게로 달려오자 형님은 엄엄한 표정으로 나에게 《빨리 분대에 돌아가서 출발준비를 잘 갖추어라.》하고 말하고는 재빨리 1소대장동지와 함께 그자리를 떠났다. …
우리 중대가 도착해야 할 곳은 장강기슭의 어느 한 비밀나루터였다.
곽촌에서 100리 떨어진 그곳에 우리 중대는 이틀내에 가닿아야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코웃음쳤다. 이쯤한 행군은 조여라도 얼마든지 해낼것이라고 보았던것이다. 나의 이런 경솔한 생각을 알아맞혔는지 정치지도원동지는 그 특유한 호남말씨로 선동연설을 하였다.
《동지들, 이번 임무는 몹시 간고합니다. 초보적인 정찰자료에 의해도 모두 여덟겹의 봉쇄를 뚫어야 합니다. 놈들의 군용차가 수시로 다니는 도로와 놈들의 발동선이 항상 감시를 하고있는 강 그리고 때로는 놈들의 코밑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행군로정에 놈들과 불의에 맞다들수 있습니다. 이 봉쇄선가운데서 네겹은 왜놈들이 친것이고 나머지의것은 국민당이 친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놈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총소리를 내지 말고 이 봉쇄선들을 뚫어야 합니다. 만일 총소리를 울리면 우리는 순간에 포위당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받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임무는 특수임무인것만큼 절대로 비밀을 루

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보니 맞붙어 싸우는것보다 더 간고하고 힘겨운 싸움이라는것이 명백하게 안겨왔다.

중대지휘부에서는 될수록 놈들과의 교전을 피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남쪽으로 행군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동쪽으로, 다음은 서쪽으로 나가다가 다시 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가기로 로정을 잡았다.

만일 놈들의 집결지점을 지나가야 할 경우 대낮에는 숨어있다가 야밤삼경에 은밀히 지나가기로 하였다. 계산해보니 100리가 아니라 200리 아니 그보다 더 먼길을 에돌아 달려야 했다.

출발을 앞두고 사령부에서 간부동지가 내려와 직접 우리 중대 전사들의 야간행군준비를 하나하나 검열했다. 그의 매눈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주시하자 저도모르게 심장이 뚝 멎는듯 하였다.

《이름이 뭐요? 행군강도가 조련치 않은데 견딜수 있겠소?》

나는 조금도 우물쭈물하지 않고 담차게 보고했다.

《전사 석소강, 3년전 남경에서 양주까지 200리 행군을 한적이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간부동지는 아무래도 내가 미덥지 않아보였던지 또 물었다.

《어느해 입대했소? 싸움은 해보았소?》

《예, 반년전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싸움을 해보았고 입대후에도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간부동지는 중대장동지와 정치지도원동지를 돌아보며 심중하게 물었다.

《깊이 생각해보오. 이렇게 어린 병사를 데리고가면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형님은 입을 다물고있었고 대신 정치지도원동지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걱정마십시오.》

우리 분대장동지도 곁에서 한마디 거들어주었다.

《마음놓으십시오. 비록 나이는 어려도 얼마나 령리한지 모릅니다. 도움이 되면 됐지 부담은 안될겁니다.》

간부동지는 예리한 눈길을 들어 형님의 얼굴에 박았다.

《중대장동문 어떻게 생각하오?》

이때처럼 내 심장이 쿵쿵 세차게 뛰여본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쿵쿵 뛰다못해 목구멍으로 튀여나올것만 같았다. 만일 형님이 이자리에서 지난번에 내가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금 상기하고 떼버리겠다고 하기만 한다면 끝장인것이다.

나는 굳게 다물어진 형님의 입을 긴장하게 지켜보았다.

드디여 형님의 입이 열렸다.

《저는 이 동무를 잘 압니다. 얼마든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중대장동무, 책임적인 말을 해야 하오.》

간부동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해있었다.

《저—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동생입니다.》

이 말에 그 간부동지는 허허 웃음을 지었다.

《아하, 그렇댔구만! 동무들이 보증해나선 이상 나도 꼬마병사를 믿겠소!》

나는 마음이 흐뭇해져서 온 중대를 따라 함께 소리내여

웃었다.

달도 없고 별도 뜨지 않은 캄캄한 이밤, 세상이 먹물속에 잠긴듯 한치앞도 가려보기 힘든 깊은 이밤 우리는 출발시간을 초조히 기다렸다.

장분대장동지는 자기 배낭밑에 하얀 수건을 달아놓고 나에게 거듭 강조했다.

《여, 꼬마, 이 수건을 자세히 보아라. 졸지 말고 내뒤를 바싹 따라야 해.》

힘장사 리동지는 내 쌀자루와 보병삽을 억지로 빼앗아지고 우정 내뒤에 섰다. 언제든지 내 잔등에서 또 다른것을 벗겨내서 자기가 질 자세였다.

중대장동지의 명령이 전달되였다.

《모든 행군비품들을 짝 조여맬것. 일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할것.》

제일 애를 먹이는것이 법랑그릇이였는데 혁띠고리에 부딪칠 때마다 쟁강쟁강 소리나는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수가 없었다.

분대장동지가 머리를 돌려 나직이 말했다.

《그걸 이리 줘!》

나는 하는수없이 그릇을 떼여내서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그것이 분대장동지의 그릇주머니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신경을 긁던 소리가 뚝 멎었다.

드디여 중대는 소리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을 두르고 일촉즉발의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중대의 제일 앞에는 척후정찰분대가 있었고 그뒤에는 형님이 서서 대오를 이끌었다. 정치지도원동지는 제일 뒤에서 대오를 보살피고있었다.

어둠의 장벽을 헤가르며 중대는 형님의 명령들에 맞추어 하나같이 움직였다.

한개 중대의 병력이 이동해도 어찌나 귀신같이 움직이는지 부근마을의 개들도 아무 동정을 느끼지 못하고 늘어지게 잠을 잤다.

야간강행군이 처음이였던지라 나는 몹시 흥분하여 조금도 피곤함을 몰랐다.

급보로 행군하여 한시간만에 우리는 국민당부대가 주둔하고있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할 관문이였다. 에돌 길도 없는 이 외통길목에서 형님은 부대를 멈춰세웠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가 좀 다녀오겠소.》

《같이 가기요.》

정치지도원동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정치지도원동지는 중대를 지휘하십시오.》

《그럼 대원 몇명을 데리고가오.》

이리하여 우리 분대가 중대장을 호위하여 적초소에로 접근했다.

긴장된 우리들의 손가락은 총의 방아쇠에 붙어있었다. 그러나 가능한껏 총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웠다.

초소에서 한사람이 나와서 형님과 몇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아, 어제 련락을 받았소. 그렇지 않아도 오늘밤 지나갈것 같아 기다리던 참이요.》하고 우선우선하게 말하였다. 알고보니 여기 주둔부대 대대장과 이미 의논이 되여있었다.

신호에 따라 우리 중대는 초소앞을 바람같이 지나갔다.

형님은 그 대대장에게 두손을 맞잡고 고마움에 젖은 목소리로 작별인사를 하였다.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날 때는 미리 알려주오. 그럼 술상을 차려놓고 마중하겠소.》

어둠을 흔들며 두 사나이의 걸걸한 웃음소리들이 날아올랐다.

이것을 보니 나는 사기가 났다. 오늘밤 행군은 참으로 아슬아슬하였다.

그럴수록 재미있었다. 곽촌에 남지 못해 서운스럽던 마음은 어느새 훌 사라져버리였다.

10. 백리야간행군

우리들의 로정은 자주 바뀌였다. 어떤 때는 동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향하면서도 목적지인 남쪽으로 차츰차츰 내려갔다. 명령에 따라 우리는 밤 12시에 무조건 황량강 6호다리에 도착해야 했다. 거기에서도 역시 국민당안의 우리 사람이 한개 분대를 데리고 우리를 맞이하기로 되여있었다.

중대적으로 시계라고는 오직 형님에게만 있었다. 은사슬이 달리고 뚜껑도 은으로 된 스위스제시계였는데 누르개를 누르면 뚜껑이 열리고 로마수자가 새겨진 문자판이 또렷이 드러났다.

중대의 맨 앞장에서 나가고있는 척후대에도 시계가 없

었다. 그러니 우리 대오의 운명은 곧 형님의 손에 달려있는셈이였다. 나는 백룡사야간습격전투의 그날 화김에 박살냈던 자명종시계가 다시금 생각났고 몹시 후회되였다.

오분대장동지가 숨을 거둔것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받쳐 시계를 집어 내동댕이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어리석은짓이였다. 만일 그 시계를 가지고있었다면 지금 우리들도 시간을 알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늘도 깜깜했고 땅도 어둠에 묻혀 하늘땅경계가 분간키 어려울 정도였다. 눈앞에서 흔들거리던 흰 수건도 어둠에 가리워 희미하게 보여서 자주 분대장동지의 배낭에 머리를 받는가 하면 또 뒤에서 따라오는 리대우동지에게 잔등을 들이받기우군 하였다. 다시 분대장동지의 배낭을 이마로 받게 되자 나는 어줍게 웃으며 물었다.

《분대장동지, 이젠 거의다 왔겠지요?》

《글쎄, 날이 밝아야 시간을 알겠는데.》

《그럼 내가 중대장동지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만두어라. 그 시계는 야광이 아니거든.》

이때 먼곳에서 개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 즉시 대오가 그자리에 서고 앞쪽에서부터 명령이 전해져왔다.

《말하지 말것. 명령을 기다릴것!》

척후대원이 달려와 보고하였다.

《앞에 있는 다리가 허물어졌습니다.》

《강너비와 길이는?》

다그쳐묻는 형님의 목소리는 퍽 긴장해있었다.

《폭은 60메터를 넘을것 같고 깊이는 키를 넘습니다.》

지척을 분간키 어려운 깊은 밤 한개 중대가 키를 넘는 강을 도하한다는것은 하나의 모험이였다. 형님은 대원들을 불러 자기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게 한 다음 성냥불을 켜고 시계를 보았다.

《아직 시간이 있소. 에돌아갑시다.》

대오는 강을 에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길이 더욱더 순탄치 않은 길일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가리마같은 논두렁길을 따라 달려갈 때에는 대부분의 전사들이 발을 헛짚어 량옆의 논밭에 엎어져 온몸이 온통 흙탕투성이가 되였고 지어 어떤 병사는 진거름구뎅이에까지 빠지였다. 이러한 간난신고끝에 지정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형님의 입에서 신음소리같은것이 새여나오는것을 들었다.

《12시 30분이요. 제길할 30분이나 늦었소!》

아! 시간, 시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나는 형님의 울음이 터질것만같이 이그러진 표정에서 통절히 느끼였다. 그러니 우리와 약속했던 사람들도 더는 기다리다 못해 이제는 교대를 했을것이다. 곁에서 정치지도원동지가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도 사람을 파견해서 알아보기요. 혹시 다리우에 우리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을지 알겠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도 형님은 한편으로 철수준비를 시켰다.

정찰병이 다리목에 가닿기도 전에 다리우에서 놈들이 어지럽게 총질을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이미전에 철수준비를 갖추었기때문에 상한 사람은 없었다.

《철수!》

형님이 날카롭게 명령했다.

다리를 지키는 놈들이 우리를 추격하려고 부산을 피우는 사이에 우리는 놈들을 아득히 뒤떨구어놓았다. 형님은 중대를 이끌고 황량강 6호다리에서 10리가량 떨어진 나루터로 왔다.

여기서 도하할 결심이였다. 그런데 나루배가 한척도 없었다.

지어 노대조차 보이지 않았다. 놈들이 나루배들을 몽땅 강건너편에 매놓은 모양이였다. 우리모두는 초조한 심정을 안고 형님의 얼굴과 어둠을 싣고 흘러가는 강물을 번갈아보았다. 그속에서도 누군가가 배포유하게 롱담을 하였다.

《한달나마 목욕을 못했는데 마침 오늘 시원히 몸을 씻게 되였군.》

소리난쪽을 살펴보니 왕소륙동지였다.

6월, 아직은 이른여름인데다가 한밤중이니 강물은 몹시 차디찰것이다.

게다가 한개 중대가 강을 건느느라면 기필코 소리가 날것인즉 촉각을 곤두세우고 강을 감시하고있는 적들은 대번에 알아차릴것이다.

뜻밖의 정황을 침착하게 분석한 형님은 명령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오. 내가 강을 건너가서 배를 끌고오겠소.》

나는 심장이 덜컥 멎는듯 하였다.

물론 형님은 헤염을 잘 쳤다. 그러나 남경기계공장시절에 기중기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심하게 부상입은적이 있었고 또 3년동안 유격전을 하는 나날에 총상도 입

어 몸이 말이 아니였다.

이제 만일 저 얼음같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측못할 사고가 나는 경우 만회할수 없는 일이 벌어질수 있었다.

나는 언제 달려나가 형님의 앞에 섰는지 몰랐다.

《형님, 내가 하겠어요. 내가 형님보다 나아요.》

형님은 승낙하지 않았다.

이때 정찰분대장동지가 앞으로 나섰다.

《중대장동지, 제가 이걸 타고 건느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디서 났는지 민가에서 흔히 쓰는 목욕함지가 들려있었다.

형님은 그 함지를 깐깐히 어루만지며 무엇인가 가늠해보는것이였다.

함지가 작고 얇아서 체격이 우람찬 정찰분대장동지에게는 맞지 않았다.

잠시 생각을 굴리던 형님이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합시다. 소강아, 네가 이걸 타고 강을 건너라!》

나는 무척 기뻤다. 옷을 얼른 벗은 나는 맨몸에 기병총과 수류탄 두알을 지니고 나무함지에 들어앉았다. 만일 저쪽 건너편기슭에서 놈들과 맞다들면 너죽고 나죽고 해볼판이였다. 강물우에 둥실 뜬 나의 맨살에 눅눅하고 찬기운이 감돌았으나 바싹 긴장된 나는 추운줄을 몰랐다.

강을 무사히 건느 나는 인차 나루배를 찾아냈다. 그런데 노대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여기저기 더듬어야 노는 없었다. 그때만큼 속이 빠질빠질 타본적은 여직껏 없었다. 이제라도 형님이 나를 기다리다 못해 직접 강을 헤염쳐올것 같아 더욱 조바심이 났다.

나는 생각끝에 기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민가를 향해 살금살금 기여갔다. 팔굽이 돌모서리에 찢겨 피가 나왔으나 나는 아픈줄 몰랐다. 생각은 오로지 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였다. 그 집 처마아래에 생각대로 과연 노대가 있는것이 보이는 순간 나는 너무 기뻐 환성을 지를번 하였다. 어슬렁거리며 집결을 지나가던 보초놈은 나를 발견하지 못한것 같았다. 나는 처마밑에까지 기여가 세워진 노대를 살그머니 껴안고 돌아섰다.

그런데 이 순간 무엇인가 내 왼쪽눈에 날아들어 박히였는데 아무리 비벼도 나오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아프기만 하였다. 눈알을 굴릴 때마다 깔끔깔끔거리고 눈물이 걷잡을수없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눈때문에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1초도 없었다.

저쪽에서는 중대가 나를, 이 나루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한쪽눈을 뜨지도 못한채 배를 강물에 띄워놓고 젖먹은 힘을 다 내여 노를 저었다. …

드디여 우리 중대는 감쪽같이 황량하를 도하했다. 강기슭에 닿자마자 우리는 그달음으로 십여리길을 단숨에 달려 어느 자그마한 숲속마을에 은폐하고서야 숨을 돌릴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남들처럼 마음편히 휴식할수가 없었다. 왼쪽눈알이 깔깔해지면서 슴뻑일 때마다 따끔따끔 찌르는게 아파 죽을 지경이였다. 하지만 달콤하게 잠들어버린 동지들을 방해하고싶지 않아 나는 온밤 혼자서 눈물 흘리며 누워있었다.

날이 밝았을 때에야 분대장동지가 시뻘겋게 퉁퉁 부

은 내 눈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니? 소강아, 이게 웬일이냐?》

쩍하면 나를 놀려주기 좋아하던 왕동지도 이때만은 근심이 가득해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눈등이 포도알만큼 퉁퉁 부었구나. 눈에 무엇이 들어갔니?》

나는 어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자 분대장동지는 성이 나서 나를 꾸짖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온밤 얼마나 고생했니?》

《밤에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실은 눈에 티가 들어간걸 가지고 소동을 피운다고 형님에게서 욕을 먹을가봐 말하지 못했었다. 더우기 이 일로 하여 형님이 나를 어느 민가에 떨구어둘가봐 걱정이 되였던것이다.

《어디 눈까풀을 뒤집어보자꾸나. 도대체 무슨 몹쓸것이 차돌이를 울게 만든담!》

분대장동지가 소매걷고 나섰다. 그러나 한참동안 찾아봐도 찾아낼수 없었던지 이번에는 대우동지가 나섰다.

《제가 해봅시다. 그래도 내가 분대장동지보다는 눈이 더 밝지요.》

그런데 그 솜씨가 오히려 더 서툴어서 눈만 지독하게 아파났고 눈등은 더 부어올라 대추만 해졌다.

온 분대가 나섰으나 눈에 들어간 이물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안되겠어, 중대장동지한테 알려야지.》

《아니, 말하면 안돼요.》

나는 황급히 분대장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무슨 소릴, 이 손을 놔. 눈이 멀고싶어 그래?》

분대장동지는 내 손을 탁 쳐버리고 종종걸음쳐갔다.

인차 형님과 위생병이 달려왔다. 이미 분대장동지로부터 사실을 보고받은 형님은 아무말도 없이 아픈 심정으로 내 눈을 조심조심 어루만지였다.

《소강아, 아직도 눈에 뭐가 있는것 같니?》

《예, 아마 먼지알갱이같습니다.》

《아프겠구나!》

형님의 괴로와하는 눈빛을 보자 나는 가슴이 그만 뭉클해져서 애써 웃음짓고 사실과 반대로 말했다.

《안아파요! 정말이예요.》

형님은 위생병에게 부탁하듯이 말했다.

《빨리 소강이 눈을 봐주오.》

우리 중대에는 약이라고 해야 알콜, 빨간약 그리고 와세린과 아스피린뿐이였다. 눈약같은것은 꿈도 꾸지 못할 고급약이였다.

위생병의 손길 역시 섬세하지 못하여 먼지알갱이는커녕 눈물만 잔뜩 나왔다. 하지만 나는 지독한 아픔을 꾹 참고 신음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다.

형님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것을 보자 가슴이 아픈듯 따뜻이 위로해주었다.

《소강아, 조금만 참아라. 이 마을에 리발사가 있다니까 그를 데려다 보이자꾸나.》

당시 리발사는 침을 놓고 안마도 해주는 반의사노릇도 하고있었다.

《일없어요. 형님, 걱정마세요.》

내가 되려 형님을 위안해주고싶었다.

《소강아, 오후에도 낫지 않으면 여기에 떨어지거라. 우리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너를 데리고가지!》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내내 마음속에 매달려있던 연덩어리가 아니였던가! 나는 거의 울상이 되여 소리쳤다.

《싫어요. 난 남지 않을래요. 부대와 함께 있을래요.》

이때 한 로파가 하늘에서 내려온듯 문가에 나타났다. 백발머리할머니는 전족을 한 발을 되뚝거리며 들어와 나를 가엾이 바라보았다.

《어린 총각이 집을 떠나서 참 수고하는구만. 이보라구들, 자네 어른들이 생각이 깊고 아량있어야지. 이애야 아직 어리지 않나.》

아마 할머니는 내가 따돌림 받아서 우는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씩 웃음이 나왔다.

《할머니, 그런게 아니예요. 눈에 먼지가 들어갔는데 도무지 나오지 않아서 눈물이 나온거예요.》

《그래?! 에그—저걸 어쩌나. 몸값이 천금이면 눈은 팔백금이라는데.》

할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여주었다.

《어디 내가 좀 볼가?》

할머니는 거칠거칠하고 약간 떠는 두손으로 내 얼굴을 받쳐들고 흐릿한 눈동자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마며 눈, 귀, 입가에 거미줄마냥 얼기설기 지나간 주름들이 눈에 비쳐들자 나는 마치 친어머니품에 안긴것 같아 마음이 푸근해졌다.

할머니는 나를 쪽걸상에 앉히고 몸을 구부려 자기의 얼굴을 내 얼굴에 바싹 가져다댔다.

나는 할머니의 코와 입에서 뿜어지는 후더운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할머니는 어느새 내 눈까풀을 뒤집어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 보인다. 새까만 알갱이였구나!》

할머니는 눈물과 눈곱이 잔뜩 낀 내 눈을 혀끝으로 한번 핥고 침을 뱉은 다음 다시 또 핥았다.

눈알이 간질간질했다.

《어떻니? 아직도 아프냐?》

나는 두눈을 깜박거리여보았다.

신기하게도 아픔이 씻은듯이 가셔졌다.

《아니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나는 기쁜 나머지 박수까지 쳤다. 형님과 분대원들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할머니를 추어올리고 감사의 말들을 하였다.

이앞에서 할머니는 손을 홰홰 내저으며 바삐 가로막았다.

《아니아니, 이러지 마시우. 제발 이러지 마시우다. 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자네들 신사군처럼 왜놈들을 멋지게 족치고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군대를 보지 못하였네. 오히려 우리가 자네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하겠네.》

《옳수다. 우리들이 인사를 해야지요.》

방안에는 어느새 들어왔는지 동네사람들이 꽉 찼다. 그들 역시 할머니와 꼭같은 심정이였다.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들을 나누는 속에 방안의 분위

기는 마치 헤여졌던 한집안식구들이 오래간만에 모인듯 화기롭게 흥성이였다.

이날 우리는 저녁어슬무렵까지 이 마을에서 푹 쉬고나서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처음 우리가 적들과 맞다들린 곳은 적들이 빈번히 오가군 하는 도로였다.

우리는 도로순찰을 하고있던 한개 분대가량의 적들을 순간에 제껴버리고 도로를 횡단한 후 놈들의 소굴을 피하여 30리길을 에돌았다.

앞길에 큰 강이 나타나자 형님은 돌격조를 앞질러 파견하여 나루터를 장악하고 나루배들을 지키도록 하였다. 일은 비교적 순조롭게 되여갔다. 그런데 마지막대목에 와서 또하나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날이 밝자 소굴에서 기여나온 왜놈들은 무슨 냄새를 맡은듯이 도로경비를 더욱 강화하며 분주히 오갔다. 날이 어두워지고 놈들이 소굴에 들어가박힌 다음에 도로를 건느면 훨씬 안전하겠지만 대신 하루라는 시간을 잃게 될것이다. 그러면 접선하게 된 사람들이 접선장소를 떠나게 될것이며 그러다가 만일 놈들에게 붙잡히면 그 후과는 상상할수 없었다. 그러나 대낮에 도로를 건는다는것 역시 어리석은 모험이였다.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은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부대를 3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제각기 도로를 오가는 백성들속에 끼여들었다가 기회를 봐가면서 슬쩍 도로를 건느도록 하자는 생각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계책은 멋들어지게 성공하였다.

소부대가 모두 지정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을 때 우

리는 마치도 오래간만에 만난듯이 기뻐 서로 부둥켜안고 뒹굴며 어쩔줄 몰라했다.

왕동지의 웃음소리가 제일 통쾌했다.

《하하하, 놈들은 눈깔이 멀었다니까. 아직은 이 세상에 우리와 재간을 겨룰만한 놈들이 태여나지도 않았다네.》

《이렇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여덟겹의 봉쇄선을 뚫고나온건 정말 뜻밖인걸.》

《이번에 내가 로획한 무기들이 적지 않다네. 류탄포 두문에 박격포 세문을 로획했다니까!》

리대우동지가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통에 주위에 있던 우리는 와! 하고 웃음들을 터쳤다.

(류탄포, 박격포는 행군할 때 생긴 물집들을 롱으로 비유한 말—역주)

나도 마음껏 소리내여 웃었다.

사실 이번 행군에서 진짜 큰 수확을 거둔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 자랑하고싶었다.

야간강행군의 시련을 끝내 이겨냈을뿐아니라 친어머니처럼 살뜰한 할머니와도 알게 되였다.

불과 이틀이라는 행군의 나날에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적 몇번이고 간이 콩알만 해지도록 가슴조였던적은 몇번이였던가.

입대후 반년간의 생활에서 보다 더 많은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며 철없던 꼬마로부터 단번에 시련속에서 세련된 신사군전사로 쑥 성장한것 같았다.

이제 남은것은 강남에서 온다는 그 중요한 간부동지를 인내성있게 기다리는것뿐이였다. 나는 제일 먼저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11. 진의사령원을 마중한 소강

동틀녘에 우리는 드디여 목적지에 도착했다.

내 눈앞에는 수많은 전설이 깃든 장강이 물갈기를 솟구치며 호호탕탕하게 위세를 떨치며 거세차게 흘러가고있었다.

이것과 대조되게 여기 나루터가에는 처참하게 파괴된 동뚝이 시체처럼 누워있었고 그 동뚝밑에는 오막살이 초가집들이 여러채 모여 마을을 이루고 아득바득 살아가고있었다. 그중에서 두 집만이 나루배를 가지고있었고 다른 집들은 배를 마련하지 못해 썰물때에만 드러난 강가에 나가 작은 물고기와 새우들을 잡아 연명하고있었다. 강복판에는 갈대와 잡초들만 무성한 섬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마을사람들은 곡식 심어먹을 땅을 얻으려고 이 섬을 개간하고있었다.

동뚝북쪽에는 논이 눈이 모자라게 펼쳐져있었고 보리밭과 논밭가에는 인가들이 띠염띠염 널려져있었다. 멀리로 먼지가 풀풀 이는 농촌길이 우불구불 뻗어나간것이 보였고 그길에서 갈라져나온 오솔길이 양벨같이 오불꼬불거리며 나루터로 나오고있었다.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은 지형을 돌아보고나서 동뚝마을에 중대를 잠복시키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허술한 창고들에 쥐도새도 모르게 스며들어가 벼짚을 깔고 그우에 드러누웠다. 배좁아서 머리와 머리가 부딪치고 다리들이 서

로 엇갈렸지만 우리는 시간을 앞당겨 명령을 수행한 기쁨으로 하여 이쯤한 불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에 받은 임무를 얼마든지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이 더욱 중요한것이다.

우리들은 온몸이 눈과 귀가 되여 장강을 감시하였다. 강우에서는 놈들이 발동뽀트를 타고 꼬리를 물고 순찰하였고 북쪽마을에서도 놈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빈틈없는 경계진을 바라보느라니 나는 두말할것 없고 장분대장동지도 안절부절하였으며 지어 형님도 초조감을 감추지 못해했다. 형님은 전혀 쉴념을 하지 않고 감시병과 함께 온종일 뙤창문앞에 엎드려 동쪽으로 용용히 흘러가는 장강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며칠사이에 눈에 알릴 정도로 뺨이 훌쭉해진 형님을 보느라니 나는 가슴이 아팠다.

《형, 왜 안올가요.》

《조급해하긴, 꼭 올게다.》

《그러나 혹시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다니? 기다려야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엔 돌아갈수 없어.》

《여기로…》

그러자 형님은 매몰차게 내 말을 잘라치웠다.

《여기가 어떻단 말이냐? 몹시 위험한 곳이란 말이지? 군함과 뽀트가 코앞에서 돌아치고 놈들의 부대가 수시로 오고가니 겁을 먹은것 같구나. 소강아, 침착해라. 위장을 잘하고 깊이 숨어있으면 놈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줄 꿈에도 생각 못해!》

사실 나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강을 건너올수 있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말

을 꿀꺽 삼키고말았다.

받아안은 임무는 중대한데 형세는 이렇듯 긴장하니 형님이 속인들 얼마나 태우고있으랴. 신경이 예민해진 형님에게서 애매하게 꾸중들었어도 나는 묵묵히 들어두었다. 어쨌든 놈들이 전에없이 살판치는지라 겁이 좀 났던것은 사실이였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적은 강우가 아니라 강변의 놈들이였다.

우리가 매복한 이튿날 점심무렵, 문득 감시막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 2백~3백놈은 실히 됨직한 적들이 나타났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몰골들이 똑똑히 보이였다. 나는 하나, 둘, 셋 하고 속으로 세기 시작했다.

《야, 경기관총 20정에 중기관총 3정, 박격포 두문에 척탄통도 8개나 있어요.》

나는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다. 적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 중대 무력은 그야말로 보잘것 없었던것이다. 우리 련대적으로도 박격포는 말할것 없고 중기관총도 겨우 한정, 경기관총은 세정밖에 없었다.

왕동지도 덩달아 사기가 나서 속살거리였다.

《이것참, 먹음직한 비게덩이로구나.》

고충과 리대우동지들도 내결에 엎드려 놈들을 주시했다.

《올테면 오라.》

대우동지는 소매를 썩썩 걷어올리고 오른손가락을 방아쇠에 가져갔다.

이때 형님이 우리들에게 엄한 눈길을 던졌다.

《덤비지 마시오.》

어느새 전투준비를 끝낸 대원들이 형님의 입을 지켜

보며 돌격명령을 기다렸다. 집주인인 어부할아버지가 겁에 질려서 흰수염을 떨며 우리들을 만류했다.

《이보라구들, 자네들로써는 저놈들을 당하지 못하니 여기서 빠져나가는게 상책일세.》

나는 밸이 울컥 나서 푼수없이 말하는 할아버지를 흘겨보았다. 군민관계를 중시하지 않았더라면 대뜸 쏘아붙였을것이다.

내 보기에는 우리 신사군에 대한 여기 사람들의 견해가 바로 배겨있지 못했다. 우리 신사군은 그들이 늘쌍 시달림받아온 국민당군대와 전혀 다르다. 국민당군대는 왜놈들을 두려워하나 왜놈들은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한다. 왜놈들과 싸우고싶어 손이 근질근질거리던 참인데 마침 《기름진 고기덩이》가 제절로 굴러오는데야 어찌 마다할텐가. 어떻게 들이친담? 놈들은 아직 우리를 보지 못했으니 사격거리안에까지 바싹 접근시켰다가 일제히 사격하면 절반을 소멸할수 있다. 그다음 얼떨떨해진 놈들을 향해 돌격해나가 육박전을 벌리면 얼마든지 나머지놈들을 제끼고 현대적인 무기들을 로획할수 있다.

전투장면을 눈앞에 그려보느라니 흥분으로 몸이 달아올랐다.

반년나마 열심히 익혀온 창법을 남김없이 발휘할 때가 온것이다.

형님은 대원들의 심리를 알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침착하시오. 내 명령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총을 쏘지 말것. 적들이 이쪽으로 뻗은 소로길에 들어설 때만 전투를 하겠소.》

내 생각과 형님의 생각이 똑같아 나는 기쁨을 금치 못

했다. 이번 싸움의 승패는 뻔했다.

우리를 향해 무리지어 밀려오던 놈들은 소로길어구에서 잠시 주춤거리였다.

방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모두의 신경은 다치면 끊어질듯 최대한 팽팽해있었다.

나는 슬그머니 곁눈질로 형님을 찾았다. 밤을 꼬박 밝힌데다가 영양부족으로 해서인지 류달리 창백한 얼굴은 바짝 긴장되여있었다. 조각처럼 굳어진 얼굴표정에는 사소한 변화도 없었다.

오솔길앞에서 어물거리던 놈들은 우리쪽을 향해 얼마동안 바라보며 서있더니 경기관총으로 눈먼 총질을 하였다.

《따따따－》

총알들이 창고지붕우를 헤치고 흙벽을 뚫고들어왔고 그중 한발이 왕동지의 귀뿌리를 찢어놓았다.

순간에 귀에서 선지피가 뚝뚝 떨어졌으나 그는 로병답게 아무일도 없은듯이 까딱도 안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역시 로병이 다르구나 하는 존경심과 함께 저 놈들을 단숨에 족치지 못하는것이 한스러워 나는 형님을 피뜩 쏘아보았다.

형님은 묵묵히 왕동지에게 고무하는 눈길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이였고 부스럭거리는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목구멍이 바작바작 타들어 침 한번 삼키기조차 힘들었다.

실컷 총질을 한 놈들은 뭐라고 왁자지껄하더니 기관총을 거두고 그냥 지나가버리였다. 순간 방안에 약속이나 한듯이 안도의 숨소리들이 울리였고 위생병이 달려와 왕동지의 귀를 재빨리 처치해주었다.

대우동지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씻으며 소룩

동지를 향해 허허 웃었다.

《어이구, 하마트면 자네 머리통을 박살낼번 했구만.》

《왕동지, 아프지 않나요?》

나는 내 귀가 찢어진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물었다.

《맞을 때는 모르겠더니 맞은 다음에 아프기 시작하더군. 그런데 그 청맹과니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아픔이 뚝 멎었어.》

이 말은 모두의 유쾌한 웃음을 자아냈다. 결사전을 각오했던 팽팽한 분위기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여느때처럼 말소리들이 나직이 오갔다.

형님이 문득 내 이름을 불렀다.

《소강동무, 만일 이번 싸움을 동무가 지휘했다면 어떻게 했겠소?》

아마도 형님은 내가 아까 온곱지 않게 치떠보던 눈길이 생각나 한번 떠보고싶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즉시 대답했다.

《저라면 사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지붕이 들썩하도록 웃음을 터쳤다. 나는 영문을 몰라 얼떠름해져서 구대원들의 얼굴을 일일이 둘러보았다.

《장동무, 한번 말해보오. 소강동무의 결심이 옳은가 그른가?》

분대장동지는 입가에서 웃음기를 채 거두지 못한채 입을 열었다.

《산병선을 짓고오던 놈들은 총소리가 울리면 즉시 쉽게 은폐할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시간을 끌게 될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불리해집니다.》

나는 승벽심이 살아났다.

《시간을 끌면 어쨌단 말이예요. 동뚝을 리용해서 우린 얼마든지 놈들이 대가릴 쳐들지 못하게 제압할수 있습니다.》

《놈들은 우리보다 많고 무기도 더 좋으니만큼 싸움을 오래 하면할수록 우리에겐 더 불리하단 말이야.》

《우린 최후의 순간까지 놈들과 결사적으로 싸울겁니다.》

옆에서 말없이 우리들의 론쟁을 듣기만 하던 정치지도원동지가 내 말을 멈춰세웠다.

《우리들모두가 희생되면 임무를 누가 수행하겠소?》

나는 말문이 꺽 막히였다. 고충동지가 한마디 슬쩍 보태였다.

《그 사람들이 제발로 곽촌을 찾아올지도 몰라.》

이 말에 또다시 웃음이 날아올랐다.

얼굴이 뜨끈해진 나는 너무나도 옳바른 리치앞에 대꾸를 못하고 가슴만 풀떡풀떡 오르내렸다.

형님과 정치지도원동지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한편 우리들의 머리도 한계단 더 계발시켜주고싶었던것이다.

이때 사관장이 달려와 보고를 하였다.

《중대장동지, 아무래도 식량이 부족할것 같은데 마을에 내려가 쌀을 좀 사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즉석에서 결론을 내렸다.

《이 임무는 소강동무에게 주겠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의심을 덜 받으니까.》

얼마후 어부할아버지의 친척으로 변장한 나는 두개의 광

주리를 들고서 할아버지를 따라 마을에 들어갔다.

본래 어릴적부터 류달리 사람들을 잘 따랐던 나는 신사군에 입대한 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동네어른들과 곧잘 친숙해졌다.

이번 장보러 가는 길에서도 줄곧 그림자처럼 할아버지곁을 살살 감도니 우리에게 쌀을 파는 마을사람들은 나를 진짜 외손자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다.

우리가 매복한지도 어느덧 사흘째 저녁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모두가 접선대방이 나타나지 않아 근심에 잠겨 밥술을 들넘도 안했다. 나는 남새라든가 닭알을 사서 구대원들의 입맛을 돋구어주고싶어 마을아이로 변장하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제는 마을에서도 나를 어부할아버지의 외손자로 믿고있었기때문에 나혼자서도 얼마든지 나다닐수 있었다. 할아버지와 몇번 같이 다니는 길에 마을애들과는 여러명 친해놓아서 그애들도 나를 만나면 즐겨 안내를 맡아나서군 했다. 이날 저녁도 길에서 두명의 동네애들을 만났는데 애들은 나를 보자마자 내 팔에 매달리며 《또 쌀을 사려고 그러니? 같이 가자. 어느 집에 무슨 상품이 있는지 우린 다 알아.》 하고 장담하는것이였다.

마침 잘되였다고 나는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래, 같이 가자.》

이애들과 함께 다니면 여기 동네의 아이로 위장하기 더욱 쉬운것이였다.

《만자야, 뭘 사겠니? 흰쌀 아니면 밀가루?》

한 애가 나에게 물었다. 만자라는것은 내 가짜이름이였다.

《오늘은 닭알과 남새를 살래.》

《넌 언제 집에 가니?》

《글쎄… 래일쯤 갈가?》

《가면 다시 오니?》

《그렇지 않구. 다시 놀러 올게. 좋지?》

애들은 기뻐하며 내 팔을 잡고 깡충깡충 뛰였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집옆으로 꺾어들었다.

바로 이때 우리앞으로 5명의 어른들이 마주왔다. 나는 왜서인지 그들을 무심히 보게 되지 않았다.

첫번째 사람은 키크고 건장한 청년이였는데 까만색 반소매샤쯔에 까만색 바지를 입고있어 퍽 날파람있게 보였다. 두번째 사람은 회색 중산모에 회색 장포를 입고 끝이 뭉툭한 까만 천신발을 신고있었다. 세번째와 네번째, 다섯번째 사람들도 하나같이 체격굵고 든든하게 생겼는데 허리춤에 무엇이 있는지 바람결에 혹간 불룩하게 드러나군 하였다.

일반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고 주의를 돌리지 않을지도 모르나 군인인 나는 그것이 권총이라는 직감이 대번에 들었다.

내 보기에 이들은 분명히 여기 마을사람들이 아니였다. 혹시 우리들이 여기에 머무르고있는 사실이 드러나서 놈들이 내탐을 하러 온게 아닐가? 예감이 불길하여 나는 좀 더 알아볼 심산으로 길목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다.

《만자야, 만자야, 빨리 가자. 나쁜 놈들인것 같애!》

한 애가 겁을 집어먹고 내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 저 사람들이 널 잡아먹겠다던?》

나는 오히려 마을애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놓았다. 만일 애들이 다 도망치고 나 혼자 남는다면 자칫하여 내 정체가 로출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얼마 지나서 그들이 내앞에까지 바싹 다가왔을 때 나는 불룩하게 두드러진 그들의 허리를 찬찬히 살폈다. 과연 모두의 허리에 권총들이 꽂혀있었다.

내 손에 꽉 잡힌 애들의 손은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나는 겁내지 말라고 그들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었다. 애들은 머리를 푹 수그리거나 얼굴을 돌리며 낯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였다. 머리를 쳐들라고 거듭 잡은 손을 꽉 눌렀으나 겁질린 애들은 매를 본 까투리같이 머리를 더욱 깊이 숙일뿐이였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어부의 손자인 내가 그들을 꺼리거나 피해야 할 까닭이 없는것이다. 나는 이마를 높이 쳐들고 그들을 당당히 마주보았다.

장포를 입고 중산모를 쓴 사람은 눈섭이 시꺼멓고 몸집이 우람차서 만일 그 몸에 갑옷을 두른다면 틀림없이 절간의 관음보살이였다.

그 사람은 내 머리를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물었다.

《얘야, 이 마을 이름이 뭐지?》

말씨를 보아서 강남사람도 소북사람도 아니였다. 내가 남경에서 들었던 사천사람의 말씨였다.

나는 경각성을 바짝 높이였다. 아무리 봐야 수상하기만 하였다.

나는 머리에서 그의 손을 획 밀어던졌다.

《이 마을엔 이름이 없어요.》

나는 우정 마을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계속 말을 걸게 함으로써 그속에서 사소한 단서라도 잡으

려 했던것이다.
그 사람은 큰 몸집을 흔들며 한참동안 소리내여 웃었다. 웃을 때 두툼한 입술사이로 하얀 이발들이 가지런하게 드러났다. 훤칠한 이마, 먹물을 듬뿍 묻혀서 콕 찍어놓은듯한 진한 눈섭, 그밑에서 뿜어나오는 범상치 않은 눈빛, 위엄비낀 자세…, 하지만 용모와 달리 푸수한 태도가 나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그러나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했다. 벗과 원쑤는 용모로 가를수 없는 법이다.
《뭐라구? 마을에 이름이 없다? 난 중국을 거의 다 다녀보았는데 이름이 없는 마을은 여기가 처음인걸! 그럼 또 하나 물어보자. 이 마을은 어느 향에 속해있지?》
그 사람은 나의 속심을 간파한듯 슬슬 웃으며 이렇게 물었다.
이번에는 거짓말을 할수가 없었다. 만일 또다시 속이려든다면 오히려 내가 의심을 살수 있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멍청이흉내를 내며 슬쩍 업어넘기였다.
《나같이 쪼끄만 애가 마을이 뭐고 향이 뭔지 어떻게 알겠나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아까처럼 껄껄 유쾌하게 웃는것이였다.
《애야, 여기에 허씨네 나루터가 있지?》
허씨네 나루터라면 바로 우리 중대가 매복하고있는 곳이였다.
(혹시 이 사람들이 아닐가?)
나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허씨나루터는 왜 찾나요?》
《거기에 내 동무가 살고있어서 그를 찾아가는 길

이다.》
(허튼소리!)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을에는 까막눈들뿐이고 이런 지체있는 나으리의 동무로 될만한 사람은 없었던것이다.
《도대체 아저씨들은 누구시나요?》
의심보다도 호기심이 더욱 동해 나는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우린 장사를 하러 왔단다.》
《무슨 장사나요? 어디서 오는 길인가요?》
《하하하, 넌 꼭 신사군아동단원같구나. 우리 통행증도 보고싶지 않니?》
이렇게 말하며 그 사람이 곁의 아저씨들에게 한쪽눈을 껌벅하니 모두가 즐겁게 웃음발을 날렸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됐어요. 왜 날 함부로 놀리는거예요. 난 갈래요.》
장포를 입은 사람은 퍽 재미있어하면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싶단 말이지? 그럼 솔직히 말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오해를 받겠는걸.》
검은 샤쯔를 입은 사람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동무, 우린 강남에서 방금 강을 건너온 신사군이요. 놈들의 배를 피하느라고 동쪽의 나루터로 에돌아왔소. 지금 우리가 허씨나루터를 찾고있는것은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이요.》
나는 아직도 믿을수가 없었다.
《신사군이라면 그 증거를 내놓으세요.》

장포를 입은 사람은 내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우리 알고 지내자. 난 말이다. 진의라고 부르지. 네 이름은 뭐냐? 혹시 우리를 마중하러 곽촌에서 오지 않았니? 우리는 원래 그저께 왔어야 했는데 놈들이 장강을 봉쇄하다나니 이틀이나 늦었구나. 우릴 어서 석대용중대장에게 안내해라.》

그들의 말은 어느 하나 빈틈이 없이 정확하였다. 여기서 나의 의심은 말끔히 풀어졌다.

《진의》, 이 영웅의 이름을 어찌 모르랴! 그는 이름이 자자한 항일의 명장이였다.

그가 지휘하여 대승리를 거둔 전투들이 이미 우리들속에 널리 알려져있었으며 진의사령원동지와 관련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자주 화제에 올랐다. 진의사령원동지는 싸움뿐아니라 시도 잘 짓는 명문재사라고도 한다. 오래전부터 존경해오던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흥분되여 몸에 마을아이들의 람루한 옷이 걸쳐져있고 군모도 없었지만 차렷자세를 취하며 절도있게 보고했다.

《사령원동지, 우리들이 동지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진사령원은 내 어깨를 정답게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다.

《으음, 요 깜찍한 녀석! 난 이미 첫눈에 네가 우리 전사라는것을 알아보았거든. 자, 어서 우릴 안내해라.》

나는 감탄하여마지않았다. 어떻게 나를 대뜸 알아보았을가? 정말 소문처럼 사람의 속을 귀신같이 들여다볼줄 아는분이로구나.

우리가 강남에서 적들을 벌벌 떨게 만들던 사령원동

지를 마중하여 곽촌으로 모시고 가는것은 기세등등해서 날치는 한덕근과 리장강패거리들을 호되게 혼쌀내기 위해서가 아닐가?

사령원동지일행을 모시고 허씨나루터로 가는 내 마음은 마냥 즐겁기만 하였다. 드디여 우리 중대가 특수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는 기쁨과 여기에 나도 한몫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이 나의 발걸음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12. 이상한 명령

우리는 추풍락엽같이 흩어지는 패잔병놈들을 맹렬히 추격하였다.

놈들은 감히 뒤돌아서서 싸울념도 못하고 꽁지가 빠빳해서 도망치는데만 급급했다. 길가에는 온통 시체들과 죽은 말들이 너저분하였고 도망치면서 내버린 무기와 탄약들도 수두룩하였다.

우리는 이 기세로 내밀어 놈들의 아성인 태주성까지 들이쳐서 괴수 리장강놈까지 산채로 붙잡으리라 벼르었다.

진의동지는 곽촌에 사령부를 정하자바람으로 지체없이 추격전을 명령했다.

우리가 야간행군을 떠난 그 다음날 한덕근놈은 리장강을 부추겨 동, 남, 북 세 방면에서 20여만의 병력으로 동시에 곽촌을 공격해왔다. 그놈들은 2천～3천명밖에 안되는 우리 병력을 얕잡아보면서 탄약도 부족하고 지원받을 곳도 없는 신사군을 단매에 짓뭉갤수 있으리라

고 오산했다. 시작부터 놈들의 화력은 드셌고 공격기세 역시 사나왔다.

이에 맞서 우리 부대는 배수진을 치고 생사결단의 각오를 안고 일당십, 일당백으로 대항하였다.

승리냐, 죽음이냐, 이 두 길외에 다른 길이란 없었다. 우리는 완강히 저항하는 한편 한개 부대를 은밀히 빼돌려 놈들의 후방을 교란하고 공급선을 차단시키는 싸움도 과감하게 벌렸다. 또한 회남작전에 참가했던 부대를 시급히 불러 안팎으로 협공을 하였다. 결과 놈들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공격진에도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 중대가 곽촌에 돌아왔다. 곽촌보위전에 참가 못한 우리모두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력력히 드러났다. 누구보다도 이 심정들을 깊이 헤아린 정치지도원동지가 우리들에게 물었다.

《동무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답소리들이 쩌렁쩌렁 울렸다.

《좋소.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무들이 몹시 피로하리라는것을 나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모두 이번 싸움에서도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양하여 모두가 공을 세웁시다.》

한껏 격앙된 중대병사들의 가슴마다에 형님이 더욱 큰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번 추격전에서 우리의 기본임무는 기관단총과 중기관총, 박격포를 로획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문득 내 머리에 한가지 생각이 언뜻 떠올랐다.

만일 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대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즉시 이 문제를 제기하니 대렬속에서 웃음의 파문이 일었다.

《소강이, 아직도 그 시계가 아쉬운 모양이지?》

《태주에 쳐들어가면 그까짓 시계같은건 매 사람에게 하나씩 차례진단다.》

여기저기서 나를 놀려주는 말들이 들려왔다.

형님은 헛기침을 깇더니 정색해서 대답을 주었다.

《동무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는 오직 포로와 무기만을 로획해야 합니다. 그외에 다른 물건은 절대로 가지지 마시오.》

나는 두말없이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추격전이 시작되였다. 우리는 배낭과 쌀주머니를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전투에 뛰여들었다. 있는 힘껏 오직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앞에는 장애물이 거의나 없어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서른한조의 장구류를 지고 운동장을 쉰바퀴나 달리였어도 전혀 힘든줄 몰랐던 나였으니 총만 들고 달려가는것쯤은 온 중대의 앞장에 설 자신이 있었다. 벌써 분대장과 소륙동지, 대우동지를 뒤떨군 내앞에는 형님과 몇몇 전사들이 달리고있을뿐이였다.

장분대장동지는 내가 따라앞서는것을 보자 하하하 웃으며 소리쳤다.

《꼬마야, 이번에 태주에 들어가면 너에게 사령관놈의 시계를 빼앗아주지.》

얼굴이 온통 땀에 흠뻑 젖은 리대우동지도 덩달아 맞장

구쳤다.

《차돌이, 먼저 시내에 들어가서 찬물 한사발 얻어놓아라. 목이 말라 죽겠다니까!》

나는 그들의 롱담에 싱긋 웃어보일뿐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대답하느라면 그만큼 속도가 떠질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저 멀리에 우중충하게 솟아있는 성벽과 추녀를 건듯 쳐든 성루, 그밑에 옹기종기 몰켜있는 수많은 민가들이 눈에 비쳐들자 더욱더 다리에 힘이 뻗쳤다. 남경성보다도 낮고 성루도 볼꼴없는 이까짓 초라한 태주성에 리장강이라는 놈이 들어박혀서 영웅행세를 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코웃음이 튀여나왔다. 나는 저도모르게 기쁨에 떠서 소리쳤다.

《태주성이 보인다.》

《어디? 태주성이 어느쪽이야? 좀 가리켜주렴.》

고충동지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면서 급히 물었다.

나는 헉헉 단김을 내뿜는 그를 위해 발걸음을 늦추고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저기 나무들이 보이지요?》

《응, 보인다, 보여. 다 왔구나. 동무들, 앞으로!》

제일 먼저 시내로 돌입하려고 서로가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 난데없이 나팔소리가 울렸다.

《따따따—》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고있었다. 온 련대의 나팔수들이 떨쳐나서 힘차게 울리는 나팔소리였다.

총돌격신호로 착각한 나는 더욱더 힘을 내여 바람안고 내달렸다.

그런데 내앞에 있던 병사들이 우뚝우뚝 서기 시작하더니 뒤에서 따라오던 병사들은 급히 되돌아서는것이였다. 뒤에서 형님의 고함소리가 돌멩이처럼 날아와 뒤통수를 쳤다.

《소강이, 그자리에 섯!》

가슴이 철렁해진 나는 급히 몸을 더듬었다. 수류탄과 탄알은 다 있었고 허리에 매달았던 밥그릇이 없어졌는데 그까짓 밥그릇이 뭘 그리 중요하다고 서라고 명령하겠는가!

《빨리 돌아와!》

나를 꾸짖는 어조였다. 영문을 알수 없어 나는 속으로 툴툴거리며 되돌아왔다.

《왜 그럽니까?》

《추격중지신호를 못들었어?》

《예? 왜 중지합니까?》

나는 두눈이 대번에 휘둥그래지였다.

《명령을 놓고 왜라는건 또 뭐냐?》

형님의 눈빛이 번뜩이였다.

참 형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전에는 항상 《왜》, 《어째서?》라는 의문을 가지고 모든 사물현상들을 깊이 연구하라고 강조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왜》라고 물어보았다고 꾸짖으니 말이다.

성미가 누긋한 정치지도원동지가 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상급의 명령이니 우선 집행해야 하오. 아직은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여기에 서서 기다려봅시다.》

이때 두필의 준마가 기마수를 태우고 바람같이 우리곁을 지나 태주성밑까지 다달은 선두부대로 네굽을 안고 달려갔다.

나는 그 기마수들이 진의사령원동지의 호위병들임을 제꺽 알아보았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며 이렇게 소리쳤다.

《빨리 퇴각하시오. 사령원동지의 명령, 한발자욱도 성안에 들어서지 말것. 들어서면 누구든 그자리에서 총살할것!》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충심으로 따르는 진의사령원동지가 내린 명령이 옳은가? 어째서 사령원동지는 적들을 살려주는 명령을 내리는걸가?

장강강가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령원동지와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했다.

《은혜도 모르고 곽촌을 공격하는데 발벗고 나서려고 하는 리장강이를 단단히 혼쌀내야지.》

그런데 벌써 마음이 변했을가? 어쨌든 처음 들어보는 엄격한 명령이였으니 온 련대가 선자리에서 되돌아섰다.

시계를 손에 넣으려던 욕망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였다. 그러나 우리가 로획한 무기와 탄약은 이루 셀수없이 많았다.

우리 중대만 해도 《막심》중기 두정, 체스꼬제경기관총 6정, 각종 무기 100여자루에다가 포로는 150놈이나 되였다. 모두가 사기충천해서 병영으로 돌아오니 로획한 무기들을 한자루도 빼놓지 말고 고스란히 상급에 바치라는 명령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듣자니 이 무기들을

다시 리장강이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나는 분이 나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였다.

《이게 무슨 싸움이람. 이런 싱거운 싸움은 처음이예요.》

《진의사령원동지가 무슨 궁리를 하시는걸가?》

대우동지가 이렇게 물으며 왕동지를 바라보자 그도 나처럼 볼이 잔뜩 부어있었다.

《전투에서 남은건 부상당한 귀밖에 없구만!》

고충동지가 자신이 없이 어정쩡하게 한마디 하였다.

《어쨌든 진의사령원동지는 귀신같은분이니 무슨 큰 궁냥이 있어서 그러겠지.》

제나름의 억측들을 말하느라고 웅성웅성거리자 나는 발딱 일어나 누구에게라 할것없이 소리쳤다.

《내가 사령원동지께 직접 가서 물어보겠어요.》

내가 이렇게 큰소리칠수 있게 된데는 내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 중대가 사령원동지를 호위하여 곽촌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진의동지는 나와 인차 친해졌다. 헤여질 때에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소강이, 앞으로 여가시간이 있으면 사령부에 와서 날 찾거라!》라고까지 말하셨다. 그래서 그때 내가 《사령원동지는 늘 바쁘신 몸인데 제가 감히 시간을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니 사령원동지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소강이를 만날 시간이야 없을가. 장기 한판 적게 두는 한이 있어도 시간을 꼭 낼테니 우리 둘이 한번 재미나게 이야기해보자꾸나.》라고까지 하셨다.

내가 당돌하게 제기하니 모두들 갑자기 벙어리가 된듯 입들을 꾹 다물었다.

나는 속이 달아서 거듭 물었다.
《왜 다들 말이 없어요? 가라요? 가지 말라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소강아, 왜 이렇게 큰소릴 치는거냐?》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환성을 올렸다.
《누나! 누나가 왔구나.》
나는 문안으로 들어서는 누나와 부딪칠듯이 맞받아 달려갔다.
군모아래 약간 도드라진 이마에는 땀방울들이 다문다문 맺혀있었고 두뺨은 새빨갛게 상기되여있었다.
누나는 온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우리 분대 모든 전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 분대도 예누나를 잘 알고있었고 지어 존경까지 하고있었다.
누나의 뒤를 따라 조여가 명랑하게 웃으며 사뿐 들어섰다.
얼어서 새빨개진 그의 들창코를 보니 하늘로 향한 고추꼬투리를 보는것 같았다. 그는 나를 보자 반갑다는듯이 눈웃음을 살짝 지었다.
나는 구대원티를 내느라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조여, 네가 어떻게 왔니?》
내 말이 귀에 거슬렸던지 대답 역시 가시같았다.
《난 오면 안되니?》
분대원들은 만나자부터 아웅다웅하는 우리들을 보며 웃음들을 입에 물었다.
나는 나보다도 어린 처녀애한테 지고싶지 않아 우정 엄하게 물었다.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 말이야?》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왔지. 괜히 돌아다니는줄 아니?》
《무슨 일인지 군사비밀이 아니라면 한번 말해봐.》
《흥, 예언니 일이자 내 일이나 같애. 정 알고싶으면 언니에게 물어봐.》
나는 누나에게 얼굴을 돌렸다.
누나는 한손으로는 내 손을, 다른 손으로는 조여의 손을 다정히 끄당겨잡았다.
《너희들은 만나면 다툼질이구나. 입심들이 여간 맵지 않은걸. 이제 너희들이 힘을 합쳐 날 공격하면 나도 꼼짝 못하겠구나.》
누나의 롱담에 나는 바빠맞아서 손을 홰홰 내저었다.
《아니예요. 그럴리가 있나요.》
이때 분대장동지가 례절있게 나서서 손님들을 안으로 청하였다.
《어서 들어와 여기에 좀 앉으십시오.》
누나는 사양하지 않고 허리를 구부려 신발을 벗었다. 조여도 당시 우리 부대 녀병사들속에서 한창 류행이던 하얀 운동화를 벗고는 예누나와 함께 우리들의 잠자리에 올라앉았다. 사실은 바닥에 벼짚을 깔아놓은데 불과한 잠자리였다. 나는 누나에게 깔고앉으라고 네모반듯하게 귀를 맞추어 개여놓았던 내 모포를 가져다주었고 조여에게는 분대장동지가 자기의것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대우를 받는것은 그때 당시 최고의 특혜였다.
나는 누나가 편안히 앉기를 기다렸다가 재차 물었다.
《누나, 무슨 일로 왔나요?》
누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먼저 하나 물어보자꾸나. 아까 분대동지들에

게 어째서 큰소리쳤지?》

나는 있었던 일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뒤끝에 불평도 한마디 덧붙였다.

《참 맹랑한 싸움이였어요.》

《응, 그렇댔구나. 아까 중대부에서도 중대장과 정치지도원동지랑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동지들의 감정이 상한줄은 예견치 못했구나.》

누나가 이렇게 말하자 나는 뒤를 이어 속생각을 마저 내뱉았다.

《사실 그놈들이 우릴 먼저 치지 않았나요. 놈들이 우릴 먼저 공격한 이상 우리도 가만있지 말고 호되게 답새겨서 몽땅 소멸하는게 옳지요?》

《꼬마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뭐가 뭔지 아직은 땡합니다. 련대정치부에서 오셨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속시원히 말 좀 해주시우다.》

고충동지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여 예누나에게 말했다. 왕동지는 더 잘 귀담아들으려는듯 뒤줄에서 앞으로 바싹 나오기까지 하였다.

방안을 둘러본 누나는 조용히 말을 떼였다.

《사령원동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다같은 중국사람들이다. 우리의 적은 왜놈들이다. 그러니 서로가 하나로 단결하여 통일전선을 뭇고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왜놈들을 쳐야 한다.》

《그런데 누나, 우리는 국민당과 련합하자고 하지마는 국민당은 오히려 우리를 없애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도 가만있어야 하나요?》

내가 누나의 말을 넌떡 가로막는게 못마땅했던지 조

여가 맵짜게 쏘아붙였다.

《소강아, 좀 허심하게 들으렴. 언니의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비판앞에 말문이 막히자 나는 심사가 꼬였다. 사실은 나 역시 조여를 비판할게 많았다. 신사군전사라는게 맵시를 보느라고 눈같이 하얀 신발을 신고 다니는게 어디될 말인가? 만일 저런 신발을 신고 싸움판에 나서면 쉽게 놈들의 목표물이 될것이다.

조여, 너에게는 아직은 소자산계급의 사상과 귀공녀같은 어리광기가 있어.

그러나 나는 어른스럽게 꾹 참고 그의 말같은것은 귀등으로 듣는다는듯한 표정을 지었다.

누나는 잠시 끊기웠던 말을 계속 이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령원동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국민당보수파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복하고 다음에는 들이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당내부도 단결되지 못하여 우파와 좌파, 중간파세력들이 있으니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일심단결하여 항일을 하자는것이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우리와 손잡자고 하는 사람들과는 악수를 하고 포옹해야 한다. …

그러시면서 벗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끼도 막바지에 몰리면 사람을 문다는데 너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 말고 살아나갈 길도 한군데 틔워놓자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그 말뜻을 의미해보느라고 제각기 생각에 잠겨 말들이 없는데 우리 분대의 공산당원들은 머리들을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 말씀이 옳소. 훌륭한 방안이요.》

나 역시 사령원동지의 말뜻을 다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같은 중국사람이다.》라는 말은 귀에 쏙 들어왔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당군대와 싸우는것은 사기나지 않았다. 그들이 무기를 높이 들고 《살려주십시오. 우리도 중국사람입니다.》라고 애걸할 때에는 내 마음도 좋지 않았다.

나는 또 다른것을 물어보았다.

《누나, 우리 중대에 날 만나러 왔지요?》

누나는 기가 차다는듯이 손가락으로 내 코를 꾹 누르며 말했다.

《그래! 널 만나러 왔지. 장분대장동지도 만나야 한단다.》

나는 누나의 속을 딱 알아맞춘것이 기뻐서 소리내여 웃었다.

《글쎄 그러면 그렇겠지요.》

《이번에 온것은 다름이 아니라 진의사령원동지를 맞이하던 이야기를 듣고싶어서란다.》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장담했다.

《그건 문제없어요. 나보다도 형님이 더 잘 이야기해줄거예요.》

이번 기회에 나는 형님을 예누나앞에 맞세워주고싶었다. 형님이 어째서 예누나를 보면 구실을 대면서 피하려 드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누나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면서도 누나가 중대에 오면 정치지도원동지에게 떠맡기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버리여 누나를 노엽힐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당시 신

사군의 처녀병사들속에서는 《이십오, 여덟, 련대》라는 말이 류행되고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바라는 가장 리상적인 남자들은 나이가 25세, 군사복무 8년 그리고 련대급간부가 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아마도 형님은 이런 류행어에 자신의 조건을 비추어보고는 스스로 안되겠다고 단정하고 예누나를 포기하려 하는지도 몰랐다. 형님의 우물쭈물하는 태도가 나는 싫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형님을 찾아온 예누나의 청을 굳이 거절하고 분대장 장동지에게 위임하였다.

이 말을 들은 나는 형님에게 성이 나지 않을수 없었다.

《됐어요. 우리가 중대장동지보다 더 잘 이야기해드리겠어요.》

나는 우정 형님이 들으라는듯이 목청을 높이였다.

분대장동지도 쾌히 승낙을 하고 야간행군때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펼치기 시작하였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온통 나에 대한 칭찬뿐이였다. 그래서 내가 도간도간 끼여들어 분대동지들이 나를 어떻게 진심으로 위해주었는가를 첨부하였다. 고충동지는 내 눈에서 티를 뽑던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해주었다.

왕동지도 흥이 나서 이야기를 슬슬 펴나갔다.

《그저 이 왕소륙이만이 팔자가 사나왔지요. 하필이면 그놈의 총알이 내 귀에 맞을건 뭐겠소. 이제부턴 별명 〈왕소락〉에서 〈즐거울 락〉을 떼고 대신에 〈고생할 고〉를 붙여 〈왕소고〉라고 불러야겠수다.》

이 말에 모두가 와 하고 폭소를 터치였다. 조여도 우스워서 배를 그러쥐고 대굴대굴 굴었다.

다만 예누나만이 단정한 자세를 잃지 않고 미소를 머금은채 부지런히 기록해나갔다. 조여도 언니의 모습에서 자기를 뉘우쳤는지 인차 자세를 다잡고 열심히 적어나갔다. 머리를 살그머니 기울여 조여의 수첩을 넘겨다본 나는 두눈이 둥그래졌다. 조여의 글씨가 얼마나 고왔던지 나하고는 대비도 안되였던것이다. 누나가 배워준것이 틀림없었다. 나에게도 누나에게서 글을 배울 기회가 있었건만 내스스로가 마다하였었다. 그러나 조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마음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앞으로 나도 착실히 배워서 누나와 형님이 사다준 학습장들을 글자들로 가득 채우리라 속으로 굳게 마음다졌다.

나는 예누나가 우리들의 말을 꼬치꼬치 적는것이 이상하여 물었다.

《누나, 이렇게 자세히 적어선 뭘 하나요?》

누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조여가 해해거리며 앞질러 말했다.

《언니는 〈사령원과 붉은 꼬마병사〉라는 제목으로 새 연극을 쓰려고 한단다.》

나는 엉치가 불에 덴것처럼 펄쩍 뛰쳐일어났다.

귀가에는 《이 꼬마녀석 눈망울도 없지. 진의사령원동지도 몰라보고 버릇없이 굴었다니까.》 하고 욕하는 소리들이 비발치듯 들려올것만 같았다.

나는 자초지종 이야기한것이 못내 후회되였다.

그러나 이제는 쏟친 물이고 깨진 사발이였다.

(누나는 날 연극에서 어떻게 만들어놓을가?)

불어나기만 하는 근심에 잔뜩 눌리운 나는 짐짓 성난체하고 항의했다.

《전번의 연극도 난 아직 보지 못했는데 또 나를 두고 새 연극을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자 분대원들이 앞을 다투어 청을 들이댔다.

《만들었다는 연극은 언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를 초청하겠지요?》

누나는 기록장을 접으며 밝게 웃었다.

《래일 승리경축대회가 있게 되는데 대회끝에 우리가 준비한 그 연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모두가 한가지씩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연극을 볼수 있다면 한가지가 아니라 열가지 의견이라도 서슴없이 줄 우리 분대원들이였다.

13. 경축대회

련대에서부터 우리 중대에 저녁식사를 마친 후 대회장소로 오라는 통지가 내려왔다. 통지를 받은 즉시 형님은 취사분대장을 불러 저녁식사를 일찌감치 준비해놓도록 단단히 일렀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해가 지기 전에 저녁식사를 끝마치고 마당에 대렬을 지어섰다. 어두워지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겠으나 형님은 중대를 재촉하여 대회장소인 곽촌소학교 운동장으로 출발시켰다.

대회장으로 가는 우리 중대병사들의 마음은 하늘의 구름송이마냥 둥둥 떴다. 새로 보게 될 연극은 벌써 우리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우리 중대에서 실지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만든 연극이라니 거기에 나의 이름도 나올가? 나온다면 어떤 사람으로 그려졌을가?

나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머리속에도 이런 호기심들이 가득찼다.

우리 중대는 제일먼저 운동장에 들어섰다. 운동장에는 가설무대가 이미 설치되여있었고 그우에는 주석단이 소박하게 꾸려져있었다.

하얀 침대보를 씌워놓은 책상들우에는 법랑고뿌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고 주석단뒤에는 승리경축대회라고 흰종이로 오려낸 글자들이 큼직하게 나붙어져있었다. 량옆에는 자주빛 무대막이 엄숙하게 분위기를 돋구며 드리워져있었고 그앞으로 소도구를 안은 정치공작대 사람들이 분주히 오르내리고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운동장에는 중대별로 앉을 자리가 흰색으로 정연히 표시되여있었는데 운동장이 작다보니 곁의 남새밭까지 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중대는 곽촌인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운동장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한사람같이 단정하고 미끈한 우리 중대를 손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을의 철부지 장난꾸러기들이 대오속에 서있는 나를 류달리 호기심과 부러움이 가득찬 눈길로 보면서 마치 동물원에 온것처럼 나를 《구경》하였다.

《저것봐, 총은 옆의 사람것과 달라. 쬐꼬맣구나.》

《총에 매단 빨간 리봉이 정말 곱구나.》

《배낭도 다른 사람들것과 다르구나.》

이렇게 나직한 목소리로 소곤소곤거리는 속에서 한 코흘리개가 대담하게 내곁에 다가와 빨갛게 얼어든 손으로 내 기병총을 슬쩍 다치며 물었다.

《이 총 진짜나? 가짜나? 총소리 나는거나?》

이 기막힌 물음에 나는 어처구니없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 약이 오르기도 하였다.

나를 나무총 메고다니며 군사놀이하는 자기네와 같이 여기는것이 괘씸했던것이다.

《다치지 말아. 다치면 꽝 해!》

그러나 그애는 풀뭉치처럼 까시시한 머리를 기웃거리며 혀를 비죽 내밀었다.

《피, 거짓말, 우리 집에 든 아저씨들의 총은 진짜인데두 다치니까 꽝 하지 않던데?》

내 총을 막대기로 여기는데 결이 난 나는 총탄띠에서 시누렇고 번쩍번쩍거리는 총알들을 보여주었다.

《이것봐, 이래도 가짜야?》

그제서야 꼬마는 내 말이 믿어지는지 자세를 낮추고 조르기 시작했다.

《형, 총알깍지 하나 주려마, 응?》

총탄깍지를 가지고 장난질하고싶어하는 마을애들의 심정을 잘 알고있었던 나는 추격전에서 주어모은 총알껍데기들을 몇개 꺼내서 꼬마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제 그애들은 성냥대가리를 긁어서 모은 화약가루들을 그속에 다져넣고 대포를 쏘며 놀것이다. 그 소리가 요란한것이 진짜 총을 쏘는것 같았다. 나는 항상 빈 총탄들을 가지고다니다가 새로운 고장에 이르면 그곳 아이들에게 주면서 낯을 익히군 했다.

아이들과 친하면 곧 부모들과도 알게 되여 취사분대가 사오지 못하는 남새나 빌리지 못하는것들도 내가 나서서 어렵지 않게 해결해오군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군민관계를 잘 가진다고 정치지도원동지로부터 칭찬받기까지 하였다.

《차렷! 우로 돌앗!》

구령이 들리자 나는 아이들을 쫓아보냈다.

《쉬엿, 그자리에서 휴식하시오.》

나는 명령대로 그자리에 앉아 쉬면서 무대막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아니나다를가 두개의 작은 머리가 얼른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진지고와 조여임을 제꺽 알아본 나는 분대장동지에게 보고하고 잠간 그애들을 만나보고싶었다.

그런데 형님이 이 제기를 듣고 낯빛을 엄엄하게 하며 명령했다.

《위생실 가는것외에 함부로 대오를 떠나지 않게 하시오. 오늘 중대들이 모두 여기에 모이니 그 어느때보다 규률과 질서를 더 잘 지켜야 하겠소.》

할수없이 나는 공연무대에서 그들을 보는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 머리속에는 어떻게 하면 몰래 그애들을 만나 연극의 내용을 먼저 내탐할수 있을가 하는 오직 이 한생각뿐이였다.

이때 정치지도원동지가 대렬앞에 나섰다.

《동무들, 노래를 부릅시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의 지휘에 맞추어 군가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마을사람들은 우리가 노래를 끝마칠 때마다 손바닥이 아

프도록 박수를 치며 거듭 재청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니 우리들의 노래재산도 거의나 밑창이 날 지경이 되였다.

나는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서 소리를 낮추어 흥흥거리다가 후렴부분에 가서는 누구보다 더 목청을 돋구며 노래를 부르군 했다.

우리 중대가 노래밑천을 거의다 털어놓았을 때 다른 중대들이 잇닿아 들어섰다. 그들은 들어서자바람으로 우리 중대에 도전했다.

《2대대 4중대동무들, 우리와 노래경연을 해보지 않겠소?》

《합시다!》

《또 새 노래 부를수 있겠소?》

《있습니다.》

승벽심이 여간 아닌 우리 중대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노래 《구국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노래를 몰랐던 나는 곁사람을 따라서 붕어같이 입만 벌리면서 다른 중대병사들에게 들켜 놀림받을가봐 속이 저렸다.

이때 중대문화오락책임자가 나를 불러 우리에게 도전한 중대가 어느 중대이며 기타 다른 중대들에 대한 정보도 몰래 알아올데 대한 임무를 주었다.

우리도 반공격할 준비를 하자는것이였다.

(이까짓 임무야 식은죽먹기지!)

나는 마침 좋은 기회이라고 속웃음을 지으며 《정찰》을 나갔다.

그런데 도전한 중대는 물론이고 다른 중대들에도 내가 알만한 병사들이 한명도 없었다. 임무수행이 헐치 않

을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자연히 긴장해졌다. 나는 몸을 구부리고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전사에게 다가갔다.

《동지, 동지네 중대는 몇대대 몇중대입니까?》

《꼬마야, 그건 왜 묻니?》

《내가 아는 아저씨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가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전사가 나를 알아보고 정체를 발가놓았다.

《말해주지 말라구. 저 꼬마는 2대대 4중대〈특무〉일세.》

나는 그 아저씨를 향해 아래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그러나 그 아저씨가 밉지는 않았다. 나라고 해도 역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것이니까! 그들이 입을 꾹 닫아맬수록 기어코 알아내고야말리라 마음먹고 나는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방법을 달리 해야 하였다. 물어봐서는 알아낼것 같지 못하니 눈으로 보고 가려내야 했다. 나는 땅에 표시된 흰 눈금표식들을 하나하나 세여보며 그 수자와 중대번호들을 련관시켜 생각해보았다. 그리고는 이쪽 중대에 가서는 저쪽 중대에 대해 알아보고 저쪽 중대에서는 이쪽 중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식으로 부대소속을 말짱히 알아냈다.

나는 춤추듯이 중대로 달려가 문화오락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귀속말로 보고했다. 그는 입귀가 귀밑까지 올라가더니 우리 중대노래가 끝나자마자 호기있게 소리쳤다.

《동무들, 1대대 3중대동무들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기세를 올리며 호응했다. 동시에 나를 쫓아보냈던

그 두명의 전사들의 아연해진 표정을 그려보았다. 나에게 비밀을 대주지 않겠다구? 어림도 없지!

우리의 요청에 따라 1대대 3중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노래를 끝마칠무렵에 운동장은 병사들이 송곳 꽂을 틈도 없이 꽉 들어찼다.

대회시작을 기다리며 부대별오락회가 승벽내기로 시작되였다. 어떤 부대에서는 사령부직속기구들까지 불러내여 노래를 시켰고 또 다른 부대에서는 정치부성원들을 청해다가 기어코 노래를 부르게 했다.

서로마다 다른 중대 중대장들을 청해서 노래를 시켰고 어떤 지휘관은 청하지도 않았는데 주동적으로 찾아와 노래를 불렀다. 개별적으로도 불렀고 중대별로, 지어는 대대별로도 노래를 불렀다.

노래소리, 웃음소리, 응원소리, 구호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곽촌이 통채로 떠나갈듯 벅적 들끓었는데 그야말로 장관이였다.

얼마후 소학교에서 몇몇 간부들이 나와서 연단에 올라서자 흥성이던 분위기는 차츰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진의사령원동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오늘 경축대회장에 새 군복을 입고 단추 네알배기 군모를 쓰고 참가하여 더욱더 위풍당당해보였다. 사령원동지는 주석단가운데 서서 그 번쩍이는 눈길로 장내를 둘러보고나서 자리에 앉았다. 나는 마치 사령원동지가 숱한 병사들속에서 꼭 나를 찾는것처럼 생각되여 머리를 한껏 쳐들었다. 그러나 키가 작다보니 앞에 앉은 분대장동지의 머리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사령원동지가 나를 틀림없이 알아볼것이라고 믿으며 그와 눈길을 마주치려고 애썼다.

장내는 바늘떨어지는 소리도 들릴것같이 조용해졌다. 수천명이 여기에 모여있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리만큼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진의동지가 연탁에 나서자 폭풍같은 박수소리가 터졌다.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그의 사천성말투에 습관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을수 있어도 나는 한마디한마디 속속들이 귀에 담을수 있었다.

《동지들, 난 사실 여기에 동무들을 욕하자고 올라섰소.》

그의 연설은 시작부터 장내의 이목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옆에 앉아있던 5중대장동지가 우리 형님에게 나직이 말하였다.

《난 말이요, 정말 오래간만에 사령원동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구만!》

《동무들은 우리 당에서 품을 들여 키워낸 정수분자들로서 우리 당의 피이고 고귀한 자본이란 말이요. 혁명의 승리를 위해, 왜놈들을 중국에서 내쫓기 위해 동무들은 손가락 하나 상해서는 안된단 말이요. 물론 동무들은 이번 싸움을 아주 잘했소. 그러나…》

사령원동지는 열정에 넘쳐 연설하면서 그 예리한 눈빛을 자주 우리 중대에 던졌다. 나는 그가 나를 향해 미소짓는것같이 느껴져 벌씬 웃었다. 진의동지는 손을 들어 손가락을 꼽아가며 마치 우리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듯이 연설을 하였다.

《…성시공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에 일부 동무들이 복종하지 않은것은 매우 유감스럽고도 옳지 못한 행동이였소.

리장강이가 한덕근의 부추김을 받아 의리를 저버리고 우리를 공격한것은 응당 벌을 받아야 마땅한것이요. 하지만 우리와 맞섰다가 혼쭐이 난 리장강은 그냥 한덕근의 말을 들을것인가, 아니면 우리 신사군과 타협할것인가 갈팡질팡하고있소. 그러므로 리장강에게 시간적여유를 주어 그 사이 적군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가 스스로 한덕근의 손탁에서 벗어나 우리와 손을 잡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적은 력량으로도 얼마든지 피를 흘리지 않고 소북에 발을 붙일수 있으며 나가서 근거지를 건설할수 있소. 그후에 남하하는 부대와 대오를 합치고 더 큰 주먹으로 왜놈들을 쳐부시기요.》

나는 사령원동지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똥개는 죽어도 똥먹는 버릇 못고친다고 했는데 리장강이가 교활하고 주대없는 본성을 과연 고칠수 있을가?하고 의심이 들었다.

지금은 시세가 급하니 일시 손을 잡을수는 있어도 후날에는 다시금 본성을 드러내여 우리를 물려고 달려들지 어이 알랴. 믿음이 가지 않는 놈과 지나친 모험을 하는게 아닐가? 나는 진의동지의 연설을 계속 들으려고 귀를 바짝 강구었다. 그때는 이미 사령원동지가 연설을 마무리짓고있었다.

《난 하고싶은 말은 다했소. 그만하기요. 연극을 봐야지.》

시작때와 마찬가지로 열렬한 박수소리가 연단을 내리는 그를 맞이하였다.

내뒤에 있던 전사가 고충동지에게 감탄을 하며 말하였다.

《진사령원동진 어쩌면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실가?》

《그러길래 예로부터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며 배속에 백만대군을 품는 사람을 장군이라고 불렀다니까!》

잠간 휴식한다고 선포되자 나는 이 틈을 타서 몰래 무대뒤로 갔다.

예누나며 조여, 진지고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분장했는지 무척 보고싶었던것이다. 내가 남경에 있을 때 연극배우들을 본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치장이 참으로 요란스러웠다.

무대뒤 소학교교실에서 배우들이 한창 분장을 하고있었다.

문이 안으로 걸려있어서 나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니 안에는 남포등을 켜놓아 백색등불빛이 방안의 사람들의 얼굴들을 환히 비치고있었다.

진지고는 제 혼자서 분장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아직 분을 바르지 않은 얼굴에 두눈섭을 굵게 그리고는 거울에 이리저리 비추어보며 자기스스로가 흠집을 찾고있었다.

《예누나, 어때요? 석소강이와 비슷해요?》

뒤에 있던 조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단추를 꼭 채워. 소강이는 늘 목단추를 단정하게 채우고 다니더라.》

그러자 지고가 반박해나섰다.

《아니야. 규률을 지킬줄 모르는 소강의 옷차림이 단정할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소강이는 고의적으로 규률을 어긴게 아

니거든!》

창밖에서 이들의 다툼소리를 듣느라니 나는 언제나 옷차림을 규정대로 하고다닐것을 엄격하게 요구한 형님이 진정으로 고마왔다. 그렇지 않으면 진지고에 의해서 나의 게잘싸한 몸차림이 그대로 무대에 나타날게 아닌가.

진지고를 타이르는 예누나의 말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왔다.

《목단추를 채워라. 한가지 결함을 범했다고 해서 소강의 모든것이 다 나쁘다고 볼수야 없지 않니.》

그 말에 지고는 얼굴을 붉히며 공손히 목단추를 채웠다.

《누나, 내가 남경말씨를 흉내낼테니 비슷한가 들어보세요.》

나는 진지고가 남경말투로 말을 해보겠다고 자신있게 나서는 바람에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내가 그에게 남경말씨를 배워준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웠을가? 나는 창문틈에 귀를 더욱 바짝 붙이였다.

《사발, 저가락, 고뿌, 접시…》

나는 더 듣지 않고 피씩 웃고말았다. 진지고의 말씨는 신통히 녀자들 말씨여서 예누나가 배워준것임을 제꺽 알아맞혔다.

누나도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됐어, 됐어. 남경말씨는 그만두어라. 아무래도 어색해. 어쨌든 너는 석소강이 아니라 왕소산이거든.》

이때 모엿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려왔다. 나는 더 듣고싶었으나 단념하고 급히 자기 위치로 돌아왔다. 형님앞을 지나갈 때 형님이 고개를 끄덕여 나를 멈춰세웠다. 그다음 내 귀에 입을 바투 가져다대고 《예누나를 보았니?》

하고 물어보는것이였다. 어찌나도 들릴듯말듯하게 속삭이는지 나도 겨우 알아들었다.

나는 형님의 매눈같은 눈초리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무대뒤에 갔던것을 언제 보았을가. 나는 형님에게 거짓말을 하고싶지 않았다.

《예, 보았어요.》

그리고는 형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혹시 예누나에게 전해달라고 글쪽지같은것을 주며 부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형님은 나를 흘겨보더니 《어서 자기 위치로 가거라!》하고 말하며 내 머리를 툭 건드리는것이였다.

그바람에 나는 흥겹던 기분이 깨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도대체 형님의 마음속밑바닥을 들여다볼수가 없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인차 무대에 두사람이 나와서 자홍색 무대막을 량옆으로 갈라놓았다. 드디여 공연이 시작된것이였다.

첫 프로는 예누나가 지휘하는 대합창이였다. 모두 네개의 노래를 불렀는데 제목을 본다면 《신사군군가》, 《장검으로 원쑤들의 목을 치자》, 《유격대원의 노래》 끝으로 새로 지은 노래 《곽촌보위전의 노래》였다.

이 노래는 내용이 좋고 곡이 씩씩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에 들었다. 나는 노래에 심취되여 열심히 그들을 따라불렀다.

합창대가 다시한번 반복하여 부른다면 얼마든지 몽땅 외워낼 자신이 있었다. 그때 나는 이 노래가사를 진의사령원동지가 직접 쓴것임을 알지 못했다.

두번째 공연은 연극 《자명종시계이야기》였다.

연극이 시작되자 장내는 쥐죽은듯 조용했고 저저마다 목들을 빼들고 무대를 지켜보았다.

연극에서 왕소산이가 형님인 왕중대장과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오자 관중들속에서 웃음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더니 왕중대장이 동생의 드센 입심에 견디지 못하고 투항을 하게 되는 대목에 이르자 온 장내는 웃음판이 되여버렸다.

나 역시 왕소산을 보며 웃지 않을수 없었다.

내 보기에도 왕소산이가 내가 아니라 나보다도 더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명랑한 어느 다른 부대의 꼬마병사같았다. 강변에서 남새를 씻던 처녀애가 그만 발을 잘못 짚어 물에 빠졌을 때 왕소산이가 용감하게 뛰여들어 구원하는 장면에서는 저도모르게 감탄을 하며 박수를 힘껏 쳤다.

그러나 백룡사습격전투때 부대의 규률을 어기고 자명종시계를 다치는 바람에 시계종소리가 울리고 잠자던 놈들이 깨여나 헛총질을 하여 한 전사가 쓰러지는 장면에서는 희생된 오분대장동지가 생각나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성이 독같이 난 왕중대장이 펄펄 뛰며 왕소산에게 3일간의 영창처벌을 주었을 때는 어쩐지 곁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게 되였다.

관중들은 왕소산의 운명을 지켜보며 그의 지혜와 용감성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그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못내 애석해하면서 그의 운명을 걱정하기도 했다.

조여는 연극에서 나의 외사촌녀동생 옥분이로 분장하였다. 내가 강에 빠진 옥분이를 구원한것은 신사군에 입대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누나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연극에 넣었는지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 일이였다.

진지고는 나도 감탄할 정도로 역을 잘했다. 분장은 물론 말이나 행동, 생각 역시 신통히도 나를 닮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대번에 왕소산이가 석소강임을 짐작했을것이다.

그러나 진지고는 역시 진지고였다. 연기도중에 문득 대사를 까먹어서 한참동안 멍청히 서있었던것이다. 나라면 기발하게 넘겨버리였겠으나 지고는 떠오르지 않는 대사를 생각해내느라고 모지름을 쓰다가 예누나가 보다못해 대사를 튕겨주어서야 헤덤비며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도 그대로 받아외우는 바람에 관중들모두를 허리가 끊어지도록 되게 웃기였다.

형님의 역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도 알수 없었다. 그는 융통성이 없고 딱딱하며 오직 명령집행, 규률중시만을 아는 목석같은 인간, 동생의 심정도, 감정도 알려 하지 않는 매정한 인간으로 형님을 형상했다. 나는 예누나가 어째서 형님을 이렇게 만들어놓았는지 리해되지 않았다.

누나를 만나면 그앞에서 형님을 두고 숨김없이 불평을 부렸기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형님에게 미안하고 심지어 마음이 아팠다. 사실상 형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해주고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누나의 심정을 알려고 하지 않는 형님에 대해서 누나가 공개적으로 목석이라고 비판한것이 아닐가 하는 엉뚱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

나는 형님을 슬그머니 곁눈질해보았다. 형님은 머리를 푹 수그리고 쪽잠을 자고있었다.

… …

연극이 끝난 후 중대뿐아니라 대대, 련대적인 대론쟁이 벌어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진의사령원동지가 부대안에서의 규률성과 조직성을 더한층 강화할데 대해 강조한 내용을 연극이 제때에 반영하였으며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나왔다고 일치하게 칭찬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연극은 왕중대장을 비판하고 왕소산을 정당화하였다고 하면서 중대장의 메마른 사업작풍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른 편에서는 규률을 강화하고 드팀없는 명령집행정신을 키워주자고 애쓰는 왕중대장을 두고 어찌 잘못했다고 할수 있겠느냐고 반박해나섰다.

중대전사들은 연극을 보고나서 《어째서 우리 중대장동지를 저렇게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놓았어?》하고 의견들이 구구했다. 형님은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을 휘두르면서 《무슨 말들이 많소. 결함이야 있을수 있지. 있으면 고쳐야 하는거고.》하고 더 다른 말 못하게 막아치우군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욱 형님보기가 죄송스러웠다. 그래서 한번은 형님의 소매를 잡고 구석으로 가서 조심조심히 말해보았다.

《형님, 누나를 찾아가서 연극내용을 고치라고 할래요!》

그러자 형님은 두눈을 부릅떴다.

《그건 어째서? 연극의 왕중대장은 내가 아니고 왕소산은 네가 아니거든. 도적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 들어봤어?》

그러나 나는 맺힌 속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서 형님 몰래 누나를 찾아떠났다. 찾아가는 길이 5중대와 경위중

대주둔지를 거치게 되여있어 나를 아는 병사들은 멀리서부터 나를 보고 웃으며 반겨맞았다.

《소강이가 왔구나! 이보게들, 연극의 주인공이 왔네.》

그러자 나를 몰랐던 병사들까지 우정 나를 보겠다고 하던 일을 놓고 달려오기까지 하였다.

《저 꼬마병사가 왕소산인가?》

《왕가가 아니라 석가라누만!》

《원래 이름은 석소강인데 별명은 차돌이래.》

처음에는 창피를 무릅쓰고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느라고 하였지마는 나중에는 머리를 수그리고 황급히 빠져나가고말았다.

정치공작대가 자리잡은 곳에 이르니 마침 누나는 공작대원들과 함께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낯선 사람이 나를 먼저 발견하고 반겨맞으며 말했다.

《정예동무, 동생이 왔소!》

누나는 얼굴을 돌려 나를 보더니 가볍게 탄성을 올렸다.

《소강아, 너 마침 잘 왔다. 범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누나는 나를 끌어당겨 억지로 조여결에 앉혔다. 조여는 기뻐하며 내 손에 닦은 콩을 한줌 쥐여주었다. 이것을 보자 모두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얼굴이 확 붉어져 손줌에 들어있는 콩을 그릇에 슬그머니 담아놓았다.

《너나 먹어. 난 이발이 아파서 못먹어!》

하지만 조여는 기어코 콩을 내 손에 다시 쥐여주며 명령했다.

《먹으라면 먹어!》

나보다도 한살 아래이건만 조여는 애당초 수집음이라는 걸 모르는것 같았다.

아마 대도시에서 자란 탓인지 그는 봉건냄새가 나는 례절같은것은 아예 질색하는 개명한 처녀애였다.

《소강이, 어서 먹어라. 먹으면서 말해보자. 너희 중대에선 연극을 보고 반영들이 어떻니? 또 네 생각에는 어떻더냐?》

나는 이렇게 묻는 누나에게 지지파와 반대파의 의견들을 간단히 말하였다. 말하면서 될수록이면 누나의 기분을 잡치지 않게 하려고 그의 기색을 살피면서 왼심을 썼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안경을 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언성을 높였다.

《연극을 비판해? 락후하고 협소한 안목이요. 아직 촌티를 벗지 못했거든.》

이 말에 얼굴색이 해맑은 처녀가 옳다고 맞장구를 쳤다.

《시간은 곧 힘이고 생명이며 승리라는것을 그들은 아직 잘 모르고있어요. 예언니, 난 정식 제기합니다. 다음번 공연에 이 말을 대사에 꼭 첨부합시다.》

내가 들어선 다음부터 곁눈 한번 주지 않는 나의 기색을 줄곧 살펴보던 진지고는 여러명이 왁작 떠드는 기회를 타서 슬그머니 물었다.

《소강아, 내가 연기를 한것이 너와 비슷하던?》

그가 듣고싶어하는 대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있던 나로서는 형님의 말그대로 이렇게 쏘아주었다.

《피, 넌 왕소산이지 석소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자 그 역시 감정이 상했던지 내가 보라는듯이 손을 버쩍 들고 제법 의견까지 제기했다.

《〈시간은 곧 힘이고 생명이며 승리다.〉
정말 멋진 격언입니다. 난 이 대사를 연극대본에 박아넣자는걸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조여는 성격그대로 직방 내쏘았다.
《이미 있는 대사도 외우지 못해 무대에서 망신을 하면서 또 새 대사까지 맡겠다구? 그러다간 아예 무대우에 떡얼어붙어 내려오지도 못할려고 그러니?》
이 말에 모두가 와하—하고 폭소를 터치였고 지고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은 심정인듯 몸둘바를 몰라했다.
예누나가 조여의 손등을 찰싹 때렸다.
《요, 딱벌같으니!…제 생각에는 구태여 이 말을 써놓는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왕소산은 너무 어리니 이런 말을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연극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고있다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봐요. 이것은 병사대중의 의식을 깨우쳐주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말해주고있어요.》
말을 마친 누나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앉았다.
《소강아, 그리고 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다 말해라!》
누나의 말에서 힘을 얻은 나는 용기를 내여서 형님에 대한 뒤소리들과 그에 대한 형님의 태도를 단숨에 말해버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누나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니 내가 바빠맞았다.
아직 어린 내가 어른들간의 복잡한 감정문제들을 잘 알

지도 못하면서 할말 못할말 마구 주절거린게 아닐가?
조여가 나에게 화를 발칵 내였다.
《석소강, 넌 왜 언니를 기분없게 하니? 정말 한심하다니까. 빨리 중대에 돌아가. 누난 휴식을 해야 해.》
이전에는 누가 나를 쫓으려들면 누나가 나서서 기어코 눌러앉히군 하였는데 지금은 자리에 굳어진듯 앉아만 있다.
다만 누나의 입술사이로 《조여, 난 일없어. 성을 내지 말아.》하는 말만이 맥없이 흘러나왔을뿐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인사를 하였다.
《누나, 나 갈래요. 좀 쉬세요!》
내가 대문을 벗어나자 누나는 그제서야 꿈에서 깨여난듯 다급히 뒤쫓아와서 내 손목을 꼭 잡았다.
《소강아, 너… 너…》
숨이 차올라 말을 하지 못하는 누나를 위해 나는 한동안 기다렸다가 물었다.
《누나, 뭘 말하려고 그러나요?》
누나는 얼굴을 활딱 붉히며 말했다.
《난 네가 이번 연극을 보고 교훈을 깊이 찾기 바란다. 진의사령원동지의 연설을 들으면서 모를것이 없더냐?》
누나의 심리상태가 좋지 못하고 얼굴색도 창백해진것을 본 나는 더 하고싶었던 말들을 꿀꺽 삼키고 그의 손에서 잡히웠던 손목을 슬며시 뽑으며 말했다.
《예, 고마워요. 그럼 또 만나요!》
나는 돌아서서 중대로 가는 길에 발걸음을 놓았다.
《미워죽겠다니까!》

등뒤로 날아온 이 말이 예누나의 입에서 나온건지, 조여가 한 말인지, 또 이 말이 나를 사랑해서 한 소리인지, 정말로 미워서 한 소리인지 분명치 않았으나 그렇다고 신경쓰고싶지도 않았다.

내가 정말 알고싶은것은 형님에 대한 누나의 진실한 감정이였다.

14. 생일축하포소리

오래전에 나는 형님이 예누나를 사랑하고있으며 예누나 역시 형님을 마음에 두고있는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형님에게 내가 누나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알맞춤한 기회를 노리였으나 좀처럼 맞다들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내가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형님도 몸을 씻으려 강가에 나왔다.

몸들을 씻고나서 우리 두 형제는 어깨나란히 풀판에 다리펴고 앉았다. 이렇게 조용한 곳에 함께 있기는 참으로 오래간만이였다.

우리가 만나는 곳은 늘쌍 길에서였고 그것도 형님이 나를 먼저 소리쳐불러서 몇마디 하고서는 헤여지는것이 고작이였다.

지금 형님의 기색을 보니 나와 품놓고 이야기를 하려는 잡도리같았다.

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누나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형님은 묵묵히 듣기만 하면서 빨래한 옷가지들을 끄윽끄윽 힘주어 비틀어짜기 시작했다. 물어보는 말도 없이. 입은 종내 열릴것 같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도무지 형님의 심중을 가늠할수 없었다.

(형님이나 예누나나 모두 이상하거든. 형님앞에서 예누나소릴 하면 갑자기 벙어리가 되여버리고 누나앞에서 형님소릴 꺼내면 기분없어하니 말이야. 어째서 둘이 서로 직접 만나 이야기를 안한담. 나라면 속이 달아서 하루도 견디지 못할거야!)

나는 형님이 여러달이나 혼자서 끙끙거리는게 저러다가 병을 만나 앓을가봐 걱정되였다.

형님은 내가 말을 끝내자 뜨직뜨직 말문을 열었다.

《소강아, 어머니와 외삼촌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자기들은 다 잘 있으니 집걱정은 아예 하지 말라더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안부를 묻고 왜놈들과 몇번 싸웠는가고 물어보았단다.》

생뚱같은 대답이였으나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오래동안 집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지 못해 속상했댔는데 알고보니 모두 형님 손에 와있었구나.

어머니와 외삼촌어머니소리를 하기만 하면 나는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어들군 하였다.

외사촌동생 창희와 외사촌누이동생 옥분이 그리고 동생 소삼이도 보고싶었으나 제일 보고싶은 혈육은 역시 어머니였다.

왜놈들에게 끌려가서 반주검이 되도록 매질당한 어머니의 상처는 지금쯤 다 나았는지. 아버지가 희생된 소식을 알고계실가? 안다면 매일매일 밥도 안들고 우실거야.

형과 내가 어머니곁을 떠나 신사군에 입대했으니 소삼이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겠구나. 얼마전에 일본놈들이 우리 마을을 강점하고 모조리 학살했다고 하던데 어머니는 무사한지. 나는 직접 편지를 봐야만이 마음놓일것 같았다.

《형님, 편지를 빨리 꺼내요.》

나는 손을 얼른 쑥 내밀었다.

그런데 형님은 몸을 한참 더듬더니 자기 이마를 탁 치는것이였다.

《이 정신봐라. 도무지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나질 않는구나.》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중대부에 있으면 제꺽 가져올게요.》

그러나 형님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내가 덜퉁하다나니 그만 잊어버린것 같애!》

이 말에 나는 의심이 버쩍 들었다. 형님이 덜퉁하다구? 꼼꼼하기가 그지없어 련대적으로 소문난 형님이 아닌가. 여직껏 나는 형님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거니와 본적도 없었다. 중대문건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순서정연하고 세심하게 정돈하는가. 그런데 이런 형님이 고향에서 온 귀중한 편지를 잃어버렸다구? 여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다!

《형님, 날 속이는거지요? 정말 편지가 왔어요?》

《속이다니? 어머니는 편지에서 얼마 안있어 네 생일이니 잊지 말고있으라고 나한테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그 말은 옳았다. 이제 며칠 지나서 16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16살이라면 아이라고 볼수 없는 나이이다.

나는 의심이 여전했으나 다시 캐묻지 않았다.
《형님, 내가 회답편지 쓸가요?》
《내가 쓰지!》
《그럼 다 쓴 다음에 나한테도 보여줘요. 나도 몇마디 쓰려고 그래요.》
나는 편지를 잃어버렸다고 보여주지 않으려는 형님에게 불만이 컸다. 그래서 그 불만마저 써보내려고 어리광 비슷하게 마음먹었다.
문득 형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방울이 주르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에 쥐여진 빨래감은 비틀리다못해 찢어질것만 같았다. 불길한 예감에 덜컥 놀라 나는 급히 물었다.
《형님, 왜 그래요? 예?》
여직껏 눈물이라고는 반방울도 안보이던 형님이 지금 소리없이 울고있다. 그 어떤 불행이 생긴게 아닐가?
《으흑-》
오열을 참느라고 모지름쓰던 형님의 입술사이로 끝내 울음소리가 새여나왔다.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는것을 직감한 나는 형님이 벗어놓은 군복 웃옷을 덥석 집어들고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안에서 잃어버렸다던 편지가 나왔다. 붓으로 불과 몇글자만 적어놓은 편지는 어머니와 외삼촌어머니가 아니라 큰아버지가 쓴것이였다.
나는 편지를 들고 헤덤비며 읽었다. 그러다 소스라쳐 놀랐다.
《너의 어머니는 피난길에서 옛 상처가 재발하여 손한번 써볼새없이 운명하셨다. …》
나는 마저 읽지 않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운명도 기구하지. 한생 부자놈들의 수모와 멸시속에 숨가삐 사시더니 이렇게 영영 눈을 감으셨구나.

원쑤들을 씨도 없이 소멸하고 어머니와 같이 가난한 백성들을 맘편히 살게 하는 세상을 세우자고 나와 형님은 신사군이 되여 총을 들고 싸우는데 그날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구나. 이제는 어머니를 다시는 볼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천만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는것 같았다.

《소강아, 울음을 그쳐라. 울기만 해서는 쓸데없어. 복수를 해야 해. 천백배로 피값을 받아내야 해.》

형님의 말은 원한서린 나의 가슴에 정으로 쪼은듯이 새겨졌다.

기어이 이 한을 풀리라 나는 이를 사려물고 맹세다졌다.

《형님, 집에 다녀오겠어요. 일없지요?》

나는 눈물에 젖은 두눈을 들어 형님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세상에 홀로 남은 동생 소삼이도 만나고싶었던것이다. 중대장인 형님은 해야 할 일이 많아 갈수 없는것은 불보듯 뻔하니 내가 다녀와야 했다.

여기서 양주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하루면 능히 갈수 있었다.

그러나 형님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젠 가도 늦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이미 두달이 넘었거든. 그리고 인차 부대가 이동한단다. 어디로 떠날지 모르니 네가 어떻게 부대를 찾아오겠니?》

끝끝내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말았구나 하고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이때 먼발치에서 리대우동지와 왕동지가 여기로 오는것이 보였다. 형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소강아, 울지 말아. 사람들이 온다. 이 소식은 우리들끼리만 알고있자꾸나. 왜 그런지 알만 하지?》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리동지와 왕동지는 강가에 얼굴을 씻으러 오다가 내가 울고있는것을 보자 그냥 지나칠수 없어 다가온 모양이였다. 아니나다를가 그들은 항의를 하듯 언성을 높여 불만을 터놓기 시작했다.

《중대장동무, 우리 차돌이를 자꾸 욕하지 마십시오. 요즘 차돌이가 모든 측면에서 앞장서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소강이도 이제는 중대의 구대원이 아닙니까.》

나는 그들이 전후사연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로 형님을 나무람하려 드는것이 기분에 거슬렸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무슨 영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뜻밖의 반격을 받아 얼떠름해진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허거프게 웃었다.

《대관절 무슨 일이게?》

이미전에 형님이 단단히 일러둔 말이 있었기에 나는 슬쩍 거짓말을 꾸며댔다.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중대장동지가 꺼내주던 참이였어요.》

이 말에 왕동지는 쑥스럽게 웃었다.

《원 참, 그놈의 먼지알갱이는 기를 쓰고 우리 꼬마눈만 찾아다닌다니까. 그럼 우린 세면하러 가겠습

니다.》
그리고는 하던 이야기를 즐겁게 마저 나누며 강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섰다.
온 중대가 승리의 기쁨속에 푹 취해있는데 오직 우리 형제만이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슬픔에 젖어 괴로와하고 있었다.
형님은 나의 생일을 잊지 않았다. 부모잃은 동생에게는 형님이 곧 아버지이고 어머니인것이다.
《소강아, 내게 돈이 좀 있으니 네 생일날 국수를 한턱내지! 또 생일선물도 마련해놓겠다.》
형님이 귀속말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만 눈굽이 뜨끈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수집에서 생일국수를 먹지 못하였다. 바로 나의 생일날에 한덕근놈이 휘하의 부대를 몽땅 내몰아 총공격해온것이다.
고소한 기름냄새가 아니라 매캐한 화약내를 말으며 주위를 자욱히 덮은 초연과 흙먼지속에서 나는 생일을 맞이하였다.
눈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가렬한 황교보위전에 참가하게 된 나는 진의사령원동지의 선견지명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태주성공격을 중지한것은 참으로 옳은 결심이였다.
곽촌보위전투가 끝난 후 얼마동안 휴식을 한 우리 부대는 사령원동지의 지휘아래 태주성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빠져나갔다.
대낮에 뻐젓이 출발한 우리 부대는 하루낮, 하루밤동안에 백여리를 달려 구안, 사항구, 목만지역을 지나 황교에

이르렀다.

리장강의 부대는 하늘에 대고 공포를 쏘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시늉을 하였으나 실은 우리와 비밀리에 협정을 맺고 안전하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몰래 보호해주었던것이다.

우리는 거짓 퇴각하는 모양을 꾸미며 기세충천하여 밤도와 달려왔다.

황교에서 잠시 다리쉼을 하면서 대오를 재정비한 우리는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여 남흥과 여고에서 왜놈들을 족쳤다. 이때 매국노 한덕근이가 우리 신사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89군 군장 리수유를 총괴수로 하여 10만에 달하는 무력이 황교의 동쪽과 서쪽, 남쪽에서 에워싸며 우리를 압박했다. 황교의 남쪽은 장강이였다. 한덕근은 파죽지세로 진공하는 졸개들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신사군놈들에게 장강의 물을 실컷 먹이자!》

진의사령원동지는 다가오는 격전을 맞이하기 위해 불과 7천명밖에 안되는 부대를 모두 3개의 종대로 개편하여 1종대와 2종대는 황교의 북쪽과 동쪽으로 우회매복하여 한덕근의 허리와 뒤통수를 내리치고 3종대는 황교를 고수하여 적들의 코뚜레를 단단히 잡아쥐게 하였다. 우리 중대는 3종대에 배속되였다. 우리 중대의 임무는 황교동쪽을 굳건히 지켜 단 한놈도 황교를 건느지 못하게 하는것이다.

동틀무렵, 중대는 전호를 다 파고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붉은 노을로 동녘하늘을 활활 불사르며 구름을 헤치고 불끈 솟아오른 태양이 천가닥만가닥의 해살을 생흙

내풍기는 전호가에 뿌려주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중대참호공사를 돌아보러 왔던 형님은 누구도모르게 나를 향하여 한눈을 찡긋해보였다.

이것이 나에게 보내는 류다른 생일축하인사임을 잘 아는 나 역시 싱긋 마주 웃었다.

오늘부터 나는 16살의 어른이 되였다. 내 머리속에는 형님의 당부가 생생히 남아있었다.

《이 원쑤를 천백배로 복수해야 한다!》

장분대장이 중대장에게 물었다.

《중대장동지, 우리 분대전호상태가 어떻습니까?》

20메터 길이의 전호를 파고 흙벽도 높이 쌓아올린 우리 분대는 흙벽에 구멍을 두개 내고 체스꼬제경기관총 두정을 설치하였다.

그앞에는 철조망을 한돌기 둘러서 방어진을 든든하게 구축했다.

어머니를 잃은 후 형님의 눈에 비껴있던 한줄기 애수의 빛은 지금 가뭇없이 사라지고 불이 황황이는 눈길로 전투준비상태를 어느것 하나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다.

《괜찮소. 잘 구축했소.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여기서 나가선 안되겠소!》

《알았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기운차게 대답했다. 나는 뭔가 부족한것 같아 또 한마디 덧붙였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여느때 같으면 이런 버릇없는 대답에 경고를 주었겠으나 오늘은 나의 생일이여서인지 부드러운 표정으로 웃

으며 말했다.

《내가 제일 걱정되는건 소강동무요. 언제나 침착해서 명령에 철저히 복종할것.》

나는 규정대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분대원들은 내가 대견한듯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때였다.

형님이 힘차게 구령쳤다.

《차렷, 경례!》

나는 재빨리 분대원들과 나란히 1렬로 맞추어서서 우리 분대전호를 돌아보고있는 사령부지휘관동지들에게 경례를 하였다.

진의사령원동지와 속유총지휘동지 그리고 여러명의 녀병사들이 뒤를 따르고있었는데 예누나와 조여도 있었다.

나는 반가와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었으나 충동을 겨우 누르며 그들에게 눈으로 인사를 하였다. 그들도 나를 알아보고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쌍안경을 목에 걸고 허리에 권총을 찬 진의동지의 모습은 황교사수궐기대회에서 연설을 할 때보다 더 멋있고 위풍이 있었다.

진의동지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지 나는 매번 진의동지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좀처럼 눈길을 뗄수 없었다.

사령원동지는 우리들의 전호를 쭉 둘러보고나서 《동무들, 수고했구만!》라고 치하를 하였다.

《수고없습니다!》

우리도 기뻐서 나란히 대답했다. 대답소리속에서 내 소리가 유별나게 챙챙하고 야무지여 이것이 사령원동지의 주의를 끌어 그는 꼭같은 군복차림의 병사들속에서 나를 알아보았다.

《아하, 우리 꼬마가 여기에 있었구만!》

《사령원동지, 저와 우리 중대동지들은 살아있는 한 황교의 동쪽관문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사령원동지는 환하게 웃으며 뒤에 서있는 총지휘동지에게 무언가 귀속말을 하였다. 아마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았다.

혹시 내가 장강강변에서 진의사령원동지를 처음 만났을 때 버릇없이 《심문》하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있는지도 몰랐다.

총지휘동지도 수더분해보이는 눈에 미소를 담고 머리를 끄덕였다.

《동무들, 우리들 동쪽은 망망한 바다이고 뒤에는 만리장강이 흐르고있소. 한덕근은 독을 품고 우리를 장강에 몰아넣으려고 날뛰는데 동무들 말해보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사령원동지는 말을 재미나게 하는분이였다. 게다가 그의 사천말씨가 듣기 좋았다.

어제 황교사수궐기대회에서 사령원동지의 연설을 듣고 누구나 감탄했고 연설이 지내 짧았다고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했다.

왕동지가 사령원동지의 물음에 제일먼저 대답했다.

《흥, 한덕근 그놈이 우리에게 장강물맛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놈에게 총창맛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날이 시퍼렇게 선 총창을 가리키며 장담하였다.

나 역시 뒤따라 말을 이었다.

《그놈은 대낮에 개꿈을 꾸고있습니다. 닭쫓던 개 울바자 쳐다보게 만들겠습니다.》

진의동지는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거듭 칭찬했다.

《중대장동무, 전사들의 결심은 알만한데 중대지휘부의 결심은 어떻소?》

《예, 황교는 우리가 살아서 지켜야 할 곳이고 죽어서 묻혀야 할 곳입니다.》

형님의 자신만만한 대답소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후련하게 해주었다.

《좋소. 동무들의 각오가 마음에 드오. 이번에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싸우게 되는것만큼 나갈 길만 있고 물러설 곳은 없소. 승리만이 살길이고 패배는 곧 죽음이요. 이제는 준비가 다 되였으니 싸움의 승패는 동무들에게 달려있소. 이번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소북정세가 유리하게 전변되고 반공기세는 저락되며 항일운동은 더욱 상승할것이요. …》

총지휘동지도 눈빛을 번쩍이며 힘있게 강조했다.

《난 동무들에게 세가지 준비를 잘하고 세가지를 빨리할것을 요구하오. 즉 신발준비, 총탄준비, 총창준비를 잘하여 돌격을 빨리하고 사격을 빨리하며 된매를 빨리 안기시오.》

총지휘동지가 말을 마치자 형님은 우렁차게 구호를 선창했다.

《황교를 결사고수하자!》

《한덕근을 몰아내자!》

모두가 손에 쥔 총들을 하늘높이 쳐들며 전호가 들썩하도록 화답하였다.

나는 오분대장이 유물로 남긴 신발을 신었고 총창도 날이 선뜩선뜩하게 갈았다. 침착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동쪽방향에서 울려오는 포성이 이제는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준엄한 싸움의 예고였다.

사령원동지는 쌍안경으로 전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속유동지와 의견을 나누고 바싹 뒤따르는 우리 련대장동지에게 몇마디 지시를 주었다.

나는 먼발치에서 다만 련대장동지의 《알았습니다.》라는 힘에 넘친 대답소리만 들을수 있었다.

사령원동지는 우리 중대를 떠나기 앞서 예누나와 조여에게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정치공작대동무들 요구대로 여기 전선에 데리고왔으니 이젠 속이 풀렸겠지. 이렇게 하기요. 몇동무는 여기에 남고 다른 동무들은 나를 따라 다른 중대로 가기요. 이번 싸움이 만만치 않으니 잡도릴 단단히 해야겠소. 아마 눈이 트일거요.》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기쁨을 누르지 못하고 선자리에서 뛰여나가 예누나의 손부터 덥석 잡았다.

《누나, 여기에 남으세요.》

그런데 누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조여가 먼저 들창코를 쳐들고 뾰로통해서 말했다.

《예언니만 남고 난 가라는거니? 똑똑히 알아둬. 예언니와 나는 절대로 떨어질수 없단 말이야!》

나는 급히 말을 보충했다.

《조여, 너도 여기에 있으면 좋지.》

《피, 네가 중대장동지니? 우린 중대장동지의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중대전사들은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입을 가리우고 헛기침을 하기도 하면서 예누나와 형님을 의미심장하게 번갈아보았다.

누나는 눈귀로 형님을 보면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형님은 얼굴이 확 불타더니 씨원하게 대답했다.

《나는 중대를 대표하여 동무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류다른 장면을 지켜보며 사령원동지와 총지휘동지는 서로 마주보며 재미있다는듯이 미소짓고있었다.

《됐소. 이제는 저 동무들의 문제도 해결된셈이니 우린 가서 장기를 두면서 싸움소식을 기다립시다.》

사령원동지가 가버리자 기다렸다는듯이 온 중대가 삽시간에 두 녀병사를 에워싸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녀동지들이 우리 3분대에 오신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역빠른 왕동지가 이렇게 선손을 쓰며 박수를 먼저 치는 바람에 와—하—웃음꽃이 폈고 저마다 자기네 분대에 오라고 성화를 먹이기 시작했다.

누나도 웃기만 할뿐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당황해하였다.

산뜻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허리에 브로닝권총을 찬 누나는 군모속에 머리칼을 잡아넣고 꾹 눌러썼으니 귀여운 남자애같이 보였다.

웃을 때마다 복숭아빛 뺨에 오목하게 패여지는 두개

의 볼우물이 누나의 모습을 더욱더 곱게 돋구었다.

나는 다른 전사들과 떠들지도 않았고 싱갱이질도 하지 않았다.

누나와 조여가 우리 분대에 오리라는것은 손금보듯 뻔하였기때문이다.

조여도 우리 중대병사들의 불같은 환영에 깊은 감동을 받아안고서 명랑하게 웃음을 날리며 천진한 소녀의 모습을 깡그리 드러냈다.

예누나와 조여는 싸움을 앞두고 달아올랐던 사나이들의 가슴에 향긋한 봄바람을 안아왔고 고향의 처자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15. 황교격전

황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련 이틀간 낮에 밤을 이어 치렬하게 벌어졌다.

1종대와 2종대는 협공작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있었으니 처음으로 날아온 승전소식은 놈들의 주력부대중의 하나인 독립6려단을 각개격파하고 련이어 려단지휘부를 총공격하고있다는 소식이였다.

그들이 로획한 무기와 포로수는 수없이 많아 3종대 전투원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우리 3종대의 임무 특히 우리 중대의 임무는 지정된 곳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황교를 방어하는것이였다.

10월 4일, 89군 군장 리수유놈은 33사를 거느리고 맹렬

한 포화력의 엄호하에 황교를 공격하였다. 이놈은 황교의 동쪽을 약한 고리로 보고 방대한 무력을 여기 한곳에 집중시켰다.

형님은 2소대와 3소대를 이끌고 제일 앞선에 나가 놈들의 돌파를 제지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을 지휘하였다.

우리 1소대는 중대의 예비병력이였다. 나는 이것이 불만스러웠다. 어째서 하필이면 1소대를 뒤에 남겨두고 다른 소대를 데리고갔을가.

형님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않았던들 나는 형님을 따라 전장으로 달려갔을것이다.

예누나와 조여도 지금 우리 소대와 함께 있었다. 처음에 우리 소대가 예비대로 지정되자 우리 분대원들 역시 나못지 않게 의견이 있었다.

《중대장동지, 언제부터 우리를 예비대로 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여직껏 앞에 나가 싸웠지 뒤에 앉아 구경한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장분대장동지가 이렇게 제의하자 형님과 정치지도원동지가 엄하게 꾸짖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우리는 방어만 하는게 아니란 말이요.

이제 사령원동지가 공격명령을 내리면 동무네를 제일먼저 부르겠단 말이요.》

예누나도 기록장을 흔들면서 형님에게 요구했다.

《사령원동지도 우리가 전선에 나오는걸 승인하고 직접 데리고오시기까지 했는데 중대장동지는 왜 못나가게 붙잡아둡니까? 우리가 뒤선에 엎드려서 어떻게 전선용사들

의 영웅적인 위훈을 취재할수 있겠습니까.》
작아도 고추라고 조여 역시 당돌하게 제기했다.
《중대장동지, 우리가 녀자들이라고 깔보지 마십시오. 4중대를 망신시킬가봐 체면을 차리느라고 그러지요?》
《허참, 내가 깔본다구?》
말이 모자라는지 쩔쩔매며 눈길을 피하려드는 형님을 보며 누나는 어지간히 성냈다.
《동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2소대와 3소대를 따라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궁지에 빠진 형님이 구원을 청하듯 정치지도원동지를 바라보았으나 그는 입술만 벙글써하니 벌리고있을뿐 잠자코 있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형님을 보기가 정 딱했던지 한마디 하였다.
《난 본래 남의 집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 형님과 예누나는 약속이나 한듯이 얼굴들을 붉히였다.
이때를 노리여 조여가 챙챙하게 소리쳤다.
《중대장동지, 우린 전선에 가겠습니다.》
식사할 때 나는 형님이 정치지도원동지를 보며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정치지도원동지, 날 도와주지 않고 롱담만 하면 어쩝니까? 만일 상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중대장동무, 동문 어째서 처녀의 심정을 몰라주오? 동무와 함께 싸우고싶어하는데 내가 가로막아야 하겠소?》

이렇게 되여 예누나와 지어 조여도 일선에 나갔는데 나는 오히려 예비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불이 일었다. 떠나기 앞서 형님은 나를 찾아와 내 손을 꾹 잡고서 나직이 말했다.

《소강아, 조심해라, 절대로 자유주의를 하면 안돼!》

이렇듯 나를 지극히 념려해주는 형님을 보니 어쩐지 불평을 가득 물었던 입이 떡 얼어붙어 다만 머리를 끄덕여 약속했다.

장분대장동지는 소대장동지와 의논하여 나와 왕소륙동지를 전방감시병으로 임명했다. 나는 감시임무를 맡고 왕동지는 련락을 담당했다.

황교동쪽에 있는 토성이 감시하기에는 제일 맞춤한 곳이여서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 작대기로 감시구멍을 뻥 뚫어놓았다.

밖에서는 나를 볼수 없어도 안에서는 밖이 환히 내다보이였다.

형님과 예누나가 싸우는 전방은 여기 감시초소에서 불과 100메터되는 곳이였다. 토성에서부터 그들의 전호까지 교통호가 나있어 허리를 굽히고 뛰여가면 얼마든지 쉽게 형님곁에 갈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방감시임무를 받은 전사였다.

감시구멍으로 대오의 뒤에서 교통호를 따라 종종걸음치는 누나와 조여가 바라보이였다. 조여는 배낭밑을 왼손으로 받치고 앞으로 달려가다가는 이따금씩 주위를 휘둘러보군 하였다. 누구를 찾는지 아니면 흘린 물건을 찾는지…

방금 전방으로 떠나기 앞서 그는 혼자 내앞에 다가와서 인사를 하였다.

《소강동무, 난 싸우러 나가! 다시 만나자!》
이 시각 그는 나를 《꼬마》, 《소강아》하고 부르지 않고 《소강동무》라고 정식으로 불렀다. 그러니 대하기가 어쩐지 옹색해졌고 이전처럼 이름을 막 부르게 되지 않았다.
눈을 깜박이지도 않고 몹시 긴장된 표정을 짓고있는 조여를 보는 순간 웬일인지 불안하였다.
엄숙한 얼굴로 작별인사를 하는것이 다시 못만날것만 같은 불안이 갈마들어 속이 후두둑 떨렸다.
조여는 처음으로 불과 불이 부딪치고 피가 튀는 전투에 참가하게 되니 겁이 날지도 모른다.
남자인 나도 흥분으로 심장이 쿵쿵 뛰고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조여의 용감성에 감탄을 하였다.
나보다도 어린 나이에 이렇듯 침착하고 랭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였다.
주변의 수많은 눈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속에서 나는 손을 내밀어 그와 굳게 악수하였다.
《조여,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여는 내 말에 몹시 감동된듯 말은 못하고 머리만 끄덕이였다.
나는 멀어져가는 그의 등뒤에 대고 소리쳤다.
《조여, 조심해, 누나를 잘 도와줘!》
……
나는 토성에 뚫어놓은 감시구멍으로 포화에 질게 휘감긴 전장을 내다보았다.
국민당 89군 놈들은 왜놈군대만 보면 줄행랑놓는것밖에 모르더니 우리 신사군에게는 흰자위에 피발이 져서 달려들었다.

우리 전사들의 머리우에 놈들이 쏘아대는 총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지어 어떤것은 여기 토성에까지 날아와 터졌다.

전호에서는 벙끗벙끗 섬광들이 하늘을 갈가리 찢었고 흙먼지와 연기가 자욱하게 덮이여 마치 안개가 낀것 같이 보였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음들, 땅을 핥듯이 날아다니는 총탄들, 바위가 가루되고 흙마저 불타는 전방, 나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유격전도 해보고 습격전에도 참가했었지만 이런 진지전은 처음이였던것이다.

형님과 예누나 그리고 조여와 중대전사들의 운명이 걱정되였다.

포탄들이 내가까이에서 터지며 흙기둥을 일구어도 나는 자리를 뜨지 않고 앞쪽을 눈이 아프도록 주시했다.

적들의 포격이 뜸해지자 포연이 바람에 흩어지고 그 사이로 개미떼같이 와글거리는 적들의 몰골이 드러나보였다. 적들은 지휘관놈의 독촉을 받아가며 우리의 진지를 향해 돌격해왔다. 그런데도 우리 전호에서는 총소리 한방 울리지 않았다. 모두가 주단식포격에 희생된것이 아닐가? 조급해진 나는 상하관계를 잊고 구대원인 왕동지에게 명령했다.

《왕동지, 빨리 소대장동지에게 보고할것! 적들이 돌격하고있는데 우리 진지는 잠잠하다고 말이예요.》

그런데 왕동지는 히뭇이 웃으며 갈념을 하지 않았다.

《젠장 덤비기는, 아직 풋내기거든. 이제 두고봐. 우리 동무들이 반돌격하지 않나!》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증명이라도 하는듯 적들의 무

리를 향해 크고작은 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사격권에 바싹 당겨놓고 냅다 조기는것이였다. 적들은 연줄연줄 쓰러졌다. 그러나 수량상 우세했던 적들은 파도처럼 잇달아 밀려들어 이제는 우리의 전호 코앞에까지 접근하였다.

이때 형님이 수류탄을 던지자 이것을 신호로 무수한 수류탄들이 적들의 대갈통들우에 후두둑 떨어졌다. 혼비백산한 놈들이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형님은 사격명령을 내려 놈들의 뒤통수에 복수의 총탄벼락을 들씌웠다. 벌써 이렇게 두번째나 적들의 총공격을 물리쳤다. 위세를 뽐내며 기세차게 밀려들던 총공격의 파도가 불과 한개 중대병력에 부딪쳐 맥을 뽑고 후줄근해지군 하였다.

우리 전사들도 적지 않게 부상을 입었다. 담가대원들이 교통호를 따라 순간도 쉬임없이 달리며 부상병들을 날랐다.

한 녀병사는 모자도 없이 머리칼이 흘어져내려 이마를 덮고 눈앞을 가리웠으나 이에 아랑곳없이 담가를 들고 앞장에서 달렸다.

바로 그가 조여임을 알아보았을 때 나는 심장이 뚝 멎는듯싶었다.

이를 악문 그가 환자를 눕힌 담가를 들고 토성곁을 지나갈 때 나는 급히 소리쳐 찾았다.

《담가에 있는 부상병이 누구야? 예누나야? 형님이야?》

조여는 달리면서 나에게 쉬여버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랑 중대장동지랑 다 일없어. 놈들이 아무리 지랄쳐도 우린 끄떡 안해. 내 다시 올게!》

나는 뛰여나가 내 모자를 무작정 그의 맨머리우에 씌워주었다.

조여는 두눈섭을 쪼프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넌 어떻게 하니?》

나는 웃으며 머리칼이 까시시하게 일어선 뿌연 머리를 슬슬 쓸어만지였다.

《난 일없어. 반돌격할 때 놈들의 철갑모를 얻어 쓰면 돼.》

나는 멀어져가는 조여의 뒤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급히 쫓아가 그의 주머니에 《황교군빵》을 넣어주었다.

이것은 황교인민들이 밤을 새워 만들어 우리를 원호한 빵이였는데 집집마다 구워내다나니 맛도 모양도 각양각색이였다.

한번은 이 빵을 날라온 마을청년들이 자기들이 지은 노래를 우리앞에서 부른적이 있었다.

황교군빵은 누렇긴 하여도
신사군을 도와서 한몫 한다오
군빵은 난로가 있어야 굽구요
백성은 신사군이 있어야 산다오

동지들 어서 많이 드세요
싸움마다 이길수록 총이 많아진다네
에헤 에헤요 에헤 에헤요
싸움마다 이기니 총이 많아진다네

그날 이 노래가 마음에 꼭 들었던 나는 이제 이 싸움의 승리를 경축하는 날 조여와 함께 온 련대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생각하고 잘 배워두었다.

오후에 접어들어 놈들의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끈덕지고 기승스럽게 진행되였다.

파도갈기같이 물러섰다가는 밀려오고 또 물러섰다가는 더 기승부리며 밀려오는 적들의 맹공격에 우리 전사들도 지치기 시작했고 손실도 컸다.

비발치는 탄우속에 들어 전사들은 도저히 머리를 쳐들수 없었다.

놈들의 총소리는 기세차고 끊길줄 모르는데 이에 맞서는 우리의 총소리는 드문드문 울리여 나는 속이 기름심지처럼 바작바작 타들기 시작했다.

형님과 누나 그리고 조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도 퍼그나 되였다.

어디에 갔을가? 부상당했을가? 아니면 다른 곳에 매복했을가?

적들은 어느덧 우리 전호에 바투 접근했고 놈들의 수류탄이 전호속에 연방 날아들어 터져도 전호는 쥐죽은듯 잠잠하였다.

어째서 반격하지 않을가? 이제 몇걸음이면 적들이 전호속에 뛰여들겠는데 다들 어디 갔을가?

왜 가만있을가?

이마며 잔등에 식은땀이 바질바질 돋았다.

《왕동지, 내 혼자서라도 돌격하겠어요!》

《안돼! 돌격명령을 기다려.》

왕동지의 꽛꽛한 손이 내 팔소매를 집게처럼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다! 명령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되였다. 규률은 신사군병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다. 아니, 때

로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였다.

나는 속이 활활 달아올라 몸부림을 쳤다.

갈퀴마냥 땅을 파헤치는 손끝에서 피가 배여나왔으나 나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이때, 바로 이때 전호에서 붕대를 감은 누군가의 머리가 솟구치더니 뒤이어 온몸이 용약 전호를 박차고 튕겨나가며 중기관총을 휘둘렀다.

마음놓고 덤벼들던 적들은 이 불사신의 총에서 무자비하게 뿜어져나오는 불줄기앞에 삼대베듯 쓰러졌고 살아남은자들은 낯색을 잃고 저마다 뒤걸음질쳤다.

체소한 몸집, 상큼한 목… 아! 형님이로구나! 나는 탄성을 질렀다.

형님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중기관총을 두손아귀에 억세게 틀어쥐고 거인처럼 일어나 놈들에게 불벼락을 퍼부었다. 나는 놀라왔다.

부상을 입은 형님이 과연 무슨 힘으로 몇십근이 실히 되고도 남을 중기관총을 두손에 받쳐들고 휘두르는것일가.

형님의 뒤를 따라 몇명의 전사들이 전호에서 나와 놈들과 목숨을 내대고 육박전을 과감하게 벌린다. 놈들은 어방없이 많았다.

한무리의 놈들이 뒤에서 덮쳐들며 몇안되는 우리 전사들에게 몰사격을 하였다. 형님은 몇발자욱 비틀비틀거리다가 앞으로 푹 엎어지였다.

이때 참호속에서 예누나가 나와서 포복전진으로 쓰러진 형님에게 다가갔다. 누나가 형님을 전호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자 형님은 누나를 밀치며 빨리 피하라고 웨치는것 같았다.

갑자기 자지러진 사격소리가 울리더니 형님과 누나는 동시에 굳어져 더는 움직이지 못했다.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시퍼런 불물이 흘렀다.

온몸은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여 부르르 떨렸고 피가 타서 마르는듯싶었다.

눈물과 땀물, 흙물이 범벅이 된 찝찔한 액체가 입안에 흘러들었다.

《아, 형! 누나야! 저 개새끼들!》

내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물씬 풍겼다. 뱉아보니 저도 모르게 깨물려진 입술과 혀에서 흘러나온 피가 목구멍에 가득 고여있었다. 땅을 허비고 파헤치며 몸부림치는 내 손끝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이때처럼 흐르는 시간의 1초가 일년이년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다.

《공격신호, 공격신호는 왜 울리지 않는거야.

다들 뭣하고있어?》

나는 안타까와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치며 웨쳤다. 저기서 형님과 누나 그리고 친형제같은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숨져가고있다.

그런데 어째서 신호가 울리지 않는가. 적들이 우리 전사들의 시신을 짐승처럼 짓밟고있는데 왜 신호는 울리지 않는가. 신호! 신호!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몸부림치는 나를 억제하느라고 무던히도 애를 쓰던 왕동지도 지금은 나와 같은 심정이 되여 공격신호가 울릴 방향을 애타게 바라보고 귀를 강구었다.

《돌격!》

드디여 돌격구령이 우렁차게 울리였다.

총지휘동지가 권총을 뽑아들고 선참 일어나 웨쳤다.

《동지들, 드디여 증원부대가 도착했소! 승리는 우리의 것이요. 돌격 앞으로!》

나는 제일먼저 땅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토성을 뛰여넘어 놈들에게 돌진했다. 내 눈에는 오직 형님이 쓰러진 곳만이 보일뿐이였다.

두눈은 피발로 뒤덮였고 앙다문 입술에서는 터갈라진 틈새로 피가 흘러나왔다.

총알이 귀뿌리를 스쳐도, 포탄이 주위에서 터져도 무섭지 않았다. 내가 부상당할수도, 지어 죽을수도 있다는 공포는 전혀 없었다.

돌격의 함성 높이 부르며 성난 사자와 같이 내닫는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며 나는 원쑤를 찾았다. 내곁에서 전우들이 흉탄에 쓰러졌어도 나는 걸음을 멈추지도 늦추지도 않고 그 기세로 곧장 내달아 총창으로 놈들의 가슴팍을 찔렀다.

끝끝내 놈들은 우리의 산악이 무너져내리는듯한 기세에 질겁하여 패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빼앗겼던 진지를 되찾았다.

전호속에 쓰러진 전우들의 시신을 보았을 때 눈물이 솟구쳐 앞을 가리웠고 터지려는 오열에 숨이 꺽꺽 막히였다.

나는 리대우, 고충동지와 함께 전우들의 시신을 하나하나 들어서 담가에 옮겨놓았다.

그러던중 겹쌓인 시신의 제일 밑에서 살아있는 조여를 찾아냈다.

총알이 그의 왼쪽다리를 뚫고나가 하반신은 온통 피투성이였고 두눈은 죽은듯이 꽉 감겨져있었다. 그러나 맥박은 희미하게 뛰고있었다.

《아! 살아있구나!》

나는 저도모르게 소리쳤다. 자기들은 쓰러지면서도 몸으로 조여를 덮어 구원한 전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가슴이 미여지고 고개가 숙어졌다.

눈물을 머금고 나는 그를 담가에 조심히 놓았다. 이때 기적이런듯 그의 눈이 번쩍 떠지고 우리를 올려보는것이였다.

이윽고 나를 알아본 조여는 눈물방울을 주르르 흘리더니 파들파들 떠는 손끝으로 앞을 가리켰다.

《소강아, 빨리 가서 언니와 중대장동지를 구원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꺼졌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반짝이였다.

혹시 조여처럼 그들도 살아있을지 모른다. 이 생각이 나를 미칠듯이 흥분시켰고 주위의 모든것을 잊게 만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참호에서 뛰여나갔다.

쓰러진 형님과 누나를 어서 빨리 구출하여 살려내고 싶었던것이다.

그들은 아직 놈들속에 있었다.

《돌아오라!》

분대장동지가 황급히 소리쳤다.

《소강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분대원들이 나를 안타까이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나는 멈춰서지도 주춤거리지도 않았다. 구원해야 한다. 구원할

수 있다. 어서 가자. 다시 영창에 갇힌다 해도 좋다. 빨리! 빨리!

적들의 사격이 나에게 집중되였으나 무섭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엎드려서 있는 힘껏 기여가기 시작했다.

제일먼저 예누나를 찾아냈다. 창백한 얼굴을 덮은 피젖은 머리칼, 부릅뜬채로 굳어져버린 눈동자, 그 눈은 적진을 노려보고있었다.

원쑤들이 몽땅 소멸되는것을 똑똑히 보려는듯이.

누나는 형님의 손을 꽉 틀어잡고있었다. 전호속으로 끌고가려고 모지름쓰던 모습이였다. 그의 손에 형님의 다른 손이 덧놓여있었다.

어서 피하라고, 죽지 말고 살아서 내몫까지 합쳐 싸우라고 절절히 당부하는 모습이였다.

총탄이 꿰뚫은 형님의 가슴에서는 아직도 피가 방울방울 솟새여나와 군복을 적시며 내려 땅을 붉게 물들였다.

붉은 군복! 붉은 땅! 붉은 하늘!

나는 더이상 억제할수 없어 오열을 터치였다.

《누나, 형님,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이제야 온 나를!》

내 부름소리에 정신이 든듯 형님의 속눈섭이 파르르 떨었다.

뒤이어 눈을 스르르 뜨고 있는 힘을 다 모아 피기사라진 입술을 움직움직거렸다. 그 입술사이로 한마디 말이 들릴듯말듯 흘러나왔다.

《주머니…》

나는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웃주머니를 더듬어 그안에 있는 물건을 꺼냈다. 은사슬이 달린 회중시계였다. 형님이 무척 애용하던 시계였다.

《소강아! 생일기념품…》

형님이 말끝을 맺기도 전에 놈들이 또다시 기여들었다. 총탄들이 내 주위에 소낙비같이 날아와 박혔다. 형님은 초인간적인 힘으로 몸을 일으켜 방탄벽이 되여 나를 덮었다.

누나와 형님을 끌고 싸움터를 벗어나려고 했던 나는 형님의 몸밑에 깔려 옴짝달싹 못했다. 형님의 잔등에 총알들이 날아와 벌둥지처럼 헤쳐놓았다.

《혀—엉—님! 누—우—나! 죽으면 안돼요!》

내 목에서는 소리가 아니라 피가 덩이덩이 쏟아져나오는것 같았다.

아! 갑자기 눈앞이 새까맣게 되고 몸이 땅속으로 잦아드는것 같았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가 두팔 벌려 나를 오라고 부르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

끝맺는 말

우렁찬 나팔소리에 때맞추어 돌격의 함성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기절했던 내가 깨여난것은 바로 이때였다.

우리 중대동지들이 제일먼저 나에게로 달려와 나를 부둥켜안았다.

나는 정신차리자마자 머리를 돌려 형님과 누나부터 찾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눈동자가 눈물에 잠기여 세상이 물속에 잠긴듯 사방이 뿌옇게 보였다.

《너 소강이 아니야?》

오래간만에 남경말씨가 들려오고 뒤이어 한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담가에 실려있던 나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고싶었으나 손을 들수가 없어 한참동안 눈길을 모으느라고 애썼다.

이윽고 그를 알아보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너 주대강이 맞지? 어떻게 여길?》

주대강은 나의 둘도 없는 남경딱친구였다. 내 눈에 반가와 웃음짓는 그의 얼굴과 함께 그가 입고있는 새 군복이 비쳐들었다.

《우린 너희들을 돕자고 방금 강남에서 왔어. 놈들은 몽땅 소멸됐어. 우리가 이겼어!》

그는 손을 들어 내 눈귀에 가랑가랑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웃었다. 드디여 우리는 승리하였던것이다.

형님과 누나가 목숨바쳐 안아온 대승리였다.

희생된 그들이 생각나자 나는 다시금 목이 메여오고 눈앞이 뿌잇해와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포연과 땀에 절은 두볼을 맑게 씻어내며 두줄기 눈물이 턱으로 흘러내렸다. …

후날 나는 조여와 함께 후방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이 나날에 나는 날이 갈수록 앞날을 두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어른들을 볼 때면 멍청이들을 보는것 같아 우습강스럽게 생각되던 나였으나 지금은 나자신이 운명을 두고 사색을 하는 《멍청이》로 되였다.

이것은 내가 진짜 어른이 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어른이란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되는것이 아니다. 나이는 비록 어려도 스스로 나갈 길을 옳바로 찾으려고 모색하고 일단 찾은 길을 따라 주저없이 힘차게 나갈 때 그는 어른이라 말할수 있는것이다.

많은 생각들이 때로는 단번에, 때로는 하나하나 머리에 떠오르며 나를 사색이라는 깊은 세계로 이끌어가군 했다.

해방된 고향에 돌아갈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대에 남아 싸울것인가? 고향에서는 홀로 남은 동생 소삼이가 나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혹시 나도 형님처럼 전장에서 희생되여 영영 동생마저도 다시 못볼수도 있다. 그럼 동생은 누가 돌봐주겠는가.

고향으로 가고싶었다. 가서 소삼이를 거두어주며 착실히 돌봐주는 좋은 형님이 되고싶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여, 희생된 맏형을 대신하여 한가정의 중임을 맡아안아야 했다.

또 전투들에도 참가하여 공도 적지 않게 세웠고 허리에 부상까지 당했으니 제대된다고 해서 누가 나를 탓할 사람도 없을것이다.

하지만 정작 대오를 떠난다고 생각해보니, 나를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는 전우들과 헤여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져와 온밤 괴로왔다. 아직도 불구대천의 원쑤들이 우리 중국의 하늘아래, 우리 중국의 강토우에 살아날뛰고있는데 내가 먼저 총을 놓고 물러나야 옳단 말인가. 쓰러진 형님의 몫까지 합쳐 더욱 천백배복수를 해야 할 내가 아닌가! 내 몸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준 생명과 함께 형님의 애젊은 생명도 함께 살아 맥박치고있다. 형님이 나를 왜 살려주었는가? 단순히 피를 나눈 혈육이였기때문인가?

아니였다. 형님은 내가 살아남아서 자기 몫까지 합쳐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더 힘차게 싸울것을 념원하여 온몸이 그대로 장벽이 되여 나를 막아준것이 아니랴. 나의 가슴속에는 형님의 심장이 고동치고있다.

그렇다! 나는 군인이다.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부모형제들을 짐승처럼 도살하는 왜놈들과 피를 물고 싸워 모조리 쓸어버리겠다고 맹세다진 군인이다. 내가 동생을 돌봐주는 길은 총을 놓고 동생곁에 있는것이 아니라 여기서 총을 억세게 틀어쥐고 동생의 운명을 지켜 원쑤들을 영영 몰아내는데 있다. 이것이 동생으로서 희생된 형님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는 길이며 소삼이에게는 형으로서 참된 구실을 다하는 길이다.

드디여 결심을 내린 나는 조여에게 전선으로 떠나간 부대를 찾아가겠다고 명백히 말하였다.

퇴원후 우리는 함께 옛 싸움터를 돌아보았다.

발이 닿는 곳마다, 눈에 뜨이는 곳마다 하많은 추억과 참기 힘든 아픔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에서 우리는 소년시절과 영영 작별을 하였다.

발밑에 밟히는 탄피가 아직도 따겁게 느껴지고 그날의 자욱했던 포연이 아직도 대기에 섞이여 페부를 찌르는듯한 준엄했던 전장에 마지막눈길을 던진 우리는 뒤돌아봄이 없이 손잡고 앞으로 나갔다.

피로써 지켜낸 조국의 대지를 꾹꾹 밟으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들의 뒤를 따라 가렬한 싸움터마다에, 승리의 만세소리 높은 곳마다에 우리들이 남긴 발자욱들은 성장하는 우리들과 더불어 더 깊이, 더 크게 찍혀질것이다.

중편소설

류 호 란

위대한 삶, 값높은 희생

모택동

1. 혁명의 불길속에서

눈뿌리 모자라게 펼쳐진 진중대평원에 북에서 남으로 한줄기 분하(강이름—역주)물결이 굽이굽이 몸을 틀며 황하로 달음쳐간다.

1932년 10월 8일 류호란은 여기 대평원서쪽에 자리잡은 문수현 운주서촌에서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여났다. 그때로 말하면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이 그 어느때보다 격

화되던 시기였다.

중국동북3성(길림성, 료녕성, 흑룡강성을 말함—역주)을 짓밟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말발굽은 장차 전중국강토마저 유린하려고 요란스레 질주해왔다.

국민당과 산서성의 반동군벌 염석산은 투항매국정책으로 하여 싸움마다 패하는 망신스러운 주제에 한편으로는 봉건지주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데만 이골이 났다. 하여 근로대중은 도탄에 빠져 신음하였고 그들의 가슴속에 묻혀진 저주와 분노의 불씨는 장차 거세찬 료원의 불길로 타번질 기세였다.

류호란의 집도 다른 농가들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압박과 고통밑에 허리펼수가 없었다. 농민들의 피땀으로 익은 곡식들이 용용히 흐르는 분하마냥 관료배들과 지주놈들의 고간으로 잇달아 흘러들어갔다. 모두가 해방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1930년대 중엽 일제는 마침내 만리장성을 넘어 화북으로 쳐들어왔다. 모택동과 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로농홍군은 이 시기 2만 5천리의 험난한 장정을 승리적으로 끝마치고 섬북에서 황하를 지나 동쪽으로 항일의 씨앗을 뿌려나갔다. 혁명의 폭풍은 진중대평원에도 몰아쳤다. 그러나 염석산을 항일에로 돌려세워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할 의도밑에 홍군은 다시 섬북으로 되돌아섰다.

항일전쟁이 발발한 후에 장개석과 염석산은 왜놈들과 싸울 생각은 영 하지 않고 줄창 도망에만 급급하더니 장개석은 사천성 아미산에, 염석산은 길현 황하연안 란촌파에까지 이르렀다. 이 시기 로농홍군은 팔로군으로 개편되였고 다시금 황하를 건너와 려량산에 근거지를 세웠다.

진중대평원에 온 팔로군이 근거지를 꾸리고 항일정권을 세움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은 더욱더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류호란이가 사는 운주서촌에도 거의 매일이다싶이 항일부대들이 찾아와 회의를 열고 선동연설을 하였으며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는 노래를 불러 마을의 항전열의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항일전쟁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빈고농 진만생은 현정부가 조직한 훈련반에서 3개월간 공부를 하고는 공산당원이 되여서 마을로 돌아왔으며 항일열성농민 석세방도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마을에는 첫 당소조가 무어졌고 뒤이어 인차 당지부로 확대되였으며 당지부서기로는 진만생이가 임명되였다. 당지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운주서촌은 항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공산당의 정책을 앞장서 받드는 가장 모범적인 항전보루로 전변되여갔다. 바로 이러한 민족투쟁과 계급투쟁의 거세찬 폭풍속에서, 타오르는 혁명의 불길속에서 호란이는 태여났고 성장했다.

갓 철들기 시작한 때부터 나어린 호란이는 늘쌍 무장한 사람들이 마을길을 오가고 또 무장부대들이 꼬리를 이어 드나드는것을 보군 하였다.

가는 곳마다 보이는것이 회의였고 들리는것이 혁명가요였다. 류호란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하루종일 천을 짜고 실을 뽑았으며 아버지 류경검은 날이 어두워지면 솜저고리를 걸치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천과 식량을 지고 려량산근거지로 가군 하였다.

철부지 호란이는 인차 물레에 호기심을 가지였고 쩍하면 실낳이하는 할머니주위를 맴돌았다. 할머니가 물

레를 돌리면 자기도 따라하였고 할머니가 실을 뽑으면 덩달아 흉내내였다. 물레를 망그러뜨릴가 걱정스러워 할머니는 아예 곁에 범접도 못하게 하였다.

철없는 나이였어도 호란이는 이것이 다 항일을 돕는 일들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래서 자기도 꼭 실낳이방법을 배워 제손으로 뽑은 실을 근거지에 보내고싶어하였다.

그러나 이 마음을 알리 없는 할머니는 물론 어머니마저도 호란이를 물레곁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혀놓군 했다.

어느날 할머니가 밖으로 나간 새에 호란이는 물레손잡이를 잡고 할머니흉내를 내며 《웅웅웅》 돌리기 시작했다. 돌릴수록 사기가 나서 할머니가 방에 들어선것도 몰랐다. 으쓱거리며 실을 뽑는 애숭이외손녀를 본 할머니는 냉큼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호란아, 넌 아직 어려. 이건 너희네들이 가지고 노는게 아니야. 목화를 망치는것 말고도 물레를 마스면 어쩌겠니?》

호란은 할머니가 성을 내자 말없이 일어서서 한켠으로 비켜섰다. 할머니의 성이 좀 누그러지자 호란이는 할머니의 꿋꿋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할머닌 늘쌍 나에게 일은 어려서 배워야지 늙어선 못배운다고 타이르군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물레를 다치지도 못하게 하니 어떻게 배우겠나요. 난 장난질하는게 아니예요. 항일을 하는거예요.》

할머니는 이마살을 쪼프리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안돼, 인제야 예닐곱살밖에 안된게 뭘 한다구. 아직 어려.》

《난 쪼꼬마해도 왜놈들과 싸울래요. 다들 그러는데 우

리가 짜는 천이랑 실이랑 모두 팔로군아저씨들한테 보내는 거래요. 왜놈들을 족치는 일이라면 난 힘들지 않아요.》

《요놈의 계집애 말하는걸 좀 보라니까.》

호란이의 어른스러운 말을 듣고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져서 흐뭇이 웃었다. 철부지라고만 보아오던 외손녀의 가슴속에 이런 대견스러운 생각이 깃들어있는줄 미처 몰랐던 할머니였던것만큼 받아안은 충격 역시 자못 컸다.

《그래그래, 배우겠다면 이 할미가 배워주지. 먼저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라. 다음에 그 비결을 대주지.》

호란은 기뻐하며 할머니의 곁에 바싹 다가앉아 눈 한번 깜박 안하고 할머니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다음에 할머니의 손에 이끌리여 하나하나 묘리를 터득해나갔다.

열심히 지켜보고 꼼꼼히 새겨듣고 부지런히 손에 익힌 결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호란은 제법 좋은 실들을 뽑아낼수 있게 되였다.

자기가 만든 실과 천을 항일근거지에 보낼 때마다 그는 마치도 팔로군아저씨와 자기의 마음이 실오리되여 이어지고 천필처럼 수놓아지는듯한 긍지와 기쁨을 느끼였으며 그러는 과정에 혁명의 붉은 씨앗은 시골소녀의 작은 가슴속에도 뿌려져 싹을 틔우고 첫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2. 사랑과 증오

운주서촌에는 지주 석정박, 석정옥놈들의 집에서 몇십년이나 지지리 고생하며 머슴살이하였던 석홍갑과 류마

아라는 빈고농들이 있었다. 한당대 갚지 못할 빚을 잔뜩 지다나니 그들은 마소보다 더 험한 고역을 치르면서도 먹는것은 개, 돼지먹이였고 온 가족은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다. 석홍갑이 퍽 늙어서 이제는 장작을 패고 물을 긷는 등의 허드레일도 못하게 되자 지주놈은 그를 발길로 대문밖에 내차던져 마을에서 류랑걸식하게 만들었다.

류마아도 구렝이처럼 칭칭 감겨진 빚때문에 굶기를 부자집 밥먹듯 하면서도 석정박놈의 처마밑에서 가엾이 여위여가고있었다.

어느날 호란이는 그들이 가닥가닥 나슬나슬해진 람루한 마대를 들고 이집, 저집 동냥다니는 참경을 보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석할아버지와 류아저씬 왜 지주놈에게 빚졌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땅이 꺼지게 지었다.

《다 가난한탓이지!》

《왜 가난하나요?》

《엉? 그…》

할머니는 뜻밖의 물음앞에 말문이 막히여 끙끙 갑자르기만 하였다.

호란이는 다우쳐 물었다.

《그 사람들이 꿔먹은 쌀은 얼마 안된다던데 왜 갚아주지 못하나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였다.

《그게 사람까지 잡아먹는 고리대때문이란다.》

《할머니, 고리대란건 뭐나요?》

끝까지 파고드는 호란의 잡도리는 여간 아니였다.

《그건말이지, 지주집에서 쌀 한되 꾸었으면 갚을 땐 두되를 바쳐야 하는거란다. 두되를 못바치면 다음번에는 쌀 네되박을 주어야 한단다. 이렇게 눈덩이 굴듯이 불어만나지. 우리 집도 수수 세마대를 꾸었던탓에 네 아버지가 몇년동안을 죽도록 일해주었단다. 그랬어도 그 빚을 다 못물었구나.》

《그런데 지주놈들은 왜 고리대라는걸 하나요?》

《응 그건…》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혼자서는 그 리유를 알길 없는 류호란은 자기가 마을에서 제일 존경하는 진만생과 석세방아저씨를 찾아갔다. 그들도 석홍갑할아버지나 류마아아저씨 못지 않게 째지도록 가난하게 살고있었으나 머리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지주놈들과 곧잘 맞서군 하였다. 한번은 석정박, 석정옥지주놈들이 논물을 가로채서 제놈들의 논에만 물을 대고 마을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괘씸한 일이 있었다. 이때 진만생이네들은 앞장서서 지주놈들과 너죽고 나죽고 대판들이로 싸웠다. 류호란이가 몹시 따르는것은 바로 그들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시비를 따졌기때문이였다. 그래서 호란이는 모를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즐겨찾아가군 했다.

함께 무언가 의논하고있던 진아저씨와 석아저씨는 찾아온 호란이를 보자 반겨맞아주었다.

《호란이로구나. 어서 와앉아라.》

호란이는 직방 물었다.

《아저씨, 지주놈들은 왜 고리대를 하나요?》

당돌한 물음앞에 아저씨들은 서로 마주보며 눈웃음을 지

었다. 석아저씨는 나어린 호란이의 머리를 귀엽게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호란아, 너 참 중요한걸 물어보았구나. 여기엔 깊은 의미가 있단다. 한마디로 계급적착취와 압박이라는거다.》

처음 듣는 말앞에 어리둥절해진 호란이를 보며 진아저씨가 곁달아 설명했다.

《호란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지주놈들은 우리들의 철천지원쑤란다. 그놈들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뱅이들의 피땀으로 살지고있다. 장개석과 그 반동정부가 든든히 뒤받침해주니 그놈들이 기세등등해서 고리대짓을 벌리는거란다.》

석세방아저씨가 계속해서 뒤를 이었다.

《우리 마을만 놓고봐도 지주놈들은 고리대만 하는게 아니라 제멋대로 논물법이란걸 만들어내지 않았니.》

류호란이도 언젠가 아버지가 들려주어 이 논물법이라는걸 알고있었다.

운주서촌은 분하서쪽강변에 자리잡고있었다.

태원을 감돌아 남쪽으로 흐르며 평원의 비옥한 땅을 푸근히 적셔주는 이 생명수를 석가놈들이 통채로 앗았다. 그리고는 리치에 닿지도 않는 논물법을 만들어내 우선 제놈들의 논밭부터 흠뻑 적신 다음에야 물길을 다른 곳에 돌려놓았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는 마을곡식들이 모두 빼빼 말라비틀어진 뒤였다.

호란이는 입술을 감쳐물고 진아저씨네가 들려준 이야기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석홍갑, 류마아아저씨들의 비참한 운명, 아버지의 억울한 머슴살이, 높아만가는 빚더미, 멍청히 두눈을 펀히 뜬채 지주놈의 논으로만 흘러드는 물

줄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던 마을사람들! 생각할수록 지주놈들이 가증스러웠고 천대받는 마을사람들의 신세가 억울하게 느껴졌다.

이날 진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호란이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날 호란은 동무들과 함께 땔감을 주으려 밭으로 나왔다. 여기저기 널려진 벼짚이며 무성하게 돋아난 잡초들을 거두느라니 호란은 차츰차츰 석정박지주놈의 밭두리에 이르게 되였다. 이때 지나가던 지주아들놈이 왕방울눈을 부릅뜨고 꽥 소리쳤다.

《우리 밭에서 줏지 말아!》

그리고는 말을 끝내자마자 가까이에 있던 꼬마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냅다 하였다. 호란은 분이 치밀어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왜 발로 행패질 하는거야?》

《이건 다 우리 밭에서 난것들이니 줏지 말란 말이야.》

《이것들은 몽땅 밭에서 저절로 자란것들이야. 여기에 너의집것이라고 씌여있니? 왜 안된다는거냐?》

호란은 허리에 두손을 얹고 야무지게 대들었다.

《내 승인없인 안돼.》

지주아들놈은 생억지를 부리며 때리려고 주먹까지 쳐들었다. 호란의 두눈에서 분노가 번쩍이였다.

《애들아, 이 망나니같은 새낄 혼쌀내자.》

성이 독같이 난 호란이의 뒤를 따라 마을애들이 와자그르 달라붙어 지주아들놈을 통쾌하게 혼뜨검냈다. 뭇매에 들어 기세가 푹 죽어버린 지주아들놈은 겁을 잔뜩 먹고 퍼릿퍼릿하도록 얻어맞은 상판을 푹 숙이고 허둥지

둥 집으로 내뺐다.

그 꼴을 보며 뒤에서 아이들이 《와하!》하고 깨고소한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 있으려니 석정박이가 헐떡헐떡 달려와 법석 야단쳤다.

《누가 때렸어, 엉?》

그 서슬이 딩딩한 기세앞에 다들 뒤걸음치는데 체소한 소녀애가 지주놈앞에 당돌하게 나섰다.

《나예요. 우릴 먼저 깔보았기에 우리도 가만있지 않았어요.》

조금도 겁없이 대드는 호란의 손에 어느결에 돌멩이가 쥐여진것을 본 지주놈은 슬그머니 겁이 나서 뒤로 비실비실하였다.

《맞…맞서보자는거냐?》

《우릴 업수이 보면 그 누구든 그냥 안둘래요.》

호란의 챙챙한 소리앞에 지주놈은 기가 눌려 더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였다. 나어린 호란이의 굴함없는 기세를 보며 자기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사무친 증오를 속이 저리도록 느꼈기때문이였다.

3. 모주석 만세

어느날 호란이는 동무들과 함께 딱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 집마당에 들어서니 반들반들한 새 자전거부터 대뜸 눈에 띄였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 자전거를 끌고나가 타

보자고 아이들을 살살 꼬드겼다.

《안돼! 그러다 부러지면 어쩌겠니?》

호란은 급히 애들을 말렸다.

《쇠로 된건데 부러지긴.》

《대문앞에서 조금만 타보자꾸나.》

장난꾸러기들이 저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끝끝내 아이들은 새 자전거를 끌고 대문밖으로 살그머니 나섰다. 근심보다도 호기심이 더 앞섰던 호란이도 아이들의 뒤를 따라나섰다. 자전거는 륜번제로 타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 애가 서툴게 타다나니 그만 덤벼치던 끝에 자전거를 탄채로 뒤엎어졌다. 비뚤어진 손잡이앞에 모여서서 너나없이 울상이 된 아이들은 겁먹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자전거를 몰래 제자리에 갖다놓자구나. 그다음에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니.》

그 방법이 제일일것 같아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는데 오직 호란이만이 반대했다.

《남의 자전거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솔직히 말해야 옳지 않겠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해.》

호란이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뜨락에 들어가서는 자전거주인을 찾았다.

《아저씨, 우리 잘못으로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자전거임자는 사연을 짐작하고 솔직한 소녀애를 내려다보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오히려 상한데는 없느냐고 다정하게 묻고나서 비뚤어진 손잡이를 비틀어 다시 제자리에 손쉽게 맞추어놓았다.

《얘야, 네 이름이 뭐냐?》

그 사람은 손을 닦으며 상냥하게 물었다.

《류호란이예요.》

호란은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너였구나. 지주아들녀석을 혼뜨검냈다는 애가, 맞지?》

《우릴 업신여겼기에 그랬어요.》

호란이의 여돌진 대답소리였다.

《그래 옳다. 우리를 억누르는 놈들과는 그렇게 용감히 싸워야 해. 장하다, 호란아, 난 여기서 살게 되니까 앞으로 자주 오너라. 내 너에게 왜놈치던 이야기를 해주지.》

그 사람은 류방이라고 부르는 적후지하공작간부였다.

그무렵 일제는 화북근거지를 겨냥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들이댔는데 이로 하여 도처에는 《3광정책》(모조리 죽이고 말끔히 불태우고 몽땅 빼앗는 잔인한 토벌방법—역주)이 남겨놓은 시체와 재가루뿐이였다. 현내의 많은 지역들이 놈들에게 강점당하다나니 항일투쟁은 부득불 비밀공작으로 전환되였다. 운주서촌은 항전의 보루로서 대중적 지반도 좋았으므로 당조직에서는 이 마을을 적후공작거점으로 정하고 류방을 공작조조장으로 파견하였다.

베이징에서 온 장사군으로 위장한 그는 지하당조직과 손잡고 군중을 발동하고 항일을 견지하며 적들의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적극 싸우고있었다.

한편 그는 당이 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의 당지부와 짜고들어 류호란을 비롯한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육성사업도 근기있게 해나갔다.

그는 항일근거지에서 등사한 교과서들을 가져다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짬이 나는대로 글도 가르쳐주었으며 왜놈치던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인터나쇼날》도 배워주었다.

어느날 밤 류방은 모주석의 령도아래 일어났던 추수폭동이며 홍군의 2만 5천리장정과 항일싸움터의 가지가지 위훈담을 호란이에게 들려주고난 끝에 북녘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호란아, 봐라. 저게 바로 북극성이란다. 깊은 밤 길을 걸을 때 저 별을 보면 절대로 헛길들지 않는단다. 모주석이 계시는 한 우리들은 싸움에서 꼭 이겨!》

《모주석! 북극성…》

이렇게 되뇌이는 호란이의 두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중국인민 누구나 생명의 은인으로 떠받드는 모주석, 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리고 온 마을사람들이 모두가 한번은 꼭 뵙고싶어하는 친근한분!

《모주석은 어디에 계시나요?》

《연안에 계신단다. 거기서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왜놈과 국민당반동분자들과 싸우고계신다.》

《연안은 어디에 있나요?》

《섬서성북쪽, 바로 저 북극성아래란다.》

《여기서 먼가요? 나도 갈수 있나요?》

류방은 흥분으로 발깃해진 호란이의 얼굴을 보며 싱긋이 웃었다. 그리고는 수첩갈피에서 자그마한 사진 한장을 꺼내들었다. 사진속에는 온 세상을 다 눈에 담을듯 서글서글하고 영채넘치는 눈매를 지닌분이 호란이를 보며 미소짓고있었다.

이분은 누구일가?

사진뒤면을 보니 또박또박 쓴 필체로 《인민의 구성 모주석!》이라고 새겨져있었다.

《아! 이분이 우리의 모주석이시군요!》

비록 사진이였지만 마치 직접 그분앞에 나선것만 같아 호란은 불쑥 솟구치는 눈물을 훔치며 모주석의 자애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행복에 잠겨드는 온몸이 해별에 감싸인듯 따스해져왔다.

《호란아, 이 사진을 네가 소중히 간직해라. 영원히 모주석만을 받들어야 한다.》

류방에게서 사진을 정중히 받아든 호란이는 낮으나 절절하게 대답했다.

《모주석만을 끝까지 따르겠어요.》

호란은 하얀 손수건으로 사진을 정히 감싸서 품안에 깊이 간수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방안에 들어서는 길로 수를 놓는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절절히 부탁했다.

《엄마, 나한테 몇글자 먼저 좀 배워주어요.》

《호란아, 밤도 깊었으니 래일 하자꾸나.》

어머니는 딸을 한옆으로 비켜세우며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니, 오늘밤 꼭 배워야겠어요.》

《무슨 글이냐?》

흥분한 딸의 어조에서 어머니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모주석 만세! 중국공산당 만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격동된 호란의 얼굴에서 그 사연을 짐작한 어머니는 다정하게 웃었다.

《그래?! 그럼 배워주마.》

어머니는 선뜻 응낙하고 붓을 들고 먼저 《모주석 만

세!》라는 다섯글자를 정성껏 써내려갔다.

호란이도 붓을 쥐고 어머니를 따라 한획 또 한획 따라서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처음부터 쓰기를 그 몇번, 잠자리에 누워서는 가슴우에도 이 글발을 써보았다. 마치도 이 글발이 그대로 가슴속밑굽까지 스며들어 깊이 새겨지게 하려는듯.

4. 마음속의 거울

한낮의 태양이 화끈하게 달구어놓은 대지우에는 잘 익은 곡식들이 총알처럼 여문 이삭들을 묵직하게 드리우고있었다.

탈곡장에서는 땀에 열뜬 무수한 얼굴들이 내려쪼이는 땡볕도, 흠뻑 땀에 젖은 옷도 아랑곳없이 어깨들을 비비며 붐비고앉아 한 청년의 박력넘친 연설을 숨죽이고 듣고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웃옷을 훌렁 벗어내치였는데 해볕에 그슬린 잔등은 기름을 바른듯이 번들거렸다.

《여러분! 왜놈들은 우리 산서성을 침범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살륙하고있습니다.

장개석과 염석산도당은 항일을 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왜놈들과 결탁하여 팔로군과 항일근거지들을 공격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주석의 호소를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항일전쟁의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연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쌓여있는 적개심마다에 불을 달아놓았다.

호란이는 맨 앞줄에 앉아 눈을 똑바로 뜨고 열심히 연설자를 지켜보았다. 군중들속에서 웅성웅성하며 말들이 조용히 오갔다.

《저 연사가 누구요? 말을 멋지게 하는데!》

《우리 현장 고영전이라네. 몇살일가?》

《듣자니 19살인데 공산당원이라누만.》

《응! 저 사람이 고현장이였구나.》

호란이는 이 애젊은 현장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입속말로 되뇌였다.

《19살, 공산당원!》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현장의 모습을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되는 호란의 두눈에는 부러움이 가득차있었다.

당시 공산당에서는 반역의 길로 엇나가는 염석산을 항일의 길로 돌려세우려고 많은 훌륭한 당원들을 산서성의 각급 항일조직과 정권기관들에 파견하였다. 그 조치에 따라서 고영전도 문수현 현장으로 파견되여왔다.

호란이는 오래전부터 싸움잘하기로 소문난 고현장을 몹시 보고싶어하였다. 운주서촌에서 5리가량 떨어진 대상진에서 대원들을 능란하게 지휘하여 습격전투를 멋지게 해제낀 고영전은 마을사람들이 다 아는 전투영웅이였다. 그날 문수성에 있던 놈들은 살기등등해서 밖으로 나와 식량을 강탈할 목적으로 운주서촌으로 향해왔었다. 고현장은 재빨리 유격대원들을 거느리고 대상진 도로량옆에 매복했다가 길에 들어선 놈들을 호되게 답새겼다.

이 싸움은 문수현인민들의 사기를 비상히 높여주었을뿐아니라 항일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호란이는 온몸이 귀가 되여 그의 격정넘친 연설을 새겨

들었다.

《여러분, 모주석과 공산당은 전체 인민들과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항일10대구국강령〉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강령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용감히 싸운다면 얼마든지 왜놈들을 내쫓고 승리할수 있습니다.》

회의마감무렵 고현장은 항일민주정부가 세금과 리자를 줄이며 부담을 덜고 낡은 논물법을 페지한다고 힘있게 선포했다. 순간 약속이나 한듯 환성이 탈곡장을 들었다놓았다. 정권의 고마운 시책은 가물에 단비마냥 매 사람들의 말라들었던 가슴에 흘러들어 푸근히 적셔주었다.

《우리 공산당!》, 《고마운 공산당!》, 《공산당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네!》라는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튀여나왔고 지어 춤까지 추는 사람도 있었다.

꿈같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여서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헤쳐갈 생각을 안했다.

…장개석과 염석산은 왜놈들과 손잡고 반공공세를 감행했다. 진서북부지역에서는 수많은 공산당원들과 진보적세력들을 학살한 진서사변을 력사에 수치로 남겨놓음으로써 제놈들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고영전을 비롯한 항일민주정부의 공산당원들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현내 인민들을 염석산반동파와의 싸움에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켰으며 문수현의 각급 정권기관에 끼여들었던 반동파들을 단호히 숙청하고 기층당조직을 보다 더 건전하고 든든하게 발전시켜 항일의 진보적력량을 굳게 단결시키였다.

문수현군중의 계급투쟁은 새로운 단계에서 벌어지게 되

였다.

그러던 어느날 불행한 소식이 운주서촌마을에 전해졌다. 현장이 전장에서 희생됐다는것이였다. 1940년 섣달그믐날 고영전은 대원들과 함께 이웃현인 교성현의 삼도천일대를 순찰하고있었다. 놈들의 불의의 습격을 미연에 방비하려고 했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설밀을 기회로 왜놈들이 기여들었다. 그는 간부들과 군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하는 한편 놈들을 전가구일대에 유인해놓고 옹근하루 피어린 격전을 벌렸다. 격전속에서 군중들이 무사히 피신한 후에 우선 대원들을 먼저 철수시키고 자기는 뒤에 떨어져 추격하는 놈들을 견제하며 철수시간을 일분일분 쟁취하던중 그만 흉탄에 맞아 애젊은 청춘을 대지에 묻었다. 이 불행을 알고 마을사람들은 너나할것없이 마을길에 나서서 무거운 침묵과 가슴치는 비분속에 떠나가는 고인을 눈물로 바래웠다.

어른들틈에 끼운 호란이도 가슴이 미여져와 섧게 울었다. 일본놈이 가증스러웠고 염석산이 증오스러웠다. 또한 적탄에 맞아 쓰러진 현장의 영웅적인 모습이 눈앞에 삼삼했다. 뼈가 저리는듯한 아픔을 참을길 없어 류호란은 류방과 진만생, 석세방아저씨들을 찾아갔다. 그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앉아 떠나간 전우를 추모하고있었다.

《아저씨, 우리도 복수하자요!》

석아저씨가 흥분된 호란이를 옆에 불러앉히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호란아, 혁명에는 희생이 있기마련이다. 승리 하나하나가 선렬들의 더운피와 바꾼것이란다.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당과 인민에 대한 현장동무의 무한한 충성심

을 따라배워야 한다. 호란아, 우리도 현장처럼 모주석을 따라 끝까지 혁명하겠다는 고상한 정신과 드높은 각오를 가지고 매국노들과 왜놈들을 깡그리 소멸해야 한단다.》

아저씨의 말을 듣는 호란의 눈앞에는 문득 나어린 련락원 육아가 희생되던 모습도 삼삼히 떠올랐다.

그날 새벽 자지러진 총소리에 놀라 벌떡 뛰여일어난 호란이는 얼핏 떠오르는 짐작이 있어 냉큼 흙담장밑으로 달려갔다. 담장뒤에서 살펴보니 왜놈들 한무리가 앞집뜨락을 포위하고있었다.

그 집에는 정권기관 간부아저씨가 살고있었다.

호란이는 속이 한줌만해졌다.

이때 육아라는 15살난 련락원이 날아드는 총탄비를 무릅쓰고 쏜살같이 달려나와서 옆의 방아간에 뛰여들더니 안에서 수류탄을 연방 뿌려던지였다.

《잘해! 멋있구나!》

무더기로 죽어너부러지는 왜놈들을 담장뒤에 숨어서 보느라니 호란이도 사기가 났다.

악에 치받친 놈들은 방아간을 향해 비발치듯 기관총사격을 하였다. 육아는 그만 총탄에 명중되여 쓰러졌다. 그러나 떼지어 밀려든 놈들속에서 불쑥 몸을 솟구더니 마지막수류탄의 고리를 잡아당겨 자폭하였다.

호란이는 또 불굴의 영웅 곽세명아저씨를 생각하였다. 현공안국간부였던 아저씨는 놈들에게 체포된 후 갖가지 야만적인 고문속에서도 지조를 지켜 완강히 싸웠다. 그러자 놈들은 방법을 바꾸어 술상을 푸짐히 차려놓고 그를 매수하려고 접어들었다. 돈도 주고 벼슬도 주겠다고 유혹하는 개놈들의 낯짝앞에서 아저씨는 술상을 차서 뒤엎고 놈

들을 조소하였으며 끝끝내 이를 악물고 조직의 비밀을 지킨채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도 어제일같이 기억에 생생하였다.

어느날 남호가보(마을이름—역주)를 둘러싼 놈들은 마을사람들을 모두 끌어내더니 누가 팔로군이고 누가 항일열성분자인지 대라고 사냥개마냥 으르렁거렸다. 아무리 위협해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놈들은 한 로인을 앞으로 다짜고짜로 끌어내고 총창으로 위협하며 어서 대라고 강박했다. 로인은 귀머거리인체 하면서 끝끝내 대답을 안했다. 야수같은 놈들은 총창으로 로인의 가슴팍을 궤질렀다. 그랬으나 로인은 꼿꼿이 허리를 펴고 놈들을 노려보며 피흐르는 입술을 더욱 꽉 다물었다. 놈들이 지른 불에 온 마을이 깡그리 불탔다. 보금자리들이 불길에 싸여 재가 되여 흩날리는것을 보면서도 마을사람들은 누구 하나 밀고자로 되지 않았다.

영웅들의 불굴의 군상은 나어린 호란이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였으며 신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5. 슬기로운 꼬마팔로군

1942년, 10살난 류호란은 《항일구국아동단》에 입단하였다. 운주서촌은 항일의 앞장에 선 혁명적인 마을이여서 여기로는 자주 문수현당위원회 책임간부들과 구장들, 려

량군구 8분구 간부들이 비밀리에 와서 묵어가군 하였다. 뿐만아니라 사방에서 련락원들이 찾아들고 잠시 다리쉽을 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호란이는 즐겨 보초를 서고 망을 보았으며 때로는 련락도 맡아하는 등 꼬마련락원, 꼬마호위병이 되기도 하였다.

어느날 현당위원회 간부인 장동지와 류방, 진만생아저씨들이 어느 한 집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있었다. 호란은 동구밖 언덕에서 노는척 하면서 망을 보았다. 그의 머루알같은 두눈동자는 깜박이는것마저도 잊은듯 사방을 예리하게 감시하고있었다. 얼마 안있어 낯선 사람이 길에 나타나 호란을 향해 걸어왔다. 호란은 경각성을 높여 그 사람을 뜯어보았다.

그 사람은 호란이를 보자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얘, 류방동지가 어디에 있니? 난 급히 전할 말이 있단다.》

(?)

호란은 그 낯선 사람을 자세히 뜯어보며 생각을 굴리였다.

(농사군차림을 했는데 손가락은 가늘고 몸에서는 고급담배냄새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때까지는 누구도 류방아저씨의 이름을 직접 부른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수상해, 분명 왜놈의 앞잡이야!)

호란이는 시치미를 뚝 따고 능청스레 거짓말을 하였다.

《아까 웬 사람들하고 같이 저기 강냉이밭속에 들어가는걸 봤어요.》

그러자 그놈은 자세를 낮추고 강냉이밭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것이였다.

아니나다를가 왜놈들이 강냉이밭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호란이는 휙 돌아서서 단숨에 회의가 진행되는 집뒤뜰에 달려가 재빨리 말하였다.

《놈들이 왔어요!》

회의하던 사람들은 급히 뒤문으로 빠져나가 밭고랑에 몸을 감추었다. 결국 놈들은 허탕치고 돌아갔다.

또 다른 일도 있었다.

한번은 구당의 한 간부가 운주서촌에서 일을 끝마치고 동보촌으로 떠나갔다. 그가 떠나서 인차 석세방은 놈들이 동보촌으로 출동했다는 정보를 받았다. 급히 련락원을 보내여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이것을 알게 된 류호란은 선뜻 자진하여나섰다.

《난 아동단원이예요. 내가 갈래요.》

《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가는 길에 맞다들면 팔로군아저씨들처럼 쪽지를 삼킬래요. 오는 길에 부딪치면 그놈들을 골려넘기겠어요.》

호란이가 배심을 가지고 말하는데 마음놓인 그들은 호란이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쪽지를 품에 간수한 호란은 오솔길로 숨 한번 돌리지 않고 달려가 동보촌의 련락원에게 긴급한 정황을 전하였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호란은 놈들과 딱 마주쳤다. 이때 그는 땔감을 줏는척 하면서 태연하게 놈들의 곁을 지나쳤다. 어찌나 능란하게 처신했던지 놈들은 사소한 의심도 없이 그냥 지나보냈다. 적들이 사라진 뒤에 호란은 임무를 수행한 기쁨으로 가슴이 뿌듯해졌다.

1943년 가을 문수현당위원회는 현내 전체 인민이 팔로군과 무장공작대와 협동하여 놈들의 식량수송음모를 파탄시키며 식량탈취투쟁을 보다 더 큰 규모로 벌릴것을 결

정하였다. 여러번의 정찰과 각 방면에서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놈들의 식량창고는 서사에 있었다. 현당에서는 서사를 들이쳐서 식량을 탈취하기로 했다.

깊은 밤, 현당서기와 팔로군6지대장의 지휘밑에 식량탈취부대는 현과 구의 무장공작대를 길안내로 하여 3만여명의 군중과 2천여대의 손달구지를 뒤따라 세우고 길을 나누어 기세드높이 서사로 진격했다. 이 거세찬 흐름속에는 흰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서 신명이 나서 걸음발을 다그치는 어린 호란이도 있었다.

드세찬 포위전앞에 질겁한 놈들은 포대속에 오글오글 쫓겨들어 감히 대가리도 내밀지 못하고 눈먼총질만 하였다.

이 틈에 군중은 계획대로 식량창고에 돌입하여 문을 까부시고 마대들을 져나르기 시작했다.

호란이도 끓어넘치는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솔선 손달구지에 뛰여올라 마대쌓는 일을 거들었으며 앞손달구지에 가득 실으면 다음 손달구지를 향해 빨리 들이대라고 명령하군 하였다.

어느새 호란의 작은 얼굴은 팥죽같은 땀으로 질벅했으나 그는 지칠줄 모르고 쌀을 싣고 또 실었다. 이것 역시 전투인것이다. 서사에 쌓여있던 백여만근의 식량이 눈깜짝할 사이에 근거지로 운반되였다.

전투가 끝날무렵 놈들이 들어박혀있던 포대는 산산박살났고 그 화광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이번 식량탈취전투는 문수현인민들의 항일열의를 더욱 뜨겁게 고무해주었다. 뒤이어 팔로군과 무장공작대는 민병들과 협력하여 신현에 둥지를 튼 놈들까지 말끔히 소탕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날 저녁 팔로군 제12련대소속 소부대와 무장공작대가 은밀히 운주서촌에 들어섰다. 이들을 맞이하여 집집마다 떨쳐나 쌀을 찧고 망을 갈았으며 담가들을 만들어 팔로군을 지원하였다.

호란이도 신바람이 나서 어른들의 일손을 거들어 닭알을 삶고 빵을 구웠으며 마을간부들과 함께 팔로군아저씨들을 찾아가 성의를 다해 위문하였다.

다음날 새벽 팔로군은 민병들과 함께 신현으로 나진 길가에 매복하였다.

류호란은 민병들을 따라서 동뚝입구언저리에 숨어서 눈심지를 돋구고 길을 살폈다.

얼마간 있으려니 신현쪽에서 총을 멘 20～30명의 왜놈들이 나타나 운주서촌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새벽잠에 취해있는 놈들이 어정쩡한 자세로 팔로군의 매복권에 완전히 들어서자마자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수류탄들이 연방 놈들속에서 터지였다.

돌발적인 습격앞에 십여놈이 그자리에서 너부러지고 나머지놈들은 황급히 디굴디굴 나딩굴면서 포위권을 벗어나려고 발악하였다.

무장공작대가 정면에서 놈들을 억누르는 틈에 류방과 팔로군의 리소대장은 몇명의 전사들을 데리고 우회하여 불의에 놈들의 뒤통수를 타격하여 완전히 소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니 결정적으로 수류탄이 부족했다.

이 긴박한 정황을 알고 호란은 몸을 솟구쳐 탄약상자와 수류탄을 집어들고 민병들과 함께 불소나기속을 달렸다.

《꽝! 꽝!》

호란이가 날라온 수류탄은 적들의 한복판에서 폭음을 울리며 불벼락을 들씌워 놈들이 대가리를 더욱더 깊숙이 땅

속에 틀어박게 하였다.

《왜놈들을 소멸하자! 돌격앞으로!》

하늘땅을 뒤흔드는 함성속에서 전사들은 서슬푸른 총창을 비껴잡고 쏜살같이 달려나가 놈들의 가슴팍을 드립다 찔렀다.

마침내 전투는 승리로 끝났으며 온 마을이 승리의 경축분위기속에 화락하니 잠겼다.

이날 마을사람들모두가 전투에서 발휘된 류호란의 용감성을 두고 저마다 감탄하며 혀를 찼다.

《참말 용감하고 령리하다니까!》

6. 모주석을 받드는 길에서

1945년 8월 일제는 마침내 패망하였다. 해방구인민들은 모두가 떨쳐나 이날을 더없이 기쁘게 경축하였다.

운주서촌도 역시 기쁨으로 들끓었다. 사람마다 삼삼오오 모여서서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없었고 청년들은 흥취넘쳐 가는 곳마다 춤판을 벌려놓았다. 왜놈들과 결전을 벌려서 수년만에 마침내 싸워 이겼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아이들도 골목마다, 길마다에서 좁다하게 뛰놀았다. 얼굴에 온통 웃음을 함뿍 담은 호란이도 사람들과 어울려 웃음속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주석과 공산당이 우릴 이끌었으니 왜놈들이 항복했거든요. 모주석이 계시지 않았다면 승리할수 있었겠나요?》

《옳아요. 오늘의 승리는 오직 모주석과 공산당의 덕분

이지요. 장개석이나 염석산같은것들이야 걸발림으로나 싸웠지 사실은 왜놈들한테 절절기였다니까.》

《흥 그까짓놈들, 우리 백성들을 억누르고 등쳐먹고는 공산당하고만 죽을둥살둥모르고 해보자고 덤벼들거든.》

그러자 누군가가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쫓겨간 왜놈들대신에 장개석이가 우릴 해치려들지 않을가?》

《왜놈들이 망한 다음에야 무얼 걱정할게 있겠소. 농사만 알심있게 지어서 잘살아보자구요.》

난데없이 등뒤에서 들려오는 이 말에 뒤돌아보니 농민협회 비서 석오측이였다. 호란은 어쩐지 그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예요. 석세방아저씨가 그러시는데 장개석과 염석산이가 이전에 왜놈들과 짜고서 우리 공산당을 반대해서 세번이나 반란을 일으켰대요. 또 지주놈들도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잘사는걸 배아파하면서 이를 악물고 해보자고 벼른대요. 그러니 경각성을 늦추어선 안되지요 뭐.》

《흥, 그야 두고봐야 알지!》

호란의 사리맞는 말에 대답이 궁해진 오측은 툴툴거리며 가버렸다.

《그래, 호란이 생각이 옳다!》

주위의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나어린 호란이의 말을 무심히 스쳐듣지 않았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개석은 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미제의 원조하에 공산당을 반대하여 내전을 도발했다. 장개석의 앞잡이 염석산은 왜놈패잔병들까지 끌어들여 부대를 편성하고 9월 9일에는 문수현성을 점령

하였다. 현성거리는 국민당군대들로 득실거렸고 시교외의 해방구지역은 금시 다치면 터질듯 긴장이 팽배하였다. 왜놈들과 싸울 때는 그림자도 안보이던것들이 지금은 기고만장하여 백성잡이와 공산당원사냥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증오로 치를 떨었다.

이 나날 류호란은 늘 날이 새도록 잠을 제대로 이룰수가 없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로 안아온 승리인가! 고현장, 곽세명, 육아 그밖의 수많은 무명유명의 영웅들이 오늘의 승리를 위해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그들이 흘린 붉은 피를 절대로 헛되이 할수 없다. 그는 며칠전 석세방아저씨가 해주었던 말을 자주 되새겼다.

《지금 놈들은 국내전쟁을 일으키려고 꾀하고있단다. 우린 반드시 모주석과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해서 이놈들의 음모들을 완전히 짓부셔버려야 해. 단 한치의 땅도 잃어서는 안된다.》

(그래 그놈들과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수 없다.)

호란의 가슴속에 이러한 결심이 든든히 굳어졌다.

혁명정세의 요구에 비추어 문수현당위원회에서는 관가보마을에 부녀간부훈련반을 내오고 각 마을에서 훌륭한 열성부녀들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공부시키기로 하였다. 훈련반책임자는 현정부 부녀부장 겸 구정부 부녀구국회(략칭, 부국회—역주)주임 려설매였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류호란은 줄곧 그 생각뿐이였다. 어릴 때부터 호란은 군복을 입고 다리에 행전을 친 녀성팔로군이 제일 부러웠고 자기 역시 어서 그들처럼 되고싶어 얼마나 감질났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그도 컸다. 비록 13살이기는 해도 키가 크고 몸집도 단단하니 얼마든지 이번 훈련반에 입학

할수 있을것 같았다. 호란이는 그 훈련반에서 공부를 마치면 팔로군에 쉽게 입대할수 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고십지 않았다.

운주서촌의 간부들도 류호란을 훈련반학생으로 먼저 추천하였다. 그러나 석오측이 나서서 나이가 적합치 않다는 구실로 부결하였다.

《호란은 나이가 어려도 혁명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지요. 그러니 그를 보냅시다.》

《여보, 상급에서 내려보낸 규정에는 반드시 가족측의 동의하에서만 훈련반생이 될수 있다고 되여있소. 그래, 그 집 로친네가 승낙할것 같소? 호란이를 보내고싶으면 그 로친네부터 설복시켜보라니까. 후날 시끄럽지 않게스리.》

결국 호란이는 뒤자리로 밀려나게 되였다.

이 말이 호란의 귀에 닿자 그는 한달음에 구위원회로 달려왔다. 마침 그가 찾는 려설매가 인원선발때문에 그곳에 와있었다. 호란은 퍽 오래전부터 이 녀성을 낯익혀두고있었다. 항일전쟁의 나날 려설매는 마을들을 쉼없이 찾아다니며 맡은 과업을 이악하게 해내는 헌신적인 모습을 사람들의 인상에 깊이 남겨놓았었다. 호란은 그때 받은 감동이 자못 컸었다.

《설매언니, 난 훈련반에서 공부하고싶어요. 날 받아주세요.》

《호란인 올해 몇살이지?》

려설매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꼈다.

《13살이예요.》

《오! 아직은 어리구나.》

《그렇긴 해도 키는 작지 않아요! 보세요. 언니만 하지

않나요.》

그만에야 려설매는 호호 웃었다.

《너의 이름은 마을에서 제기되지 않았구나. 할머니가 반대한다던데.》

《혁명이야 본인이 결심하면 되지요. 난 이미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안된다고 해도 난 여기에 올래요. 하루라도 늦출수 없지요 뭐. 기다리는 새에 혁명이 승리하겠는데.》

《혁명이 끝난다고? 그렇게 빨리?》

려설매의 밝은 웃음소리가 크게 울리였다.

《항일전쟁은 승리했어도 아직 가난한 농민들이 억압받고있단다. 또 녀성들도 해방되지 못했고. 지금 장개석 도당이 우리 해방구로 기여들려고 하는줄 너도 알지?》

《그놈들이 우릴 치려는 이상 우리도 맞받아쳐야지요 뭐. 언니, 싸워 이기자면 알아야 하고 알자면 배워야 할게 아니예요.》

설매는 호란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어른스러운 생각에 내심 감탄했다.

《좋아. 와서 배우거라. 마을에는 내가 말해주지. 호란이는 돌아가서 할머니를 설득시켜라.》

그날 집에 돌아온 호란의 눈에서는 웃음이 마를줄 몰랐고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물을 긷고 밥을 짓고 설겆이를 하고 집안일을 무슨 일이나 알뜰하게 해나가니 어머니가 정겨운 눈매로 바라보며 쉬염쉬염 하라고 타이르기까지 하였다. 호란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래일이면 전 집을 떠나요. 그러니 오늘 어머닐 도와 일을 많이 해야지요.》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한꺼번에 다 제껴버릴 작정인 듯 호란의 손발은 순간도 쉴줄을 몰랐다.

그러나 훈련반에 가는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할머니가 알면 당장에 소란을 일구며 붙잡아두려 할것이니 후날에 형편을 봐가면서 설복하리라 생각을 해두었던것이다.

다음날 날이 샐무렵 일어난 류호란은 서둘러 아침을 짓고나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엄마, 난 일이 있어 좀 나갔다 오겠어요.》

《알겠다.》

딸의 심정을 알리없는 어머니는 선뜻 승낙했다.

대지우에는 찬란한 해빛이 눈부시게 차넘치고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희열에 넘쳐 달음박질하는 호란의 모습은 마치도 푸르른 창공아래 나래를 펴고 자유로이 훨훨 날아예는 한마리의 기운넘친 어린 새매같았다.

마을동구밖에서 그는 이미전에 같이 가자고 약속했던 소꿉동무를 만났다. 그들은 다같이 부모들의 눈을 속이고 나선 몸들이였다. 그런데 급히 뒤쫓아온 그 짝패의 외삼촌이 이리저리 얼리고달래고 하면서 야단을 부리는 바람에 짝패는 마음이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고말았다. 비록 혼자 남았으나 호란은 뒤돌아봄이 없이 앞서간 다른 동무들을 쫓아 발을 재게 놀렸다. 마침내 일행을 따라잡은 호란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자기의 목소리도 합쳐 명랑하게 웃고 떠들었다.

하늘아 가없이 푸른 네 하늘아래
전선으로 떠나는이 누구들이냐

……
듣느냐 고향아 저 부름소리
용감하게 싸우는 팔로군이라오

이날 관가보마을은 여느때없이 흥성이였다. 마을의 녀성들이 모두다 떨쳐나서 부녀간부훈련반생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호란이를 만난 려설매는 그의 손을 따스히 감싸쥐며 물었다.

《호란아, 할머니가 찬성했니?》

호란은 눈웃음만 지을뿐이였다.

《몰래 왔지?》

《설매언니, 언니가 좀 말해줘요. 언닌 아는게 많으니까 우리 할머니를 쉽게 납득시킬수 있을거예요.》

《너도 참!》

설매는 빙긋이 웃었다.

《그래. 공부만 잘해라. 할머니는 내가 맡아서 설복시켜 보자꾸나.》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호란은 한동안 입만 벌릴뿐 말을 할수 없었다.

《열심히 배워서 혁명의 역군이 되겠어요.》

개학식이 끝난 후 모두가 탈곡장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노래부르는데 누군가가 호란이에게 할머니가 찾아왔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바빠맞은 호란이는 황급히 하숙집으로 뛰여들어 숨었다. 사실인즉 그 동무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류호란이가 훈련반에 몰래 입학했다고 동네에 소문냈던것이다. 여기에 또 지주녀편네가 제멋대로 꾸며

서 행실이 나쁜 호란이가 사내와 눈이 맞아 총을 메고 도망쳤다고 엉터리요언을 퍼뜨렸다.

안절부절하던 호란의 할머니는 호란의 아버지가 밀고온 외바퀴손달구지에 올라앉아 관가보로 찾아온것이였다. 그러나 마을을 아무리 샅샅이 훑어도 손녀를 찾을수 없었다.

마침 이때 려설매가 나가 그들을 상냥하게 맞아주어 방으로 이끌었다.

그랬건만 할머니는 물도 안마시고 차려놓은 밥도 본체만체 하며 호란이를 내놓으라고 그냥 땅고집을 부렸다.

설매는 호란을 찾아 하숙집안으로 들어섰다.

《호란이, 할머니가 먼길을 달려왔는데 가서 만나봐야 옳지 않겠니?》

《싫어요. 만나지 않을래요.》

호란은 단마디로 잘라맸다.

《그러면 안돼. 우리 함께 가서 설복하면 더 좋지 않을가?》

《언니, 만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아요. 언니가 말 좀 해주어요. 할머니가 날 보면 울고불고하면서 강다짐으로 끌고가자 할텐데 그때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여기서 잠간 숨을 들이쉰 호란은 결단성있게 말했다.

《난 모주석을 따라서 혁명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니 누가 뭐라 한들 할머니를 따라가지 않을래요.》

설매는 대견스러워 하는 눈빛으로 호란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래, 호란아, 마음놓아라. 내 꼭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테니.》

혼자 되돌아온 려설매는 호란이와의 약속대로 알기 쉬운 말로 조리있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에

게 점심식사를 대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당면한 정세로부터 시작해서 장개석, 염석산무리들의 반동적본질과 운주서촌의 지주놈들이 빈고농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실례, 그리고 장개석국민당무리들과 지주놈들을 때려부시고 빈고농과 녀성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리치를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할머니는 들으면 들을수록 흐뭇한 웃음을 짓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희색이 온 얼굴을 덮어버렸다.

《이보라구, 자네 말이 다 옳네. 내가 반대하는건 호란이가 혁명을 하는것에 대해서가 아니구 우리 마을에서도 얼마든지 혁명을 할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할머니를 버리고 먼 여기까지 와서 해야 하는가 그 말일세. 또 듣자니까 총을 들고 싸움판에까지 나간다던데.》

설매는 할머니의 말속에서 마을에 떠도는 요언에 속아넘어가 온통 근심덩이로 되여버린 할머니의 심정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

《할머니, 나쁜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 훈련반에서는 녀성간부들을 키운답니다. 호란이는 여기서 한두달 배운 다음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할머니뿐아니라 운주서촌전체가 호란이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만! 그 죽일놈의 과부떼기, 그따위 엉터리수작으로 날 속여? 괜히 여기까지 와서 자네들을 훼방했구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마주앉은 설매를 미덥게 바라보았다. 곁에서 호란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어제밤에 호란이와 마주앉아 한참동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지주녀편네 말같지도 않은 잡소릴 듣지 말구요 설

매동지의 말을 믿으세요. 어때요. 이젠 맘이 놓이지요?》
《그럼! 설매, 호란이를 맡기네, 잘 키워달라구.》
려설매는 떠나는 할머니를 마을밖까지 바래주고 돌아오는 길에 동무들과 함께 모여서 노래를 배우고있는 호란이를 먼발치에서 바라보았다.
(호란이는 혁명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도슬러먹었구나. 그는 꼭 남보다 빨리 쟁쟁한 혁명가로 성장할거야.)
설매의 가슴속에는 호란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든든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7. 지주의 돈과 권세는 어디서 생기는가

훈련반의 학습은 몹시 긴장했다. 교재로서는 모주석의 저작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공산당원〉의 발간사》, 《농촌계급을 어떻게 분석할것인가》였다. 현당위원회 위원들이 강사로 자주 출연하였다. 장개석, 염석산무리들의 반동적본질, 당면한 투쟁임무와 정세, 계급적압박과 착취, 지주계급을 때려부시고 빈고농들을 해방하는 문제, 또 공산주의의 아름다운 장래를 이야기하였다.
호란은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배웠다. 학급에는 모주석의 저작이 다만 한부씩 있었기에 서로 돌려가며 베꼈다.
저작을 소중히 어루쓰는 호란의 가슴속에는 거친 삼종이에 찍혀진 글발들이 마치 왕가물로 말라터진 논에 생명수가 흘러들듯이 그대로 속깊이 스며드는것 같았다.

그런데 호란이에게 제일 안타까운 애로는 바로 글을 모르는것이였다. 소학교도 반년정도나 다니고 후에 어머니에게서 좀 배웠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러나 이쯤한 난관앞에 물러설 호란이가 아니였다.

짬만 있으면 연필을 쥐고 이미 다 써버린 학습장에 덧쓰고 또 썼으며 모를 글자가 있으면 표시를 해두었다가 남의 도움을 청하군 하였다. 저녁이면 아궁앞에 앉아 아궁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비추어가면서 부엌바닥에 나무꼬챙이로 글을 써보았다.

꾹꾹 파놓듯이 쓰고는 발로 비벼지우고 다시 그우에 쓰기를 그 몇번,

어느날 호란은 모주석의 저작 《농촌계급을 어떻게 분석할것인가》를 배운 느낌글을 쓰다가 그만 곯아떨어져 책상우에 엎드려잤다. 호란의 방앞을 지나가던 려설매는 안에 불이 켜져있는것을 보고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소리에 피뜩 깨여난 호란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나서 마무리짓지 못한 느낌글을 이어서 써내려갔다.

《호란아, 밤도 깊었는데 이젠 자려무나. 래일 또 새 강의를 받아야지.》

수척해진 호란의 얼굴을 보는 려설매의 마음은 격정으로 차올랐다.

《일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뭘 쓰고있지?》

려설매의 물음에 호란은 부끄러운듯이 얼굴을 살짝 붉혔다.

《모주석의 사상을 배우고 느낌을 써보는중이예요.》

《그래? 어디 좀 볼가?》

려설매는 호란이가 넘겨주는 책을 받아들고 등불밑에 가져갔다. 읽어보니 내용은 짧았어도 진실하고 소박하였으며 공부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상당히 발전했다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다.

《호란아, 이 〈타도하다〉에서의 〈도〉자에 획이 빠졌구나.》

《아이, 정말!》

가볍게 소리치는 호란의 얼굴은 확 붉어져있었다.

《호호호.》

그들은 자매같이 다정하게 마주보며 즐겁게 웃었다.

어느날 정세강의뒤끝에 조별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호란은 긴장한 안색으로 입술을 파들거리기만 할뿐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였다. 토론이 끝나고 다들 헤여진 뒤 려설매는 호란을 따로 남겨놓았다.

《호란이, 토론할 때 왜 입을 못벌렸니?》

《언니, 하고싶은 말은 뻔한데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구만요.》

호란은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려설매는 그때의 호란이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여 어쩐지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싶었다.

《토론할 때 정열적으로 참가해야만이 계급적각오를 높일수 있단다. 대중앞에 나서서 발언하는것 역시 하나의 단련이란다. 대담하게 썩 나서서 견해를 말해보아야 자신의 자질도 높아진단다.》

언니의 격정어린 말들을 곰곰히 새겨들으며 호란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난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소심해가지고서야 어

떻게 발전할수 있겠는가. 래일 토론시간에는 제일먼저 토론할테야.)

다음날 토론시간에 호란은 결심대로 제일먼저 나서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왜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염석산무리들은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일제를 때려부신건 공산당과 팔로군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도리여 장개석, 염석산도당들이 우릴 억누르려고 발악하니 우리는 절대로 가만있을수 없습니다. 기필코 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호란의 토론을 들으며 모두가 기백있고 론리정연하다고 칭찬하여마지않았다. 누군가가 문득 호란이에게 질문했다.

《지주의 땅은 그놈들이 돈을 주고 산것인데 어째서 착취한다고 합니까?》

꽤 까다로운 질문이여서 모두는 호란이가 당황하여 말문이 막힐지 모른다고 근심했다.

그러나 호란은 《농촌계급을 어떻게 분석할것인가》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며 배심있게 대답했다.

《지주가 땅을 산 그 돈은 누구의것입니까? 바로 가난한 농민들의 피눈물이 얼룩진 돈입니다. 돈이 저절로 그놈의 집에 굴러들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놈들은 마을의 기름진 땅을 다 가로타고앉고서는 머슴들을 부려먹어 농사를 짓게 하고 제놈은 손에 흙한점 묻히지 않습니다. 구들에 드러누워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원한이 사무친 고리대만 받아삼킵니다. 해마다 비단옷을 두르고 고기국만 처먹으며 풍청거리는 놈들은 우리 농민들을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쩍하면 욕질하고 매를 듭니다. 그놈들의 돈은 어디서 난것입니까? 우리들

을 착취해서 긁어모은것입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지지했다.

《옳습니다.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호란동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군요. 따라배울점이 많은 동무예요.》

이것은 려설매뿐아니라 학습반성원들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대중의 일치한 제의에 의해 류호란은 학습조 조장으로 임명되였다.

상급당에서는 훈련반생들을 계급투쟁의 실천속에서 보다 더 굳세게 단련시키기 위하여 학습과정을 란가보촌에서의 반주구반토호투쟁과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류호란은 동무들과 함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계급적리치로 대중을 계발시키고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격려하였다.

이러한 실천과정속에서 그는 또 한번의 직관적이고 심각한 계급투쟁강의를 받았으며 하여 그의 계급적각오와 사업능력은 한단계 높이 올라설수 있었다.

8. 혁명과 고생

훈련반생활은 말할수없이 어려웠다. 교실도 책상도 없었다. 늘쌍 어느 집 창고 아니면 탈곡장에서 강의를 하였고 적구에서 사온 연필은 반토막씩 차례졌다. 슴슴한 남새찬에 때로는 그것마저 없어서 수수가루나 조밥에 소금을 저가락으로 찍어서 먹군 했다. 처음에는 마을녀인들

이 때식을 끓여주었지만 인차 강습생들이 륜번제로 밥을 짓기 시작했다. 수십명분의 때식을 끓이고 망을 갈고 물을 긷고 땔감을 주어오고 불을 지피는 등 하나하나가 조련치 않은 일들이였다.

호란은 취사당번들의 일손을 자주 거들어주면서도 자기가 당번일 때에는 혼자서 다 말아안군 하였다. 다른 동무들이 학습에 더 전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호란은 다른 당번동무들을 위해서 땔감을 미리 준비해두군 하였다. 그 시기는 성안의 적들이 걸핏하면 밀려나와 소동을 피우군 하여 훈련반생들은 자주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였다. 때로는 배낭과 마른 량식을 지고 하루에만도 여러곳을 옮긴적도 있었다. 이런 간고하고 긴장한 생활속에서 호란은 날을 따라 수척해졌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해졌다. 그러나 그 별빛눈만은 더욱더 생기에 넘쳤다. 동무들은 그를 두고 웃으며 말했다.

《호란아, 너의 쌍태머리는 정말 까맣기도 하구나. 그런데 네 얼굴도 머리칼처럼 새까매질것 같애.》

사실 호란이의 머리태는 누구든지 한번 보면 눈길을 끌정도로 윤기가 흘렀다. 그러나 호란이는 남들이 부러워 탐내는 그 머리태를 베버리려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치렁치렁한 머리태를 빗질하는 시간마저 아까와 그것을 학습에 바치고싶었던것이다.

어느날 호란은 집주인에게서 가위를 빌렸다.

《이 머리태를 잘라주세요.》

《그 아까운걸 자르겠다니?》

집주인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아니! 공부에 지장이 돼요.》

호란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집주인은 더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호란이의 단호한 행동앞에 큰 충격을 받은 여러 동무들이 뒤를 이어 단발을 하였고 시간과 품을 학습에 더 바쳐가며 분발하였다.

어느 깊은 밤 자정무렵 모두가 혼곤히 잠들었을 때 려설매가 류호란을 조심조심 깨웠다.

《호란아, 놈들이 온다. 빨리 자리를 떠야겠어.》

순간에 정신을 차린 호란은 재빨리 동무들을 깨우고나서 어둠속을 손더듬해가며 이동준비를 다그쳤다. 준비가 되는 차례로 동무들을 먼저 떠나보낸 호란은 제일 마지막에 남아 뒤거둠질을 말끔히 해놓고서 부엌구석에 놓인 수수가루 한마대를 닁큼 지고 일어섰다.

그날밤따라 비는 동이로 퍼붓듯이 억수로 쏟아져 호란의 온몸은 눈깜짝할사이에 흠뻑 젖었다.

차디찬 비물에 싸늘한 밤기운까지 겹치여 호란은 뼈속까지 얼어드는듯싶었다.

어깨에 멘 수수가루마대는 비에 푹 젖어 돌덩어리처럼 어깨를 짓눌렀고 이마를 타고 줄줄이 흘러내리는 비물은 눈안에까지 흘러들어 눈을 바로 뜨기조차 어려웠다. 그랬으나 호란은 한손으로 연신 비물을 훔치며 앞서간 동무들을 따라잡으려고 걸음을 부지런히 다그쳤다. 길은 진흙길이여서 얼음판같이 미끄러웠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호란은 비칠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눈앞에 보이는 왕동무의 뒤를 바싹 따라섰다. 이때 왕동무가 《아야야!》하고 비명을 지르며 곤두박질을 하였다.

급히 다가간 호란이는 발목을 곱지른채 일어설념을 못하는 왕동무를 부축여 일으켜세웠다.

《왕언니, 힘을 내세요. 자, 내 팔을 잡아요.》

짐을 진 호란이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의 부축을 받으며 20여리의 밤길을 걷는 왕동무의 마음은 고마우면서도 한편 송구스럽기만 하였다.

날이 푸름푸름 밝을무렵 그들은 남백가장에 이르렀다. 비구름이 가셔진 동녘하늘가에 아침노을이 붉게 비꼈다.

호란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피로도 아랑곳없이 솔선 땔감을 얻어다가 불을 피웠다.

호란이가 지핀 우등불에 모두가 뼈속까지 젖어든 몸들을 말리우고 더운물로 손발을 씻고는 그자리에 다들 노그라지고말았다. 그러나 호란의 팔에 의지하여 20리를 간신히 걸어온 왕동무는 자리에 누웠으나 그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와 도무지 잠들수 없었다.

자기와 호란이를 비교해볼수록 나이어린 그앞에 부끄러웠고 자책감이 컸다.

그래서 이리저리 궁싯거리다가 어슴푸레 잠들무렵 누군가가 옆에서 움찍이는 바람에 머리를 돌려 살펴보니 호란이가 살며시 일어나 양말을 벗고있었다.

이마살을 찌프리고 아래입술을 이발자리가 나도록 짝 감쳐문 호란이는 발등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양말을 애쓰며 조금씩 벗겨내고있었다.

《어마나, 호란아, 너 발에 종처가 끔찍하게 났구나.》

왕동무는 덴겁하여 소리쳤다.

《일없어요.》

호란은 소리를 낮추라는듯 입술에 손가락을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씻어주겠어.》

《아니, 괜찮아요. 어서 쉬세요.》

호란은 종처난 발을 절룩절룩하며 양말을 빨려고 일어섰다.

왕동무는 급급히 려설매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주먹을 쥐고 사색이 되여서 달려온 려설매는 피고름이 질질 흘러나오는 호란이의 큼직하게 드러난 상처를 아픈 심정으로 어루쓸고 또 쓸었다. 이런 험한 발로 홀몸도 아니고 식량을 지고 동무까지 부축하며 20리길을 내처 걸었으니 얼마나 쓰리고 참기 어려웠으랴. 그러나 그런 내색은 전혀 없이 웃으며 동무들을 잠재웠으니 그 의지를 무엇에 비기랴.

려설매는 준비해가지고온 살구속살가루를 참깨기름에 개여서 상처에 발라주었다.

마을사람들이 가르쳐준 민간치료방법이였다.

려설매가 자리를 뜬 후에 왕동무가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아프니?》

《아프긴요.》

《호란아, 넌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고 굳세니?》

왕동무의 진심이 깃든 물음에 호란은 정색한 표정을 지었다.

《혁명을 하려면 고생을 두려워말아야지요 뭐.

또 이게 무슨 고생이겠나요. 혁명렬사들은 죽음도 맞받아나갔는데 그에 비하면 이건 큰것이 아니지요. 난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할 때면 그들보다 내가 훨씬 못하다고 자책해요.》

호란의 진심에 왕동무는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 류호란이가 비록 자기보다 나이는 어려도 그의 높은 희생정신을 그대로 본받으리라고 속으로 굳게 마음다졌다.

9.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40일간의 강습이 어느덧 끝났다. 구당에서는 비록 나이는 어려도 호란이를 운주서촌 부녀구국련합회 림시비서로 임명하였다.

마을로 돌아가는 호란의 마음은 기쁨과 랑만으로 터질듯 부풀었다. 동녘하늘에 불끈 솟아오른 태양은 고향마을로 돌아가는 호란의 얼굴을 붉은 손길로 정겹게 쓸어주고 그의 마음속까지도 따뜻이 비쳐주었다. 귀향하는 류호란은 40일전 이길을 걸어올 때의 천진하기만 하던 시골소녀의 모습이 아니였다. 당이 맡겨준 중요한 혁명임무를 받아안은 녀성간부가 되여 돌아가는 어깨무거운 길이다.

호란이가 집뜨락에 들어섰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있는참이였다.

《할머니! 할머니!》

부름소리에 달려나온 할머니가 덥석 손녀애를 끌어안고 몇년만에 만난듯이 눈기를 가다듬고 한참이나 우로아래로 훑어보았다.

《돌아왔구나. 이번에는 어디에도 가지 말고 할머니를 따라다녀라.》

할머니의 품에 꼭 안긴 호란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난 이젠 이전날의 호란이가 아니예요. 할머니 주위만 뱅뱅 맴돌던 철부지가 아니란 말이예요.》

호란은 그날 구당위원회 위원인 석세방을 찾아가 40

일간의 학습정형과 자기가 받은 과업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뒤이어 마을에 겨울야학을 꾸려 녀성들에게 정치와 문화상식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정치사상적각오를 높여 팔로군을 힘있게 지원하려는 자신의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호란아, 대담하게 일을 하거라. 우리 당조직은 너를 적극 돕겠다. 난 네가 우리 마을 부녀사업을 꼭 잘하리라고 믿는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느때든지 의논하자.》

석아저씨는 흐뭇한 어조로 호란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석세방의 집에서 나오는 길로 호란은 농민협회비서 석오측을 찾아갔다. 그러나 만날수가 없어 한참동안 찾아헤매이던중에 불쑥 과부인 지주녀편네 단아의 집에서 나오는 석오측과 부딪쳤다.

《비서아저씨! 전 지금 아저씨를 만나려던 참이예요.》

호란은 내심 불쾌한 감정을 애써 감추며 석오측과 인사를 나누었다.

《오, ㅡ 그으ㅡ래.》

딸꾹질하는 그의 입에서 술내가 역하게 풍겨왔다. 그는 기름에 번들거리는 입언저리를 문다지며 말했다.

《우선 쉬거라. 난 또 일이 있어놔서.》

이러며 그냥 지나치려는 오측을 호란이는 막아나섰다.

《전 래일 마을부녀회를 열자고 합니다.》

《래ㅡ일?》

오측은 걸음을 멈추었다.

《너무 일러. 이틀 지나서 열자꾸나.》

《안돼요. 놈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달려드는데 늦잡으면 되겠나요.》

《별로 바빠할건 없어. 네가 말한것처럼 그렇게까지 험악하지 않아. …그래그래, 정 하겠으면 하려무나. 래일 나도 참가하겠다.》

비칠비칠거리며 멀어져가는 석오측의 뒤모습을 눈으로 좇는 호란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지주녀편네집에서 나오는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다음날 아침 호란은 밤을 패며 준비한 발언원고문을 주머니에 찌르고 집집마다 다니며 부녀회의에 불렀다. 마을녀인들이 촌사무소마당에 가득히 모여들어 웅성거리는것을 본 오측이 돌계단우에 올라서서 개회를 알렸다.

《우리 마을 부녀구국련합회 비서일을 보던 동무가 만삭이여서 상급에서는 호란이를 림시비서로 임명했습니다. 다들 잘 알겠소? 그럼 이제 림시비서동무가 연설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듯이 애티나는 호란의 얼굴에 모아졌다. 정작 수많은 군중들앞에 나서고보니 그의 심장이 후두둑 떨리였다. 비록 강습받는 과정에 여러번 사람들앞에 나선적은 있으나 그것은 소조별토론시간때였었다.

호란은 콩콩 높뛰는 가슴을 애써 눅잦히며 용기를 내려고 마른 기침을 깇었다.

이때 지주녀편네 단아가 벌떡 일어나서 빈정거리듯 소리쳤다.

《호란아, 연설하기보다는 노래부르는게 더 낫지 않니? 우리한테 노래나 한곡 부르려무나.》

순간 마당이 웃음판으로 변했다. 엄숙해졌던 분위기가 삽시에 흐지부지될판이였다. 이에 화가 동한 일부 녀인들이 단아를 손가락질하였다.

《무슨 심보로 그따위 소릴 하는거요? 어째서 회의장을 소란케 하려드는가 말이요.》

호된 질책앞에 그 지주녀편네는 감히 대꾸질을 못하고 비실비실 주저앉았다.

뜻밖의 정황앞에서 눈길을 허둥거리던 호란은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지지해나서자 마음이 가라앉고 배심이 든든해지였다. 호란은 머리를 건듯 쳐들고 당면한 투쟁정세와 겨울야학을 꾸리는 의의, 그 우월성을 이야기하고나서 모두가 야학에 와서 배울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뒤이어 석오측이 섬돌우에 올라서서 입을 열었다.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지요. 이제는 항일전쟁도 끝났으니 싸움할것도 없고 백성들도 한시름 놓게 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한 날을 보내게 되였수다. 그러니까 우에서도 야학을 꾸리고 거기서 노래랑 글이랑 배워주고 편지쓰는 법이랑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랑 배워주는게 아니겠소. 그러니 배우고싶은 사람은 다 오십시오. 그럼 오늘은 이만합시다.》

석오측의 동닿지도 않는 말에 호란은 어이없었다.

(그의 말은 당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 군중에게 옳은 인식을 주어야 한다.)

호란은 순간도 지체없이 소리쳤다.

《여러분, 가지들 마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흩어진 뒤였다.

석오측은 골살을 찡그리며 호란이를 마뜩지 않게 치떠보았다. 속이 불끈하였다. 처음에 그에게는 호란이가 부국회 림시비서로 임명된 사실 그자체가 불만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호란이가 나이도 애되니 다루기가 쉽

고 별로 신경쓸 나위가 없을것이니 어찌보면 잘된셈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위안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헤쳐보낸 군중을 다시 불러모으며 록록치 않게 엇서나가려는 호란이가 눈에 거슬려 석오측은 훈계하는 말투로 시까스르기 시작했다.

《군중과의 사업은 천천히 해야 해. 급하다고 콩밭에 서슬치겠니? 우에서 포치한 사업은 내가 말아하겠으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란의 되알진 목소리가 맞받아울렸다.

《그 말은 옳지 않아요. 당에서는 우리들이 하루빨리 야학을 열고 부녀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다그쳐 전선을 지원하고 장개석, 염석산도당의 내란음모를 분쇄하는데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천천히 할수가 있겠나요. 이게 늦장부려도 될 일이예요? 그리고 또 아저씨의 발언에 저는 의견이 있어요.》

기색이 험상해진 오측은 분명치 않게 두덜두덜거리며 휙 찬바람을 일구면서 가버렸다.

석오측의 말을 긍정하듯 그날 야학에 온 녀성은 불과 몇명뿐이였다. 기대감이 컸던 호란이로서는 실망감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호란은 자기의 안타까운 고충을 털어놓으려 석세방을 찾아갔다.

《석아저씨! 정말 여간 힘들지 않군요. 한나절 동원했는데 겨우 몇명만이 응할뿐이예요. 농민협회비서아저씬 겨울야학을 내오는것이 달갑지 않은지 당의 요구와 비뚤어진 소릴 해요.》

계속해서 그는 석오측이 지주녀편네집에서 나오던 일이며 회의장에서 취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호란이의 상기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석세방은 속으로 어린 그를 칭찬하여마지않았다. 그가 보기에도 호란은 모든 면에서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사실 호란이가 훈련반에 입학한 그날부터 석세방은 호란의 입당문제를 생각해오고있었다.

아직 운주서촌에는 녀당원이 없었다. 때문에 부녀들과의 사업에서 적지 않게 애를 먹고있었다. 그리하여 자기의 생각을 구당위원회에 제기했었는데 상급에서는 두말없이 찬동해나섰고 류호란을 당원으로 키우는 이 중요한 과업을 석세방에게 위임하였다.

류호란이를 계급투쟁의 폭풍속에서 쇠소리나는 혁명가로 키우려는 석세방의 결심은 지금 호란의 이야기를 듣는 이시각 더욱더 확고해졌다.

《호란아,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닥치기마련이다. 그러나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 모주석께서는 이렇게 이르시였단다.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투쟁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헤쳐야 할 난관과 풀어야 할 문제들이 가로막기마련이다. 우리는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일전쟁이 끝나니 혁명도 필요없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주머니만 채우려 들거든. 우리는 이런 그릇된 사상과도 싸워야 한단다. 또 계급적원쑤들뿐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각성을 높여야 해.》

호란은 석아저씨가 들려준 말을 자자구구 되새겨보았다. 특히 모주석의 말씀을 의미해볼수록 온몸에 새힘이 솟구쳐올랐다.

호란은 떠나기 앞서 석세방에게 쑥스러운 표정을 보

이며 소심하게 물었다.

《아저씨, 나도 공산당원이 될수 있나요?》

석세방은 흔연히 대답했다.

《될수 있지. 모주석의 가르치심대로만 싸운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공산당원이 될수 있단다.》

《아저씨, 꼭 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이 일이 있은 후 류호란은 마을의 열성부녀회원들과 손을 잡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국의 투쟁형편과 녀성들이 혁명에서 차지하는 지위 그리고 야학을 내온 목적에 대해서 인내성있게 해설해주었다. 하여 이틀도 못되는 사이에 10여명의 녀성들이 야학명단에 이름을 적어놓았다. 또 며칠이 지나서 40여명으로 부쩍 늘어났다.

류호란은 신심이 생겼다. 석세방의 남모르는 도움속에 그는 부국회사업에서 제기되는 온갖 크고작은 일들을 작은 몸에 감당하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할머니의 뜻밖의 사망이 호란이를 이름할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하였으나 인차 자신의 개인적감정을 다잡고 할머니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려는 일념과 결심을 안고 아글타글 애썼다.

그래서 그런지 호란은 마을사람들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아안았으며 운주서촌의 부국회사업은 날을 따라 활기에 넘쳐갔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녀성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서 류호란은 운주서촌 부녀구국련합회 비서로 정식 선거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였다.

10. 모든것을 전선지원에로!

1946년 여름 장개석반동들은 전체 중국인민의 거세찬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내전을 도발했다. 일제가 쫓겨간 땅우에 또다시 국내전쟁의 포성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해방구인민들모두가 공산당의 령도아래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기 위하여 과감히 일떠섰다.

이시기 팔로군은 중국인민해방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국민당군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급변한 정세속에서 운주서촌당지부는 《모든것을 전선지원에로!》라는 구호를 새로 제시하고 마을사람들을 여기에 총궐기시켰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류호란은 부녀들을 동원하여 실을 잣고 신발을 만드느라 낮과 밤이 따로없이 지어 끼니를 건너뛰면서 일에 전념하였다. 전선지원사업에서는 류호란이가 이끄는 운주서촌 부국회가 선두에 선것으로 하여 현에서 주는 상까지 받았다.

염석산은 문수현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걸핏하면 문수현 평원일대를 토벌하려 덤벼들었다.

해방군 제12련대가 해방구의 땅 한치한치를 지켜 피어린 결사전을 벌리고있었다. 한번은 운주서촌에 밀려들었던 염석산반동군벌 제37사 2련대를 매복습격전으로 완전소탕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마을의 전선지원열의는 비할바없이 달아올랐다. 실례로 려설매가 운주서촌으로 찾아와 담가대를 조직하려고 하자 청

년들이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자원하였다.
류호란이도 려설매를 찾아와 생떼를 썼다.
《저도 담가대를 따라 전선에 가겠어요.》
《안돼, 아직은 어려. 전선은 위험한 곳이야.》
그랬건만 호란이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리 위험해도 난 무섭지 않아요. 총을 들고 싸우지는 못해도 우리 전사들에게 물을 끓여주고 밥도 지어줄수야 있지 않아요.》
호란의 고집스러운 눈길은 려설매의 얼굴을 놓아주지 않았다.
《좋아. 그럼 나와 함께 대상진에 가서 거기 녀성들을 발동시키자꾸나.》
《예, 임무를 꼭 수행하겠습니다.》
기쁜 나머지 호란은 껑충 뛰기까지 하였다.
대상진에는 해방군 12련대의 지휘부가 있었다.
결전장의 총소리는 날에 날마다 가까와지고 총탄이 귀뿌리를 자주 스쳤다. 그러나 호란이를 겁먹게 할수는 없었다. 끓는 물통과 죽가마를 서슴없이 머리에 이고 호란은 총알이 귀전을 스치는 싸움터를 새매처럼 드나들었다.
《여긴 위험하니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동지들도 모두 여기서 싸우고있지 않습니까.》
전사들과 지휘관들의 념려에 호란은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대답하군 하였다.
끓인 물과 죽을 날라준 다음에는 대상진으로 다시 돌아와 마을사람들과 함께 전사들에게 공급할 건식을 만들었다.
놈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호란은 해방군전사들의 춤판에 뛰여들어 그들과 어울려 유쾌히 춤추고 노래불렀다. 용감하고 명랑한 호란의 모습은

해방군전사들과 지휘관들의 가슴속에 류달리 깊은 감명을 남기였다.

싸움이 계속되는데 따라 부상자들도 늘어났다.

당시 평원일대에는 병원이 없었으므로 상급당조직에서는 중상자들은 산간지역에 보내고 경상자들은 마을마다 분숙하여 치료받도록 대책을 취하였다.

운주서촌에도 부상당한 해방군전사가 실려왔다. 그가 온 날부터 호란은 마치 혈육을 맞이한듯이 온갖 지성을 다해 지극하게 돌봐주었다. 그는 마을의 부녀들을 모아놓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우리 마을에 부상당한 해방군전사동무가 와서 치료받고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들을 지켜 싸우느라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응당 그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여야 하지 않겠나요.》

모두가 그 말이 옳다고 적극 호응해나섰다.

《부상병동무에게 영양가있는 음식을 대접하자요.》

《뭘 대접하면 좋을가?》

《닭알이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회의가 끝나자 녀인들은 집으로 흩어져갔다.

방안에 들어선 호란은 자그마한 상자를 열고 돈을 꺼내들었다. 그 돈은 호란이가 작년에 짬짬이 밭에 흘린 보리이삭들을 주어 판것을 한푼두푼 모은 돈이였다. 이 돈을 놓고 호란의 어머니는 맨발로 다니는 딸의 정상을 가긍히 여겨 양말을 사서 신으라고 권고하군 했었다.

호란은 조금도 주저없이 그 돈으로 70여알의 닭알을 샀다. 다른 부국회원들도 백여알의 닭알들을 구해가지고 호

란을 찾아왔다. 그들모두의 지성이 가득 담긴 닭알바구니를 누워있는 부상병앞에 가져다놓으며 호란은 정겹게 말했다.

《동지, 이건 우리 마을사람들이 동지에게 드리는것입니다. 우린 동지가 하루빨리 완치되길 바랍니다.》

고마움에 목이 꺽 메인 해방군전사는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몰라 한참동안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만 슴벅일뿐이였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전 제집에 와있는것만 같습니다. 무슨 말로 인사를…》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해방군과 우리는 한집안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을 지켜서 동지들이 피흘렸으니 오히려 우리가 인사를 드려야지요.》

호란의 진정에 가슴이 뭉클해진 전사는 호란의 두손을 덥석 잡고 손아귀에 힘을 주며 말했다.

《상처가 나은 다음에 원쑤놈들을 더 많이 소멸하는 것으로써 동지들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도 있는 힘껏 해방군을 돕겠습니다.》

두뺨을 살짝 붉히며 전사를 바라보는 호란의 두눈은 생기와 희열로 아름답게 빛났다.

11. 한치도 양보할수 없다!

어느날 운주서촌 부녀구국련합회는 200켤레의 군화를 만들데 대한 긴급임무를 받았다.

받은 즉시 류호란은 회의를 열고 대중토의에 붙였다. 무

게는 한근, 바닥두께는 손가락 한마디정도, 바느질은 적어도 500뜸이상, 이만한 정도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제기일내에 지정된 수량을 보장한다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떨쳐나선 부국회원들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바느질 한뜸한뜸마다에 여무진 손길들이 꼼꼼히 어려있었다. 어떤 녀인은 신바닥에 병사들을 고무격려하는 선동구호를 수놓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지성이 배인 신발을 받아안은 병사들이 누구보다도 더 용맹하게 원쑤를 쳐부시기를 바랐던것이다.

며칠안팎에 벌써 거의 절반나마 제작되였다.

호란은 부국회일군들과 함께 만들어진 군화들을 깐깐히 검열하였다. 군화들은 하나같이 든든했고 맵시있었다. 검열할수록 호란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차올랐다.

어느날 지주녀편네 단아가 실팍한 엉치를 실룩실룩하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들고온 신발을 슬그머니 신발더미속에 섞어놓고나서 제법 소리쳤다.

《호란아, 내 이름도 명단에 올려라. 에이, 피곤해죽겠군.》

그리고는 제잡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두서없는 이야기판을 벌려놓았다.

호란은 단아가 만든 신발을 살펴보았다. 무게도 갑삭하고 바닥도 하들하들하였다. 도적이 제발 저린다고 단아는 뻔뻔스레 입술을 놀렸다.

《난 규격대로 만들었어. 받아두라는데.》

《안돼요! 접수못해요.》

호란은 딱 잡아뗐다.

그들이 한창 옥신각신하는 때에 석오측이 끼여들었다.

《왜 그러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신발이겠나요.》

호란은 가짜신발을 보란듯이 쳐들었다. 석오측은 짐짓 살펴보는체 하면서 히물히물 웃었다.

《신을만 하구나. 받아두어라.》

이전부터 그들 둘사이의 관계가 깨끗치 못하다는 소문은 들어왔으나 이렇게까지 로골적으로 단아를 두둔해나설줄은 정말이지 뜻밖이였다. 이때 호란이의 머리속에는 혁명대오안의 이색적인 사상경향과도 견결히 싸워야 한다고 일깨워주던 석세방아저씨의 말이 떠올랐다. 호란은 가슴을 펴고 맵짜게 거절했다.

《안돼요. 이따위걸 신고 어떻게 행군도 하고 싸움도 하겠나요. 난 싫어요.》

호란의 도고한 자세앞에 오측은 목대를 뻣뻣이 세우고 접어들었다.

《넌 말끝마다 싸움, 싸움! 그래 왜놈들이 나자빠졌는데 무슨 싸움이 또 있다는거냐?》

《왜놈들이 너부러졌다고 싸움이 끝났는가요? 지금 장개석, 염석산이가 무기를 놓고 잠을 자나요? 지주놈들은 가만있구요? 장개석이 〈쌍십협정〉을 찢어버리고 미국놈들이 준 총과 포를 가지고 매일 우리 해방구에 덤벼드는걸 아저씬 보지 못하는가 말이예요!》

호란의 챙챙한 목소리는 마치 선뜩하게 날이 선 비수마냥 오측의 입안에 박혀 그의 나불거리던 혀를 잘라던진듯싶었다. 어안이 벙벙하여 할말을 못찾는 오측을 바라보던 부국회회원들은 경탄의 눈길로 호란을 바라보았다. 당돌한 호란이가 자기들의 심정을 후련히 말해주었던것이다.

석오측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무안을 당한것에 울기가 뻗쳐 얼굴을 이그러뜨렸다.

《잔말말고 받아두어. 나도 이 마을을 책임진 한사람이니 내 말에 고분고분하란 말이야.》

《그가 누구든지 원칙과 어긋나면 복종할수 없어요. 이 신은 가짜예요.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찢어보자요.》

이 말에 오측은 기염을 토하며 으르렁거렸다.

《멀쩡한 신발은 왜 찢겠다는거냐. 그자체가 반혁명적인짓이야. 찢은 다음엔 누가 책임지지?》

《내가 질래요.》

호란은 두말못하게 대답했다.

모두의 눈길앞에 나선 호란은 식칼을 찾아쥐고 신발바닥을 갈기갈기 찢어헤쳤다. 그러자 감추어져있던 휴지며 마대쪼박들이 말짱하니 드러났다. 이것은 순간에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건 우리 마을녀성들의 얼굴에 똥칠을 한 짓거리야.》

《해방군은 우릴 지켜서 전선에서 피흘리는데 저따위 너절한걸 신발이라고 들고와.》

《그냥 놔두면 안돼. 호되게 다스려야 해.》

호란이도 치미는 격분을 애써 누르며 엄숙하게 말했다.

《신발을 만들라고 할 때부터 이러쿵저러쿵 하더니 결국은 뻔하군요. 이건 우정 앙심먹고 한 짓이라고 봐요. 그냥 지나칠수 없어요.》

단아는 등뒤에 서있는 석오측에게서 용기를 얻었는지 쉽사리 물러서려 하지 않고 이발을 드러냈다.

《그래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테냐? 무섭지 않아. 어디 한번 맞서보자꾸나.》

얼굴색이 창백해진 오측은 호란이가 괘씸하여 견딜수 없었으나 감히 대꾸할 여지가 없었던 탓에 입속으로 웅얼거릴뿐이였다.

《이건 단아잘못이 아니야. 이건…》

호란이는 그자리에서 밀막아치웠다.

《어째서 저런 사람들을 두둔해요? 아저씨 립장은 도대체 뭐예요?》

이 말이 석가의 급소를 드세게 찔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인차 호란은 사건의 전과정을 구당위원회에 보고했다.

《잘했소. 지주마누라는 물론이고 석동무의 문제도 엄격히 조사하고 되게 비판하겠소.》

구당서기는 호란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석세방과 려설매도 부녀회의에서 단아를 가차없이 다불리려는 호란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당위원회의 뒤받침속에 호란은 사상투쟁회의를 열고 단아의 전선지원암해행위를 신랄히 꾸짖었다. 다른 녀성들도 뒤이어 자리차고 일어서 단아의 지난 기간 죄행들을 깡그리 폭로하였다. 이에 더는 빠질 구멍이 없게 된 단아는 부득불 자기 죄를 인정할수밖에 없었다. 류호란은 군중의 의견을 좇아서 단아에게 무조건 신발 5켤레를 더 만들도록 처벌을 내렸다.

12. 가장 행복한 날

상급의 조치에 의해 류호란은 구부녀구국련합회 간사사업과 운주서촌 부녀구국련합회사업을 겸해서 맡아보게 되

였다. 이리하여 그는 사업상 필요로 려설매와 자주 만나 함께 부근부락들을 돌면서 검열사업도 하고 형편들도 료해하군 하였다. 사람들은 키가 늘씬한 려설매가 나어린 류호란과 함께 늘쌍 마른날 궂은날 가림없이 아글타글 애쓰며 다니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언젠가 석세방아저씨에게 입당하고싶은 소망을 조심스럽게 비쳐보인 후에 호란의 가슴속에는 공산당원이라는 이 숭고한 부름이 떠날줄 몰랐다.

그도 역시 고현장이나 그밖의 수많은 공산당원들처럼 당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훌륭한 인간이 되고싶었다.

어느날 류호란은 잠자리에서 곁에 누워있는 려설매에게 물었다.

《언니, 언닌 공산당원이지요?》

려설매는 빙그레 웃음지었다.

《알아맞춰보렴.》

《언닌 공산당원같애요.》

《그건 어째서?》

《공산당원처럼 행동하거든요. 난 언니가 부러워요. 나도 당에 들수 있을가요?》

《호란이는 아직 어려. 입당할 나이가 못되거든. 하지만 모주석을 받들고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또 혁명투쟁속에서 단련되면 얼마든지 우리 당대렬에 들어설수 있어.》

그날밤 당원이 되고싶은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불길이 되여 호란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당규약에는 만 18살이 되여야 입당할수 있다고 밝혀졌다. 호

란은 자기가 14살밖에 못되는것이 한스러웠다.

1946년 5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항일전쟁승리이후 국내계급관계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농민들의 땅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기본상 만족시키며 광범한 농민력량을 총동원시켜 항일전쟁승리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해방군과의 배합밑에 국민당반동군대의 진공을 짓부셔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력사적인 토지개혁운동을 벌릴데 대한 지시문을 하달하였다. 문수현당위원회는 의논끝에 대상진을 토지개혁시범마을로 정하였다. 구당위원회에서는 이번 토지개혁투쟁속에서 보다 더 단련되고 세련된 녀성혁명가로 키우기 위해 류호란을 이 사업에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신임을 받아안은 호란은 어뜩새벽부터 자정무렵까지 샘솟는 열정으로 맡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뛰여다녔다.

당조직의 옳바른 령도따라 마을사람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선것으로 하여 대상진토지개혁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갔다. 악질지주 려덕방의 땅 1천여무(중국에서 땅의 넓이를 재는 단위, 한무는 약 200평—역주)와 쌀 30여만근(1근은 약 600그람)을 몰수하여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니 빈고농들은 너나없이 감격해하였다. 땅과 량식을 분여받은 농민들이 땅의 새 주인이 되여 다시는 착취자들의 멸시를 받음이 없이 마음껏 농사짓게 된 력사적인 사변을 직접 한복판에서 목격하면서, 또 그들이 《모주석 만세!》《공산당 만세!》를 진심으로 목메여 웨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류호란은 자기도 어서 빨리 고향으로 달려가 천지개벽을 일으키고싶은 열정으로 가슴 불태웠다. 모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공산당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호란이

로 하여금 드디여 입당청원서를 쓰도록 충동하였다.

구당에서는 정식 그의 입당문제를 상정하고 석세방과 려설매동지들이 류호란의 입당준비를 맡아 책임적으로 도와주도록 결정했다.

어느날 려설매가 류호란을 찾아왔다.

《호란아, 당에는 왜 들려고 하니?》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호란은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공산당은 무산계급의 선봉대이고 모주석은 우리들의 은인이십니다. 모주석과 공산당의 령도가 있어 우리는 지주놈들과 장개석, 염석산반동무리들을 쓸어버리고 앞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입니다.》

이어 그는 공산당에 대한 자신의 견해, 집안래력으로부터 시작하여 혁명에 참가하면서부터 느끼고있는 격동된 심정, 당에 대한 뜨거운 고마움 등을 가식없이 털어놓았다. 끝으로 그는 흥분된 어조로 말끝을 맺었다.

《모주석과 공산당은 왜놈들을 쳐부시고 국민당반동파들과도 싸워이기고있으며 지주놈들을 청산하고 오직 백성들만을 위한 정책만을 펴고있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좋습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저는 한생 당을 따르며 붉은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반동군벌들을 쳐부시고 새중국을 건설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분투하겠습니다.》

류호란이 심장으로 다지는 맹세를 들으면서 려설매는 그의 놀랍게 발전한 사상적높이에 진정으로 기뻤다.

《그래, 넌 꼭 참된 당원이 될거야.》

석세방도 여러차례 호란을 찾아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

누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구당위원회에서는 류호란의 입당문제를 토론하였다. 려설매가 나서서 당원들에게 류호란의 사상적각오정도와 거둔 사업성과를 하나하나 소개하였으며 석세방은 호란의 가정과 그의 사상적성장과정을 꾸밈없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류호란동무를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있습니다. 그는 꼭 우리의 뒤를 이어 참된 공산당원으로 자랄것입니다.》

석세방의 마지막 말은 회의참가자들의 머리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가부를 묻는 대목에 이르러 온 회의장이 만장일치로 입당을 찬성했으며 류호란이가 18살되는 해에 정당원으로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회의를 마감지으면서 구당서기는 말했다.

《류호란동무는 올해 불과 14살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나어린 동무를 당에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바로 류호란동무가 일찌기 모주석을 받들고 공산당을 옹호하여 항일투쟁에 뛰여들었으며 당에 무한히 충실하기때문입니다. 당의 계급정책과 로선을 받들어 집행하는 길에서 그 동무는 특출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류호란동무를 우리 당대오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대오는 더욱 순결해지고 우리 혁명투쟁은 보다 활기를 띨것입니다.》

1946년 6월 어느날 14살의 나어린 처녀 류호란은 운주서촌의 한 농가에서 정식 입당선서를 다졌다. 그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였다.

당의 품에 안겨 혁명의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온 자욱자욱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헤쳐갈 길을 그

려보는 그의 심장은 류달리 높뛰였다.

모주석의 초상화앞에 나선 그의 얼굴은 당기의 붉은 빛에 물들어 노을빛처럼 타올랐다.

《저는 모주석과 당을 지지옹호하며 당을 위해 헌신분투하겠습니다.》

《동무는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려설매가 엄숙히 물었다.

《시련도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난관앞에서 동요하지 않고 원쑤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며 당의 의지대로만 살며 선렬들의 발자취를 따라 숭고한 공산주의위업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호란은 자기의 한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조용히 소박한 농가에서 맞이하였다.

13. 로선투쟁의 전초선에서

대상진에서 쌓은 토지개혁경험에 기초해서 현당위원회의 지도와 포치밑에 모든 마을들에서는 토지개혁운동이 기운차게 벌어졌다. 현에서는 석세방과 려설매, 류호란을 운주서촌의 집행위원들로 임명하였다. 땅을 준다는 희소식은 따스한 봄바람마냥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들어 기쁨이 넘치였다.

농민들이 수수천년 고대하던 력사적인 그날이 마침내 왔다. 사람들마다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석세방이네들이 마을의 당지부에 의거하여 빈농단을 조직하고 대

대적으로 토지개혁정책을 선전하는 한편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적극 추동함으로써 온 마을이 생기에 넘쳐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새 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주놈들이 우릴 실컷 등쳐먹었지. 이번에 톡톡히 계산해야지.》

지주놈들은 며칠째 무서워 감히 문밖출입을 할념을 못했다. 뒤골방에 틀어박혀서는 어떻게 하면 간부들을 매수하고 복수의 예리한 창끝을 슬쩍 피할것인가만 전전긍긍하며 골머리를 썩이고있었다. 제일먼저 입에 오른것이 석오측이였다. 농사일보다는 놀음에 더 극성이고 공짜라면 백리길도 멀다 안하는 탐욕쟁이였던것이다.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 장사꿍꿍이를 한다고 한다. 항일전쟁시기에는 입으로 항일을 남달리 목청껏 웨친 덕에 마을간부로 선출되였으나 실지로는 량다리치기를 하면서 기회만 엿보던자였다.

지주 석정박은 서둘러 양고기를 한광주리 담아 야밤중에 석오측의 집에 보냈다. 물론 석오측이가 꿀꺽 삼켰을것은 뻔한 일이였다. 고기와 함께 돈 120웬도 뢰물로 섬겼다. 당시 마을의 중농인 조단과 몰래 화약장사를 하다가 120웬의 빚을 져서 끙끙 속앓이하던 그로서는 감지덕지스러운 《은혜》가 아닐수 없었다. 단아를 시켜 돈을 보낸 지주놈들의 속심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 석오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토지개혁투쟁의 드세찬 소용돌이속에서 그놈들을 건져줄 방도를 찾으려고 궁리를 짜냈다.

어느날 저녁 토지개혁집행소조는 빈농단위원들과 마을의 각 조직별 일군들로써 규모가 큰 회의를 열고 토

지개혁집행에서 나타난 우결함과 성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특히 이 투쟁에서 빈농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소조책임자 석세방은 그루를 박아 강조하였다. 회의분위기는 점차 투쟁목표와 대상, 군중동원문제를 놓고 열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타도대상이 누구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말들이 오고가며 의논들이 엇갈렸다.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한옆에서 대중의 의견을 말없이 듣고만 있던 호란이가 자기의 생각을 내비쳤다.

《뱀을 잡으려면 대가리를 치라고 했어요. 석정박, 석정옥놈들은 우리 마을의 뱀대가리예요. 모두가 그놈들을 미워하지요. 이놈들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토지개혁이 잘될수 없어요.》

《그거야 번대머리에 서캐 기여가듯 뻔한것이지요. 그런 놈들을 치지 않으면 누굴 치겠어요. 호란이말이 맞아요.》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윽윽하였다. 석오측은 돌부처같이 입을 꾹 다물고 줄담배질만 하였다. 말할 기회만 바싹노리던 때에 석정박, 석정옥놈들을 들이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그는 불에 덴 황소같이 화들짝 뛰여일어났다.

《지금 악화되는 형편으로 봐서는 군중들을 동원시키기가 힘듭니다. 조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우린 지주놈들과 단 한치도 타협할수 없습니다. 바로 형편이 악화되였기때문에 군중들을 발동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세방의 반박에 석오측은 말이 막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말머리를 돌려서 투쟁대상을 놓고 시비를 따졌다.

《옳습니다. 그 의견은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토지개혁을 하는겁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이지요. 석정박이가 물론 우리 마을의 대부호이기는 하나 또 그 집에 업혀사는 집들도 많지요. 가지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만큼 부담도 큰 법입니다. 또 조세도 줄이고 리자도 낮춰주다나니 이제는 허울만 남은 명색상 부자입니다. 쥐여짜야 나올게 없는자지요.》

별안간 그는 목청을 높이였다.

《타도하려면 먹을 알이 있는자를 타도해야지. 실례로 조단과 같은자는 불로소득이 엄청난자이지요. 돈이면 돈, 쌀이면 쌀, 땅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습니다. 그야말로 먼저 들이쳐야 할 뱀대가리지요.》

그의 궤변은 방안을 벌둥지같이 소란케 했다.

석오측의 속셈을 간파한 호란은 강심먹고 일어났다.

《그건 안됩니다. 투쟁대상은 석정박, 석정옥, 이 두 지주놈들입니다.》

석세방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석오측동무의 말은 원칙과 심히 탈선되였습니다. 모주석께서는 〈우리의 원쑤는 누구이고 우리의 벗은 누구인가. 이 문제는 혁명의 선차적인 문제이다.〉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우리는 모주석의 가르치심대로 벗들과는 단결하고 원쑤들과는 끝까지 무자비하게 싸워야 합니다. 중농은 우리들의 벗입니다. 절대로 중농들의 리익을 침해할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놈들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지주놈들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놈들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꽉 차있습니다. 그놈들과 결산을 해야 합니다. 당정책대로 지

주, 부농들만을 타도해야 합니다.》
려설매 역시 불끈 주먹을 쥐고 원칙을 주장했다. 이어 호란이 불같이 웨쳤다.
《우린 꼭 당에서 하라는대로 토지개혁을 해야 합니다. 조단아저씨는 부유중농이며 우리와 손을 잡아야 할 계층이예요. 우리 마을의 대지주놈들은 기름진 땅을 독차지하고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며 우릴 착취해왔습니다. 그놈들은 발바닥에 흙 한점 묻히지 않고 손바닥에 호미자루 한번 쥐여본적이 없이도 흰쌀밥에 고기국을 처먹고 비단옷을 걸치고 풍청거리고있습니다. 또 고리대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목숨끊게 했습니까. 땅뿐인가요? 물도 빼어가지고는 제멋대로 논물법이란걸 만들어내여 우리 논밭의 곡식들이 몽땅 말라죽게 하였습니다. 그놈들의 집에서 멸시당하는 머슴들을 보십시오. 류마아아저씨같은분은 석정박이를 위해 마소보다 더 혹사당해도 기껏해서 일년에 콩 일곱되밖에 받지 못합니다. 온 집안이 당장 굶어죽을 형편입니다. 그래 이런 놈들을 그냥 두어야 합니까? 이런 놈들을 동정해야 옳겠습니까?》
호란의 저주는 마디마디 불씨가 되여 듣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복수의 불길을 활활 지폈다. 너도나도 뒤질세라 일어선 사람들이 계급적립장이 애매한 석오측의 면전에 비판의 화살들을 날렸다.
얼굴이 컴컴하게 질린 석오측은 허연 눈자위만 희뜩희뜩하더니 입이 얼어붙은듯 아무 말도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란의 머리속에는 석오측에 대한 풀지 못할 의문이 엉켜돌았다.
(어째서 기를 쓰고 지주놈들을 비호했을가? 정말 투

쟁대상을 잘 몰랐을가?)

어디선가 민병대장 석윤이가 불쑥 나타나 호란에게 마주왔다.

《오늘 보니 석오측이가 심상치 않아. 한가지 생각되는게 있어서 알려주려고 기다리던중이다.》

석윤이는 호란에게 며칠전에 과부 단아네 집앞을 지날 때 안에서 석오측이가 과부와 무슨 돈소리를 하는걸 얼핏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보였다. 호란은 즉시 토지개혁집행소조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 정보의 정확성을 보다 깊이 확증하기 위해 군중속에 들어갔다.

아니나다를가 석오측이 조단과 장사를 하다가 돈을 백웬나마 빚졌다는 사실이 반영되였다. 조단에게 따져물으니 자기는 이미 그 돈을 받았다는것이였다. 석오측이가 이렇듯 많은 돈을 단번에 물어줄 능력이 없을텐데. 그러면 혹시 단아와 무슨 짝자꿍이를 한것이나 아닌지.

호란은 그달음에 단아를 찾아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따지고들었다. 호란의 야무진 자세앞에 단아는 기를 움츠리며 우물쭈물 얼버무리려 들었다. 하지만 종시 실토하고야말았다.

석오측의 더러운 뒤생활이 드디여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석세방과 려설매의 눈빛은 엄엄하게 번쩍이였다.

《호란동무, 동무가 옳았소. 이건 모주석의 로선을 지키는 싸움이요. 석오측과 같은 혁명의 불순분자들과는 양보없이 맞서야 하는거요.》

이로부터 며칠후 전마을적인 군중집회가 열리고 여기서 지주놈들을 단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회의

가 시작되자마자 석오측이 돌연히 태도를 바꾸어 언성을 높여 석지주놈들을 단죄했다.

지어 제가 직접 놈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까지 자청해나섰다. 그놈들이 제스스로 땅과 재산을 내놓게 할테니 비판이고 투쟁이고 번거롭게 떠들 필요가 없다고 덧붙여 제의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말에 머리들을 끄덕였다. 군중의 동요하는 심리를 예민하게 포착한 호란이는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평화적으로 토지개혁을 한다는것은 안될 말입니다. 무슨 속심으로 그러는거예요? 석정박이네를 두둔해서 뭘 얻자는거예요?》

석오측은 화가 동한듯 피대를 돋구었다.

《너…너 무슨 근거로 내가 그놈들을 싸고돈다고 함부로 입질이냐? 난 량심이…》

석오측을 쏘아보는 호란의 눈은 야멸차게 번쩍이였다.

《량심이 깨끗하다는거지요? 한가지 묻자요. 단아가 준 120웬의 돈은 어디서 난거예요?》

석오측의 낯색이 창백하게 질리였다. 그앞에서 호란은 석오측과 석정박놈사이에 오고간 검은돈의 내막을 말짱 공개했다.

대중의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앞에 겁을 집어먹은 석오측은 그래도 허세를 부리느라 씩씩거리더니 구정부에 신소하러 가겠다고 흰소릴 탕탕치며 꼬리를 사렸다. 지시를 받은 석윤이가 급히 석오측의 뒤를 따랐다.

석세방은 연단우에 올라서서 웨쳤다.

《토지개혁은 첨예하고 복잡한 계급투쟁입니다. 지주놈들은 별의별 너절한 수단을 다 써가며 발악하고있습니다.

류언비어, 매수책동, 파괴암해 등 못하는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각성을 바싹 높이고 절대로 놈들의 간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집회에서는 석정박, 석정옥놈들을 타도대상으로 점찍었다. 뒤이어 토지개혁집행소조는 당회의를 열고 토지개혁운동의 핵심들을 선발하는 문제와 지주놈들의 죄악을 더욱 널리 폭로하는 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결정을 짓고 이에 따라 분공을 조직했다. 류호란은 지주집 머슴인 류마아아저씨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류마아로 말하면 지주집의 상머슴군이였다. 그런것만큼 누구보다도 석정박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고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지주놈들의 가리워졌던 진모양을 적라라하게 드러낼수 있으며 보다 더 광범한 농민대중을 지주반대투쟁에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그러나 류아저씨는 어리석다 할 정도로 순박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여서 그의 입을 열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하루종일 걸려서 그의 입에서 들을수 있는 말은 다섯손가락안에 꼽을수 있는 정도였다.

류마아의 입에 제놈의 명줄이 달려있다는것을 잘 아는 지주놈은 제놈의 가긍한 신세를 장탄식하면서도 어쩔수없이 쌀 한마대를 몰래 보내왔다.

류마아는 소고집을 부리며 거절했다. 그러자 지주놈은 그의 귀에다 《토지개혁은 개꿈》이라느니, 《장개석과 염석산군대가 인차 쳐들어온다.》느니 하면서 역스러운 입김을 불어넣어 머슴의 마음을 불안에 젖게 하였다. 그래서 류호란이가 찾아가 토지개혁의의와 해방된 농민의 뒤바뀐 처지를 두고 아무리 설명해도 담배연기만 굴뚝같이 뿜어낼뿐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럴수록 류호

란의 속은 기름등잔의 심지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바위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저씨는 천상 입을 열 것 같지 않았다. 곰곰히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류아저씨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소경이였다. 석정박이가 손바닥만한 땅뙈기마저 빼앗다못해 류마아까지 머슴으로 끌어가려고 독기를 뿜어 어머니는 애태우던 나머지 눈이 멀었던것이다. 류호란이도 그 비극의 력사를 잘 알고있었다. 과연 그 말의 꼭지를 떼니 로인의 곪은 눈자위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끝끝내 류호란은 어머니를 설복시켜 함께 류마아와의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날밤 호란은 류마아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아저씨, 아저씬 석가놈밑에서 수십년세월 짓눌려살지 않았나요. 한해동안 내내 등이 굽도록 일해도 기껏 차례지는것은 콩 일곱되뿐이지요. 어머닌 억울하게 눈을 잃고 아들자식은 먹지 못해 앙상하게 여위였지요. 이게 다 개같은 지주놈의 탓이란 말이예요. 아저씨, 이제는 그 놈을 청산할 때가 왔어요. 뭘 겁나해요. 모주석이 지켜주시고 공산당이 이끄는데 그놈들과 가슴펴고 당당히 생사결단해야 해요. 계속 이렇게야 살수 없지 않아요.》

마아의 어머니도 한무릎 나앉았다.

《그래 얘야, 호란이 말이 옳다. 우린 지주놈과 싸워야 해. 그냥 두어선 안돼.》

그러면서 피눈물로 얼룩진 가정사를 한숨절반, 눈물절반 섞어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병어리같이 묵묵히 듣기만 하던 류마아의 눈귀에서도 진 같은것이 배여올랐다. 그는 와락 일어서더니 어금이를 으스러지게 깨물었다.

《그래, 호란아. 네 말이 옳다. 내 석가놈과 회계를 할테다. 가슴에 서린 원한을 후련하게 씻어낼테다.》

성토대회가 열리는 날 류마아는 제일선참으로 연단에 올라 석정박의 죄악에 찬 력사를 낱낱이 까밝히고 자기를 얼리려고 놈이 보내왔던 쌀마대를 그놈의 면상에 내동댕이쳤다. 뒤이어 여러 농민들도 연단에 뛰여올라 인두겁을 쓴 짐승같은 놈이 저지른 죄상을 치를 떨며 폭로하였다.

방금전까지도 뻐젓이 틀을 차리던 지주놈은 나중에는 서리맞은 부추같이 후줄근해져서 낯짝을 쳐들지 못하였다.

지주놈들을 타도하고 땅과 곡식을 분여받은 운주서촌마을사람들은 천년동안 묵었던 설분을 속시원히 씻어낸것으로 하여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그들의 전선지원열의는 하늘을 찌를듯싶었다.

한편 현당위원회에서는 석오측의 지난 기간 불건전한 생활을 검열하고나서 그의 당적을 제거하고 당원증을 회수하였으며 농민협회비서직도 박탈하였다.

14. 적후에서의 투쟁

황금이삭이 설레이는 가을, 수확의 계절이 왔다. 가을에 들어서서 염석산은 평원지대에서 활동하던 해방군의 일부 부대들이 다른 지역으로 작전지를 옮긴것을 기회로 또다시 문수현에 대한 소탕작전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현경내에 침입한 제72사의 3개 련대는 현의 서쪽과 서북지역을 장악하여 평원과 려량산근거지사이에 쐐기

를 치려고 하였다. 평원일대의 마을들은 련이어 놈들의 수중에 장악되였으며 이를 기회로 마을에 숨어있던 반동들이 때를 만났다고 정체를 꺼리낌없이 드러냈다. 움츠러들었던 계급적원쑤들과 청산되여 도망쳤던 악질지주들이 겨끔내기로 《황향단》, 《복수대》를 뭇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체포, 학살, 고문강박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쌀을 뒤져내느라 눈에 피발이 섰다. 형세는 나날이 험악해지기만 했다.

문수현당위원회는 당면한 정세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현급, 구급, 촌급기관들에서 대오를 정돈하며 투쟁경험이 풍부한 동지들로 적후무장공작대를 조직할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젊고 유능한 동지들은 적후에 남아 지하투쟁을 벌리며 로출된 간부들은 려량산근거지로 옮기도록 대책을 취하였다.

뒤따라 구당위원회에서도 확대집행회의를 열고 상급당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내용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분공을 조직했다.

구당서기는 받은 임무와 조성된 정세를 자세히 렬거한 후 저력있게 언명했다.

《모주석께서는 〈자위전으로 장개석의 진공을 분쇄하자.〉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적후공작대동지들은 반드시 군중에게 의거하며 무장투쟁을 과감히 벌려 놈들을 호되게 족쳐야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호란은 려설매와 어깨나란히 동구길을 걸었다.

《호란이, 앞으로의 형세가 심상치 않구나. 투쟁은 더

욱더 간고해질거고, 그래서 구당에서는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린것을 고려해서 려량산으로 보내기로 했단다. 석세방동지도 앓는 몸이니 산으로 간단다.》

이 말을 들으며 호란은 생각을 깊이 해나갔다.

(날 산으로 피신시키는것은 당의 뜨거운 배려이고 관심이다. 그러나 나는 당원이다. 가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이 당원이 아닌가. 게다가 난 여기서 태여나 자랐으니 누구보다도 여기 형편을 손금보듯 하지 않는가.

그러니 내가 적임자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른 그는 나직이 말했다.

《언니, 난 여기에 남겠다고 조직에 제기할래요.》

《조직에서는 이미 결정했다. 산에 가거라. 산에서 싸우는것도 혁명투쟁이야.》

《언니, 언닌 늘 혁명가라면 폭풍을 맞받아나가야 한다고 했지요. 지금 폭풍이 닥쳐오고있어요. 난 당원이예요. 나는 이 폭풍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겠어요. 어렵고 위험한 시기일수록 자진해서 임무를 받아안고 당과 인민을 위해서 한목숨 바치는 사람이 진짜 공산당원이지요. 그리고 대다수 간부동지들이 산에 가는 이상 여기에는 그만큼 지도력량이 약해질게 아니나요. 내가 남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지 않을가요.》

호란의 얼굴에 강의한 의지가 엄숙히 비껴있었다.

《호란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간고해질게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내겠어요. 남아야 할 적임자는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조직에 제기하겠어요.》

려설매는 가슴이 뭉클해왔다. 젊은 신입당원이 자신

의 신변안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임무를 스스로 맡아안는 그 정신이야말로 얼마나 고상하고 소중한것인가. 려설매는 호란이의 작은 두손을 꼭 감싸쥐였다.

《호란아, 너의 심정을 조직에 반영하겠다.》

그날 구당위원회에서는 신입당원의 요구를 심중히 받아들이고 의논에 붙였다.

모두가 류호란의 대담성과 기지, 단호한 결심과 혁명에 대한 일편단심을 잘 알고있었다. 조직에서는 또한 류호란이가 갓 입당한것만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으며 또 적들도 나이어린 호란이에게는 그다지 주의를 돌리지 않으리라고 타산했다.

그밖에 구당을 대표하여 녀성일군으로서는 려설매가 혼자 남는것만큼 그를 도와줄 방조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견해가 일치하여 충분한 의논과 론의끝에 호란을 적후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려설매를 통하여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호란은 밝게 웃었다.

《언니, 우리 함께 있게 됐으니 참 좋아요. 이제 놈들과 본때있게 싸워보자요.》

어느날 현당서기가 호란이를 직접 찾아와 만났다.

《호란동무, 적후투쟁은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요. 예견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칠수도 있소. 그럴수록 당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며 그보다 더 힘겨운 난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오. 우리 모주석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바치는 희생은 큰산보다 더 무겁다.〉라고 가르쳐주시였소. 우린 죽음을 두려워말며 언제든지 인민의 리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를 하고있어야 하오.

동시에 혁명가는 용감할뿐아니라 조직과 동지들을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할줄 알아야 하며 끝까지 싸워서 이길줄 알아야 하오. 우린 동무가 모주석의 말씀대로 굳세게 싸워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소.》

모주석의 말씀을 다시한번 한자 또 한자 음미해보는 호란의 마음속에는 철벽같은 배심이 든든히 자리잡았다.

《당조직에서 준 임무를 꼭 수행하겠습니다.》

병이 위독한 석세방도 담가에 실려 려량산으로 오르기 앞서 호란에게 신신당부하였다.

《호란아, 정황이 복잡할수록 마음속엔 언제나 당과 인민이 있어야 하고 눈은 놈들을 예리하게 주시해야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정황에 처한대도 실수가 없을게다.》

그밖에도 조직에서는 후날 있을수 있는 뜻밖의 후과를 예견하여 석오측도 역시 산으로 데리고가기로 하였다.

당의 각별한 보살핌을 받고보니 호란은 맡은 임무로 하여 마음이 류달리 무거웠다.

그럴수록 맡은 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수행하여 당과 대중의 기대에 만족하게 보답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11월에 접어들어 형편은 급격히 긴장해졌다.

몇십만의 병력을 긁어모은 장개석은 연안을 공격하려 꾀했다. 진중대평원일대에서 싸우던 해방군주력부대는 연안을 보위하기 위해서 재빨리 진서지대로 작전지역을 옮겼다.

그러자 염석산은 쾌재를 올리며 5개 사단의 무력을 진중대평원지역에 급파하여 홍수식소탕작전을 벌렸다.

단숨에 해방구를 쓸어버릴 셈판이였다.

대상진에도 놈들이 들이닥쳤다.

놈들틈에 끼여 마을에 기여든 악질지주 려덕방놈은 《복수대》라는걸 뭇고 마을사람들에게 미친개같이 달려들어 분풀이를 하였다.

류호란은 려설매와 함께 낮에는 마을들을 돌며 사업을 포치하고 군중을 동원하는 한편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소개시키였으며 밤에는 무장공작대와 함께 놈들의 소굴을 습격하여 배후를 소란케 했다. 놈들은 발편잠을 잘수 없었다.

설대목에 이르러 장개석이가 연안을 침범하려 한다는 소문이 류호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연안은 당중앙과 모주석이 계시여 전중국을 이끌고계시는 혁명의 성지이다. 놈들의 기도를 파탄시켜야 한다.)

지리적으로 볼 때 평원은 려량산과 잇닿아있고 려량산은 연안과 통해있었다. 그러니 평원은 연안으로 가는 요충지였으며 급소중의 하나였다. 바로 여기에서 투쟁의 불길을 더더욱 세차게 지피리라.

호란은 속다짐했다.

《설매언니, 장개석이가 연안을 공격하려고 한대요. 그까짓놈들 마가을의 메뚜기신세지요 뭐. 연안에는 모주석이 계시니 개놈들은 틀림없이 만신창이 될거예요. 우리들도 적후투쟁을 잘해서 연안을 지키자요.》

흥분된 호란의 말은 격정으로 떨리기까지 하였다.

《호란아, 모주석의 령도를 받는 연안군민은 단결하여 놈들의 기도를 풍지박산낼게다. 우리들도 용감히 싸워 이기자.》

이렇게 격려하는 려설매의 눈빛은 신심으로 빛났다.

어느날 밤 국민당군대는 마을에 남아있던 공산당간부를

붙잡으려고 남백가장을 포위하였다. 즉시 려설매와 류호란은 무장공작대와 함께 그를 구원하기 위해 마을에 침투하였다.

그런데 그 간부를 빼내고 포위를 뚫던 과정에 그만 놈들의 추격을 당하여 호란은 부득불 설매와 헤여지게 되였다.

검질긴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류호란은 어느 묘지뒤에 숨어서 려설매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오는것이 보이지 않았다.

보매 여기서 가량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운주서촌으로 가서 그곳 형편을 알아본 다음에 결심하는게 더 나을상싶었다.

문득 그는 동보촌부국회비서의 집에 당문건들을 보관한일이 생각키웠다. 어서 가서 문건들을 소각해버려야 하였다.

호란은 종달음쳐 동보촌에 이르렀다.

《지금 형편은 몹시 위급합니다. 놈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당조직을 파괴하고 당의 비밀을 내탐하고있습니다. 당의 문건은 당내비밀이니 하늘이 무너져도 놈들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그걸 태워버립시다.》

《나도 같은 생각이예요. 빨리 소각하자요.》

15. 개촌장을 처단하다

대상진에 둥지를 튼 놈들은 살기찬 눈으로 운주서촌을 노려보고있었다. 놈들은 이 마을을 《개척구역》으로 정하고 걸핏하면 달려들어 량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붙

잡아가군 했다.

어느날 대상진의 《복수대》대장 려덕방놈은 졸개들을 거느리고 불쑥 운주서촌에 나타나 억지다짐으로 사람들을 모아다놓고 석아무개라는 놈을 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날부터 마을에서는 새 촌장을 가리켜 《개촌장》이라고 욕질했다.)

이놈은 원래 건달군으로서 왜놈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다니였고 왜놈이 망하자 꽁지빳빳하게 도망치더니 지금은 국민당반동놈들에게 붙어서 꼬리를 치였다. 하루아침에 촌장으로 둔갑하여 턱없이 기고만장해진 놈은 군중앞에서 잡종개같이 으르렁거리며 허세를 부리더니 문득 그 누군가의 얼굴에서 음흉한 눈길을 멈추었다. 눈에 걸려든자는 석오측이였다. 산에 올라갔던 그는 간고한 근거지생활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도적고양이처럼 빼소니쳐왔던것이다.

석오측은 촌장놈의 살기띤 눈길과 마주치자 흠칫 목을 움츠렸다.

그러나 촌장놈은 석오측이 아니라 백발이 성성한 로인의 목덜미를 틀어잡아 끌어내였다.

《령감, 너의 조카 진만생이가 구장이였지? 당장 그놈을 내놔. 》

일흔이 넘은 로인은 숯불마냥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놈들을 쏘아보았다. 이에 악받친 려덕방놈은 로인의 집지붕에 불을 질렀다.

개촌장은 늘쌍 대상진에 있는 적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량과 세금을 악착스레 긁어모아 섬겨바쳤다. 더욱 가증스러운 짙은 류호란을 비롯한 마을간부들의 행처를 냄새맡으려고 주린 개같이 사방 돌아치는것이였다.

호란의 집만 해도 진저리날 정도로 수색을 당하군 했다. 모두들 그자의 치졸한짓에 격분을 누르지 못하며 무장공작대가 그런 놈을 속히 다스려주기만을 한결같이 원했다.

류호란이가 운주서촌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저저마다 잠자리를 권하였고 석삼홰와 석륙아는 개촌장의 용서못할 죄행과 군중의 사무친 원한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호란이도 물론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지금 형편에서 제일 위험한자는 촌장놈이예요. 이놈을 처리하면 놈들의 눈귀를 멀게 할수 있고 또 군중을 더 힘있게 발동할수 있으리라고 봐요.》

호란의 견해에 모두가 찬동했다. 호란은 즉시 토론된 내용을 써서 구당위원회에 보냈다. 편지에는 또한 개촌장과 밀려다니는 석오측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해서도 보고되였다.

12월 21일 저녁, 서북풍이 불어오는 하늘에서는 눈송이들이 펑펑 쏟아지고있었다.

이날 진구장이 직접 무장공작대를 이끌고 산을 내려 류호란을 찾아왔다.

《동무들의 제의를 현에 보고했더니 인차 승인받았소. 오늘밤 그놈을 제껴버립시다.》

《그놈은 우리들의 눈에 든 가시나 같습니다. 마을의 재앙을 하나 덜어버립시다.》

호란이도 심정이 자못 격동되였다. 이어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처단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동지들이 행동하는 동안 전 동구밖에서 망을 보겠습니다.》

《혼자서 말이요? 한 동무를 남겨놓겠으니 같이 행동하시오.》
《아니, 혼자서 해야 오히려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석삼홰는 이미 작정한 방안대로 대원들을 뒤에 달고 개촌장의 집담장을 뛰여넘어 들어갔다.
구들에 제빠듬히 자빠져 담배질하던 개촌장놈은 바깥의 인기척소리에 와뜰 놀라 소리쳐 물었다.
《누구냐?》
《누구냐구? 진구장이 왔다. 네놈이 그를 보고싶어 한다면서?》
말이 끝나기 바쁘게 두명의 공작대원들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놈의 배허벅에 총구를 들이댔다.
얼이 나간 놈의 상판은 백지장보다 더 창백했다.
《이건… 이건…》
《우리 구장동지가 널 부르신다.》
얼떠름해진 촌장놈은 감히 엇서지 못하고 와들와들 떨기만 하였다.
마을동뚝앞에 이르니 기다리고있던 진구장이 놈의 앞으로 마주왔다. 개촌장은 허리등이 늘어지도록 굽신거리면서 아양을 떨었다.
《구장동지, 저에게 무슨 분부하실것이 있으면…》
진구장은 표표한 표정으로 선포했다.
《문수현인민정부의 이름으로 염석산의 악질주구를 사형한다.》
사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놈은 낯색을 잃고 털썩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개촌장을 처단한 후 진구장은 류호란으로부터 해놓은 사업정형을 보고받았다.

《호란동무가 일을 잘했소. 요즘 퍽 힘들었지?》

구장은 대견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어 그는 나날이 호전되는 전국의 정세와 인민해방군이 장개석과 염석산군벌들의 기를 꺾어놓은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호란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당장 마을사람들모두가 이 소식을 알게 하고싶었다.

《그러나 놈들은 멸망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발악하고있소. 이제 보다 더 준엄한 시기가 닥쳐올거요. 특별히 주의하시오. 일이 생기면 다시 오겠소.》

호란은 신심에 충만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국혁명이 승리하기만 한다면야 이까짓게 무슨 시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마을의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서 수군수군거리였다.

《인민정부가 개촌장놈을 처단했대요.》

모두가 흥에 겨워 활기띠는 모습을 보며 호란이도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그는 집집마다 마실돌이를 하는척 하면서 놈들의 의심을 피하는 한편 모주석의 사상과 해방군의 승전소식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암흑속에 잠겼던 마을은 희망넘친 가슴을 쭉 펴고 활기를 되찾고 다가오는 려명을 준비있게 맞이하고있었다.

16. 불굴의 의지, 영웅적인 희생

개촌장의 죽음은 적들에게 가해진 또하나의 급소타격이였다.

놈들은 복수를 한다고 행악질하면서 수시로 운주서촌에 달려들어 수색을 하고 략탈소동을 벌려놓군 하였다.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형편속에서 1947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다.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민이 단결하여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보냈다.

해방군은 모주석의 전략적방침에 따라 적강점지역들에 대한 일대 공격작전의 강철포문을 열었다.

적들은 사처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련속 당했다.

평원일대에 몰켜든 적들은 어떻게 하나 발붙일 한쪼박 땅뙈기라도 기어이 고수하려는 발악속에 이 일대에 수천개의 화점을 만들어놓고 제법 기세등등해하였다.

한편으로는 《자백전향》이라는 놀음도 벌려놓았다.

목적은 마을의 당원들과 간부들을 위협공갈하여 스스로 전향하게 하자는것이였다.

《자백하지 않는자는 때려죽이며 자백이 깨끗치 못한자도 때려죽이며 허튼 자백을 하는자 역시 때려죽인다.》

위협과 테로, 공포로써 인민들을 굴복시키고 제놈들의 가련한 잔명을 끝까지 부지해보려는 놈들의 발광은 극

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피비린내나는 백색테로속에서도 문수현의 군중은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무장공작대를 도와 그들이 놈들의 삼엄한 경계진을 뚫고 소굴 깊숙이 들어와 맵짠 타격을 들이대도록 적극 협력하였다.

1947년 1월 8일 어뜩새벽, 대상진에 둥지를 틀고있던 염석산반동군벌 제1대대 특파원 장전보, 제2련대 련대장 허덕승, 《복수대》대장 려덕방은 몇십놈의 졸개들을 휘동하여 불의에 운주서촌을 덮치였다.

석정박놈이 스스로 앞장에서 날치며 석삼홰, 석륙아 등 여러명의 핵심농민들을 고해바쳤다.

호란의 아버지는 근심과 불안으로 가슴조이며 딸에게 권고했다.

《호란아, 몸을 피해라, 어서.》

《넌 여기에 있으면 안돼, 어서 산으로 가거라.》

곁에서 어머니 역시 초조한 심정을 감추지 못해했다.

그러나 호란은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맡은 임무를 내던지고 제멋대로 산에 갈수 없어요. 산에 가는 문제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야 해요. 그러기 전에는 떠날수 없어요.》

부모들은 추호의 흔들림없는 딸애의 굳건한 자세앞에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놈들이 석오측까지도 잡아가두었다는 사실앞에 호란의 경각성은 더욱 예리하게 벼리여졌다.

그는 비밀리에 부국회간부들 및 핵심열성자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다섯명의 동지들을 잡아가둔 놈들은 또다시 우릴 잡

으려고 날뛸것입니다. 만일 체포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동지들을 배반해서는 안되며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지키고 조직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린 동지를 팔아먹는 그따위 너절한 놈이 되지 않겠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호란의 신변안전을 두고 자기 일같이 걱정했다.

《석오측 그놈이 동무를 밀고할지도 모르니 각별히 조심해야겠소.》

이에 대해서 호란이도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석삼홰와 석륙아동지들은 견결한 혁명가들이여서 변절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런데 석오측이만은 믿음이 가질 않았다.

아니나다를가 가증스러운 이자는 제놈의 더러운 명줄을 잇자고 류호란과 석삼홰네들에 대해서 아는껏 깡그리 밀고해바친 혁명의 변절자로, 인간추물로 전락되였다.

이놈의 고발에 근거한 대살륙음모가 쥐도새도 모르게 꾸며지고있었다.

1월 11일 저녁무렵, 진구장이 20여명의 무장공작대성원들을 이끌고 운주서촌으로 내려왔다.

류호란을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진동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저는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호란의 첫 대답부터가 거절이였다.

《호란동무, 고집쓰지 마오. 지금의 형편에서 동무는 산으로 가야 하오. 이건 조직의 지시요.》

진구장 역시 쉽게 물러설 자세가 아니였다.

동지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원하자는것이 그의 절절한 심정이였다.

얼마간 생각을 굴리던 류호란은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지금 진행하고있는 사업을 다시 조직해야 합니다.》

진구장은 간단명료하게 지시하였다.

《오늘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나서 래일 아침에 북제촌에 련락원을 보내겠소. 동무는 거기서 꼭 우릴 기다리시오. 단단히 명심하오. 래일 아침이요.》

호란은 깊은 생각에 잠겨 그들에게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다음날 1월 12일 새벽 동녘하늘이 희붐히 밝아오는무렵 호란은 덧옷을 깨끗이 손질하며 산에 갈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옆에서 어머니가 거들어주었다.

산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에게 맛보이려고 호란은 먹음직스럽게 살진 대추들을 알알이 골라 따로 내놓았다.

준비가 다 끝나자 호란은 소랭이에 담겨진 부모들의 옷가지들을 보고 제잡담 소매를 걷어올렸다.

걸싸게 빨래를 해제끼는 호란의 가슴은 눈앞에 다가오는 새 생활에 대한 희망과 동경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이제 나는 집을 떠나 머나먼 려량산으로 가게 된다. 거기에는 보고싶은 동지들과 당조직이 있다. 그리운 동지들과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쁠가. 앞으로는 함께 일하고 배우고 싸우고 려량산에서부터 분하강변까지, 그다음에는 온 중국을 다니면서 장개석과 염석산무리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소탕해버릴테야.)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른 그는 입속으로 《려량대합창》을 불렀다.

려량이여 웅장한 려량산이여
조국의 무수한 아들딸들이
복수의 총창을 높이 들었다
힘차게 울려가는 투쟁의 노래소리여
해방의 기치는 세차게 펄럭인다
… … …

바로 이 시각 이미 백여놈의 적들이 운주서촌의 매 골목들을 빠짐없이 차단하고 동뚝에는 보초를 세워놓았다.

마을은 물샐틈없이 포위되였다. 변절자 석오측이가 놈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마을에 기신기신 기여들었다.

조직성원들이 황급히 신호를 보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징소리가 온 마을을 소란케 하더니 절간심부름군이 목청을 지르며 놈들의 명령을 전했다.

《모두들 절간에 모이시오. 집에는 한명만 남겨두시오. 두명인 경우 공산당과 내통하는자로 보고 처형합니다.》

뜻밖에 처한 위기일발의 정황속에서 순간적으로 긴장해진 호란은 손에 묻은 물방울을 털어버리고 침착히 뜨락문으로 다가갔다.

눈에 띄우는것이 온통 국민당군대와 《복수대》놈들이였다.

마을사람들이 절간으로 내몰리고있었다.

어머니가 헤덤비며 말했다.

《호란아, 김충언니네 집에 가있어라. 그 언니가 요 며칠전에 몸을 풀었단다. 놈들이 물으면 시중드느라고 남았다고 하렴.》

호란은 어머니의 말을 좇아 김충언니의 집으로 달려

갔다. 들어가보니 그 집의 외조카딸애가 이미 산모를 돌보고있었다.
김충은 호란을 보자마자 즉시 사정을 짐작했다.
《어서 와요. 여기에 있으세요.》
이때 또 련이어 네명의 녀성들이 같은 생각으로 이 집에 들어섰다.
마을길우에 징소리가 세번째로 울리였다.
총각애가 허둥지둥 달려와 놈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돼! 사람이 너무 많거든. 만일 놈들이 오면 어른들은 물론이고 갓 태여난 애기까지도 화를 입을수 있어. 나때문에 애매한 사람들까지 욕보이게 할수는 없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호란은 강보에 싸인 애기와 긴장해진 산모의 얼굴을 보며 결연히 말했다.
《난 가겠어요.》
《가면 안돼.》
모두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일없어요. 다른데 가보겠어요.》
태연하게 이 말을 남긴 호란은 문밖을 나섰다.
놈들은 집집을 빗질하듯이 뒤지며 사람들을 무작정 체포하였다.
미처 피하지 못한 조직원들이 하나둘 붙잡히여 절간앞마당으로 끌려왔다.
그들속에는 진구장의 아버지 진수영, 빈농단위원 류수산, 석세방의 형 석세휘도 있었다.
놈들의 죄행을 지켜보는 호란의 가슴속에서는 치솟는 적

개심이 용암처럼 고패쳤다.

그 역시 군중속에 섞여 절간으로 갔다. 앞뜰은 끌려온 군중들로 가득히 붐비였다.

마을사람들을 빙 에워싼 놈들은 남녀별로 갈라놓고 이미 작성해놓은 명단에 근거해서 조직성원들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녀자들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그 누구인가를 그악하게 찾기 시작했다.

호란의 어머니는 간담이 한줌만 하게 가드라들었다.

분명 딸애를 찾고있는 꼴이였다.

누구도 옴짝달싹할수 없는 형편에서 어머니는 속만 바작바작 태울뿐이였다.

이때 누군가가 뒤에서 옷자락을 살며시 당기였다.

뒤돌아본 어머니는 그만 아연실색하였다.

《호란아, 너… 너 왜 왔니?》

호란은 평온한 표정으로 어머니뒤에 웃음지으며 서있었다.

안개마냥 사람들의 머리우를 내리덮은 무거운 침묵속에 일촉즉발의 《시한탄》이 폭발의 시각을 숨가쁘게 예고해주고있었다.

《복수대》의 한 놈팽이가 호란의 곁에 다가와섰다.

《류호란!》

《왜 그래?》

호란은 놈을 마주 쏘아보았다.

《왜 그러느냐구?》

놈의 상판이 보기 흉하게 이그러졌다.

《이제 우리 특파원나으리가 묻는 말에 공손히 대답해.

안그러면 죽여버릴테다.》

호란은 경멸의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잔혹한 시련의 시각이 눈앞에 박두하고있음을 똑똑히 감촉하고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또한 자기를 정겹게 바라보시던 모주석의 자애로운 눈길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모주석이여! 저는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놈들에게 죽어도 무릎꿇지 않겠습니다.)

또 눈앞에는 먼저 곁을 떠난 희생된 렬사들의 영웅적인 모습들이 생생히 다가들었다.

(저도 동지들처럼 놈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모주석의 말씀, 동지들의 당부, 입당선서의 구절들, 이 모든것이 호란의 귀가에 쟁쟁히 울렸다.

호란은 주머니에서 눈같이 흰 손수건을 소중히 꺼내들었다.

그속에는 모주석의 사진이 정중히 모시여져있었다.

정결한 수건은 마치도 호란의 티없는 마음인듯싶었다.

절대로 놈들의 손에 더럽혀져서는 안될 신성한것이였다.

호란은 또 주머니에서 청량제곽을 꺼냈다.

이것은 토지개혁투쟁을 벌리던 당시 밤을 새우며 일하는 호란의 건강이 념려되여 석세방아저씨가 보내준것이였다.

지금은 빈통으로 남아있지만 그속에는 혁명선배들의 당부와 사랑이 가득 담겨져있었다.

이것 역시 놈들의 손에 빼앗겨서는 안될 보배였다.

호란은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았다.

그것은 할머니가 운명을 앞두고 호란이에게 넘겨준 유

물이였다.

반지를 볼 때마다 늘쌍 걱정이 자심하던 할머니를 그려보게 되였고 할머니가 그리우면 그 반지를 보군 하던 호란이였다.

호란은 한시도 몸에서 놓은적 없는 이 세가지를 어머니에게 묵묵히 넘겨주었다.

그는 이미 놈들과의 사생결단을 각오하고있었던것이다.

모두가 눈을 깜박이는것조차 잊은듯이 호란이를 지켜보았다.

호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의 작은 눈동자도 우려와 불안에 잠겨 떨고있었다.

이때 호란에게 코를 떼웠던 놈이 여러명의 졸개들을 끌고와서 호란이에게 나오라고 꽥꽥 소리쳤다.

녀인들이 호란을 에워쌌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호란을 가리웠다.

누구도 다가들지 못하게 하려는 심정들이였다.

사람들속에서 욕설들이 총알처럼 튀여나왔다.

《왜 함부로 잡아가느냐?》

군중의 분노에 기가 질린 놈들은 총들을 부산스레 뽑아들고 으르렁댔다.

《반란이냐? 움직이면 쏴죽일테다.》

놈들은 군중의 가슴팍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나때문에 마을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호란은 사람들의 담장을 헤치고 우뚝 나섰다.

《나갈테니 비켜라, 이놈들아.》

그의 추상같은 웨침에 놈들은 기가 질렸다.

머리를 도고히 높이 쳐든 호란은 놈들의 속을 꿰질러 절

간본채앞으로 다가갔다.

격노한 군중의 고함이 뒤따라 일어났고 총칼로 위협하는 악에 받친 소리들로 절간 앞마당은 버쩍 소란스러워졌다.

절간서쪽 행랑채에서 특파원이라는자가 수염투성의 흉물스러운 낯짝을 앞으로 쑥 내밀고 호란을 맞이하였다.

《네가 류호란이냐?》

《그렇다.》

호란의 불뿜는듯한 눈동자앞에 놈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몸이 으시시 떨렸다.

《좋아, 좋아. 난 너같은 직통배기들을 좋아해. 그래 마을의 촌장을 누가 죽였지?》

《몰라!》

《요즘 어떤 놈들이 마을에 왔댔어?》

《몰라!》

놈은 울컥 성이 뻗쳐 소리쳤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모른다.》

호란의 목소리는 그놈의 고함소리를 짓눌렀다.

그러자 특파원놈은 어쩌면 좋을지 몰라 실없이 허파빈 웃음소리를 냈다.

뻣뻣하게 심문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놈은 방법을 바꾸어 설복을 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주절거리는 수작질에 호란은 역겨운듯 머리를 돌리고 일언반구도 없었다.

놈의 사설질이 즘즘해지자 호란은 야멸차게 쏘아붙였다.

《그따위 잔꾀는 통하지 않아. 투항하라구? 흥!》

그러자 놈은 생각외로 징그럽게 웃으며 제법 호인다

운 틀을 차리였다.

《허허, 입을 열지 않겠다? 어떤 사람이 널 공산당원이라고 불었는데도 몰라?》

이 말에 호란은 자기가 밀고당했다는것을 알았다.

《그래, 공산당원이다!》

《또 누가 당원이지?》

《나 혼자다!》

《그럼 구에는 몇놈이나 있었어?》

《나 혼자다!》

놈의 눈망울이 교활하게 디룩거렸다.

《그럴리가 있나. 이렇게 큰 구에 네년 하나뿐이라구? 흐흐흐, 네가 말을 안해도 난 다 알고있어. 뻗대야 괜한짓이야.》

《그럼 왜 물어보는거냐?》

놈은 기가 차다는듯 혀를 쯧쯧 찼다.

《요즘에 해방군을 위해 뭘 했지?》

《도울수 있는것은 다 도왔다.》

호란의 시종일관한 완강성앞에 놈의 숨결도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놈은 다시 어조를 누잦히고 얼리듯이 말했다.

《자백은 곧 너자신을 구원하는거야. 자백만 해라. 그럼 널 살려주고 땅까지 주지 않으리.》

그때 호란의 여돌진 대답이 놈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황금덩이를 준대도 난 자백따윈 안해.》

놈은 그제야 본성을 드러내고 책상을 쾅쾅 두드리였다.

《이 쥐방울같은 년이 입은 꽤나 뾰족한데. 죽는게 무섭지 않아?》

《공산당원은 죽음을 두려워 안해.》
《네년은 나이가 아깝지도 않느냐?》
《죽일테면 죽여라. 목을 치겠으면 쳐라. 그러나 공산당원들을 다 죽일수 없고 혁명가들을 다 없애지 못해.》
나어린 녀당원앞에서 이 털보놈은 완전히 피동에 몰리웠다.
만문하게 보았던 처녀애가 이렇듯 차돌같이 단단하고 장검같이 예리할줄은 예상밖이였다.
놈은 하반신마비라도 온듯 걸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미전부터 이 망신스러운 모양을 뒤에서 마뜩지 않게 지켜보고있던 련대장 허덕승놈이 스적스적 다가와 죽이자는 손짓을 하였다.
털보는 탈을 홱 바꾸고 거의 애걸하다싶이 소리를 낮추었다.
《좋아. 널 더 괴롭히지는 않겠다. 그저 마을놈들한테 앞으로는 공산당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널 놓아주겠다.》
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호란은 그 즉시 단호하게 반박했다.
《개수작은 그만둬!》
놈은 정신병자처럼 길길이 뛰고 책상을 내리치며 게걸스레 고아댔다.
《끌어내서 모가지를 잘라버려.》
졸개들이 우르르 달라붙어 나어린 처녀애를 우직하게 결박하기 시작했다.
호란은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조소의 눈길을 개무리같이 덤벼든 놈들에게 던졌다.

그리고는 가슴을 쭉 펴고 창공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사형장으로 걸음을 크게 내짚었다.

형장은 공포의 분위기속에 숨막힐듯이 꽉 짓눌리워져있었다. 총을 비껴든 놈들이 살기를 풍기며 형장을 빽빽히 둘러쌌다.

조금 떨어진 곳에 놈들의 기관총들이 두다리를 쩍 벌리고 시꺼먼 아가리를 군중들의 머리우로 향하고있었다.

바줄에 얽매인 6명의 사람들이 형장에 나섰다.

석삼쾌, 석룩아, 장연성, 석세휘, 진수영, 류수산들이였다.

수십개의 버드나무몽둥이가 한옆에 무져있었다.

다른 한옆 절간대돌우에는 여러개의 작두가 음침하게 누워있었다.

호란은 꿋꿋한 자세로 작두앞에 다가갔다. 작두로부터 불과 여라문발자욱앞에서 그는 발을 멈추었다.

련대장놈이 류호란과 석삼쾌네들을 가리키며 군중에게 거만한 말투로 물었다.

《이것들이 좋은 놈들이냐? 나쁜 놈들이냐?》

《좋은 사람들이요. 죽이면 안되오.》

이구동성으로 웨치는 소리에 하늘땅이 움씰거리는듯싶었다.

당황망조해진 놈들은 제풀에 겁에 질려 기관총으로 군중을 조준했다.

차츰차츰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변절자놈들이 줄레줄레 나서서 손마다에 몽둥이와 작두날을 제각기 잡아들었다.

그중에는 석오측이도 가담했다.

석삼쾌가 제일먼저 끌려나갔다.

놈들의 야수같은 고문으로 하여 그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여서 알아볼수 없었다. 그러나 두눈에서 내뿜기는 불줄기는 누구나 다 볼수 있었다.

불굴의 의지앞에 주눅이 든 석오측놈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때려라! 때려죽여!》

이 말을 들은 석삼홰는 맞구멍낼듯이 변절자놈을 노려보았다.

겁이 덜컥 난 석가놈은 몽둥이를 휘둘러 석삼홰의 귀뿌리를 드세게 후려쳤다.

타격에 비칠거리기는 했으나 석삼홰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허리를 꿋꿋이 펴고 놈을 쏘아보았다.

석가놈은 더욱 악심먹고 있는 힘껏 내리쳤다.

석삼홰는 끝내 쓰러지고말았다.

놈들은 피에 젖은 그의 목을 시퍼런 작두날밑에 들이밀었다.

그는 이렇게 장렬하게 생을 마쳤다.

석륙아도 희생되기 앞서 기개높이 웨쳤다.

《염석산을 타도하자! 반동파를 타도하자!》

누구라 할것없이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입술을 피나게 깨물면서 머리를 숙이였다.

뒤이어 석세휘, 장연성, 진수영, 류수산동지들이 차례로 참혹하게 학살되였다.

작두날에서는 동지들의 붉은피가 뚝뚝 떨어지고있었다.

호란의 심장은 비통함과 원한으로 갈가리 찢기는듯싶었다. 입술을 옥문 그의 두눈도 증오의 피발로 뒤덮였다.

석오측은 소름이 끼쳐 진저리를 쳤다.

운주서촌뿐아니라 온 중국땅이 이 치떨리는 만행들을 지켜보고있는듯싶었다.

모주석과 공산당의 령도아래 모진 고생과 난관을 이겨내며 왜놈들과 싸워이긴 민족의 훌륭한 아들들이 한줌도 못되는 민족반역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고하게 생을 끊기운 그 원한과 분노는 천추만대를 두고 잊혀지지도 씻어지지도 않을것이다.

털보 장전보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금 물었다.

《류호란, 말할테냐?》

호란은 또박또박 씹어 내뱉았다.

《죽어도, 죽어도 안할테다.》

작두옆에 이제는 류호란 혼자뿐이였다.

작두틀과 받침돌이 더운 피에 젖어 시뻘겋게 물들었다.

작두날도 닳아 무디여졌다.

사람잡이에 기운이 진했는지 후줄근하게 서있는 사형집행놈들은 서리찬 호란의 기상앞에 비실비실 뒤로 움츠리였다.

사형장 한복판에 강철의 거인인양 류호란이 우뚝 서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차마 볼수 없어 얼굴들을 외로 틀었다.

호란은 따뜻한 눈길을 천천히 옮기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녀동생의 얼굴들을 찾아 더듬었다.

그리고 또 낯익은 마을사람들의 그 모든 얼굴마다에서 한동안씩 눈길을 멈추었다.

마치 그의 눈은 이젠 헤여지자고, 그러나 절대로 슬퍼말고 락심말며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어달라고 절절히 당부하는듯 하였다.

마을사람들에게서 눈길을 거둔 류호란은 놈들을 맞받아 당당하게 물었다.

《날 어떻게 죽이지?》

놈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털보의 낯짝은 푸들푸들 경련이 일었다.

《작두로 목을 자르겠다.》

순간 쌓여오던 분격이 폭발하려는듯 군중의 기세가 험악해졌다.

장전보는 사람들의 기세에 간이 떨려 겁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기관총을 가져와. 이 〈새끼연안〉놈들을 몽땅 죽여라. 깡그리 없애버려.》

호란이가 한걸음 썩 나서서 리성잃은 놈들을 제지시켰다.

《죽이겠으면 날 죽여라. 사람들은 다치지 말아.》

호란은 얼굴에 드리운 머리칼을 뒤로 제끼고 추호의 동요없이 6명 동지들의 유해가 널려져있는 곳을 지나 한자욱 또 한자욱 붉은피로 얼룩진 시꺼먼 작두앞으로 다가갔다.

거의 작두앞에 이르자 그는 려량산쪽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마음은 지금 작은 매가 되여 연안으로 훨훨 날아가고있었다.

그곳에는 그토록 뵙고싶었으나 한번도 뵙지 못한 자애로운분 모주석께서 계시였다.

또 그곳에는 호란이가 간절히 바라고 념원하던 새 생활,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펼쳐져있었다.

이제 겨우 15살! 살아온 나이보다 살아야 할 나이가 더

많은 그였다. 겪어온 고생과 시련보다 누리게 될 행복과 락이 더욱더 많이 차례질 나이였다.

호란은 분통했다. 여기서 생을 마친다고 생각하니 원한으로 피가 끓고 심장이 터지는것 같았다.

살고싶었다.

살아서 이 땅우에 기운차게 일떠서는 새세상을 꼭 보고싶었고 그 세상에서 다문 하루 아니 반나절이라도 살고싶었다.

호란은 뒤돌아서서 쩍 벌린 괴물의 아가리속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놈들은 얼어붙어버렸고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울음판을 펼쳤다.

호란은 태연히 미소를 지었다.

《자, 어서 잘라라. 백정놈들아.》

석오측놈이 흉악하게 낯짝을 찡그리며 호란의 머리우에 들려진 작두날우에 발을 올려놓았다.

생명의 마지막시각 류호란은 온몸으로 있는 힘을 다해 웨쳤다.

《중국공산당 만세!》

《모주석 만세!》…

나어린 류호란!

중화민족이 낳은 우수한 딸이며 중국공산당이 키운 참된 당원인 그는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휘황한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이렇게 바쳤다.

려량산의 푸른 소나무는 얼마나 기개높고 대바른가, 용용한 분하는 밤낮을 잊고 얼마나 줄기차게 멀리로 흐르는가.

류호란은 려량산의 청송이고 분하의 도도한 흐름이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않을 청춘으로 남아있고 그의 혁명정신은 대를 이어 두고두고 후대들의 가슴속에 살

아 그들을 고무하고 추동하며 새로운 투쟁에로 떠밀어 줄것이다.

1947년 1월 30일, 류호란이 희생된지 18일째 되는 날 중국인민해방군 제2독립려단은 파죽지세로 문수현 평원일대를 공격하여 해방하였다.

이날 70여명의 지휘관대표들이 가슴을 에이는 비분의 심정을 안고 운주서촌을 찾아왔으며 류호란을 비롯한 7명의 렬사들이 희생된 곳에서 추도식을 가지였다.

그들의 손들에는 선렬들의 피가 진하게 슴배인 흙이 소중히 들려져있었다.

그들모두는 그 흙을 심장에 대고 엄숙히 선서했다.

《장개석을 타도하고 전중국을 해방하자!》

《류호란렬사의 피값을 받아내자!》

《렬사들의 복수를 천백배로 하자!》

지휘관들은 손에 들었던 흙을 가지고 부대로 되돌아가 병사들에게 류호란렬사의 영웅적인 희생을 들려주었다.

듣는 병사마다 복수의 피를 펄펄 끓이였다.

《전체 문수현을 해방하자! 중국을 해방하자!》

이것이 주먹을 불끈 틀어쥔 해방군전사와 지휘관모두의 바위도 녹일 불타는 맹세였다.

2월 2일, 문수현전체를 해방하기 위한 공격이 개시되였다.

해방군은 전투과정에 대상진《복수대》대장질을 하던 려덕방놈과 215사단 1대대 대대장놈을 격살했으며 7명의 렬사들을 학살하는데 관여했던 살인자들을 모두 체포처단하였다.

반동지주 석정박이는 붙잡혀 감옥에서 더러운 목숨을 끊었으며 련대장 허덕승, 특파원 장전보놈은 변절자 석오측과 함께 해방후 군중의 신고에 의해 붙잡혀 인민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1947년 8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류호란을 중국공산당 당원의 모범으로 정식 결정하였다.

모주석은 친히 류호란렬사의 묘비석에 《위대한 삶, 값높은 희생》이라는 글발을 남기여 그의 짧은 한생을 값높이 평가하였다.

류호란렬사를 따라배우려는 운동이 온 나라에서 힘차게 벌어졌으며 줄기차게 흐르는 분하물결마냥 끊임없이 이어져내려왔다.

류호란의 영웅적인 모습은 온 중국이 알고 수억만의 심장속에 비석글마냥 깊이 새겨졌으며 그를 추억하는 기념관이 고향마을 운주서촌에 세워졌다.

참관자들의 대렬이 그칠줄 모르는 류호란렬사기념관은 중국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있어서 계급교양,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의 훌륭한 교실로 되였다.

《류호란의 뒤를 이어 영웅촌을 건설하자!》

이것은 려량산과 문수현뿐아니라 중국땅 방방곡곡에 울려퍼지는 구호로 되였으며 청년들은 앞을 다투어 대자연과의 싸움에 나섰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용약 진출하여 새 중국의 설계도를 현실로 완성해나갔다.

류호란의 넋은 오늘도 믿음직하게 자라는 혁명의 후계자들의 심장속에, 모주석의 령도를 받들어 더욱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기세높이 전진하는 새 중국의 기억속에 살아 돌격의 기발이 되여 휘날리고있다.

외국중편소설집

류 호 란

저　자 해소, 진청　역 자 김기범
편　집 박성보　장 정 박철남
편　성 정향애　교 정 오향선

냰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0(2011)년 1월 2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1월 30일

ㄱ－06644ㄴ　값 150원